

부평의 문화와 예술

제 2 권



일러두기

1. 편찬 기본방향

- 이 책은 부평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집대성한 기록이다.
- 이번 편찬에서는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제별로 총 8권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부평 지역의 근현대사를 대폭적으로 추가하였다.
- 또한 부평구 내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반환을 계기로, 그 전신인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밝혀낸 권으로 편성하였다.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기

- 서술 대상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분구하기 이전의 계양구, 서구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서술 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19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20년 이후의 내용도 수록하였다.

3. 본문서술

-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를 쓰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표기하였다.
 - 구술 증언자료의 경우 증언자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 그 밖의 세부적인 집필방법은 국립국어원, 학회, 국책연구기관 등의 집필요령을 반영한 집필요강에 따랐으며, 집필에 통일성을 기했다.
 - 각 권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설을 작성하였고, 각 장마다 필요에 따라 들어가는 말과 마무리 글을 배치하였다.
-



목차

총설

제1장 축제 한마당 : 부평 지역의 두레놀이와 축제

제1절 _ 두레란?	022
1. 두레짜기	
2. 기세배	
3. 호미씻이	
제2절 _ 부평 지역의 두레놀이	026
1. 부평두레놀이	
2. 서곶 들노래	
3. 부천 석천농기교두마리놀이	
4. 김포 통진두레놀이	
제3절 _ 부평 풍물대축제	048
1. 탄생의 배경	
2. 부평풍물대축제의 역사	
3.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	
4. 부평풍물대축제의 기본 구성	
5. 축제를 통해 뿌리를 찾은 부평두레놀이(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제4절 _ 부평의 다른 축제	062
1. 지역과 소통하는 마을 축제	
2. 부평구문화재단 축제	
3. 부평문화원의 축제	
4. 부평구 '부평평생학습축제'	

제 2 장 부평 사람들의 삶과 민속

제1절 _ 한국 최초 천일염 생산지, 십정동 주안염전 1호	084
1. 한국 최초 천일염 시험장	
2. 주안염전의 시설과 소금 생산	
제2절 _ 부평 평야와 농업	094
1. 부평수리조합과 농업의 변화	
2. 부평 지역 농업 문화	
제3절 _ 토굴(지하호)과 새우젓	108
제4절 _ 인천 대표 막걸리, 소성주	112
제5절 _ 주거와 생활문화	123
1. 일제시기 노동자 사택	
2. 1960년대 신촌의 주거 문화	
3. 1970년대 청천동 국민주택	
4. 십정동 달동네	
5. 화랑농장과 주택	
제6절 _ 종교 생활	164
1. 부평 최초의 천주교, 부평2동 본당	
2. 부평감리교회	
3. 부평신촌성결교회	
4. 어린이 교회 '부평삼능교회', 출소 여성을 위한 '첫 새벽의 집'	
5. 70년을 넘게 이어온 사찰, 호명사	
6. 무속	
7. 인천가족공원과 장례문화	

제 3 장 부평골목 120장면 +1 추억을 지나 '역사'로 가는 마을 골목

제 4 장 인물로 보는 부평의 대중음악

제1절 _ 에스컴 시티(ASCOM CITY)와 음악 도시 부평	286
제2절 _ 두드리는 여자 드러머, 김삼순	288
제3절 _ 묵묵하게 한길로 걸어온 베이시스트 한광오	296
제4절 _ 영혼으로 연주하다, '락캠프'의 터줏대감 정유천	300
제5절 _ 부평에서 태어나 운명처럼 음악을 만난 구창모	310
제6절 _ 재즈의 성지 '버팀라인'의 대표 허정선	313
제7절 _ 부평 창작 음악의 현재와 미래 : '예술숲'의 김면지 대표	317
제8절 _ 음악 도시 부평의 정체성 찾기	319

제 5 장 부평의 극장, 극장의 부평 - 부평의 극장 문화사

제1절 _ 극장의 존재론	326
1. 고대 그리스 극장의 존재론	
2. 20세기 이후 극장의 사회적 역할	
제2절 _ 부평의 극장 탄생의 역사	328
1. 「시네마 천국」 vs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2. 부평극장에서 「미션」을 본 한 젊은이	
3. 타임머신을 타고 옛 부평으로	
4. 병참기지 부평, 영화 수난기의 조선	
5. 최초의 상설 극장 부평영화극장	
6. 해방 이후 부평영화극장에서 부평극장으로	
7. 극장 간판 그리던 서양화가 이득찬	
제3절 _ 부평의 대표 극장들 : 부평, 금성, 백마, 대한	348
1. 부평극장 (1943~2000년대 초)	
2. 금성극장 (1963~1996)	
3. 백마극장 (1963~1991)	

4. 대한극장 (1963년~현재)

제4절 _ 멀티플렉스의 등장 361

제5절 _ 극장 속의 부평 363

제 6 장 부평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프리즘 - 부평의 문학과 스토리 콘텐츠

제1절 _ 인문 공간으로서 부평 380

제2절 _ 전통 시대의 부평 문학 387

제3절 _ 부평 조병창을 통해 해방이라는 실체를 한눈에 보여준 「해방공장」 391

제4절 _ 별스런 세상, 부평 에스컴 미군 부대 395

제5절 _ 마이너리티 부평, 마이너리티 한하운 402

제6절 _ 부평, 노동문학의 산실이 되다 408

제7절 _ 부평, 새로운 스토리 콘텐츠로 탄생하기 위하여 418

제 7 장 부평의 노동문화 : 노동미술, 노동가요, 노동시

제1절 _ 노동운동의 중심지 부평 426

1. 산업화 이전 군사도시로서 부평
2. 산업화 시기 부평산업공단과 노동자의 삶
3. 부평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제2절 _ 부평의 노동을 그리다(노동미술) 436

1. 노동미술의 형성과 발전
2. 부평 노동미술과 그림쟁이들
3. 부평 노동미술의 새로운 변화와 고민

제3절 _ 노동운동 노래의 산실 부평(노동가요) 444

1. 70~80년대 노동운동과 노래
2. 부평의 노동을 노래한 가수들
3. 부평 솔아 솔아 음악제

제4절 _ 부평의 노동자와 노동시(노동시인) 453

1. 시에 새겨진 부평 노동자의 삶
2. 부평을 새긴 노동시인
3. 부평에 살아있는 노동자와 시

제 8 장 부평의 설화 470

1. 수십 번 쓰러진 중심성 사적비
2. 나그네를 희롱한 계양산 불여우
3. 계양산의 장시굴
4. 굴포천과 원티고개
5. 사또와 경명현의 도둑 두목
6. 계양산 부싯돌
7. 원적산의 호랑이굴
8. 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
9. 새신랑이 호랑이에게 잡혀먹다
10. 십정동 대장바위
11. 코박굴 코바위
12. 우물을 파지 못한 항굴 마을
13. 계양산에 온 총렬왕과 제국공주
14. 온천을 메워 버리다
15. 향교의 위패를 감추다
16. 천마와 아기장수
17. 안아지고개개의 도둑
18. 구렁이를 쓰다
19. 신비한 절터

총설



정 언 학(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제2권 부평의 문화와 예술은 당초 8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민속, 골목문화, 대중음악, 극장과 영화, 문학, 노동문화, 설화, 축제(두레 포함) 등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구성하였으며, 집필자별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집필자	세부내용
정언학	축제 한마당 / 부평 사람들의 삶과 민속
유동현	추억을 지나 '역사'로 가는 마을 골목
장유정	인물로 보는 부평의 대중음악
한재연	부평의 극장, 극장의 부평
이현식	부평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프리즘
송용한	부평의 노동문화
이원규	부평의 설화

“축제 한마당”은 부평지역의 두레놀이와 풍물을 비롯한 축제를 다루고 있다. 두레는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이며, 품앗이

와 달리 각 호마다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또한 두레는 상부상조의 유구한 전통을 지녀오면서 풍물, 민요 등으로 대표되는 농민문화의 핵심이 되어 왔다. 부평 지역 역시 예로부터 뛰어난 미곡생산지대로서 각 마을에 두레가 있었으나, 일찍이 두레가 소멸해버린 지역이 많은 탓에 분명한 실체를 규명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다행히 부평의 풍물축제는 부평의 옛 모습을 재현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1997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삼산두레농악의 발생지인 삼산동을 비롯해 부평구 22개 동 풍물단이 참여하고 있다.

부평의 두레놀이를 추적할 때, 공간적 범위를 현재의 부평구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 부평은 광활한 지역으로 지금의 부평구를 비롯해 부천시, 계양구, 서구, 구로구와 강서구 일부를 모두 아울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평구의 ‘부평두레놀이’(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 2015년 지정)를 비롯하여, 서구의 ‘서곶돌노래’(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2008년 지정), 부천시의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부천시 향토문화재 제5호, 2016년 지정), ‘김포통진두레놀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1998년 지정) 등을 부평 두레의 범주에 넣어 살펴보았다.

‘부평풍물대축제’는 1997년 9월 30일 처음 시작하여 2020년 현재, 어느덧 24주년을 맞이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20주년을 넘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평풍물대축제는 4년을 더 지나왔다. 이 글에서는 부평풍물대축제의 연혁과 축제 전야제, 고유제, 공연, 거리축제,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부평전국국악경연대회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부평구문화재단 및 부평문화원, 22개 행정동 그리고 여러 복지단체가 주제별로 개최하는 다양한 모습의 축제 등도 함께 다루어 부평 지역 축제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부평 사람들의 삶과 민속”은 부평 사람들의 생업(염업·농업·지하호와 새우젓·소성주), 주거와 생활문화, 종교 등 현재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염업과 관련해서는 한국 최초의 천일제염 시험장인 주안염전(1907년 축조한 최초 관영염전)이 십정동에 위치하였음을 알렸다. 또한 주안염전의 시설과 소금생산, 십정동 성(成)씨와 염부장 직무, 주안염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추억을 현지조사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농업은 부평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업이었다. 부평평야는 과거 천수답(天水畓)으로 일제시기 부평수리조합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축조하여 농업생산량을 증대하였다. 그러나 부평수리조합의 창립은 지주제를 확립하고, 특히 부재지주(不在地主)의 증가로 소작농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소작료는 농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부평의 논농사와 밭농사 실태를 정리하였고, 십정동·삼산동·효성동 지역의 사례도 소개하였다.

산곡동 함방산 자락과 화랑농장 일대에는 24개의 지하호가 분포해 있다.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일제시기에 군사시설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광복 이후 부평 지하호는 본래의 용도보다는 새우젓 등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새우젓·황석어젓 등의 젓갈을 저장하였으며, 소래포구 어촌계와 젓갈상인회는 최소 40여 년 이상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7개 지하호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약 7,000드럼 정도의 젓갈을 보관할 수 있다.

청천동에 소재한 인천탁주 합동회사는 1974년 정부의 1지역 1탁주공장 정책에 의해 인천 11개 양조회사가 모여 만든 회사다. 소성주는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로 1993년부터는 일본, 미국 등지로 수출을 시작하였다. 글에서는 소성주 제작 과정, 시대에 따른 막걸리 재료, 막걸리 용기의 고급화, 막걸리와 세금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거민속은 일제시기 영단주택, 검정사택, 미쓰비시(삼릉) 출사택, 다다구미(평화촌), 철도관사, 자동차 사택, 노동자 사택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특히 영단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밖에 1960년대 미군부대와 윤락여성의 생활모습을 신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고, 1970년대 청천동 국민주택, 2000년대 십정동 달동네 생활모습의 실상을 정리하였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부평을 대표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비롯해 무속 관련 생활상을 살펴보았고, 장례풍속과 관련해서는 부평2동 인천가족공원의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골목은 집, 학교, 고개, 시장, 개천, 공원 등을 이어주는 오래된 길이자 그 자체가 도시의 나이테이다. “추억을 지나 ‘역사’로 가는 마을 골목”은 부평구 골목 사이사이의 현

장을 누비면서 부평 사람들의 삶과 추억을 사진을 통해 잔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가령 청천동의 누군가가 간단하게 지어놓은 2층 다락방을 보며 “식구가 늘면 칸을 나누고 그것도 모자라면 지붕 위에 다락방을 세웠다. 아무리 누추하고 낡았어도 우리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주’였다”라는 표현은 깊은 추억에 잠기게 한다. 산곡동 영단주택 골목길에 대해서는 “끝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골목길이 기다랗다. 두부를 자른 것처럼 반듯한 골목에 집들이 빈틈없이 일렬로 도열해 있다. 일제는 군수기지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위해 다섯 가지 표준형 집단주택을 설계했다. 말이 주택이지 수용소와 다름없었다. 이쪽 집에서 얘기하는 말소리가 저 끝 집에도 다 들렸다. 고양이하고 쥐들이 통으로 연결된 천장에서 운동장처럼 뛰어놀았다. 좁고 긴 골목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불현듯 이른 새벽 군복 같은 작업복에 각반을 찬 수많은 노동자들이 ‘벤또’를 하나씩 들고 군수공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오버랩된다”며 골목길 위에 지난날의 아픔을 살포시 새겨놓기도 하였다. 전체 내용을 읽고나면 마치 부평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에스컴(ASCOM, Army Support Command)이 자리 잡은 부평은 음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1945년 9월부터 미군이 부평에 주둔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8년 3월 12일에 클럽 ‘아카다’이 부평 에스컴 시티에 처음 문을 열기도 하였다. 에스컴을 통해 미국에서 유행하던 음악과 문화가 소개되고, 부평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문화에 노출되었다. 부평과 관련된 음악인으로 김재덕(서울패밀리의 리더), 차경수(차차차 오남매), 김청산(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멤버), 이철호(사랑과 평화 보컬), 차영수(전 클러바더스 악단의 리더), 김진호(전 예그린 음악학원장), 안기승(Top Steps), 조광진, 강오식, 이승재, 최성수, 유심초, 백영규, 이훈만, 홍수철, 신지(코요태), 박기영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으나 이관섭 선생과 황준근 선생도 기억해야 할 부평의 음악인들이다. “인물로 보는 부평의 대중음악”은 부평에서 태어나 부평에서 활동했거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김삼순, 한광오, 정유천, 구창모, 허정선, 김면지 등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그들의 삶과 음악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부평 출신 음악인들을 개괄하였다.

극장은 익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자 모여서 개인의 내면 속으로 가라앉는 공간이기도 하다. 극장은 단지 영화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광장 역할을 한다. 한데 어울려 노는 공간이자 서로의 근황을 파악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맞선을 보지 않아도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아 짝을 맺는 공간이자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 수업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극장은 일상의 남루함과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휴식과 상상의 공간이다.

“부평의 극장, 극장의 부평”에서는 이러한 극장이라는 공간의 역사·문화적 변화를 부평 지역과 함께 다루었다. 부평 최초의 상설 극장인 ‘부평영화극장’을 비롯하여 해방 이후 개관한 금성, 백마, 대한 등 지역 대표 극장이 지닌 의미를 되짚어보았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극장의 개성을 보여주는 간판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특히, 스크린 속에 등장하는 부평의 모습을 조명하며 그 발자취를 곱씹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였다.

부평의 문학과 스토리 콘텐츠를 정리한 “부평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프리즘”에서는 부평지역의 문학에 대해서 문학작품의 공간의 주요 배경으로 부평이 등장하는 것, 부평에서 만들어진 문학이라고 사전에 정의를 내린 후 시대별 부평의 문학을 살펴보았다. 전통시대의 부평문학으로는 고려시대 계양도호부 부사를 지낸 이규보(李奎報, 1168~1241) 관련 부평 시, 일제시기 조병창 노동자의 삶을 다룬 이규원의 「해방공장」(1948년 9월 『우리문학』 10호에 실린 단편소설), 부평 에스컴(ASCOM)의 양공주와 범죄를 다룬 신상옥 감독의 영화 「지옥화(地獄花)」, 부평에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다룬 하인즈 인수 펜클(Heinz Insu Fenkl, 1960~)의 미국소설 『고스트 브라더』, 부평 미군 부대가 실제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원규의 일련의 소설들, 「보리피리」와 「과랑새」로 유명한 ‘문둥이 시인’ 한하운(韓何雲, 1921~1975)의 작품, 1980년대 부평에서 꽃을 피운 노동문학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간 부평구에서 추진한 ‘부평음악·융합도시조성사업’의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뮤지컬 등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부평의 노동문화”는 부평에 산업공단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문화에 중점을 두었다. 부평의 노동문화는 부평산업공단의 공장 안과 공장 밖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공장 밖은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된 노동자 주거지역인 삼릉을 비롯해 미군부대 주변 지역인 산곡동, 청천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평공단 주변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노동자 주거지역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1970~1980년대 인천 부평 지역은 구로공단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 세력들의 집결지로 대학생들이 위장취업을 하고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 문화의 산실 역할을 했다. 이는 부평의 노동문화가 한국의 노동운동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맥을 같이 하며, 한국 사회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글은 노동운동의 중심지로서 부평의 노동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부평의 다양한 노동문화 중 노동미술, 노동가요, 노동시를 중심으로 군사독재를 통한 억압적 산업화시기에 부평의 노동문화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노동문화를 통해 노동자의 삶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사회 변화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현재 노동문화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등을 통찰하고 있다.

“부평의 설화”는 그동안 『인천지지』(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지회, 1987)와 『인천지방향토사담』(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0)에 수록된 것 중 재 윤문한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뽑아 실었다. 설화의 주제는 총 19개이며, 그 내용은 (1)수십 번 쓰러진 중심성 사적비, (2)나그네를 희롱한 계양산 불여우, (3)계양산의 장사굴, (4)굴포천과 원티고개, (5)사또와 경명현의 도둑 두목, (6)계양산 부싷돌, (7)원적산의 호랑이굴, (8)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 (9)새신랑이 호랑이에게 잡혀먹다, (10)십정동 대장바위, (11)코박굴 코바위, (12)물을 파지 못한 항굴 마을, (13)계양산에 온 충렬왕과 제국공주, (14)온천을 메워 버리다, (15)향교의 위패를 감추다, (16)천마와 아기장수, (17)안아지고개의 도둑, (18)구렁이를 쏘다, (19)신비한 절터 등이다.



제 1 장

축제 한마당 : 부평 지역의 두레놀이와 축제

제1절 _ 두레란?

제2절 _ 부평 지역의 두레놀이

제3절 _ 부평풍물대축제

제4절 _ 부평의 다른 축제

제1장 축제 한마당 : 부평 지역의 두레놀이와 축제



정 연 학(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두레는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널리 퍼지면서 보급되었는데, 농민 문화의 풍물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두레싸움·두레밥·두리기·두레기·두레놀이·세시풍속이 생겨났으며, 소농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레가 조직되어 마을 제의 및 공동노동·공동 놀이로서 발전하여 공동 노동의 진취성과 농민들의 자주적 성격이 매우 강한 긍정적인 조직이었으며, 한국사회의 상부상조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았다.

주로 논·밭의 모내기·김매기 때와 같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집중해서 투입해야 할 때 두레가 이루어졌다. 결국 두레는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이며, 품앗이와 달리 각 호마다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또한 두레는 상부상조의 유구한 전통을 지녀오면서 풍물, 민요 등으로 대표되는 농민 문화의 핵심이 되어 왔다.

부평 지역 역시 예로부터 뛰어난 미곡생산지대로서 각 마을에 두레가 있었으나, 일찍이 두레가 소멸해버린 지역이 많은 탓에 분명한 실체를 규명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다행히 부평의 풍물축제는 부평의 옛 모습을 재현하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 1997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삼산두레농악의 발생지인 삼산동을 비롯해 부평구 22개 동 풍물단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부평풍물대축제에는 23회를 맞이할 정도로 줄곧 이어져 왔으며, 이런 성과에 힘입어 ‘부평두레놀이’는 2014년 인천 무형문화재 26호로 지정되었다.

과거 부평의 두레놀이 추적을 현재의 부평구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평 지역은 과거 광활한 지역으로 지금의 부평구를 비롯해 부천시, 계양구, 서구, 구로구와 강서구 일부가 모두 포함되었다.¹ 그러나 1914년 조선총독부 칙령 제7호에 의하여 1914년 부평군이 해체되고 부천군이 설치되어 부평은 부내면에 편입되었고, 1940년 부내면은 다시 인천부 관할에 두었다. 부평은 1968년 1월 1일 경기도 인천시 북구(北區)에 편입되었다가 1981년 7월 1일 인천직할시 북구가 되었다. 그런데 북구는 1988년 1월 1일 부평의 검암동, 연희동 등이 서구로 분구되고, 1995년 3월 1일 북구를 부평구로 개칭하면서는 부평구의 일부가 또 다시 계양구 분구가 되었다.

이처럼 부평은 1914년 이후 분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부평 두레놀이 조사의 공간적 범위를 부천시, 계양구, 서구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부평사(富平史)』, 『부평향토사(富平鄉土史)』, 『계양사(桂陽史)』, 『서구향토지(西區鄉土誌)』, 『부천시사(富川市史)』,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 등에서 부평의 두레를 엿볼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 현 계양구 지역인 부천군 계양면(동면, 황어면, 당산면)의 두레계와 농기싸움, 농기 형태 등이 나타나고, 현 서구 지역(석곶면, 모월곶면)에서는 서곶 들노래, 현 부천시인 부천군 오정면(주화곶면, 상오정면, 하오정면), 계남면(석천면, 옥산면)에서는 농기고두마리, 중리풍물놀이가 나타난다.

과거 부평 지역의 두레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는데, 부평구의 ‘부평 두레놀이’(인천 무형문화재 31호, 2014), 서구의 ‘서곶 들노래’(인천광역시 지정 제18호, 2012), 부천시의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부천시 향토문화재 제5호, 2016), ‘김포 통진두

¹ 임용기, 「조선지리지자료와 부평의 지명」, 『기전문화연구』24,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96, 159쪽; 조찬석, 「옛 부평 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조사연구」, 『기전문화연구』27,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99, 107~216쪽; 조찬석,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연구」, 『기전문화연구』29-30,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03, 1~123쪽.

레놀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1998)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평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두레놀이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레놀이를 부평 두레의 범주에 넣었다.

| 제1절 | 두레란?

두레는 마을 공동 노동조직으로, 정월 초에 일 년 농사 계획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이것을 ‘두레짜기’라고 하는데, 두레꾼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좌상’이 주도하며 주로 조직의 역원 선출이나 두레 조직과 농사의 순서, 자금 마련 방법, 악기 보수 및 구입 등을 결정한다. 또한 이때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여 노동력을 충당하였고, 개개인의 땅을 하나의 경작지로 생각하여 공동으로 노동하고, 과부나 노약자만 있는 집의 경우에 무상으로 경작해 주었다. 또한 결립(乞粒 :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려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해서 얻어진 자금은 공금으로 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성원 간에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풍물놀이를 하였다. 두레패는 모내기, 논매기뿐만 아니라 장마에 유실된 마을 길을 닦고, 겨울에는 마을 길에 쌓인 눈 치우기 등을 행했다. 또한 마을의 굿과 제사, 고사 등을 치렀다. 결국 마을의 두레패는 마을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구인 셈이다. 집집마다 한 사람은 두레패의 회원에 속하였으므로 마을에서 행해지는 각종 대사를 가정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두레짜기

두레짜기는 지역에 따라 김매기모임·김매기회의·두레공론·질짜기 등으로 달리 부르는데, 경기 지역에서는 김매기모임 또는 회의라고 부른 것은 두레의 목적 가운데 김매기가 가장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내기와 달리 김매기는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이다. 두레패의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풍물의 소리가 더해져 노동의 시름을 덜었는데, 현재 두레소리 연회는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것이다.

논농사가 시작되면 두레패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모내기와 김매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통상 풍물이 앞장서서 두레패를 이끌었다. 그런데 두레는 마을마다 결성되다 보니 이웃 마을과 경작지가 중복되는 경우 많았고, 마을의 두레패가 서로 마주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 아우 농기를 들은 마을의 두레패는 형님 농기를 든 마을에 기를 숙여 예를 갖추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통상 형님과 아우의 구별은 마을 형성 과정과 입향 주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만약 아우 농기가 형님 농기에게 예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기싸움의 승패는 농기 위에 달린 ‘뽕작목’을 먼저 차지하는 쪽이 이기는 것인데, 이때 두레패 사이에 몸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기싸움은 농기뽕기라고 달리 말하기도 한다.

2. 기세배

설, 추석 등 명절에는 ‘기세배(旗歲拜)’라는 풍속이 이루어졌다. 이웃 마을의 두레꾼들이 한곳에 모이거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일 년 농사를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고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풍속이다. 주로 서열이 낮은 마을이 서열이 높은 마을로 찾아가서 기로써 세배를 올리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두레패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기싸움이 일어난다. 결국, 기세배가 상대 마을의 두레 권위를 인정하여 예의를 갖추는 행위라면 기싸움은 상대 마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두레싸움이다. 그러나 기싸움으로 인하여 이웃 마을 간에 교류가 단절되는 일은 없다. 기세배와 기싸움은 농촌에서 마을 간에 공동체 생활의 연대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마을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한다. 농기싸움은 현재 공연으로 재연되어 대중들에게 연회되고 있는데, 부천의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가 그러하다.

두레패에게 중요한 것이 ‘농기’이다. 농기는 ‘농신기’라고도 불리며, 농업신을 기폭

에 그려 넣은 신성한 깃발이다. 농기의 기폭에는 수신(水神)인 청룡과 거북이, 물고기 등이 그려져 있는데, 용기(龍旗)·용신기(龍神旗) 등으로 불리기도 한 것을 보면 용이 그림의 주축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농기는 마을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장식한다. 보통 비싼 광목을 사용하였으며, 장대는 5m 이상 되는 대나무를 사용하고 끝에는 ‘핑장목’을 달았다. 핑장목은 장목·핑목으로 불리며, 그 아래는 ‘총을치’로 장식하였다. 총을치란 칩을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을 가는 실처럼 갈가리 찢은 다음 붉은 물을 들여서 장목 바로 밑에 매단 것을 말한다. 총을치 아래에는 장목수건·깃 수건이라고 하는 흰 수건을 매달았다. 기폭 둘레에는 ‘지네발’을 장식하여 바람에 너풀거리도록 하였다.

농기는 농업신의 신체이며 마을의 권위와 비례하였다. 농악대가 행진할 때 가장 앞세우며, 농사일을 할 때에는 마을 입구에 세워 놓아 마을 기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농신기가 이동할 때에는 기의 양쪽에서 2명의 보조원이 깃대에 연결된 끈을 잡아 깃대잡이를 도왔다. 깃대잡이가 깃대의 중심을 잡도록 보조원이 끈으로 조정하였다. 농기는 정월 대보름 고사나 7월 백중절(음력 7월 15일) 호미씻이 의례를 거행할 때에 반드시 등장하고, 농민들은 농기 앞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예를 갖추는 자세를 취하였다. 농민들은 농기를 소중하게 관리하였으며, 깃대에서 기를 떼어 별도로 보관할 경우 장대는 큰 집 사랑의 처마 밑에 걸어 두었다.

3. 호미씻이

두레 의례에서 중요한 것이 칠월 백중에 행하는 ‘호미씻이’, ‘호미걸이’이다. 호미씻이는 ‘호미를 씻는다’는 의미이고, 호미걸이는 ‘씻은 호미를 걸어 둔다’는 뜻이다. 결국 호미씻이는 논농사의 마지막 김매기를 마친 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하루를 먹고 노는 잔치이자 의례이다. 통상 호미로 하는 김매기는 여성의 일로 여기지만, 백중 때 사용하는 논호미는 밭호미보다 2배 이상 커서 힘센 남성들만 다룰 수 있다. 이를 통해 논 김매기는 남자, 밭은 여자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호미씻이는 조선 중기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전라도 해남에 살았던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의 『석천선생시집(石川先生詩集)』에 ‘세서(洗鋤)’라는 시는 호미씻이에 대한 초기의 기록이다. 그밖에 장유(張維, 1587~1638)의 『계곡집(谿谷集)』에도 ‘세서’라는 시가 실려 있고, 유중림(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에는 ‘세서회(洗鋤會)’, 우하영(禹夏永)의 『천일록(千一錄)』(1777~1800)에는 ‘세서연(洗鋤宴)’이라는 이름으로 호미씻이 잔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증보산림경제』와 『천일록』에 호미씻이가 등장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호미씻이가 일반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가 17~18세기에 이앙법과 도맥(稻麥) 2작 체제가 일반화되고,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논 면적이 늘어나면서 호미씻이가 일반화되었다. 이앙법으로 제초 작업에는 노동력이 절감되었으나, 새로운 농작업으로 부각된 모내기(插秧)는 집약적인 노동력을 요구하였다. 특히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던 상태에서 진행된 모내기와 논매기는 두레와 같은 집약적인 공동 협업 노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모내기를 위하여 두레가 결성되니, 모내기 때의 여세를 몰아서 논매기까지도 마을 단위 공동노동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년 중 논매기 작업을 마친 후에, 마을 단위 공동 협업 노동을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농민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쉬는 형태의 호미씻이가 일반화된 것이다.

호미씻이 잔치의 모임 장소는 강변이나 개울가의 그늘 또는 마을 주변의 그늘진 곳이었다. 호미씻이를 하러 나갈 때는 집집마다 성의껏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갔다. 대체로 부잣집에서 더 풍성하게 마련하는 게 관례였다. 참여한 사람들은 온종일 먹고 마시며, 풍물을 치고 춤을 추면서 놀았다. 머슴이 많은 마을에서는 호미씻이의 주축이 머슴들이었다. 머슴들은 주인집에서 만들어 준 음식과 술을 가지고 나가서 은근히 과시하면서 흥겹게 놀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집마다 마련해 준 음식을 늘어놓고 머슴들 스스로 품평회를 하기도 했다. 주인집에서 많은 음식을 제공받은 머슴은 주인한테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제공된 음식물로 주인의 인심이 얼마나 후한가도 헤아려졌다.

그런가 하면, 예부터 머슴들이 별로 없던 마을 그리고 과거에 머슴들이 많았던 마을이라 해도 신분제가 해체된 후의 농촌에서는, 호미씻이를 할 때 집집마다 농민들이 성의

껏 음식물을 마련하여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을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아무런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호미씻이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호미씻이는 머슴들에게 베푸는 잔치이며, 머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긍정적 자극을 주는 의례였다.

제2절 | 부평 지역의 두레놀이

1. 부평두레놀이

『계양사』(인천광역시 계양구, 2001)에 따르면, 부평의 두레는 마을 호수가 50호 이상 되는 곳이라면 으레 조직되었다고 한다. 특히 광무 원년인 1897년부터 1915년도 사이에 왕성히 조직되었는데, 세벌 김매기가 끝나면 먼 단위로 농악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부평의 두레는 1940년경 사라졌다. 그런데 삼산 두레의 시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농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농기에는 단기 4224년(1891)이 적혀 있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으며, 흰색 천에 ‘農者天下之大本也’라는 글이 적혀 있고 붉은색으로 사면을 장식하였다. 현재 이 농기는 부평역사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 삼산 두레(출처 : 부평구청)

부평두레놀이는 삼산동의 풍물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² 삼산동은 대한제국 부평군 서면 후정리(後井里)로 『호구총수』(1789)에 그 지명이 나온다. 삼산동은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폐합에 따라 부천군 부내면,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며 일본식 정명(町名)으로 삼립정(三笠町)이 되었다. 삼립정은 해방 후 일본식 동명을 개정함에 따라 삼산동(三山洞)으로 바뀌었다. 삼산동은 1955년 갈산동으로 흡수, 합병되었으나, 1992년 갈산동에서 삼산동이 다시 분리되어 인천직할시 북구 삼산동이 되었다. 삼산동인 후정리와 영성리에서는 해방 이후에도 부평 내 유일하게 두레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과거 농경지였던 부평 일대가 일제에 의하여 거의 공업지대로 바뀌었지만, 삼산동만 논농사 경작지였기 때문이다.

2 김혜정, 「인천 부평 삼산 농악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 『우리춤연구』19, 2006, 209~237쪽; 부평문화원, 「부평 풍물(두레) 자료집」, 부평문화원, 2012.

삼산은 간재, 건은재, 도당재 등 3개의 산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현재는 산이 모두 없어지고 도시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삼산은 평산 신씨 동족 마을이며 과거 100여 가구가 살았다. 삼산마을은 벼농사와 밭농사 위주였으며, 이전 상좌였던 고 신현 길(남, 1919년생, 작고)씨에 따르면, 삼산두레가 인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좌(領座 : 우두머리) 두레이었으며, 후정·까치말·도두마리·된밭 등의 마을 두레패들이 받들었다고 한다.



❖ 삼산동 두레 북장이(출처 : 부평문화원)

두레패는 나이가 많고 농사일을 잘 아는 ‘영좌’와 영좌를 보좌하는 나이 어린 사람인 ‘조사’, 그리고 ‘두레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좌는 날짜를 정해 김매기 순서를 정하고, 백중놀이와 연말 결산을 주관하였다고 한다. 백중 때는 힘든 논외 김매기가 끝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막걸리와 밥 등을 같이 먹으면서 하루를 즐겼다.



❖ 두레농악 공연(출처 : 부평문화원)



❖ 옛 삼산1구 경로당 마당 앞 정자 우물 4괘

삼산두레는 단순히 공동 노동조직뿐만 아니라 마을의 동제(도당제, 산고사, 마을굿)나 우물고사, 정월 대보름 행사를 거행하는 주최 세력이기도 하였다. 삼산에서는 정월 대보름 이후 3~4일간 마을 지신밟기를 하였는데, 1970년대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전승되었다. 특히 1974년에는 지신밟기를 통해 얻은 공금으로 현재의 마을회관을 건립하였으며,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마을회관 건립 기념일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간단히 제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등의 마을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삼산 두레는 농신받기, 기세배, 호미걸이, 우물고사 등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두레풍장(풍물) 이외에는 정월에 집집마다 돌면서 농악을 쳐서 액막이를 하는 지신밟기가 성행했으며, 4월 초파일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노는 경우에는 농악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두레가 가진 기능이 확대된 셈이다.

두레풍장은 농기에 농신을 좌정케 하고 논일을 할 때에는 농기를 앞세워 들로 나가면서 풍장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논에 도착하면 농기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모심기, 논매기 등의 작업을 하는데, 이때에는 농악을 연주하지 않고 북 반주에 맞추어 노래한다. 즉 두레풍장은 일하기 위해, 또는 일하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농신이 깃든 깃발의 행진에 연주되는, 즉 제의적 성격의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두레를 할 때 아침 일찍이 ‘태징’을 올렸다고 한다. 태징은 마을 풍물패의 징수가 두레꾼들을 모으기 위해 치는 징을 일컫는 말이다. 본래 태징이란 ‘큰 징’의 의미였으나 기능상의 의미가 부여되어 일반 명사화된 것이다. 태징 소리를 들은 두레꾼들은 마을회관으로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 모이면 풍물을 치면서 일할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때 농기를 가장 앞에 세우고 이어 쇠와 징, 장구, 반고가 순서대로 서서 연주한다. 두레를 연주할 때에는 많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출하게 악기 1개씩을 들고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단잽이’라 부른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일을 할 사람들은 모두 평상시의 복장을 하며, 특별히 상모나 띠를 두르지는 않는다. 이는 일을 하기 전에 하는 연행(테리고 감)이므로 당연하다. 농기를 들고 행진할 때는 길군악 장단을 연주한다. 길군악은 신을 위한 행진에 주로 사용되는데, 농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울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일대 장관이었다고 한다.

두레의 가락은 무겁기보다는 막히지 않는 경쾌함, 구르기보다는 맺음이 분명한 곁가락, 잔가락의 기교보다는 힘이 있는 속도감 등이 있다. 특히 칠채(길군악)가락에서는 타 지역과는 달리 각 가락마다 끊어치는 것이 특징이다. 칠채에 이어 마당일채에서는 암가락, 숫가락 구분하여 치고 덩덕쿵이가락으로 넘어가 마당삼채로, 마지막에는 자진가락으로 맺는다. 자진가락에서 다드래기 또는 얹어빠기가락을 치는데 삼산에서는 굿가락으로 부른다. 또 타 지역처럼 가락의 종류가 많지 않지만 변주가 다양하다. 중부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굿거리가락을 사용하는데 가락이 점점 빨라져 덩덕쿵이로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가락이 힘이 넘치고 북가락을 펴서 강하게 치는 것이 특징이다. 부평두레놀이 가락은 10종류로 길군악 칠채가 특징적이며 이외에 마당일채, 마당삼채, 자진가락, 더드래기(굿가락), 삼채(삼동지), 좌우치기, 굿거리, 동리삼채, 인사굿 등이 있다.

농기는 농신이 좌정한 깃발이기 때문에 행진할 때에도 절대로 땅에 내려놓거나 눕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평소에는 한 사람이 농기를 들고 걷지만 바람이 부는 날에는 농기의 좌우로 끈을 달아서 2명이 양쪽에서 균형을 잡도록 하였다고 한다. 논에 도착하면 농기를 논두렁에 세워 두어 농신의 수호 아래 농사를 짓게 된다.

실제 논일을 할 때에는 농악을 연주하지 않는다. 행진 때 연주하였던 악기들은 잠시 논두렁에 내려놓고 모두 논에 들어가 일을 했다. 대신 논농사에는 소리를 부르며 함께했는데, 선소리는 영좌가 북을 치면서 노래를 메겼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리를 받았다. 영좌는 나이 많은 사람이 주로 맡았기에 선소리꾼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



❖ 부평두레놀이 정기전승공연(2018, 부평문화원)

들을 지날 때에는 다른 마을의 농기와 만나게 된다. 농기의 위계가 정해진 경우에는 큰 마찰 없이 기세배를 받는 것으로 충돌을 피하지만, 위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렬한 기싸움이 이어진다. 삼산은 인근 6개 마을에서 가장 큰 형님 깃발이기에 다른 마을에서 기세배를 올렸다고 한다. 이때 영좌 두레인 삼산의 농기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며 아우 두레되는 다른 마을 두레의 농기가 앞으로 나아와서 기를 숙여 세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알았다는 뜻이 더욱 힘차게 농기를 흔들며 화답했다. 이러한 기세배가 있게 되면 두 마을 두레가 함께 합굿을 벌여서 한바탕 어울려 놀았다고 한다. 이러한 합굿의 전통은 마을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합굿을 연주할 때에도 삼산은 먼저 생긴 두레인만큼 풍물 기량도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단연 앞장서서 가락을 이끌어 갔다고 하며 농사에 있어서도 다른 두레보다 훨씬 잘했다고 한다.



❖ 부평두레놀이 악기

정월 대보름 이후 행해지는 지신밟기는 농기 1, 상쇠, 부쇠(쟁과리), 징 1, 북 1, 장구 1, 호적, 소고 7~8인, 제금 1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악패를 따르는 잡색으로는 담뱃대를 들고 다니던 양반과 광주리를 머리에 인 할미 등이 있었으며, 여복을 한 잡색도 여럿이 있었다. 상쇠와 부

쇠는 상모를 썼으며, 나머지 치배들은 모두 고깔을 썼다. 고깔은 모두 마을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흰색 고깔에 다양한 색의 모란꽃을 3개 달았다고 한다. 전립이라고도 하는 상모의 모양은 흔히 쓰이는 개꼬리 상모와 유사하지만 끝에 꽃을 달아 사용하는 것이 독특하다. 복색은 민복에 삼색 띠를 댔다. 지신밟기는 마을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인근 마을로 걸립을 하는 모습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주로 정월과 추석을 전후로 해서 거리 걸립을 다녔다고 한다. 걸립을 할 때에는 ‘고사반’이라고 하여 덕담을 잘해야 걸립이 잘 되었다.

삼산리에는 우물이 세 군데 있었다. 특히 주민들은 우물고사를 도당제보다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제물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도당제에서 돼지 1마리를 잡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던 것에 비해 우물고사 때는 소 1마리를 잡아 제를 지내고 이를 온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고사에 사용된 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각출한 비용으로 마련하였다. 우물고사를 지낼 때에는 우물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우물 청소를 하였고, 우물 청소 후에 제를 지냈으며 제물은 가운데 우물 한 곳에만 차려놓고 지냈다. 우물고사를 지낼 때에는 풍물굿을 연주하였다.

우물고사를 지내는 시기는 칠월 칠석으로 마지막 논매기가 끝날 즈음이다. 이때 농군들은 논매기에 사용했던 호미를 씻어서 걸어 놓는다고 하여 ‘호미걸이’를 하고 1년 농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제를 지내고 한바탕 놀았다. 결국 삼산리의 호미걸이는 마을의 우물고사와 연계된 독특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호미걸이 때 연주하는 것을 ‘뿔굿’이라고 불렀는데, ‘뿔’의 의미는 아직까지 여물지 않은 곡식을 상징으로 여겨진다.

우물고사는 아침 먹은 후 상을 차리고 간단히 고사를 지낸 후에 제물을 나누어 점심으로 먹은 이후 풍물굿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풍물굿은 3개의 샘(우물)을 돌면서 연주하게 되는데, 가운데 샘을 가장 먼저 연주하고 위쪽, 아랫 샘 순으로 이동한다. 샘굿을 할 때에는 ‘단물 나오라’고 기원을 했고, 상쇠가 ‘뚫어라 뚫어라’와 같은 덕담을 하고 풍물굿을 연주하였다. 우물 청소는 공동 우물이 폐쇄된 1980년 중반까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 정리된 우물들은 삼산노인회관 앞에 놓여져 있다.

4월 초파일과 광복절 기념 행사 때도 원통이고개 약사사에서 모여 풍물굿을 연주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이때 삼산농악뿐 아니라 여러 마을 두레패들이 함께 모여서 경쟁적으로 연주를 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두레놀이의 확장된 개념 속에서 이해가 된다.

두레풍장이 해체되면서 풍물의 쓰임새는 많이 바뀌었다. 각종 관공서 행사나 풍물경연대회에 대표로 나가는 일이 잦았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나마 전승 단절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구청에서 주최한 농악 경연대회, 인천시에서 실시한 농악경연대회 등에 다수 참가하여 많은 상을 타기도 했다. 또한 정월과 추석을 전후로 해서 거리 걸립을 다녔다고 한다.

굴현동 큰말과 작은말에도 각각 두레패가 있었으며, 그 인원은 35~40명 정도였다. 두레는 모든 가구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어 두레패 인원을 통해 마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두레패에는 수장인 상좌(영좌)를 비롯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한 마을의 모내기와 김매기 순서, 결산 등을 담당한다. 김매기는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200평 정도를 할 수 있었다. 김매기는 세벌매기를 하였다. 이때 두 벌은 호미로 매고, 세 번째는 손으로 훑는다. 초벌은 모를 내고 보름 정도 지나서 하며 다시 보름 있다가 두 벌을 땀다. 마지막에 손으로 훑치는 것은 뿌리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레는 물론, 품앗이의 형태도 이루어졌다. 모내기나 김매기, 벼를 수확할 때 이루어지고, 소도 일손에 포함되었다. 소를 부리는 사람과 소가 오면 네 사람 몫으로 치고, 소만 빌려오면 두 사람 몫으로 쳤다. 결국, 소 한 마리는 사람 두 몫으로 친 셈이 된다. 쟁기 부리는 사람도 두 몫으로 친 것은 일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쟁기를 다룰 줄 알기 때문이다. 소가 없는 가정에서는 골을 타는데 사람이 끄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고 삼산동 어느 주민은 말을 전한다. 타작도 품앗이로 많이 하였다. 품앗이꾼 사이에는 서로 타작을 해주고, 다른 집에 타작을 해주는 경우에는 벼로 품을 받았다. 정해진 탈곡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타작 품앗이꾼들끼리 그 이득을 나누어 가졌다. 타작은 하루 종일 휴식 없이 일을 하기에 무척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타작 품앗이는 방앗간과 탈곡기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두레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성인의 대접을 받는 것이다. 어린 머슴이 상머슴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힘도 있고 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삼산동의 송○○씨(익명 요청)에 따르면 보통 20살은 되어야 성인으로 품을 받았고, 쟁기 부리는 기술이나 방석 짜는 일 등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다.

2. 서곶 들노래

‘들노래’란 들에서 일하면서 부르는 소리의 총칭으로 농업 노동요이다. 서곶 들노래는 2006년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여 동상·연기상·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³

서곶은 현재 인천광역시의 서구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이 지역은 해안을 접하고 있어서 논농사의 농요와 어업요가 함께 발달한 지역이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간척사업으로 끊임없이 농토를 확장해 왔으며, 늘어난 농토에서의 일을 위한 농요가 더욱 발달하는 특성을 보인다. 서곶 들노래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전통이라 할 수 있다.



❖ 서곶 들노래 공연 모습(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농사 일련의 과정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종류가 다양하고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지역의 대표적인 음악 문화라 할 수 있다. 들노래의 종류 중에는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가 가장 주요한 악곡들이며, 이외에 「씨레질소리」, 「벗짐나르는소리」, 「벗짐세는소리」, 「벼터는소리」나 「물품는소리(두레질소리)」, 「논가는소리」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처럼 서곶 들노래도 「씨레질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몸돌소리」, 「새쫓는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논매는소리」는 모두 3곡으로 이루어져 전체 악곡 수는 8곡으로 구성된다.

서곶 들노래는 지리문화적으로 인접한 경기도의 서쪽 지역의 특성을 갖는다. 특히 해로를 통해 서도의 문화가 접변하고 있어서 경기 서북 지역이나 황해도 특성이 섞

3 이윤정, 「인천지방 서곶 들노래의 음악적 특징」, 『인천학연구』19, 2013; 김혜정, 「서곶 들노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인천광역시, 2013; 정연학, 「서곶 들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4.

여 나타난다. 악곡에서는 경기 서북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반경토리⁴의 음계 특성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음악적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서곳 들노래 첫 번째 보유자인 고 이순배는 황해도 출신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서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으로 2006년 처음 서곳 들노래로 경연대회에 참가한 이후 2008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나 2010년에 작고하였다.

1) 씨레질소리

씨레질이란 씨레로 논밭의 흩덩이를 잘게 부수고, 바닥을 판판하게 고르는 일을 말한다. 모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보통 소 한 마리에 씨레를 매달아 끌고 다니도록 하고 사람이 뒤에서 조정을 한다. 씨레질소리는 소에게 지시하는 말과 노래를 섞어하는 것인데, 소는 ‘이랴’라는 말로 전진하도록 시키고, ‘워워’라는 말로 정지시킨다. 이러한 지시어를 하면서 사이사이 노래를 섞어 부르게 된다.



❖ 씨레(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4 토리란 민속음악의 지역적 특징을 가리키는 말로, 진경토리, 신경토리, 반경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진경토리는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로 최저음과 마침음이 솔인 솔 선법(창부타령), 신경토리는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로 최저음은 솔이지만 음계 중간에 도가 마침음인 경우(군밤타령), 반경토리는 라-도-레-미-솔의 5음 음계로 마치는 최저음이 라이므로 라가 주음인 선법에 속한다(천안삼거리). 블로그 ‘국악공간, 더움 대금스튜디오’ (<https://blog.naver.com/kkanye1/222259042316>)를 참고하였다.

2) 모찌는소리

씨레질은 보통 개인별로 따로 작업을 하지만 모를 찌고, 심고, 논을 매는 작업은 공동으로 하게 된다. 큰 마을에서는 보통 두레를 결성하기도 하고, 작은 규모의 마을에서는 품앗이로 일을 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에는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연주하면서 행진을 하여 논으로 나간다. 논에 도착한 후에는 농기를 논두렁에 세워두고 선소리를 하는 사람은 논두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

모찌는소리는 못자리에 범씨를 뿌린 후, 어느 정도 자란 어린 모를 논에 옮겨 심기 위해 뜯어낼 때 부르는 노래이다. 못자리는 논의 한쪽에 마련하는데, 네모난 공간에 물을 채우고 어느 정도 싹을 틔운 범씨를 뿌려 두어 새싹이 올라오도록 한다. 못자리에서는 매우 촘촘하게 모가 자라게 되므로 어느 정도 자라면 모심기를 통해 옮겨 심어야 한다. 못자리에서 모를 뜯어내는 것을 ‘모를 찢다’, ‘모를 찢낸다’고 하는데, 노래 가사에서 ‘찢네’와 ‘찌었네’는 모두 모를 찢 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찌었네 찢었네 / 나도 또 한층 찢었네’의 받는소리를 반복하므로 이 곡을 ‘찢네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찢네 소리류의 모찌는소리는 경기도 지역에서 널리 분포하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3) 모심는소리

모판에서 찢낸 모를 논으로 옮겨서 한 포기씩 심는 일을 모심기라고 하고 이때 부르는 소리를 모심는소리라 한다. ‘하나 하나 / 하나가 돌이로구나’의 받는소리를 반복하므로 이 곡을 ‘하나소리’라 부른다. 하나소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모심는소리이다. 모심기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줄모를 심는 것이 보통이었다. 줄모란 논 양옆에서 못줄을 잡아 주어 줄에 맞추어 반듯하게 모를 심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격을 맞추어 모를 심으면, 모들이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김을 매기도 편안하고 수확이 균등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줄모가 아닌 마름모를 심었다. 줄모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심기 방식이 아니었으며,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전수된 방법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모심기는 줄을 대지 않고 일렬로 서서 눈대중으로 간격을 맞추어 심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마름모라 부른다.

4) 애벌매기소리

논을 맨다는 것은 논에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보통 3회 정도 논을 매는데, 그것을 각각 애벌, 두벌, 세벌로 구분한다. 애벌매기는 가장 처음 논매기 작업을 할 때를 이른다. 물론 처음 논을 매 때에는 잡초가 거의 자라지 않은 시기이니 잡초 제거뿐 아니라 심어 놓은 모의 뿌리를 적절한 길이로 끊어주는 목적을 겸하게 된다. 뿌리가 짧으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작황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벌매기 작업은 호미를 활용하여 흙덩이를 한 번 엮고 뒤집는 작업이 주를 이룬다. 이 곡은 ‘아이용 아이용 / 에에용 에헤얼싸 둥개야’의 받는소리를 반복하므로 둥개소리라 부른다. ‘아이용’이라는 후렴구의 여음은 난봉가나 방아타령 계열의 악곡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경기도 서쪽 지역의 민요에 자주 등장한다.

5) 두벌매기소리

두 번째 논매기를 두벌매기라 부른다. 호미 없이 손으로 논을 훑으면서 작은 잡초들을 뜯어낸다. 뜯어낸 잡초는 논 밖으로 이동시키기가 어려우므로 논바닥 밑으로 집어넣어 눌러 버린다. 이렇게 땅속에 들어간 풀이 삭으면 다시 땅의 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두벌매기 때에 넣은 풀은 세벌매기할 때에는 대부분 삭아서 버글버글한 상태가 된다. 서곳의 두벌매기소리는 ‘에에헤이로 오호 / 오호야하야’의 받는소리를 반복하기 때문에 ‘오호야 소리’라 부른다. 특별한 단어 없이 계속 여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6) 세벌매기소리

세 번째 논매기를 세벌매기라 부른다. 보통 논매기를 세 번에 걸쳐 하기때문에 이 논매기가 마지막 논매기가 된다. 마지막 논매기 때에는 손으로 논바닥을 훑으면서 빠르게 진행하는데, 이때는 잡초 제거를 꼼꼼하게 하기보다는 거칠고 빠르게 훑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세벌매기에는 ‘에헤 에허야 / 방아헤로 논다’의 받는소리를 반복하므로 방아타령이라 부른다. 방아타령은 전국에 흩어져 전승되는 논매는소리의 일종이나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므로 지역성을 드러내는 데 좋은 곡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방아타령의 가사

로 시작하지만 계양산, 공촌천, 서곳들의 현 지명들이 가사로 수용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7) 몸돌소리

몸돌소리 역시 논매는소리의 일종이다. ‘에헤 어라 몸돌’의 받는소리를 반복하므로 이 곡을 몸돌소리라 부른다. 논매기를 하는 마지막 과정이 되면 노래를 바꾸어 몸돌소리를 부른다. ‘몸돌’이란 ‘몸 돌려’의 변이형으로 몸을 돌려 일을 하라는 의미의 가사이다. 몸돌소리는 애벌, 두벌, 세벌의 논매기 때 모두 불릴 수 있으나 서곳 들노래의 공연에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 세벌 때만 노래하고 있다.

8) 새쫓는소리

새쫓는소리는 논매기의 마무리 때 노래한다. ‘우여라 훨훨’의 받는소리를 반복하므로 ‘우여 소리’, ‘우여라 훨훨소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노래 가사에는 ‘우여소리’라 표현하고 있고, 이 곡의 기능이 ‘새쫓는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논매기는 한 줄로 서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둥글게 모여서 끝을 맺게 된다. 논매기를 하다가 둥근 원이 형성되면 새쫓는소리로 노래를 바꾸어 빠르게 마무리를 짓게 된다. 원이 점점 좁아져 끝까지 논매기가 끝이 나면 ‘휘이휘이’와 같이 새를 쫓는 구호를 외치면서 논매기를 끝내고 논 두렁으로 빠져나온다.

새는 농사를 망치는 주범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 논을 매 시점에는 나락이 아직 채 여물지 않아서 새가 많지 않다. 따라서 새쫓는소리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리 새쫓는소리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풍년을 기원하고 새로 인한 실손을 줄이고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새쫓는소리는 정월 대보름에도 노래한다. 주로 아이들로 하여금 싸리문이나 담벼락을 빗자루로 치면서 새쫓는소리를 부르도록 하는데, 이는 액을 쫓아내고자 하는 액막이의 일종이다. 논농사에서 논매기의 마무리에 새쫓는소리를 부르는 것 역시 액막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서곳 들노래에는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와 논매기가 끝날 때쯤 부르는 「몸돌소리」, 마지막에 부르는 「새쫓는소리」가 있어 농사짓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받는 부분 사설은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몸돌소리」, 「새쫓는소리」가 경기나 충청남도 서북부와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한다. 「논매는소리」는 경기 서북부와 인천 강화군에서 불리는 소리와 형태가 동일한데, 특히 「애벌매기 소리」는 강화군 교동면에서 불리는 소리와 같다. 주로 3소박 4박자 형태이며, 선후창 방식이다. 또 사설은 한 장단에 8~10글자가 가장 많고, 대체로 4·4조의 사설이 붙고, 이들은 박자마다 골고루 붙는다. 이처럼 서곡 들노래의 박자 구조와 형식, 가사 붙임은 한국 민요 전반에 보이는 보편적인 형태를 취한다. 서곡 들노래는 「논매는소리」의 ‘아용소리’처럼 의외의 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는 주로 경기 서북부와 황해도의 음악 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천 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3. 부천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

농기고두마리놀이는 경기도 부천의 옛 석천 지역인 부평군 석천면(富平郡 石川面 : 부천시 상동·중동 일대와 송내동, 인천광역시 구산동 일부 지역)의 논농사 지대에서 두레패의 세벌 논매기가 끝나는 즈음 펼쳐진 백중놀이이다.⁵ 농기(農旗) 꼭대기에 꽂힌 고두마리[기봉(旗峰) : 깃털봉, 꿩장목, 꿩깃, 장기털]를 먼저 뺏는 마을이 상좌(上坐)가 되는 마을 대항 기(旗)싸움 놀이이다. 상좌다툼, 상좌다툼놀이, 고두마리농악놀이라고도 하며, 농기를 쓰러뜨리기 때문에 농기쓰러뜨리기놀이로 부르기도 한다.

고두마리의 고두(叩頭)는 ‘머리를 조아린다’로 해석되며 기싸움에서 패한 마을이 상좌 마을의 기에 고개를 숙여 예(禮)를 갖추는 것을 묘사한 한자어이다. ‘마리’는 ‘머리(頭)’와 같은 뜻이므로, ‘고두마리’는 동어 반복으로 여겨진다.

농기고두마리의 연원은 논농사가 보편화된 조선 후기로 볼 수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부평수리조합(富平水利組合)의 설치(1923)에 따른 수리 안전담(水利安全畚)의 확보로 논농사 지대가 부평평야(부천 서북쪽)까지 확대되기 이전의 조

선시대에도 한강(漢江)으로 통하는 굴포천(掘浦川) 주위에 방죽이 여럿 있었으며, 1910년까지의 지명(地名)에 장포들(長浦坪), 삼거리들(三街坪), 만석이들(萬石坪) 같은 명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도 두레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초창기 두레패의 농기싸움놀이는 기간, 방식, 순서 등에서 현재 재연되고 있는 농기고두마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뿐 아니라 부천 내 여러 마을의 다른 두레패 농기싸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병존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놀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단절되었다가 이 지역 촌로들에게 구전되던 것을 1970년대 초에 부천의 민속자료를 조사하던 최은휴(전 한국문인협회 초대 부천시부장, 작고)가 김진엽, 박희재(모두 작고)의 제보를 통해 발굴하고 이 지역 촌로들의 고증을 거쳐 1980년대에 재현하였다. 현재 부천문화원이 맡아서 전승하다가, 2016년 부천시 향토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그간 1997년 제11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120명(남 52명, 여 68명)의 인원이 30분간 공연하여 종합우수상을 차지하였고, 1999년에는 경기도 대표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 석천농기고두마리(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5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1, 부천시사편찬위원회, 2002, 512~517쪽.

농기고두마리놀이는 주로 김매기 기간과 백중 때 행해진다. 놀이의 내용을 보면 농기(農旗)를 제일 먼저 만든 마을의 상좌(上座) 차지-상견례(기 인사)-한바탕 놀이-농기싸움-농기 행렬-풍년제-농기싸움 행렬-풍년 기원 노래-논매기(민요)-호미씻이-풍년제-상견례(기 인사)-상좌 다툼 농기싸움-기인사-뒤풀이 같은 몇 가지의 유형이 전해진다.

이 놀이는 논매기, 풍년제, 농기싸움, 대동놀이로 크게 구성되나, 현재는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되고 민요 등을 각색하여 모두 아홉 마당으로 재현하고 있다. 풍물패의 구성은 사물(四物)과 제금(동발), 호적(날라리)의 풍장으로 이루어지며, 연주되는 가락은 경기도의 힘차고 빠르며 경쾌한 윷다리 풍물가락이다.

놀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농기를 앞세운 두 마을 풍물패가 논둑을 따라 춤추며 넓은 공터(마당)에 모여, 호미를 들고 김매 준비를 하고 기다리던 제 마을 농군들과 합세하여 상좌의 선소리(先唱)와 농군의 뒷소리(後唱)로 풍년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논으로 들어가 ‘상사뒸소리’, ‘방애소리’(상좌의 선창과 농군의 후창)를 하며 논매기를 한다. 논매기가 다 끝나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논에서 나와 냇가에서 호미를 씻은 후 각 마을 호미걸이에 걸고 간단한 잔치를 벌인 후, 지난해 상좌 다툼에서 진 마을에서 준비한 제사상을 논 쪽을 향해 놓고 풍년제를 지낸다.

이어 상좌 마을의 제안으로 고두마리싸움을 한다. 놀이에 앞서 지난해 패자 마을 농기가 상좌 마을 농기에 기세배 형식으로 기 인사의 예(禮)를 갖춘다. 기 인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농군의 절반은 농기를 지키고 나머지 반은 상대 마을 농기를 쓰러뜨리기 위해 달려간다. 상대편 농기에 꽂혀 있는 깃털봉(고두마리)을 먼저 뽑는 마을이 승자가 된다. 싸움에서 패배한 마을에서 음식상을 차려와 승리한 마을 상좌에게 술을 올려 예를 표하면 상좌 측 상좌가 싸움에서 패한 마을 상좌에게 뺏은 고두마리를 넘겨주며 서로 사이 좋게 지내기를 제안한다. 이어 싸움에서 패배한 마을 농기가 좌우로 한번씩 흔들고 서서 절을 하면 상좌 마을 농기도 기를 약간 숙여 다시 한번 예를 표하는 것으로 싸움은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양쪽 마을 농군과 풍물패가 하나 되어 뒷전(뒤풀이)을 하며 한바탕 크게 노는 것으로 끝을 장식한다.

농기고두마리놀이는 예전에 부천 지역이었다가 현재 서울시로 편입된 궁동, 온수동 일대와 주변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도 파주, 충청북도 보은 등지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국에 산재한 농기뺏기놀이와 유사하다. 또한 기 인사의 형식이 경기도 평택, 전라북도 익산의 기세배와 비슷하나 패자 마을의 기를 기울이는 각도는 45~50도(평택 15도, 익산 45도), 상좌 마을은 답례 각도는 4~10도로 차이가 있다.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는 두레의 풍물패가 주축이 된 마을 대항의 농기싸움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수확만을 남겨둔 시기에 논농사의 큰 노동인 마지막 김매기를 마치고 난 후 호미씻이를 통해 표현한 것이며, 농부들이 서로 노고를 위로하며 휴식을 취하는 마을 대동잔치이다. 또 백중장(百中場)을 보아 조상에게 천신(薦新)하며 농신(農神)에게 풍년제를 올리는 백중 행사의 복합적 의미도 담고 있다.

4. 김포 통진두레놀이

김포의 통진두레놀이는 한강과 임진강에 접하여 농업 문화가 발달한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지역에서 행해왔다. 일제강점기의 문화말살정책으로 한때는 전통이 단절되어 전래되지 못하고 있다가, 광복이 되면서 이전의 전통을 이어받아 1960년대 중반까지 두레패를 조직하여 과거의 풍속을 다시 되살려 놓았다.⁶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영농의 기계화와 농약이 점진적으로 사용되면서 다시 조금씩 자취를 감추게 되어 일부 마을에서만 전해지게 되었다. 농촌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서 통진두레놀이의 전승이 단절될 위기 속에서 통진두레놀이보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생존해 있던 김포 지역의 고로(古老)들과 상좌 선소리꾼을 찾아 김포 지역에서 구연되던 농요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를 짓던 과거의 모습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통진두레놀이는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9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6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통진두레놀이」, 『경기도의 민속예술』,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7; 김포시·통진두레놀이보존회, 「통진두레놀이」, 김포시·통진두레놀이보존회, 2003; 박환영, 「김포 통진두레놀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0.

‘김포 통진두레놀이’는 입장, 법씨 뿌리기, 논갈이 및 씨레질, 고사 지내기, 모찌기, 모내기, 새참 먹기, 물꼬 싸움이 두레 싸움으로, 김매기, 벼 베기, 탈곡하기, 섬 쌓기,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두레의 구성원들은 등거리·잠뱅이 차림에 호미와 우장(雨裝)을 갖추고 풍물 소리에 맞춰 논두렁에 서서 농사를 시작한다. 농사 과정 중 모찌기·모내기·논매기를 할 때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꾼들은 후렴을 받는다. 「모찌기소리」는 후렴을 “꺾네 꺾네”로 받는 ‘꺾네소리’이고, 「모내기소리」는 후렴을 “하나 돌이로구나”로 받는 ‘하나소리’이며, 「논매는소리」는 ‘방아타령’·‘상사디소리’·‘몸돌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통진두레놀이는 가래·쟁기·씨레·용두레 등 농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물꼬 싸움이 두레 싸움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흥미로운 놀이로 재연하는 등 공동 노동조직인 두레의 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놀이이다. 또한 모찌기, 모내기, 논매기 과정에서 부르는 농요는 김포 인근 파주·고양·양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의 농요와 그 맥을 공유하고 있으며, 가창 방식과 사설의 구성에서 경기소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김포 통진두레놀이 중 벼 베기 공연 모습(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김포의 통진두레놀이 재현에는 200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특히 통진면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두레는 집단적 노동조직으로서 두레 자

체의 의례와 놀이를 가지고 있다. 또 두레와 세시의 관계도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두레를 결산하는 칠석과 백중이 최대의 농민 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김포의 통진두레놀이에서도 백중을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김매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으며, 농민들의 진솔한 농촌 생활을 반영해주는 다양한 농요가 잘 보존되어 있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는 전반적인 농사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법씨 뿌리기에서는 재를 뿌리고 밀대질을 하여 못자리를 만들어 법씨를 뿌리고 그 뒤에 소고놀이로 법씨 뿌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논갈이와 씨레질은 논으로 흘러내린 흙을 올리는 가래질과 소에 멍을 얹어 쟁기질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씨레질을 하는 농사의 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통진두레놀이의 내용에는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못자리고사가 포함된다. 이것은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못자리의 입종이 잘 되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찌기는 두레와 논갈이 소를 앞세우고 농악을 치면서 농부들은 농요를 부르며 모찌기와 논갈이를 하는 과정이다. 모찌기가 끝나면 모내기가 시작되는데 못줄을 사용하지 않고 마름모 간격으로 모내기를 한다. 이전에는 망종(芒種) 이전에 모내기를 마쳐야 제대로 수확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두레와 같은 집단적인 노동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모내기를 마치면 모를 낸 농민들이 모두 함께 모여 흥겨운 농악놀이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풀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 간에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이다.

모내기가 끝나면 새참 먹기를 하는데 논에서 나올 때 손발을 씻고 우장이나 샷갓을 들고 새참을 먹는다. 두레라는 공동 작업은 고된 일이기지만 새참 먹기와 같이 막걸리 마시는 시간과 농악을 즐기는 시간이 틈틈이 있어서 노동의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한다. 새참 먹기가 끝나면 물꼬 싸움이 벌어지고 이것은 다시 두레 싸움으로 이어진다. 두레 싸움은 두레패의 상징인 농기를 빼앗는 놀이이다. 전통적인 농촌 마을은 대부분 두레가 있고 두레를 상징하는 농기(農旗)가 있는데,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때로는 용의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 쓴 것도 있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농기가 등장한다.

두레 싸움은 남의 눈물을 종가래꾼이 자기 눈에다 끌어대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면서 마을 간의 다툼으로 번진다. 마을 간의 두레패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상대의 두레기를 먼저 뽑으면 이기게 된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에는 가현마을의 두레패와 이웃 들뢰마을의 두레패 간의 싸움이 묘사되어 있다. 결국 두레 싸움에서 가현마을이 이기게 된다. 가현마을에서는 들뢰마을의 항복을 인정하고 들뢰마을을 향하여 두레기를 한 번 돌리고 들어간다. 들뢰마을에서는 절을 세 번 하고, 인사를 받은 가현마을에서는 빼앗은 장목(깃대 끝에 꾸밈새로 다는 꿩의 꽂지털)을 들뢰마을의 두레기에 다시 꽂아준다. 그리고는 두 마을은 화합하고 전체 두레패들은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서 화합을 다지는 놀이를 벌인다.

두레패 사이의 물고 싸움과 두레 싸움이 끝나면 두 마을의 화합이 이루어져 모두 함께 김매기를 시작한다. 마름모꼴로 심은 논에 김매기는 논두렁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김을 맨다. 작업 도중에 막걸리 참이 들어 있다. 두레의 김매기에는 보통 공동 오락, 공동 노동, 공동 식사의 세 요소가 두루 갖추어져 있다. 김포 통진두레놀이에서도 두레가 가지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김매기가 끝나면 벼베기, 탈곡하기, 섬썰기 등의 과정이 이어지며 통진두레놀이에는 마지막 과정으로 풍년 고사가 있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는 일년 동안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노동의 조직을 통하여 농악과 농요를 가지고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며 마을 사람들 사이의 화합을 다졌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농경문화의 전 과정을 풍년 고사, 소고놀이, 물고 싸움, 두레 싸움과 같은 농경의례 및 민속놀이와 더불어서 완전하게 재현한 총체적이고도 흥겨운 두레놀이인 셈이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는 계절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조상들의 효율적인 생업현장을 잘 대변해준다. 가령 전통적인 농촌 마을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두레는 대개 모심기, 김매기, 나락베기, 보막이 등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모내기철은 농촌에서 가장 바쁜 때이며, 김매기철은 한해 중에서 가장 더운 때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농사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따라서 두레패를 만들어 구성원들의 논을 다니면서 풍장을 울리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함께 참을 먹고, 노동이 끝난 뒤에는 다시 농악을 치면서 함께 어울리는 과정을 통하여 농경 생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통진두레놀이는 생업 현장에서 노동과 오락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팽과리를 중심으로 하여 징, 북, 장구, 소고, 제금 같은 악기도 잘 갖추어져 있다. 30~40명의 농꾼이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점심을 먹은 뒤와 같은 쉴 참에 논둑에 꽂아 놓은 농기 아래에서 흥겹게 한바탕 논다. 그리고는 장구잡이와 팽가리, 징, 북잡이 등을 남겨놓고 모두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일의 동작에 따라 농부가 풍년가에 맞추어 농악을 울리고 선소리꾼의 앞소리를 농부들이 후렴으로 받아 넘기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피로를 잊고 농사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며, 한 마을의 성인 남자는 모두 두레꾼이 되어 참여하는 두레는 마을 공동체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마을의 생업 활동 효과를 드높이는 우리 고유의 대표적인 협동 조직이다.

지금까지 과거 부평 지역의 두레놀이 전승 양상을 살펴보았다. 물론 과거의 공동 노동조직인 두레를 재현한 것이지만 과거 부평 두레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레놀이는 일년 중 농사일로 가장 바쁜 때인 음력 5월부터 김매기가 끝나는 칠월 백중 때까지 주로 행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논매기와 김매기가 어느 지역의 두레놀이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두레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레에서 파생된 농기 싸움, 칠월 백중 호미씻이(걸이) 등도 중요한 모티브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두레놀이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가령, 김포 통진두레놀이는 벼씨 뿌리기에서부터 섬 썰기까지 농사 일련의 전 과정을 놀이화하여 기타 지역의 두레놀이와 달리 그 범위가 가장 넓다. 그리고 부평두레놀이는 두레의 일반적인 놀이에다 우물고사, 마을 당고사와 소고사, 성주제 등을 포함시켜 두레가 농사뿐 아니라 마을 행사의 주관적인 기능을 담당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반해 부천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는 농기싸움을, 서곶 들노래는 모내기와 김매기 소리로 그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강화 용두레질소리(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2호, 2003년 지정)의 경우도 비록 용두레질소리를 추가하였지만, 서곶 들노래와 마찬가지로 모내기와 김매기가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두레놀이라고 해도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레놀이가 오랫동안 단절되고 인구의 유입과

이주에 따른 구성원의 변화에서 두레놀이의 원형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고증에 따른 창조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지속되길 바랄 뿐이다.

| 제3절 | 부평풍물대축제

이 재 만(부평문화원 사업과장)

풍물놀이란?

팽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반고, 태평소 등 악기를 가지고 불고, 두들기고, 춤추며 때로는 농요나 민요에 맞춰 반주하는 것을 말한다.

1. 탄생의 배경

부평풍물대축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세 번째 해인 1997년 9월 30일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그 해 축제는 ‘풍물’이라는 문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부평의 문화적 ‘뿌리 찾기’를 중심에 두고 기획되었다. 축제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이었다.

부평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인천과 구별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바닷가에 가까운 옛 인천지역은 개항장으로서 항구와 부두가 존재하지만 부평은 오랜 시간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농업에 기반한 공동체생활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원래의 인천지역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지역민들 사이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부평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인천육군조병창과 각종 군수기업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대규모의 농경지는 소총과 탄환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둔갑하였고 무기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으로 사라져 갔다. 부평평야의 넓은 들판에는 조병창의 부대시설인 변전소와 수도시설, 무선송신탑으로 채워졌다. 광복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군이 건설한 인천육군조병창은 진주한 미군이 접수하여 대규모의

지원부대로 남았다. 군수공장이 들어섰던 곳과 들판에는 새로이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대한민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대우자동차(현 한국GM) 부평공장이 들어섰다. 부평은 일제의 식민지침탈과 6·25전쟁의 폐허로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단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반면 부평의 전통적인 농경문화는 점점 명맥을 잇기 어려워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는 외부 유입인구로 채워져 일부 토착민을 제외하고 주민의 대다수는 부평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갔다.

부평에서 풍물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 같은 부평 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현재적 조건을 고려한 이유가 크다. 부평풍물대축제는 농경문화에 토대를 둔 부평 전래의 풍물을 되살려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다.

제1회 부평풍물대축제는 1997년에 개최했지만 축제행사의 원년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이 해 시작한 ‘늘푸른 부평문화 예술제’가 축제의 모태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푸른 부평문화 예술제는 ‘구민의 날’인 1996년 10월 1일 개최되어 6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세 번째 맞이하는 구민의 날이었다. 그동안 구민의 날 행사가 구민생활체육대회 형식에 치중해 왔던 점을 반성하여 변화를 모색한 끝에 탄생한 축제였다.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돼 12개에 달하는 문화행사를 열었고, 특히 미군부대를 개방해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한편, 1996년도에는 늘푸른 오월제와 더불어 부평단오제도 함께 열렸다.

이와 같이 1997년은 제2회 늘푸른 부평문화 예술제와 제1회 부평풍물대축제가 같은 기간에 걸쳐 열렸으며, 이런 지역 축제는 당시 인천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것이었다. 1997년 최초의 부평풍물대축제는 비교적 성공리에 끝났다. 다만 늘푸른 부평문화 예술제와 함께 하다보니 풍물축제의 성격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당시 축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표 1 제1회 부평풍물대축제의 행사 내용

구분	행사 내용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과 관악합주단 협연공연 · 사물과 재즈협연공연 · 풍물명인전 및 우리가락한마당 공연 · 현대 및 고전무용 공연
체육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 민속체육대회·에어로빅 경연대회
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전국풍물경연대회
어우러짐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물길놀이 · 지신밧기 · 대동놀이
난장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퉁이풍물공연 · 사물놀이 배우기 · 왕장기대회
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아불교박물관 소장품 전시회 · 사생실기대회 · 미술기획 전시 · 생태사진 전시·연극 공연
학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물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세미나
기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꽃놀이 행사 및 먹거리 장터

축제는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조직을 구성하기 이전이었기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이 주도하여 진행했다. 그리하여 제1회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구청마당, 문화의 거리(명신당 앞), 부평시장, 동아아파트 앞, 부평근린공원, 백운공원, 청천시장을 행사장으로 이용했다. 백운공원에서 시작하여 동아아파트와 명신당을 거쳐 부평근린공원까지 이어진 도로에서는 길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부평사랑 길놀이’란 이름을 걸고 진행된 이날 퍼레이드에는 부평구의 22개 동 풍물패와 초중고, 대학, 일반, 전문, 기업 풍물패가 함께하여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것이 후일 부평풍물대축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거리축제의 기원이 된 셈이다. 한편, ‘예술제’가 ‘축제’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삼산동 주민들의 단오제도 주효했다. 삼산동에는 1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온 농기(農旗)가 있었고 또 당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많았다.⁷ 축제의 중심이 풍물로 자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7 이현식, 『부평사람들의 삶과 열망-부평풍물대축제의 과거와 현재』, 『부평사』1, 2007.

2. 부평풍물대축제의 역사

부평풍물대축제가 지향하는 점은 우선 지역과 결합한 축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단체와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문화 예술역량 발표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이고 여기에 부합하는 독특한 거리축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부평풍물대축제를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키워가기 위해 캐릭터 개발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셋째는 문화도시 건설에 초석을 다지는 축제이다. 이를 위해 거리축제를 확대 발전시켰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 왔다. 그럼으로써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라는 상징성을 증폭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나아가 지역문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문화 네트워크 구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넷째는 풍물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축제다. 무엇보다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풍물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부평풍물을 복원하고 계승·발전시켜 지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전통적인 옛 풍물에 기반하고 있지만 독창적인 공연작품을 정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모습도 창조해 갔다. 풍물은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생활 속의 기예다. 따라서 부평지역 풍물문화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풍물을 대표하는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자주 초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계의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축제다. 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고 다양한 세계 풍물과의 공동 워크숍과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경험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과 ‘풍물’을 주제로 축제의 장을 펼쳐 나갔다. 축제가 10년간 이어오는 동안 인천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지역축제의 발전 모델’로 평가받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였다. 10회까지 개최한 시점에서 부평풍물축제 운영위원회는 이제 풍물축제에 ‘한민족의 역사와 철학적 가치’를 담아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축제로 성장시키는 물론 세계 우수 축제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축제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잡는 데는 각

동(洞)별로 조직된 풍물단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당초 축제를 기획하면서 풍물 인구가 광범위하게 분포해야 하고 이들이 축제를 견인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기획단 내에 자리하고 있었던 점이 주효했다.

부평풍물대축제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크게 축제위원회 출범 이전 시기와 축제위원회 출범 이후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축제위원회 출범 이전 시기(1997~2000)

이 시기는 부평풍물대축제를 준비하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는데, 해마다 개최하는 정례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기였다. 사실 부평풍물대축제는 2000년까지 행사 주최가 부평구, 부평문화원, 축제조직위원회 등으로 분산되면서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행사장도 운영주최에 따라 변동하여 정착된 축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다.

특히 1998년 두 번째 개최된 부평풍물대축제는 IMF 금융구제의 시기와 맞닿으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행사일정도 5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등 준비상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렇지만 축제를 기획하는 민간전문기구 부평대풍물축제조직위원회를 조직하였다는 점이 새로운 시도로서 평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한 1999년에는 그 개막식에 부평의 동(洞)풍물단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부평풍물대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그 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거행되었는데 10월 11일에 개최된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무렵부터 축제의 행사장으로 사용된 근린공원만으로는 풍물의 역동성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00년 축제에서 처음으로 부평대로를 축제의 무대로 삼아 거리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때부터 축제를 운영할 전문적인 민간상설기구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사실 2000년까지는 관에서 주도하는 종합축제라는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다른 지역의 축제와 비교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아래 표는 2000년 당시 행사 구성을 정리한 것인데 풍물축제라기보다는 여러 이벤트를 한곳에 모아 놓은 성격이 강했다.



❖ 제22회 부평풍물대축제를 알리는 고유제(告由祭) 모습(2018, 부평문화원·부평역사박물관)

표 2 2000년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구성

구분	행사명
공연행사	· 부평풍물완판공연 · 개막축하음악회 · 젊음의 축제 · 인간문화재 초청공연 ·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 Art - Cross Over
문화행사	· 기획초대전(Good-bye Mr. Owell) · 시낭송회 · 사진전시회 · 가족영화 상영 · 우표전시회 · 한국의집 예술단 공연 · 청소년 예술제 · 전통과 현대의 만남 공연
경연행사	· 학생풍물 경연대회 · 부평골 왕장기대회 · 부평구민 민요경창대회 · 여성합창제 · DDR경연대회
거리행사	· 옛장수 · 군악대 · 길거리낙서판 · 캐리커처 · 페이스페인팅 · 컴퓨터게임 · 도자기 시연 등
구민화합마당	· 퍼레이드 · 전통문화체험마당 · 생활체조발표회 · 구민노래자랑 · 무술시범 등
지역경제지원행사	· 경품대잔치 · 캐릭터 판매센터 운영 · 상가별 이벤트 행사 등

2) 축제위원회 출범 이후 시기

2001년은 이전 시기와 다르게 체계적인 축제준비와 운영의 틀이 마련된 축제역사상 변곡점이 된 해였다. 축제위원회가 구 조례에 따라 공식적인 조직이 됨으로써 운영주체가 명확해 졌고, 축제의 기획과 예산 편성을 축제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민간중심의 축제전담기구 결성은 축제에 대한 민간의 적극성과 다양한 기획력을 결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후 부평풍물대축제가 10주년을 맞이한 2006년에는 사무국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되고, 고문과 자문위원을 따로 두었으며 기획단원도 대폭 증원하여 축제위원회 조직을 공고히 할 수가 있었다.

2001년부터 부평풍물대축제의 주 행사장이 부평대로로 공식화된 것도 특기할 점이다. 그동안 부평대로에서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으나 부평대로가 축제의 주 행사장으로 정해짐에 따라 거리 축제로서의 자기 성격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약 900m에 달하는 왕복 8차선의 대로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했을 때는 교통대란의 우려도 있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축제 참여와 다양한 예술행사 진행에 주효했다는 평이다. 2001년 축제위원회가 밝힌 발전전략에 따르면 2001년 거리 축제를 축으로 2002년에는 아시아의 전통과 현대 문화예술이 만나는 축제로, 2003년에는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풍물대축제라는 비전을 담고 있었다. 축제위원회는 부평풍물대

축제에 대해 평가하고 성찰하는 점검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것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 2001년을 시작으로 2004년과 2006년에 축제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2001년 연구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이 담당하였고, 2004년 연구용역은 숙명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06년 연구용역은 인천문화재단이 각각 담당하여 축제 참가자 설문조사와 축제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하여 부평이 지향해야 할 축제의 방향과 운영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고민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령 1997년에는 풍물을 통한 도시 축제의 발전방안 모색, 199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운영방안, 1999년에는 부평풍물대축제와 지역 활성화 전략이라는 테마로 학술행사를 개최했던 것이다.

부평풍물대축제는 2020년에 24회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축제위원회는 1기(2001~2005), 2기(2006~2010), 3기(2011~2014), 4기(2015~2018), 5기(2019~2021)를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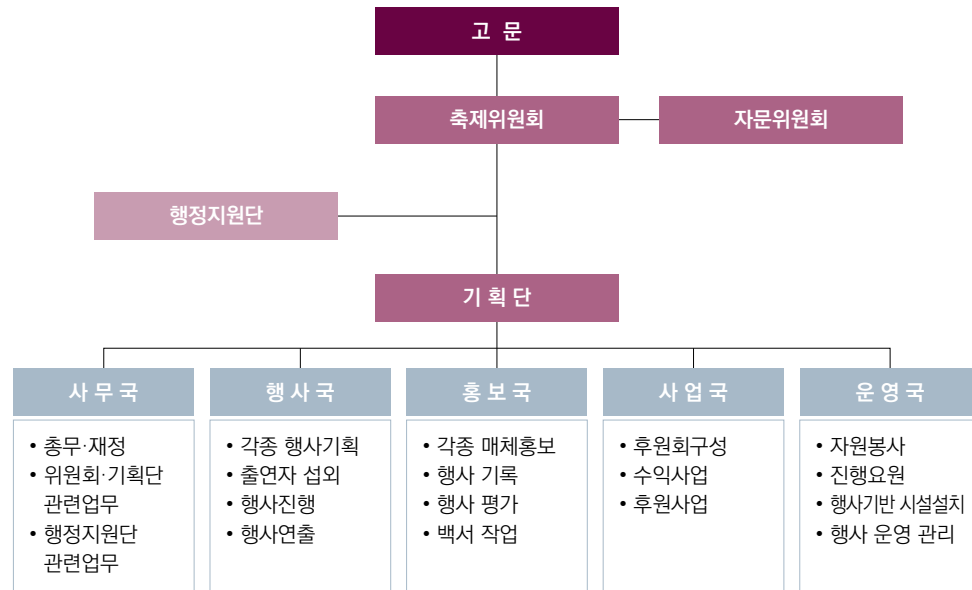
❖ 제14회 부평풍물대축제(2010, 부평구청)



❖ 제18회 부평풍물대축제(2014, 부평구청)

3.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

1) 축제운영위원회와 기획단



❖ 축제운영위원회 및 기획단 조직도

축제위원회는 위 그림과 같이 사무국, 행사국, 홍보국, 사업국, 운영국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당 년도의 축제 방향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종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축제의 컨셉과 내용을 정리해 갔다.

축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초대 허문명 전 부평문화원장을 시작으로 2대 심갑섭 전 인천문화재단대표, 3대 빈종구, 4대 이필주, 5대 황순형, 6대 우수홍, 7대 홍용복이 각각 위촉되었다.

2) 자원봉사단

축제위원회 조직표에는 없으나 자원봉사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풍물대축제는 축제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기능별로 체계화하여 운영하였고 사전에 임무를 충분히 고지시킨 후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

도록 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임무에 적합한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3) 행정지원단

행정지원단 역시 부평풍물대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직 중 하나이다. 축제종합운영본부 운영, 노점상 단속요원 운영, 퍼레이드 안전요원 지원, 행사 후 청소 등 거리정리 등 행정지원단의 지원도 질서 있는 축제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4) 부평구 22개 동 풍물연합회와 부평구립풍물단

부평구 동(洞) 풍물단은 1997년 10월에 각 동별로 창단하여 각종 초청공연, 동별 행사 등에 참가하며 풍물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단원수가 422명에 이른다. 부평구립풍물단은 2007년 1월에 창단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초청공연, 부평풍물대축제 메인 공연, 부평구 지역문화행사 등에 참가하며 부평구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경연대회에서도 참가하여 각종 상을 수상하며 풍물도시 부평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그밖에도 부평문화원, 부평문화재단,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등 수많은 기관과 조직, 자선단체 등이 협력하여 매 해 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평풍물대축제는 축제 위원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과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준비하고 즐기는, 이른바 부평이 하나가 되는 통합과 정체성 회복의 행사이다.

4. 부평풍물대축제의 기본 구성

부평풍물대축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구성을 유지해 왔다.

- 공식행사 : 부평풍물대축제의 공식적인 개막식과 거리축제 개막식에 따른 공식행사. 부평구민들이 함께 축제를 여는 상징성을 담음

- **풍물마당** : 다양하고 전통적인 국제문화 예술과의 만남을 통하여 해외문화 경험을 제공.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조화로 풍물을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
- **놀이마당** : 부평풍물을 복원하여 부평풍물대축제의 정통성을 확립하며 무형문화재 공연을 추진하고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으로 전통문화 축제에 어울리는 품위 있는 행사 마련
- **참여마당** : 수동적인 관람문화에서 지역주민 및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편성. 수도권을 포함한 인천지역 문화예술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의 축제로 모아내는 발표의 장 마련
- **대동마당** : 축제에 참가한 모두의 염원을 하나로 묶어 열광과 흥분의 장을 만들어 일체감 조성.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로 인식되어 있으며 다음 년도의 축제를 기약하는 의미도 담김
- **예술무대** : 동·서양 다양한 장르의 창작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인 공연무대 마련
- **경연대회** : 미래의 풍물을 짚어지고 나아갈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전국대회로서 손색없는 행사 마련. 부평구민의 풍물문화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문화적 자원 구축
- **부대행사** : '부평사랑'을 확인함과 동시에 축제참여 분위기를 담아 낼 수 있는 행사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비적인 축제가 아닌 생산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 마련. 온 가족이 다함께 참가하여 즐길 수 있는 유익하고 다양한 행사 마련.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적 프로그램 마련.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행사 마련. 다양한 계층이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문화예술과 조화를 이루는 장 마련. 볼거리, 놀거리,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거리행사장 마련

이러한 구성은 부평풍물대축제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는 1997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부평풍물대축제의 해당 연도별 주제와 행사일정 등을 정리한 것인데, 한눈에 축제위원회가 기획했던 축제들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소개해 본다.

표 3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현황 일람표

차수	기간	대주제	장소	비고
1	1997.09.30.(화)~10.05.(일)	'풍물'이라는 문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제고	부평근린공원, 부평일대	제2회 늘푸른 부평문화 예술제
2	1998.09.25.(금)~09.27.(일)	겨레의 소리, 민족의 신명	부평신트리공원, 부평일대	
3	1999.10.08.(금)~10.12.(화)	21세기 도약하는 새 부평! 새천년 번영의 부평!	부평공원, 부평일대	
4	2000.09.30.(토)~10.01.(일)	새 천년! 새 만남! 새 희망! Good-bye, Mr. Owell	부평역~부평시장역	
5	2001.09.22.(토)~09.23.(일)	하나더하기, 1+, ONE+	부평역~부평시장역	
6	2002.09.30.(토)~10.06.(일)	"어울림" 흥으로, 신으로, 바람으로	부평대로, 부평공원	
7	2003.06.03.(수)~06.08.(일)	"난장" 두드리고, 놀고, 즐기자	부평로, 신트리공원, 부평구일원	
8	2004.05.19.(수)~05.23.(일)	"더불어" 아시아와 함께 하는 부평의 힘!	부평로(거리축제), 신트리공원	
9	2005.05.25.(수)~05.29.(일)	Dynamic Bupyeong	부평로(거리축제), 신트리공원	
10	2006.06.07.(수)~06.11.(일)	"만남과 교류, 상생과 공존" 풍물의 허브	부평로(거리축제), 신트리공원	
11	2007.05.30.(수)~06.03.(일)	두레, 도시를 걷다	부평로(거리축제), 부평일원	
12	2008.05.28.(수)~06.01.(일)	두레, 도시를 열다!	부평로(거리축제), 신트리공원	
13	2009.05.20.(수)~05.24.(일)	두레, 도시와 춤추다!	부평로(거리축제), 신트리공원	
14	2010.06.09.(수)~06.13.(일)	너와 나, 그리고 더불어	부평로(거리축제), 신트리공원	
15	2011.05.25.(수)~05.29.(일)	너와 나, 그리고 더불어 (아시아 문화중심을 꿈꾸다)	부평대로	
16	2012.10.05.(금)~10.07.(일)	통(通)	부평대로, 부평일대	
17	2013.10.18.(금)~10.20.(일)	풍물과 함께 즐거운 여행, A Happy journey with Pungmul	부평대로, 부평일대	
18	2014.09.26.(금)~09.28.(일)	아시아와 함께 하는 풍물! One Asia!	부평대로, 부평일대	아시아 8개국 참가

차수	기간	대주제	장소	비고
19	2015.10.2.(금)~10.4.(일)	풍물이랑 놀자!	부평대로, 부평일대	
20	2016.9.30.(금)~10.2.(일)	풍물이랑 놀자! Play with Pungmul Festival!	부평대로, 부평일대	
21	2017.9.22.(금)~9.24.(일)	풍물이랑 놀자! Play with Pungmul Festival!	부평대로, 부평일대	
22	2018.10.12.(금)~10.14.(일)	광대, 도시를 물들이다	부평대로, 부평일대	
23	2019.9.27.(금)~9.29.(일)	부평, 신명으로 내일을 열다	부평대로, 부평일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
24	2020.10.16.(금)~10.18.(일)	부평이 울린다. 풍물! 마음이 울린다. 소통!	OBS 다큐 방영(10.17.)	코로나19사태로 온라인 축제

❖ 출처 : 부평풍물대축제 공식 홈페이지

5. 축제를 통해 뿌리를 찾은 부평두레놀이(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지역만이 갖고 있는 두레놀이의 뿌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부평두레놀이는 2004년부터 부평문화원이 전담하여 원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국립 문화재연구소 장서에서 경기 충청지방 고사 소리 9편 중 인천 경서지방 고유의 고사 소리, 즉 비나리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구전되어 오는 구비전승문학을 수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1~8 경기도 인천시 옹진군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부평 뜰에서 불렀던 비나리는 역사적으로 최소 130년 이상 된 두레풍물에서 전문인이 아닌 가장 순수한 원형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2007년 삼산동 영성마을 야막간 터에 축제위원회에서 전승비를 세우고(현 삼산1동 미래타운 4단지 도두리 공원) 부평구와 국립국악원 협조로 재현, 시연하였다.

부평두레놀이는 부평문화원과 두 명의 연구위원과의 협조 하에 2015년 3월 16일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부평풍물대축제와 22개 동 풍물단의 지원이 있었음을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



❖ CJ헬로비전 문화재 지정 관련 보도



❖ 부평문화원 당시 문화원장 임남재 인터뷰



❖ 부평향토민속보존회 문화재연구위원 조영호, 김면지



❖ 부평두레놀이

표 4 부평두레놀이 문화재 지정 과정

기간	내용	비고
2011.11.17.	부평풍물 연구위원회 구성	조영호, 김면지
2011.11.~2012.5.	부평풍물 인터뷰 및 녹취	12회 진행 (대상 : 삼산동 주민)
2012.5.~9.	부평풍물 문화재 추진 시연팀 구성 및 연습	
2012.6.14.~15.	부평풍물 학술 및 대중 공청회 개최	부평구청 대강당
2012.9.23.	부평풍물 문화재 등록심사 시연회	부평역사박물관 야외공원
2012.12.	부평풍물 자료집 발간	조영호, 김면지
2013.3.~11.	부평두레풍물 문화재추진 2차 시연팀 구성 및 연습	
2013.11.16.	부평두레놀이 문화재등록심사 시연회	부평두레놀이로 명칭 변경
2014.2.~10.	부평두레놀이 연습	
2014.7.1.	부평구청 어울림광장 공연	
2014.9.1.	부평두레놀이보존회 출범	
2014.9.3.	부평두레놀이보존회 헌판식	부평역사박물관
2015.3.16.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지정	

❖ 출처 : 부평문화원 사업과 자료

❖ 부평두레놀이 시연단원(35명) : 강정희, 강지원, 공연두, 김기선, 김명숙, 김상례, 김순이, 김영숙, 김영순, 김점례, 김종순, 김진순, 김철기, 김춘식, 김향구, 김희자, 박정옥, 박춘단, 신종선, 양경순, 양경자, 윤인자, 윤정순, 이경숙, 이경연, 이길호, 이동욱, 이명희, 이분례, 이상렬, 이상천, 이혜숙, 정계월, 조성희, 허소영

| 제4절 | 부평의 다른 축제

1. 지역과 소통하는 마을 축제

부평의 대표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 이외에 구내 각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여 열리는 축제가 많다. 대표적으로는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문화원 그리고 22개 행정동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들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복지단체가 주제별로 다양한 모습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축제는 음악도시에 걸맞은 축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솔아솔아음악제와 10월에 개최되는 밴드페스티벌이 있으며 청소년음악제와 함께 하는 부평청소년페스티벌 등이 있다.

부평문화원은 ‘정월대보름 in 부평’과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 등 우리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매년 기획하고 있다.

22개 행정동은 풍물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단위의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 결속을 다지고 또한 해당 지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축제라고 하면 그 흥을 돋우는 역할로 단연 풍물단을 빼놓을 수 없다. 부평구에는 동 풍물연합회 산하에 부평구 22개 동 풍물단이 있다. 부평풍물대축제와 정월대보름 축제 시 연출되는 풍물연합회 풍물놀이는 규모에서나 연주에서나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장관을 이뤄 축제에 참가하는 인천시민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테마별로 개최되는 축제는 그 지역이 살아 움직이는 각종 모습을 담고 있다. 그 지역 주민이나 같은 계층 간에 소통을 나누기도 하며, 계층 간의 이해를 도모하기도 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간혹 한편에서 축제는 그저 축제일뿐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왕에 시작한 축제는 서로 나누며 소통하고 지역 문화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구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축제는 부평풍물대축제 등 다른 기관이 주최하는 축제에 동참하면서 축제의 내용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또 예

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축제라 하더라도 지역 문화생활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축제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관계자들 간의 축제가 아닌 진정 지역주민들이 주인공인 축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부평의 주요 문화기관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부평구문화재단 축제

부평구문화재단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구민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열거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각각의 축제들이 어떤 계기로 무엇을 추구하여 개최하게 되었는지, 또 주요 참가 대상과 기간, 장소 등은 어떠한지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표 5 부평구문화재단 등 개최의 각종 축제

구분	축제명	축제시기	개최장소	주최·주관
1	부평키즈페스티벌	매년 5월	부평아트센터 광장	부평구문화재단
2	솔아솔아음악제	매년 5월	부평아트센터 광장	부평구문화재단/경인방송
3	부평밴드페스티벌 → 뮤직게더링	매년 10월	부평아트센터 등	부평구문화재단
4	부평생활문화축제	매년 9~10월 경	부평구생활문화센터	부평구문화재단
5	부평청소년페스티벌	매년 5~11월	삼산동	청소년수련관
6	청소년한마당축제	매년 5~9월	청소년수련관(한꿈마당)	청소년수련관
7	학교축제지원	매년 9~11월	관내 중·고등학교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1)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평의 어린이날 축제로서 2014년에 기획되었다. 당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부평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공연과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지만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화복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에는 약 3,000여 명의 어린이와 유아, 가족들이 참가하고 있다. 축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외 무료 공연, 어린이 그리기 대회, 문화예술체험행사, 보물찾기 등이 있다.



❖ 부평키즈페스티벌 모습(2018, 부평구문화재단)

❖ 구름 위 골드버그 도서관 행사 모습(2019, 부평구문화재단)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란?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진행되는 어린이 유료공연을 포함하는 전체 일정을 '부평키즈페스티벌'이라고 하고, 어린이날 당일 진행되는 야외 무료 축제를 '초록누리축제'이다.

아래 표와 같이 초록누리축제는 2014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0년에 7회를 맞이하였는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감염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표 6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 개최 현황

차수	축제기간	장소	비고
1	2014.5.5.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세월호 사고로 야외 행사 취소 (5.2.~5.11.까지 유료 공연 진행)
2	2015.5.5.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3	2016.5.5.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4	2017.5.5.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5	2018.5.5.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6	2019.5.5.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7	2020.5.5.	취소	코로나19로 취소

❖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2) 부평솔아솔아음악제

부평구는 광복 이후 대규모의 산업공단이 자리하면서 산업화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공장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이 배어있는 애환의 역사도 있다. 부평은 1970~80년대 부평 공단을 중심으로 노동가요의 산실이자 노동시인 고 박영근 시인이 거주했던 곳이다. 이와 같은 부평지역의 대중 음악사적 의미를 현대에 살리고자 야외 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음악도시 부평을 널리 알리고 대중음악 활성화에 동력으로 삼고 있다.

부평솔아솔아음악제는 음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음악제는 2016년 5월 21일 그 첫 번째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약 1,500명 내외의 참가자와 함께 노동시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박영근 시인 추모, 대중음악가수의 초청 공연과 민중가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연 등이 진행된다.



❖ 부평솔아솔아음악제 공연모습(2018, 부평구문화재단)

표 7 부평술아술아음악제의 개최 현황

차수	축제기간	장소	비고
1	2016.5.21.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2	2017.6.3.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3	2018.5.26.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4	2019.5.25.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5	2020.5.30.	취소	코로나19로 취소

❖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부평술아술아음악제는 경인방송과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며 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해 음악제를 전국에 소개하고 있다.

3) 부평밴드페스티벌

부평밴드페스티벌은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아티스트, 대중 밴드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음악축제로 대중음악 밴드 야외 콘서트로 진행된다. 부평에는 일제강점기에 무기를 생산하는 인천육군조병창이 들어선 곳으로 광복 후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여 ‘미군수지원사령부(ASCOM)’가 되었다. 일명 애스컴 시티로 불렸던 미군 부대는 총 7개의 캠프로 구성되었는데, 현재는 그중 캠프마켓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상태이다. 마지막 남은 캠프마켓도 이전이 결정되어 현재 그 일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는데 나머지도 곧 이전할 예정이다. 부평은 미군기지 애스컴을 중심으로 재즈, 로큰롤 등 대중음악을 확산하고 아티스트를 탄생시키는데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부평만이 갖는 음악사적인 특성을 살리고 음악도시 부평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평밴드페스티벌이 기획되었으며, 2015년 10월에 부평아트센터 야외 광장에서 약 3,000여 명의 일반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그 역사적인 첫 공연을 개최하였다.

부평밴드페스티벌은 2018년부터 ‘뮤직게더링’으로 변경되어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축제의 형태를 벗어나 지역 뮤지션과 함께 만드는 음원 제작, 거점 온라인 공연, 포럼, 뮤지션 인터뷰 등 다양한 사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 뮤직게더링 밴드 공연 모습(2018, 부평구문화재단)

표 8 부평밴드페스티벌의 개최 현황

차수	축제기간	장소	비고
1	2015.10.16.~10.17.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2	2016.10.14.~10.15.	부평공원 내 광장	-
3	2017.10.14.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
4	2018.10.26.~10.27.	부평아트센터 등	‘뮤직게더링’으로 명칭 변경
5	2019.10.11.~12.	부평아트센터 등	
6	2020.11.6.~11.12.	유튜브 채널 ‘부평사운드’	온라인 콘서트

❖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4) 부평구생활문화축제

부평구생활문화축제는 부평구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생활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기하고자 마련되었다. 축제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이거니와 100여 개의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 동호회,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가하여 공연, 전시, 체험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2017년에 1,000여 명의 참가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50개 단체 664명, 2019년에는 70개 단체 700여 명, 2020년에는 23개 단체 460여 명이 참가했다.

표 9 부평생활문화축제 개최 현황

차수	축제기간	장소	비고
1	2017.11.17.~11.19.	부평생활문화센터	-
2	2018.10.08.~11.14.	부평생활문화센터, 부평대로 일원	-
3	2019.9.24.~11.29.	부평생활문화센터, 부평대로 일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
4	2020.10.~12.	부평생활문화센터	코로나19로 온라인 운영

❖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제2회와 제3회 축제는 부평풍물축제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내 생활문화센터 및 부평대로 시민무대에서 동호회 공연 등을 기획하였다. 다만, 제3회 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되었고 제4회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되었다. 가령 2020년 10월 온라인으로 송출된 2020엔택트 생활문화(따로 또 같이)는 19개 단체 723명이 참가하였고 조회수는 2,731회를 기록했다.



❖ 부평생활문화축제에서 동호회 발표 모습(2018, 부평구문화재단)

5) 부평청소년페스티벌

부평청소년페스티벌은 부평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행사로 전국의 청소년들이 한 데 모여 끼와 재능을 펼치며 문화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당초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와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된 청소년 축제로, 전국의 청소년과 부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축제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청소년가요제,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인원은 연인원 1만여 명에 달한다.



❖ 부평청소년페스티벌 댄스경연대회 예선전 모습(2018, 부평구문화재단)

표 10 부평청소년페스티벌 개최 현황

차수	축제기간	장소	비고
1	2018.5.26.	청소년수련관(분수공원)	
2	2019.5.18.	청소년수련관(분수공원)	돼지열병으로 취소
3	2020.9.~11.	청소년수련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
4	2021.9월 예정	인천 부평공원	인천 시 수련관에서 진행

❖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6) 청소년한마당축제

청소년한마당축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창출과 청소년 주도의 기획·운영 및 재능기부를 통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청소년축제를 통해 청소년 문화가 갖는 특성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개발의 방향성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청소년 동아리 공연마당, 동아리 체험마당, 놀거리 부스운영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된 청소년한마당축제에는 관내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연인원으로 2,766명 참가하였다.

표 11 청소년한마당축제 개최 현황

차수	축제기간	장소	비고
1	2012.5.12.	청소년수련관(한꿈마당 / 분수공원)	
2	2013.5.11.	청소년수련관(한꿈마당 / 분수공원)	
3	2014.9.20.	청소년수련관(한꿈마당 / 분수공원)	
4	2015.5.9.	청소년수련관(한꿈마당 / 분수공원)	
5	2016.5.7.	청소년수련관(한꿈마당 / 분수공원)	
6	2017.5.20.	청소년수련관(한꿈마당 / 분수공원)	
7	2018.5.26.	청소년수련관(한꿈마당 / 분수공원)	
8	2019.5.18.	청소년수련관(한꿈마당 / 분수공원)	

❖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7) 학교축제 지원

그밖에 학교 축제기간 중 주제별 이동형 체험 부스를 구성하여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가령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과 평등과 존중의 학교 성문화 확산을 꾀하고자 선정된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부스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서로 다른 6개의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학사일정의 제약이나 참여의 제약을 회피함과 동시에 축제 내용의 다양성과 교육과의 연계를 꾀하였다.

표 12 축제 지원 부스 운영프로그램

제목	주제	내용	세부내용
행복! 통통!	궁금한 성	• 고민을 먹는 닭	• 성에 관련된 고민을 적어서 닭 모양 인형에 넣으면 해답이 적힌 계란을 줌
	젠더 감수성	• 젠더 퀴즈 온더 블럭 •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테스트	• 가로세로낱말퍼즐을 통해 성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봄 •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하여 스스로 체크해보도록 함
	안전한 성	• 월경이야기 • 피임 실천	• 다양한 월경 용품과 관련 그림을 제시하여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콘돔씹우기 실습을 통해 직접 피임을 체험함
	존중의 성	• 연애포스트 • 데이트 계획표 만들기	• 연애와 관련된 시험지를 제시하여 풀어봄 • 데이트 계획표를 제시하여 자신의 데이트를 계획해 봄
	평등한 성	• 성역할 고정관념 풍선 터뜨리기 • 평등과 존중 '토퍼' 만들기	• 풍선에 자신이 생각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써보고 다트로 터뜨려 봄 • 평등과 존중과 관련된 문장으로 토퍼만들기 체험을 함
	안전한 성2 (디지털 성폭력 예방)	• OX로 알아보는 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 타파	•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하여 OX 퀴즈를 풀어봄 • 디지털 성폭력을 타파하는 문구를 격파판에 붙여서 격파해 봄



❖ 2018년 10월 25일과 2019년 10월 25일의 학교축제 지원 모습

부스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한 학교 등의 개최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2개교 약 2,281명이 참가한 바 있다.

표 13 학교 축제 지원 현황

차수	축제기간	장소	비고
1	2017.9.~2017.12.	부원여중 외 4개교	809명 참여
2	2018.10.~2018.11.	산곡고등학교 외 4개교	940명 참여
3	2019.10.~2019.11.	부평여중 외 4개교	532명 참여
4	2020		코로나19로 취소

❖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3. 부평문화원의 축제

1) '정월대보름 in 부평' 축제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보름달이 뜨는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다. 이날에는 예로부터 부럼깨물기, 더위팔기, 귀밝이술 마시기나 줄다리기, 쥐불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한다.

부평문화원에서는 매년 우리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우리의 세시풍속을 구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결속을 다지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2월 19일에 개최된 정월대보름의 축제를 보면, 연날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한 지공예, 전통 활쏘기, 투호놀이, 소원지 쓰기, 쥐불놀이(불깡통 돌리기), 율점보기 등의 행사가 산삼동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부평구 구민 약 1,00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와 유아를 동반한 가족참가가 매우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우리 전통 세시풍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월대보름 축제에 대해 부모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정도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달집태우기와 강강술래는 그 규모가 웅장하고 타오르는 불꽃이 장대하여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데 손색이 없었다.

축제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축제 당일에는 부평구청 담당부서를 비롯하여 삼산경찰서, 부평소방서, 삼산모범운전자회, 부평보건서 등의 안전지도와 지원이 있었다. 축제 행사장에는 대보름 먹거리장터도 마련되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제공한다.



❖ 전통 연날리기 대회 모습(출처 : 부평문화원)



❖ 엄마와 함께 쥐불놀이하는 모습
(출처 : 부평문화원)



❖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달집태우기
(출처 : 부평문화원)



❖ 예술문화공연행사에서의 풍물놀이 공연 모습(출처 : 부평문화원)

표 14 '정월대보름 in 부평' 축제의 개최 현황

차수	축제기간	장소	내용	비고
1	1998.2.11.	부평공원	정월대보름맞이 부평구민기원제	
2	1999.2.27.	부평문화의거리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등	
3	2000.2.18.	삼산택지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4	2001.2.6.	삼산택지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5	2002.2.26.	굴포천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6	2003.2.14.	굴포천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7	2004.2.5.	신트리공원	길놀이,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8	2005.2.23.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9	2006.2.12.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10	2007.3.4.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11	2008.2.21.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12	2009.2.9.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13	2010.2.28.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14	2011.2.17.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15	2012.2.6.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16	2013.2.24.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17	2014.2.14.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18	2015.3.5.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척사대회, 달집태우기	
19	2016.2.22.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20	2017.	-	-	취소
21	2018.3.2.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22	2019.2.19.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지신밧기, 정월대보름체험,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23	2020.	-	-	취소

2)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 축제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이자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그네뛰기, 씨름 등 민속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다.

부평문화원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 전통의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를 매년 개최하여 단오의 전통놀이와 의미를 후대에 전승하고 있다. 축제는 지역 주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휴일날을 선정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공연과 각종 대회,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다.

2019년 6월 2일 일요일 부평문화원·부평역사박물관 뒤편 굴포천에서 개최되었던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 축제의 내용을 소개하면, 축제는 인천시 지정무형문화재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 성년식, 문화예술공연, 대회마당, 체험마당 등으로 채워졌다. 대회마당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그림그리기 대회, 굴포천배 왕중왕 씨름 대회, 단오한복 콘테스트, 한하운 백일장이 펼쳐져 우승자에게 상장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다. 그림그리기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부평역사박물관 2층 회랑에 전시되었다.

한편 축제마당과 박물관공원 일대에서는 체험마당도 펼쳐졌는데, 굴포천 생태환경 보호 프로그램, 창포 머리감기, 단오 부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페이스페인팅, 전통 활쏘기, 전통악기체험, 단오 컬러비즈 만들기 등이 기획되었다. 특히 굴포천 생태환경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미꾸라지 잡기와 굴포천 방사 체험에는 어린이와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가가 눈에 띄었다.



❖ 미꾸라지 잡기와 굴포천 방사
(출처 : 부평문화원)



❖ 전통성년식(출처 : 부평문화원)



❖ 그림그리기 대회(사진 허광무)



❖ 씨름 대회(출처 : 부평문화원)

표15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 축제 개최 현황

차수	축제명	축제기간	장소	내용
1	두레천하	2012.5.26.	부평공원	부평풍물공연, 전통체험, 문화예술공연, 전통성년식
2	두레천하	2013.5.25.	부평공원	부평풍물공연, 전통체험, 문화예술공연, 전통성년식
3	두레천하	2014.9.28.	부평대로	부평풍물공연, 전통체험, 문화예술공연, 전통성년식
4	부평굴포놀이 한마당	2015.9.12.	삼산동 박물관공원	인천시무형문화재공연, 전통체험, 문화예술공연, 전통성년식, 그림그리기대회
5	부평초록굴포 단오놀이	2016.6.12.	삼산동 박물관공원	인천시무형문화재공연, 단오체험, 문화예술공연, 전통성년식, 그림그리기대회
6	부평초록굴포 단오놀이	2017.5.28.	삼산동 박물관공원	인천시무형문화재공연, 단오체험, 문화예술공연, 전통성년식, 그림그리기대회
7	부평초록굴포 단오놀이	2018.6.17.	삼산동 박물관공원	인천시무형문화재공연, 단오체험, 문화예술공연, 전통성년식, 그림그리기대회
8	부평초록굴포 단오놀이	2019.6.2.	삼산동 박물관공원	인천시무형문화재공연, 단오체험, 문화예술공연, 전통성년식, 그림그리기대회
9	스마트부평 전통놀이	2020.9.27.	온라인	인천시무형문화재공연, 전통체험, 문화예술공연, 전통성년식

4. 부평구 '부평평생학습축제'

부평구청이 직접 주관하는 '부평평생학습축제'는 일반적인 공연 중심의 축제와는 다르게 주민들 참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평생학습기관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내용을 공유하는 나눔의 장으로 마련된 축제이다.

제1회 '부평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고취, 평생학습에의 참여확대,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확산, 평생학습의 성과 축하 및 공유를 목적으로 2007년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다. 처음 개최되는 축제에는 북부교육청, 인천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 20개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22개 주민자체센터, 학교 및 학습동아리 등 75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했고, 참가인원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렀다.

부평평생학습축제는 아래 표와 같이 2017년까지 관계 기관과 단체가 모인 가운데 해마다 개최(2008년 제외)되어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지역성장에 기여하였다. 일회성, 전

시성 행사형식을 탈피하고자 2018년부터는 평생학습 주간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적으로 다양한 학습(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표 16 '부평평생학습축제' 개최 일람표(2007~2017)

차수	주제명	기간	장소	참여대상(기관)	주요행사	주최·주관
1	배움과 나눔의 잔치 한마당	2007.10.6.(토)~7.(일)	부평구청 광장	75개 평생교육 기관(단체), 동아리 등	- 알림마당 - 배움마당 - 참여마당 - 특별행사 등	부평구청
2	부평에서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로 구 주최 축제 미실시	2008	-	-	-	-
3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참여하는 행복!	2009	부평구청 광장	112개 평생교육 기관(단체), 동아리 등	- 공식행사 - 나눔마당 - 배움마당 - 참여마당 - 즐거운마당	부평구청
4	소통과 나눔, 함께해요! 부평누리	2010	부평구청 광장	45개 기관(단체), 50개 동아리	- 공식행사 - 소통의 장(전시공연) - 나눔의 장(홍보 체험)	부평구청
5	미래를 향한 배움의 열정, 참여해요! 평생학습	2011	부평대로	50개 기관(단체), 57개 동아리	- 전시 - 공연 - 홍보·체험 - 부대행사	부평구청
6	참여와 나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부평	2012.10.6.(토)~7.(일)	부평캠핑 마켓(미군기지 내 야구장)	60개 기관(단체), 72개 동아리, 개인 40명	- 홍보관 및 프로그램 - 작품전시회 - 발표회, 경연대회 - 공연 및 부대행사	부평구청
7	배움과 나눔의 아름다운 동행, 부평에서	2013.5.11.(토)~12.(일)	삼산동 분수공원	59개 기관(단체), 39개 동아리, 개인 35명	- 홍보관 및 프로그램 - 작품전시회 - 발표회, 경연대회 - 기타 부대행사	부평구청

차수	주제명	기간	장소	참여대상(기관)	주요행사	주최·주관
8	락(樂) for you~!! 부평평생학습축제	2014.9.20.(토)~21.(일)	삼산동 분수공원	101개 기관 및 동아리	- 홍보관 및 프로그램 - 작품전시회 - 발표회, 경연대회 - 기타 부대행사	부평구청
9	2015 부평평생학습축제	2015.5.9.(토)~10.(일)	삼산동 분수공원	55개 기관 및 동아리, 개인 80명	- 홍보관 및 프로그램 - 작품전시회 - 발표회, 경연대회 - 어르신 한글도전골든벨 - 기타 부대행사	부평구청
10	골목골목 즐기GO! 찾아가GO!	2016.5.21.(토)~25.(수)	부평구 전지역	85개 기관 및 동아리	- 도전골든벨, 토크콘서트 - 체험, 경연대회 - 권역별 프로그램 - 특강 등	부평구청
11	알과 삶, 그리고 행복	2017.9.23.(토)~27.(수)	부평구 전지역	관내 평생학습 기관 및 동아리, 38개 프로그램 제공	- 권역별 프로그램 - 특강 - 체험 - 버스킹, 공연, 전시	부평구청
12	2018~평생학습 주간 운영 체제로 전환					

❖ 출처 : 부평구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참고 문헌



단행본

-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Ⅲ, 경기도박물관, 2000.
 계양구, 『계양사』, 계양구,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김포시·통진두레놀이보존회, 『통진두레놀이』, 김포시·통진두레놀이보존회, 2003.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1, 부천시사편찬위원회, 2002.
 서구사편찬위원회, 『西區史』, 서구사편찬위원회, 20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사』1,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7.
 인천시 서구, 『西區鄉土誌』, 인천시 서구, 1997.
 주강현, 『한국의 두레』1·2, 집문당,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논문

- 김혜정, 「인천 부평 삼산 농악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 『우리춤연구』19, 2006.
 김혜정, 「서곳 들노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인천광역시, 2013.
 박환영, 「김포 통진두레놀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0.
 배영동, 「호미씻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0.
 배영동, 「조선후기 답작형 두레의 출현 배경」, 『韓國의 農耕文化』6, 京畿大學校博物館, 2003.
 배영동, 「조선후기 호미씻이[洗鋤宴] 형성의 농업사적 배경」, 『농업사연구』2(2), 한국농업사학회, 2003.
 부평문화원, 「부평풍물(두레) 자료집」, 부평문화원, 2012.
 시지은, 「김포 통진두레놀이소리」,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3.
 신용하, 「두레共同體와 農樂의 社會史」, 『한국사회연구』2,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길사, 1984.
 이윤정, 「인천지방 서곳 들노래의 음악적 특징」, 『인천학연구』19, 2013.



-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편, 「통진두레놀이」, 『경기도의 민속예술』,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7.
 정연학, 「두레짜기」,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0.
 정연학, 「서곳 들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4.

웹사이트

부평풍물대축제 공식 홈페이지(<https://portal.icbp.go.kr/bpf/>)





제 2 장

부평 사람들의 삶과 민속

- 제1절 _ 한국 최초 천일염 생산지, 십정동 주안염전 1호
- 제2절 _ 부평평야와 농업
- 제3절 _ 토굴(지하호)과 새우젓
- 제4절 _ 인천 대표 막걸리, 소성주
- 제5절 _ 주거와 생활문화
- 제6절 _ 종교 생활

제2장 부평 사람들의 삶과 민속



정 언 학(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제1절 | 한국 최초 천일염 생산지, 십정동 주안염전 1호

1. 한국 최초 천일염 시험장

십정동(열우물 마을)에 한국 최초의 천일제염 시험장(부평구 십정동 558-7번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¹ 이를 알리는 표지석도 사람들 왕래가 거의 없는 폐공장 서울철강 담장 안에 있고, 오랜 세월 먼지와 잡풀로 가려져 있어 행인들 눈에 띄지도 않는다. 표지석에는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天日鹽田)지”라는 제목 아래 “구한말(舊韓末) 융희(隆熙) 원년(1907) 나라에서 천일제염을 계획하고 주안에 1정보(3천 평)의 천일시험 염전을 만든 것이 시초가 되어, 1911년에는 99정보의 천일염전을 완성함으로써 이곳이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지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다. 주안염전은 십정동 염전 시험장에서 소금 생산에 성공한 후, 그 면적을 212정보(1~8구)까지 확대하였고,

1 부평역사박물관, 『열우물 마을 부평 십정동』, 2017, 부평역사박물관, 55쪽.

염전 시험장은 제1구로 호칭하였다.



❖ 한국 최초 천일염전지 표지석

십정동에 천일염전 조성은 통감부(統監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탁지부(度支部)는 인천의 주안(朱安)에 천일제염, 부산의 용호(龍湖)에 자염(煮鹽) 시험 염전을 설립하고, 그 결과 주안의 천일제염 시험장이 양호하여 대만식 천일염전 축조 방식을 결정하였다. 주안면 십정리를 시험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넓은 간석지와 자염(煮鹽)의 주요 생산지였고, 경인선 개통으로 서울로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고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천일염 이송이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²

천일염전 조성의 대의적 목적은 한국의 전통 자염이 중국의 천일염(청국염)과 가격, 생산 등에서 경쟁을 할 수 없어 조선에서의 안정적 소금 공급을 위한 것으로 두었으나, 일본은 자국의 화학과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대량의 소금 수요가 절실한 상황이라서 일본과 가까운 조선을 천일염 공급지로 택한 것이다. 1918년 조선총독부 전매과장 히라이 미쓰오(平井三男)는 조선에서 천일염전 조성 이유로 첫째, 청국염과 경쟁을 위해 오직

2 황은수, 「주안 염전의 축조 배경과 과정」, 『남동구 20년사』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0, 419쪽.

천일염만이 그 대안이고, 둘째, 부족한 조선 내 식염을 천일염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셋째, 일본 화학공업에 필요한 원료로서의 천일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³

1907년 2월 21일 주안면 십정리 간석지에 염업 시험장을 개설한다는 표시가 세워지고,⁴ 2월 27일 민간 소유 가옥을 매수하기 위해 탁지부 참서관 김교헌(金敎憲)과 주사 변지상(卞志尙)을 파견하였다.⁵ 5월 11일 주안면 십정리에 시험장 조성을 시작하여, 8월에 1정보 면적의 천일제염 시험장이 완공되었다.⁶ 9월 23일 서대문역에서 특별 열차편으로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탁지부대신 고영희,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등이 완공된 주안 천일제염 시험장을 시찰⁷할 정도로 국가 주요 사업이었다. 주안 천일제염 시험장은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소속으로 두었고, 1년간 운영되다가 1909년 2월에 폐지되고,⁸ 정식 염전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십정동 탁지부 제염소는 1910년 임시재원조사국 주안출장소로 바뀌었다.⁹



◆ 1910년 지형도에 나타난 탁지부 제염소(하십정리)(출처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주안염전 축조에는 많은 중국인 기술자와 인부들이 동원되었고, 제염 방식이나 제염 기구는 대만식을 사용하였다.¹⁰ 제염 시험 결과, 품질은 중국 천일염보다 뛰어나고 대만 천일염과 비슷하였으며, 생산비 및 생산량은 청국염이나 대만염에 뒤지지 않았다.¹¹ 1908년 채염량은 13만 2,000근에 달하였다. 이에 통감부는 1908년 주안 천일제염 시험장을 20정보의 염전으로 확장 계획을 세우고, 후에 1919년까지 총 8구역 212정보의 대염전 조성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그 결과 주안 간석지를 사이에 두고 십정동 쪽에는 1·2·3·5·7구역, 주안동에는 4·6·8구역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조선전매국 주안출장소의 청사도 주안역 뒤에 설치하였다.¹²

3 『매일신보』, 1918년 6월 28일~7월 2일, 총 4회 연재된 조선총독부 전매과장 히라이의 담(류창호, 「소금이 만들어진 근대의 표상과 仁川의 염전」, 『인천역사』8, 인천역사문화총서67, 인천시역사자료관, 2011, 199쪽).

4 「製鹽立標」, 『황성신문(皇城新聞)』, 1907년 2월 11일자.

5 「製鹽定界派員」, 『황성신문』, 1907년 2월 27일자.

6 「製鹽將始」, 『황성신문』, 1907년 5월 11일자;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전매사』3, 1936, 297쪽.

7 「製鹽視察 7」, 『황성신문』, 1907년 9월 22일자.

8 「염업시험장관제(鹽業試驗場官制)」 칙령 제17호, 율령 3년 2월 18일(官報 제4308호, 율령 3년 2월 23일).

9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율령 4년 1월 26일 수요일.

10 石橋雅威, 『朝鮮の鹽業(조선의 염업)』, 友邦協會, 1983, 79쪽.

11 농상공부수산물(農商工部水産局), 『한국수산지』1, 1908.

12 경성전매지국주안출장소(京城專賣支局朱安出張所), 『주안염전개요』, 1922.



❖ 주안염전 약도(출처 : 경성전매지국 전매출장소, 『주안염전개요』, 1922)

표 1 주안염전 면적 및 축조 연대

(단위 : 정보)

구분	면적	축조 연대	
주안 (朱安)	1구역	1.1	1907.8.
	2구역	6.6	1909.6.
	3구역	9	1910.5.
	4구역	14.5	
	5구역	57.3	1911.7.
	6구역	32.4	1919.3.
	7구역	46.9	
	8구역	44.6	
	합계	212.4	

❖ 출처 : 인천교육회, 『인천향토지』, 1932, 136쪽.

주안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등 3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해수를 받은 후 20일이 경과하면 첫 소금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매일 소금을 채염할 수 있다. 총면적은 2정보이고 제1증발지는 1,800평, 제2증발지는 588평, 증발지 부속 함수류(鹹水溜) 36평, 결정지 320평, 결정지 부속 함수류 64평, 두둑 및 도랑 등 192평 반, 저수

지 1,350평, 제방 1,650평이다.¹³ 저수지의 해수는 삭망(朔望) 대조(大潮) 때 수문을 통해 받으며, 함수의 염도가 20도면 결정지로 보내 25도가 되면 소금 결정체가 생긴다. 소금은 채취 후 창고로 보내지는데, 주안염전의 경우는 주안역 앞의 창고로 보내서 포장 후 반출하였다. 소금은 주로 철도와 배를 통해 조선 전역으로 판매되었다. 당시 소금은 공업, 농업, 어업, 염장, 된장, 조미료 등으로 사용함을 설명하고 있다.¹⁴

1907년 주안염전에서 처음 생산된 천일염의 짠맛은 오랫동안 자염에 익숙한 조선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천일염은 자염에 비해 염화나트륨 성분이 높아 그 맛이 짜며, 흰빛의 자염과 달리 소금 빛깔이 개흙이 붙은 검은색이라서 거부감을 보였다.¹⁵ 또한 천일염의 결정체가 커서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소금을 분쇄하는 과정을 거쳤다. 1910년 주안염전 분쇄 공장에 분쇄기 2대를 설치하였는데, 하루 분쇄력은 약 3만 근 정도였다. 분쇄한 천일염은 일반 소금보다 100근당 약 20전을 더 받았다.¹⁶



❖ 1905년 주안염전 소금 채취 모습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 역사의 자랑』, 2001)



❖ 주안염전 전경(사진업서)(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13 경성전매지국주안출장소, 『주안염전개요』, 1922;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1, 1908, 592~593쪽.

14 인천교육회, 『인천향토지』, 1932, 135쪽.

15 유승훈, 『인천연안의 염업』, 『인천연안의 어업과 염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1, 101쪽.

16 인천교육회, 『인천향토지』, 1932, 137쪽.

주안출장소에서는 1920년부터 염부들의 힘든 노동에 대한 감사와 위로 행사로 소금 생산이 끝나가는 10월에 염전제(鹽田祭)를 개최하였다. 그 행사는 전야제, 신사참배, 시상식, 체육대회, 영화회 등이 있었다.¹⁷ 염전제 전날인 10월 4일 저녁부터 전야제가 벌어 지는데 이때 일본 신주(神主)와 무사, 중국인 등으로 변장을 한 무리들이 행렬을 짓고 전매국 출장소부터 십정리의 조선인 마을까지 행진하였다. 변장 행렬 뒤에는 조선인 풍물패들이 뒤를 이었다. 이튿날 새벽에 열리는 제례는 천조대신(天照大神)과 염조대신(鹽竈大神)을 합사한 주안 신사(朱安神社)에서 행해졌다. 신사 제례 이후 오전 10시부터는 전매국 테니스 코트를 중심으로 염부들의 운동회가 열리고, 오후에는 출장소장의 인사말과 상품권 추첨, 게이샤들을 동원한 연회가 이루어진 후 끝을 냈다. 1930년대 이후로는 염전제를 마친 후 저녁에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갖추기도 하였다.¹⁸ 염전제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첫 수확한 소금 사발을 비롯하여, 돼지머리, 삼색과실, 나물 등을 제상에 올리고, 대한염업주식회사 간부를 중심으로 제의를 하였다.

2. 주안염전의 시설과 소금 생산

주안염전은 제1기인 1909~1914년 사이에 1구를 중심으로 동쪽에 2, 3구, 남동쪽에 4구, 서쪽에 5구 염전을 조성하였다. 1918년부터 시작된 2기 공사로 1919년 6~8구의 염전을 조성하였는데,¹⁹ 사람들은 새로 조성된 6~8구 염전을 ‘신염전’이라고 부르고 제1기 때 완성된 염전을 ‘구염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신염전은 모래 성분이 강한 토질에다가 저수지가 증발지는 물론 결정지와 접하고 있어 지하를 통해 흘러드는 해수가 염전을 점점 침윤(浸潤)시켰다. 또한 증발지는 남서풍을 맞도록 단원형(短圓形)으로 되어야 하나,

17 近藤壽太郎, 「대정 14년의 주안, 남동, 군자염전의 염전제와 위안부에 대해(大正14年の朱安, 南洞, 君子鹽田の鹽田祭及び慰安會について)」, 『매국주안출장소관계자료(賣局朱安出張所關係資料)』,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국가기록원(CTA0002798).

18 「주안전매국 영화회(朱安專賣局 映畫會)」, 『매일신보』, 1938년 10월 7일자.

19 경성전매지국주안출장소, 『주안염전개요』, 1922, 1~2쪽.

장방형 또는 방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북쪽의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경우 함수가 넘치는 피해에 노출되었다.²⁰ 천일염전은 보통 완공 후 5년 이상의 숙전(熟田) 과정을 거치면서 1정보당 10만 근의 생산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염전은 8년 동안 5만 근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공사가 불안정하고 변변한 수리 및 보수 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²¹

표 2 1908년 주안제염 시험장 천일염 채염량

(단위: 근일)

월별	채염량	채염 일수	1일 평균 채염량	1일 최고 채염량	1일 최저 채염량
4월	25,352	22	1,150	2,128	40
5월	25,850	15	1,720	2,408	643
6월	25,141	14	1,800	2,862	264
7월	15,634	11	1,420	2,018	617
8월	11,417	11	1,040	1,800	337
9월	14,883	17	870	1,799	198
10월	12,941	18	720	1,822	213
합계	131,218	108	1,215		

❖ 출처: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전매사』, 1936.

주안제염 시험장의 1908년 소금 생산량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13만 1,218근(78,731kg)을 생산하였다.²² 채염 시기는 4~10월까지 이루어졌으나, 봄(4~6월)의 소금 생산량이 가을(8~10월)보다 많은 것은 온도와 증발량이 가을보다 봄이 높았기 때문이다. 채염 일수는 보통 11~22일 사이인데, 우기인 7~8월의 채염 일수는 11일로 봄, 가을보다 낮다. 1일 평균 채염량은 1,215근이었으며, 1일 최고 소금 생산량은 2,862근, 1일 최저 소금 생산량은 40근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20 류창호, 『인천학연구총서37』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보고사, 2017, 94쪽.

21 류창호, 『인천학연구총서37』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보고사, 2017, 106쪽.

22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전매사』3, 1936, 297~298쪽.

주안염전의 결정지 바닥은 옹기 파편을 이용하였다. 옹기 파편은 기온이 낮을 때나 비가 올 때 작업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신염전은 지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옹편을 깔아 요철과의 경사가 매우 심하게 굴곡되었다. 또한 증발지의 비율이 적절하지 못해 염도가 높지 않은 상단의 함수가 넘쳐서 하단으로 바로 흘렀다. 한마디로 부실 공사였다.

1925년 주안염전의 염부장 배치표를 보면, 총 11개 구역 중 한국인 염부장은 성장성(成昌成), 한사익(韓士益), 이응준(伊應俊), 성유경(成有京) 등 4명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성씨가 성장성, 성유경 등 성(成)씨인데, 십정동 열우물에 이른 시기에 정착한 가문이기 때문이다. 성씨는 500여 년 전 영월 군수를 지내던 성습지(成習之)가 다섯 가구의 인척을 거느리고 열우물에 정착하여 성씨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씨가 번창하게 된 것도 염전과 관련이 깊다. 열우물 김○○씨(익명요청)에 따르면 “성씨가 윗열우물에 번창하게 된 것은 염전을 운영했기 때문이야. 염뱃을 만들어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지”라고 한다.

표 3 1925년 주안출장소 염전 구분 및 염부장 배치표

(단위 : 년-정보)

염전 구분	준공 시기	면적	성명	소재지
주안 1, 2구	1907 / 1909	7.7	成昌成	인천시 십정동
주안 3, 4구	1910	23.5	井上金勝	인천시 주안동
주안 5-1구	1911	13.2	松本義七郎	인천시 십정동
주안 5-2구		25.2	山下兼	인천시 십정동
주안 5-3구		18.9	韓士益	인천시 가좌동
주안 6-1구		12.5	山田義一	인천시 주안동
주안 6-2구	1919	19.9	伊應俊	인천시 가좌동
주안 7-1구		22.8	成有京	
주안 7-2구		24.1	山口平一郎	
주안 8-1구		32.5	常岡庄三郎	
주안 8-2구		12.1	岩尾惟命	

❖ 출처 : 류창호, 『(인천학연구총서37)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보고서, 2017, 115쪽; 주안전매지청, 『주안염전개요』, 1959, 1쪽. 두 자료를 혼합하여 재구성함.

염전의 간부는 염전 감독과 염전 담당원으로 나뉘며, 염전 감독은 각 구마다 1명씩 두는 것이 원칙이다.²³ 주안염전의 감독은 2명으로 남동(3명)과 소래(4명)보다 염전 규모가 작아 인원이 적었으며, 대략 100~200정보의 구역을 담당하였다. 염전 감독은 전매국의 판임관(判任官) 또는 고원(雇員) 직위의 사람들이 임명되었으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견습생(見習生)이 판임관을 보좌하며 일부(40~50정보)를 따로 맡아 관리하였다. 염전 담당원은 ‘염부장’으로 염전 감독을 보좌하며 20여 정보의 구역을 맡았다. 1925년 주안염전의 경우는 11개 구역으로 나뉘 각각 염부장을 두었는데, 가장 작은 면적을 맡은 염부장은 7.7정보이고 가장 큰 면적은 32.5정보였다. 그런데 염부장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율이 4:7로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염부장은 조선인 일반 염부를 채용하는 권한을 가졌고, 높은 급여와 보너스를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²⁴ 이와 반해 염부들은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되고, 일급제였다. 상용직은 제염 기간 중 고용이 보장되지만 임시직은 작업 상황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임시직은 통상 우기인 여름철에 감축에 들어갔다가 소금 생산 중단기인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아예 고용을 하지 않았다. 1942년 주안염전의 경우 상용직이 2만 9,532명, 임시직이 9,816명이며, 일일 단가는 상용직이 0.995엔, 임시직이 0.900엔이었다.²⁵

주안염전은 1963년 「염관리법」에 의해 소금 전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의 대행기관인 대한염업주식회사(1963~1991)가 운영하였다. 그러나 주안염전은 공업화를 주창한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행에 의해 1968년 폐전(廢田)되고, 그 자리에 1973년 주안수출5·6공단이 조성되었다. 대한염업주식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고(故) 김명국(1928년생, 평북 개천군)씨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서는 주안염전 가운데 주안염전 시험장인 십정동 1호 염전만큼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어, 보존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 입장을 거스를 수 없어 그대로 염전을 폐전하게 되어 아쉬웠다”라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1호 염전의 염부는 인근의 십정동 하동 주민 대부분이 고용되었고, 상동 사람들도 일

23 인천교육회, 『인천향토지』, 1932, 138쪽.

24 류창호, 『(인천학연구총서37)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보고서, 2017, 118~119쪽.

25 류창호, 『(인천학연구총서37)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보고서, 2017, 120쪽.

부도 참여하였다. 2010년경 만난 염부들은 “당시에는 먹고살 길이 막막하여 염부로 일을 하였고, 임시 염부도 염부장에게 잘 보여야만 가능하였다”, “자다가도 비가 오면 뛰어나가 함수를 걷는 작업을 하였다”라고 염부의 고된 삶을 회상하였다. 또한 주안염전에는 천일염 이외에도 함수로 소금을 굽는 제염소가 별도로 있었다. 십정동 김용수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제염소에서 염전 기술자로 1949년까지 근무하였으며, 그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일본군의 군수품으로 납품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염전 일이 힘들어서 염부로 일할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십정동은 과거 ‘부촌’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십정동의 상당수 주민들이 염전에 종사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이나 일급을 받아 현금 유통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염부의 수익이 농민보다 높았으며, 농민들도 농번기가 아닌 여름철에는 소금 생산이 한참이라서 염전 잡부로 일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소금이 가장 많이 채취되는 시기는 5월 단오에서 장마철 이전인 7월 사이이다.

이제 주안염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당시 염부들도 세상을 떠나면서 그 기억도 묻히고 말았다. 다만, 주안 공단이 조성된 이후에도 염전 독방길을 따라 갯지렁이를 잡아 판매한 십정동 부녀자들의 기억만 남아 있다.

| 제2절 | 부평평야와 농업

1. 부평수리조합과 농업의 변화

부평 지역의 논은 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 논의 질이 판가름 났다. 수리시설 인근의 논들은 벼 생산량이 많은 반면, 비를 기다려 농사를 짓는 천수답(天水沓)의 경우는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비가 늦게 오면 과중도 늦어 생산량도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좋은 논은 1마지기를 150평으로 산정하였다면 일반적인 논은 200평으로 족다. 또한 좋은 논(양석논) 1마지기에서는 벼가 2~3가마가 생산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논에서는 2가마도 생산하기 힘들었다.

부평 지역 농업사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부평수리조합의 창립이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5,000여 정보가 넘는 광활한 부평평야는 비에 의지하는 천수답이었다. 또한, 매년 우기(雨季)에 한강이 홍수를 만나 범람하면 이 지역 일대가 진흙으로 변하여 농작물이 전멸하는 것이 상례였다.



◆ 부평수리조합 동부 배수갑문 및 바닥보호 공사(출처: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수리조합은 조선총독부로부터 1923년 4월 9일에 인가받았다. 당시 창립 위원은 6명으로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구장 정인섭(鄭寅燮)을 제외하고 5명은 30정보 이상을 소유한 일본인 지주였다. 그 가운데 한다 젠시로(半田善四郎)는 406정보를 소유한 최대 토지 소유자로, 수리조합 창설을 주도하였고, 1934년부터 부평수리조합의 제4~6대 조합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쓰야마 쓰네지로(松山常次郎)는 구역 내에 8.2정보를 소유하고, 일본정우회 대의사(日本政友會代議士) 겸 황해사(黃海社) 사장으로 초대 조합장을 지냈다.

부평수리조합의 창립 목적은 한강을 수원으로 한 관개(灌漑) 개선이 중심이었다. 굴포천을 가운데 두고 동서 간선 수로를 뚫어 한강물을 양수기로 퍼 올려서 상류에 물을 대는 것이었다. 1924년에 착공하여 이듬해 제1지구를 준공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여 1941년에는 4,120정보를 양수기를 수원으로 하였다. 조합으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였다.

1943년에는 부평수리조합에서 한강수리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43년에는 김포수리조합의 3,200정보를 편입시켜 8,000정보가 넘는 대조합으로 발전하였다. 해방 이후 1970년대에는 명칭을 한강농지개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현재는 도시 개발로 대규모 주거 시설이 들어서 있다.



◆ 부평수리조합평면도(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부평수리조합 양수장 전경(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일제강점기에 부평 지역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다.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10%에도 미치지 않으며, 대부분 한두 명의 지주가 농토를 대부분 소유하였다. 또한 주인들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마름을 통해 농사를 짓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결국 부평수리조합의 창립은 지주제를 확립하고, 특히 부재지주의 증가로 소작농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소작료는 농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6:4로 생산량을 나누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소작 농민들은 농사짓는 데 필요한 비료나 뽕씨 등을 모두 개인이 해결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소작쟁의를 일으켜 저항하고 사회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부평 지역 농민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시기는 6·25전쟁 직전부터 시작하여 6·25전쟁이 끝난 후 토지개혁 때이다.

2. 부평 지역 농업 문화

부평 지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부평평야라고도 불렸다. 현재 공업단지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평 지역의 외곽은 여전히 농업이 성행하였다.

벼농사는 1970년대 이후 농기계의 보급으로 한마디로 손쉬운 농사로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농사력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 양력 4월 초순이 되면 벼씨를 물에 담갔다가 중순에 못자리를 만들었다. 모내기에는 수리조합 구역 내의 논에서는 물 공급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모를 냈다. 그 외의 지역은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모내기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모내기를 하지 안에 내면 ‘조양(早穰)’, 하지를 지나면 ‘마냥(晩穰)’이라고 했다. 조양은 이른벼, 마냥은 늦은벼라는 의미이다. 마냥모는 호미로 땅을 파서 모를 심었으며, 때론 벼 대신 밭작물인 메밀을 심기도 하였다. 모내기는 줄모를 이용하였으며, 관청에서 못줄의 길이를 장줄 9치, 가로줄 5치를 권장하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모를 드물게 심었다고 한다.

김매기는 보통 세 번 하는데 두 번은 호미로 매고 마지막은 손으로 훑었다. 첫 번째 김매기는 모를 내고 15일 후에, 두 번째는 초벌 김매기 후 15일이 지난 후에 하였다. 마지막은 벼의 뿌리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김을 매었다. 일제시기에는 모내기를 할 때 일손이 모자라면 인천 항구 같은 데서 품팔이꾼을 사오는 일도 있었다. 인천 항구에서 일을 하는 ‘노가다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면 시골에 가서 농사 품을 팔았다. 이들은 대개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주로 농사가 많은 사람들이 품팔이꾼을 썼는데 보통 열댓 명씩 불러서 자기 집 사랑채에 재우면서 일을 시켰다.

모내기와 김매기 때에는 새참, 점심, 저녁 새참, 결끼리(결두리) 등 모두 네 번의 음식을 준비하였다. 결끼리는 일꾼들이 힘든 일을 할 때 끼니 외에 때때로 먹는 밥을 가리킨다. 음식은 김매는 여러 집에서 준비하였으며, 새참으로는 국수와 막걸리, 점심에는 보리밥과 오이와 미역을 넣은 오이찬국, 막걸리 등이 주로 제공되었다. 김매기가 끝나면 농사 평수를 따져서 품값을 따로 계산하였다. 동양동 일대에서는 김매기가 끝난 것을 ‘김 손을 놓았다’라고 하였으며, 백중이나 중복, 말복 등 하루 날을 잡아서 동네 그늘이 좋은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았는데, 이를 ‘두레 파접’이라 하였다. 김매기가 끝나는 7월부터는 비교적 한가하게 보냈다. 벼는 9월 중순부터 거두기 시작하여 10월 중순이 되면 탈곡까지 마쳤다. 백석동 한들에는 들마당이라고 하여 타작하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타작관을 두고 타작 날짜를 정하여 하루에 서너 집 정도가 할 수 있었다.

텃밭에서는 가정에서 필요한 고추, 마늘, 배추, 무, 상추,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보리와 콩을 이모작하였다. 보리는 찰기가 많은 늘보리와 상대적으로 거친 얇은뱅이보리 두 종류가 있지만, 주로 늘보리를 심었다. 늘보리는 8월 보름에 파종을 하고, 복토(覆土)는 쇠스랑이나 끌개를 소에다 멩에를 메고 매달아 돌아다녔다. 김매기는 3~4월에 하고, 수확은 6월 10일경에 하였다. 보리를 베고 나면 6월 20일경부터 콩, 감자, 고구마를 파종하였는데, 콩은 주로 흰 콩을 심었다.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아서 네 거웃지기로 두둑을 만든 후 사람이 한쪽 발로 찍고 콩을 넣은 후 다른 발로 흙을 푹 쳐서 덮어서 심었다. 콩을 심은 후 콩밭 사이에 수수나 깨를 심기도 하였다.



❖ 대파종묘(좌)와 무파종하기(우)

부평은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근거리 농업이 발달하였다. 해방 이전부터 오이나 토마토, 고추, 배추, 무 등을 재배하여 부평시장이나 동인천역 참외전거리에 판매를 하였다. 또는 위탁 상인에게 넘기는 판매를 실시하였다. 지금도 부평 일부 지역에서는 비닐 하우스를 통한 채소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다.

소는 농가의 중요한 노동력이자 귀중한 재산이었다. 소는 잘 사는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소와 사람의 품앗이는 소를 하루 빌리면 사람이 이틀이나 삼일 동안 일해 주어 갚는 방식이었다. 소를 일 년 동안 빌리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도지소’라고 하며, 일 잘하는 소는 도지를 더 내야 했다. 또한 송아지를 주인 대신 키워 어른 소가 되어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는 주인에게 주고 소는 팔아 주인과 반반씩 나누는 것을 ‘얼이로 키운다’고 하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과 부평공단 등이 들어서면서 부평 중심 지역의 농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농민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진다. 1980년대 이후에는 상점,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부평 중심 근교의 농지는 자연스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택지가 자리를 잡았으며 1990년대 말에는 부평 외곽의 농토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농지의 감소는 자연스레 농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실업자나 도시의 노동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 자녀들은 부평 지역의 공장이나 상점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농지의 감소는 전통 농기구의 소멸을 앞당기게 되었고, 농업과 관련된 세시풍속이나 민간신앙도 자연스레 소멸되었다. 또한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생업 이전은 대가족 단위에서 핵가족 단위로 가족체계의 변화와 생활 패턴의 변모를 가져왔다.

1) 십정동의 밭농사²⁶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열우물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토지를 특정 몇 명이 소유를 하였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을 지었다. 당시 십정동의 토지는 성씨네 소유였고, 사방 30리가 그들의 땅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성씨 후손들이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과거 십정동은 밭보다 논이 더 많았다. 대부분 산자락에 집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현재의 도로, 동사무소, 학교 자리가 과거 모두 논이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십정동 지역은 농업을 근간으로 생활하던 지역이었다. 동암역 근방은 호박밭이 자리를 잡았고, 열우물 지역은 전형적인 논농사 지역이었다. 주요 농작물은 쌀과 보리였는데, 보리는 겉보리였다. 채소는 배추, 무 등을 재배하였으나 과거에는 비료가 없어서 고추 농사를 짓지 못했다. 당시 거름은 산에서 풀을 베어다가 물에 썩혀 거기에 흙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나 과거 거름이 턱없이 부족해서 밭농사는 주로 겉보리였으며, 똥거름은 마차

위 탱크에 싣고 밭에 끼얹어 농사를 지었다.

일부 사람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훼를 키우기도 하였다. 30년 전에는 국화꽃이나 장미를 주로 재배하였는데, 기념행사나 졸업식에 소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꽃들은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도매상가에 넘겼으며, 꽃 시세가 그때그때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결제를 해주었다고 한다. 토지 임대료는 1마지기(200평)에 쌀 1가마를 도지세로 내었으며, 지금도 그 가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열우물에는 공동 노동조직인 두레는 없었다고 한다. 단지 아는 사람들 사이에 품앗이를 구성하여 제 시기에 해야 하는 모내기과 김매기 등을 서로 도와주었다. 소를 이용한 품앗이도 성행하였는데, 사람이 와서 쟁기질을 대신 해주는 경우에는 세 몫을 쳐주었다. 한 몫은 쟁기질하는 사람, 두 몫은 소의 노동 대가다. 소는 농기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상당수 농가에서 키웠으며, 부를 축적하기 위해 소를 키우는 농가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농사를 적게 짓는 가난한 농가에서는 소를 키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또한, 1960년대 경운기 등 농기계가 등장하면서 소를 키우는 농가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과일과 채소 농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과일로는 포도를 재배하고, 채소는 봄에는 토마토와 오이를, 가을에는 배추와 무 등을 재배하였다. 채소 작물에 따라 땅을 갈고, 파종, 성장, 채취 등의 과정을 여러 차례 거둬야 하기 때문에 꽃을 키우는 일보다 힘이 든다. 그렇지만 채소 시장 유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포도 농사도 한때 성행하였으나 대부분 영흥도, 화성 등지의 포도 시세에 눌러 포도나무를 뽑아 버리고 그곳에 채소를 심었다.

그런데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970년 초 주안5·6공단이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의 확대에 따라 논이 주거 시설로 바뀌었으며, 2014년 십정동에 건립된 아시안 게임 경기장은 그나마 남은 토지를 더욱 축소시켰고, 최근에 지어진 빌라들로 인해 점차 마을 경관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젠 십정동 열우물 지역은 밭농사를 중심으로 몇 사람만이 농사를 짓고 있다.

26 부평역사박물관, 『열우물마을 부평 십정동』, 2017, 76~79쪽.



❖ 채소 재배(좌)와 비닐하우스 채소(우)

십정동의 10호 정도는 텃밭을 일구며 생활하고 2호는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십정동의 어느 성(成)씨는 무료로 임대한 땅과 자신의 소유 땅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성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농사를 지은 지는 몇 년 안 되었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배추, 상추, 들깨, 가지, 고추 등의 모종한 것을 키우며, 그 모종판을 팔아 수익을 올린다. 현재 모종 한 판의 가격은 5,000원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텃밭에서는 민가의 김장 및 양념용 작물을 많이 심는다. 즉, 배추, 마늘, 대파, 고추, 가지, 호박 등을 재배하며, 일부 가옥은 퇴비와 농기구 등을 보관하면서 쓸 수 있는 원두막도 만들었다.



❖ 종묘판에 씨앗담기(좌)와 종묘 키우기(우)

재배한 채소는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부평농협에 도매로 넘기기도 한다. 십정동의 농민들은 대개 부평농협 조합원이자 채소 작목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채소 작목반은 농협에 채소를 위탁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나 판매 리스트 등을

주로 관리하고, 공동 작업이나 판매 등을 하지는 않는다. 현재 채소 작목반은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사에 쓰이는 농기구는 경운기에 밭을 갈 수 있는 바퀴를 부착한 트랙터를 비롯해, 배추 등 채소를 운반하기 위한 세발 손수레, 밭에 골을 내기 위한 팽이, 김을 매는 호미, 풀을 베기 위한 낫, 건풀을 모으기 위한 갈퀴, 거름 등을 담기 위한 삽 등을 주로 사용한다.

2) 삼산동과 논농사

삼산동은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른 들판을 가진 평야지역이었으나, 서울외곽 고속도로와 삼산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상당수의 논이 아파트로 변모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논이 사라진 상태이다. 삼산동 송○○씨(익명 요청)에 따르면, 자신의 많은 논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고, 본인도 현재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만, 삼산2지구 노인들은 아파트 앞 예전의 마을에 위치한 노인회관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눈다. 한편, 삼산동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부평 지역 일대의 채소들이 이곳으로 집결하기도 하였다.



❖ 삼산1동 농지 전경

삼산동에서 보통 농사를 지어 먹고살 정도라면 논을 30마지기는 소유해야 한다. 한 마지기는 수리시설이 갖추어진 논은 150평이고, 그렇지 않으면 200평인데 삼산동은 일제강점기에 수리시설이 조성되어 수량이 풍부하였다. 삼산동 일대의 농토는 일제강점기에는 지주회사가 운영하고 삼산동 농민들은 소작을 하였다. 해방 이후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소작농들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더불어 두레패가 생기기도 하였다. 두레패는 집집마다 한 사람씩 가입하였고, 풍물을 치는 사람들만도 15~20명에 이르렀다. 두레패는 나이가 많고 농사일을 잘 아는 '영좌(상좌)'와 영좌를 보좌하는 나이 어린 사람인 '조사', 그리고 '두레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좌는 날짜를 정해 김매기 순서를 정하고, 백중놀이와 연말 결산을 주관하였다. 백중 때는 힘들게 논의 김매기가 끝났을 때 막걸리와 밥 등을 같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기었다. 백중날 돼지를 잡는 일 등은 가난한 농가에서 꿈도 꾸지 못하였다고 한다. 김매기 등 두레 풍속은 농약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소멸되었지만, 풍물꾼들은 근래까지 악기를 치면서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에 지신밟기를 하였다.

삼산동에는 두레는 물론, 품앗이의 형태도 이루어졌다. 모내기나 김매기, 벼를 수확할 때 이루어졌고, 소도 그 대상이었다. 소를 부리는 사람과 소가 오면 네 사람 몫으로 계산하고, 소만 빌려오면 두 사람 몫으로 계산했다. 쟁기 부리는 사람을 두 사람 몫으로 계산한 것은 일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쟁기질을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왜쟁기'인데, 여기서 왜쟁기는 일본에서 들어온 쟁기를 가리킨다. 소가 없는 가정에서는 쟁기로 꼴을 탈 때 사람이 끌기도 하였다. 소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해 송아지를 구입해 키우다가 팔기도 하였다. 타작도 품앗이로 많이 하였다. 품앗이꾼 사이에는 서로 타작을 해주고, 다른 집에 타작을 해주는 경우에는 벼로 품삯을 받았다. 정해진 탈곡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타작 품앗이꾼 들끼리 그 이득을 나누어 가졌다. 타작은 하루 종일 휴식 없이 일을 하기에 무척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타작 품앗이는 방앗간과 탈곡기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사라졌다.

어린 머슴이 상머슴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힘도 있고 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삼산동 송씨에 따르면 보통 20살은 되어야 성인으로 품을 받았고, 쟁기 부리는 기술이나 방석 짜는 일 등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농사 일 중에 힘든 일은 김을 매거나 벼

를 베는 일인데, 그것은 허리에 많은 통증이 오기 때문이다. 지금의 논농사는 농기계와 농약의 보급으로 농사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 지게 지는 일도 힘든 노동이었다고 한다.

농기구는 손수 만드는 것보다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삼산동 송씨는 자신은 농기구를 만들지 못하고, 지게도 마을에서 잘 만드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구입을 하였다. 그러나 구입한 농기구를 손보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하였다. 농기구들은 5일장에서 주로 장만하였고, 오정동이나 김포 5일장을 이용하였다.

3) 효성동과 농사

해방 무렵 효성동 일대의 논과 밭 비율은 3:7로, 전체 경지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²⁷ 효성동을 북서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 아래의 경지는 대부분이 밭이었으며, 논은 이동 중앙경로당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평지에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일제시기에 공장부지로 조성된 땅을 개인들이 불하를 받아서 논농사를 지었으며, 10년 동안 정부에다 벼로 상환금을 냈다. 공장부지 땅은 효성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산곡동 주민들도 일부 경작을 하였다. 이 땅은 수출공단 4단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부에서 수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외지 사람들 서너 명이 산 아래의 황무지를 개간해 배, 포도 등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효성동 일대에서는 논 한 마지기를 150평으로 친다. 그나마 있는 논도 대부분 천수답이어서, 비가 오면 논으로 이용하지만 가물면 밭으로 사용하였다. 해방 이후에 논으로 사용한 공단부지의 땅도 흙을 새로 개토했던 곳으로서, 갈대만 무성하고 벼가 잘 자라지 않았다. 좋은 논에서는 한 마지기에 벼 4가마가 생산되었으나, 웬만한 논에서는 벼 2가마가 났으며 가물 때는 벼 한 가마 나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한강농지개량조합(구 부평수리조합) 이단수리조합이 결성되면서 한강물을 효성동까지 끌어다 쓰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수리조합이 생기기 전까지 마을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모내기 때 부평수리조합 구역에 속하는 서운동 쪽으로 품을 팔러 가는 이들도 있었다.

27 인천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인하대학교 박물관,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5, 50~54쪽.

그쪽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서너 명이 짝을 지어 가서 그 집 사랑방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품을 팔았다.

해방 무렵까지도 비가 늦게 와서 모내기를 할 때는 줄을 댈 시간도 없었고 품앗이도 불가능하였다. 하루라도 빨리 모를 내야 쌀 한 움큼이라도 더 먹는다고 해서 가족들끼리 자기 집 모내는 일에 바빴기 때문이었다. 보통 논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었으나 마냥으로 모를 낼 때는 온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서 빨리 모를 내야 했으므로 여자들도 노동에 참여했다.

논매기는 모내고 나서 15일이나 20일이 지난 다음에 했다. 비가 정상적으로 내린 해에는 세 번 논매기를 했는데, 두 벌까지는 호미로 하고 마지막 세 벌째는 손으로 훑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딱딱하면 김도 못 매고 놓아두었다가 수확을 할 때도 많았다.

논 김매기는 남자가 하는 일로 두레를 조직해서 했다. 두레패는 김촌말과 이촌말, 임촌말에 각각 하나씩 조직되어 있었다. 두레패 인원은 15명가량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농사 규모가 있는 사람만이 두레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자격이 없었다. 두레패의 우두머리는 팽과리를 치는 상쇠가 맡았으며, 이 사람이 두들기는 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했다. 두레로 김매기를 하게 되면 논바닥을 순서대로 쓸면서 작업을 하였다. 식사는 그날 일을 하는 집에서 대접을 하였는데 하루에 여러 집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누구 네는 밥을 준비하고 누구 네는 술을 준비하라는 식으로 분담을 하였다. 이때 주로 잘 사는 집에서 밥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보통 오후 6시가량이 되었는데, 일이 끝나면 형편이 좋은 집 마당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흥겹게 놀았다. 여름에는 논일 이외에도 밭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김매기가 끝나고 나서 두레패가 하루 낱을 정해서 노는 일은 없었다.

효성동의 두레패는 6·25전쟁이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두레패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두레 풍물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피란민들도 들어오고 두레로 김을 매면 술 먹고 싸움을 하는 일이 잦아 슬그머니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임촌에서는 노동조직이 아닌 풍물만 치는 두레패를 다시 조직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열악하여 마을 부잣집에서 장리쌀(長利-)을 꺾다 먹어야 했다. 장리쌀은 보통 봄에 쌀 한 가마를 빌려다 먹으면 가을에 한 가마 반을 갚아야 했으나, 이것도 못 얻어먹으면 곱장리로 빌려와야 했다. 곱장리는 사실상 넉 달 안에 곱의 이자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고리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장리쌀을 얻어먹는 것도 힘들어서 보리쌀이나, 수수쌀, 좁쌀 등을 한 되 얻는 대신 하루 일로 갚는 형태가 더 많았다. 따라서 곡식 한 가마를 빌려다 먹으면 일 년 농사를 지어주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소는 값이 비싸서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가축이 아니었다. 1950년대에는 소 한 마리 값이면 딸을 시집보낼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 소를 하루 빌리면 사람이 하루 가서 일을 해주어야 했고, 소와 함께 마차까지 빌리면 사람이 이틀 일을 해주어야 했다.

밭에서는 주로 보리와 콩 농사를 윤작으로 많이 지었다. 8월 추석 무렵 콩을 수확하고 나면 가을보리를 심었다. 보리는 겉보리이며 쌀보리와 키가 비슷하나, 쌀보리의 낱알 껍데기가 반들반들한 것과 달리 길쭉하고 가운데가 께졌으며, 도정하고 나면 알맹이가 뽀얗게 나왔다. 베어진 보리는 며칠 동안 바닥에서 말렸다가 짚단을 묶는데 보리 짚은 가운데가 비어있어서 조금만 비에 젖어도 금방 썩어버렸다. 다음 날 비가 온다고 하면 밤새 보리 짚을 걷어서 쌓아두어야 했다. 보리는 망종과 하지 사이에 수확했으며, 콩은 보리를 베고 나서 바로 심었다. 콩 파종 시기는 모내기와 비슷하여서 농사일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콩을 파종할 때는 짚으로 엮은 종태기에 콩을 담아 사람의 목에 멘 다음에 두덕 위에 두 명의 사람이 서서 나란히 걸어가면서 심는데, 왼발로 구멍을 두 개 파서 구멍마다 콩을 두세 알 넣고 오른발로 흙을 덮은 후 30cm가량 떨어져서 다시 구멍을 파고 콩씨를 넣는다. 따라서 두덕 하나에 4줄로 콩을 심게 된다. 밭을 이용해서 콩을 심기 때문에 작업을 다 끝내고 나면 허벅지까지 하체 전체가 아팠으며, 토양이 마르고 밭을 쟁기로 갈아엎어도 보리 뿌리가 남아있어서 밭뒤꿈치가 다 까졌다고 한다.

콩을 심은 가운데는 보통 2~3m 간격으로 수수모를 뽑아다가 서너 개씩 심었다. 콩밭 사이에 심은 수수는 잘 자란다고 하며, 수수 이외에 콩밭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일은 별로 없었다. 땅이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열무를 콩밭 사이에 심기도 하였다.

김촌말에는 연자매가 하나 있었으나 해방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발동기로 돌려서 쌀을 찧는 이동 정미소가 마을을 돌아다녔으며, 효성사거리 북쪽에 정미소가 생기면서 이동 정미소도 사라지게 되었다. 외지인이 운영한 정미소는 효성동의 유일한 정미소였으나 후에 계산동으로 이전하였다.

| 제3절 | 토굴(지하호)과 새우젓

산곡동 화랑농장 주변에는 24개의 토굴(지하호)이 있다. 부평문화원은 2016~2018년 동안 ‘지속가능 부평토굴만들기’ 사업을 전개하여 산곡1·3동 주변 내 24곳의 지하호를 발견하였다.²⁸ 또한 2018년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토굴의 깊이는 짧은 것은 40m, 긴 것은 150m 정도 되며(<표 4> 참조), 인근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것은 틀림없다.

표 4 부평토굴(함봉산) 새우젓 동굴 현황

(단위: m·㎡)

구분	위치	길이	폭원	높이	면적(㎡)	비고
제1호	산곡동 산52-5	110	4.5~6	1.9~3	19.625	
제2호	산곡동 산52-5	40	4.5~8	2.0~3	19.625	민간 개발
제3호	산곡동 산53-17	120	4.5~5	2.0~3	116.477	"
제4호	산곡동 산53-17	130	4.5~5	2.0~3	116.477	"
제5호	산곡동 산53-17	150	4.5~6	2.0~3	116.477	"
제6호	산곡동 산53-16	140	4.5~6	2.0~3	12.992	

❖ 출처: 부평문화원,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 2017, 91쪽.

28 부평문화원,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 2017. 부평문화원은 2019년 '부평토굴'에서 '부평지하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부평토굴의 형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1910)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토굴을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설은 일제 말기에 군사시설로 토굴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후자가 더 유력해 보인다. 부평 지역은 산줄기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고, 부평평야와 역은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 삼기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1930년대 이후 대륙 침략 전쟁에 돌입한 일제는 부평 지역을 군수기지화할 목적으로 1939년 인천육군조병창을 비롯하여 각종 군수공장을 설립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 1937년 「방공법」을 공포한 이후 1940년부터 방공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조선방공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방공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후에는 대피 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부평토굴은 이 무렵 미군 폭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인천육군조병창과 군수공장들을 지하 시설로 옮기기 위한 것이다. 당시 수많은 조선인 학생들이 강제 동원되어 굴을 팠다는 증언도 있다. 최근 ‘부평토굴’ 또는 ‘새우젓굴’로 불리던 동굴의 공식 명칭은 ‘부평지하호(富平地下壕)’로 명명되었다. 토굴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여 정식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려 했다면 군사시설 용어이므로 애초의 원의를 제대로 살려 ‘부평지하참호진지(富平地下塹壕陣地)’나 ‘부평동굴진지(富平洞窟陣地)’로 정함이 옳았을 것이다. 후자가 더 일반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부평의 ‘동굴진지(富平洞窟陣地)’는 태평양전쟁말기에 다급해진 일제가 급히 구축한 ‘미완의 진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시설물들은 ‘동굴진지(洞窟陣地)’로 명명하고 있다.

광복 이후 부평토굴은 본래의 용도보다는 새우젓 등을 저장하는 시설로 활용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은 토굴을 거주지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6·25전쟁 직후 토굴에 사는 빈민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 1952년 화랑농장을 개발할 당시에도 토굴을 숙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현재 토굴이 위치한 곳은 그린벨트, 자연공원구역 및 보전 산지로 지정되어 토굴 조성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각각의 토굴은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평소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폐쇄한 상태이다.



❖ 지하호 내 새우젓통(출처 : 부평문화원,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 2017, 22~23쪽)

부평토굴은 새우젓·황석어젓 등의 젓갈을 저장한다. 특히 봄에 잡은 오젓과 가을에 어획한 추젓을 주로 숙성하되, 토굴의 바깥쪽은 황석어젓, 안쪽에는 새우젓을 보관했다. 새우젓 중에서 최고급으로 치는 육젓은 물량이 매우 희소했다. 그것은 인천과 강화도 일대에서는 육젓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목포나 신안 등에서 잡은 젓새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육젓의 가격은 한 드럼(230~250kg)에 1,000~1,3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여서 토굴에 넣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다.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상의 이유로 저온 창고에서 숙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다에서 잡은 새우는 그물에서 건져 올리는 즉시 어선에서 염장하여 신선도를 유지한다. 이를 토굴로 옮겨 일정 기간 숙성한 뒤 먼저 넣은 것은 빼내고 나중에 잡은 것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순환 생산한다. 보통 10~11월에 잡은 추젓은 숙성 과정을 거쳐 다음 해 3~5월에 판매되며, 보통 새우젓은 최대 10개월까지 토굴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부평토굴 새우젓의 전성기에는 하나의 토굴에 1,000~1,500개 드럼통을 숙성시켰다고 한다. 토굴에 보관한 젓갈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까닭에 발효와 숙성이 잘된다. 저온 창고에 보관한 젓갈에 비해 맛이 달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실례로 저온 창고에 숙성시킨 황석어젓은 너무 익어서 거뭇거뭇한 색을 띠지만, 부평토굴은 3년이 지나도 노리끼리한 색을 띤다.

부평토굴에서 숙성한 젓갈은 인천의 소래포구어시장 및 연안부두어시장을 비롯하여 서울 노량진, 영등포, 청량리 시장에 유통시켰다. 심지어 토굴 새우젓의 원조로 알려진 광천에서도 물량이 부족하면 이곳 토굴에서 숙성한 젓갈을 사 갔다. 연안부두어시장의 경우, 1975년 종합어시장으로 개장하면서 부평토굴을 주로 이용했다. 소래포구 또한 어촌계와 젓갈상인회를 중심으로 최소 40여 년 이상 부평토굴을 이용하고 있으며, 7개의 토굴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약 7,000드럼 정도를 보관할 수 있다. 새우젓을 담은 드럼 한 개의 무게를 대략 250kg으로 추산하였을 때 부평토굴의 최대 새우젓 저장량은 1,750톤 정도에 이른다. 토굴은 저온 창고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훨씬 저렴할 뿐 아니라 많은 양의 젓갈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오랫동안 소래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토굴 저장의 단점도 없지 않다. 토굴 내부에 전기 시설이 없는 데다 입구까지 이어진 산길이 비좁은 비포장도로여서 불편함이 뒤따른다. 또한 굴 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결로 현상으로 생기는 물웅덩이로 인해 새우젓을 보관하는 드럼통에 진흙이 묻거나 이동에 힘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굴에 저장을 맡기는 까닭은 이곳에서 숙성시킨 새우젓이나 젓갈의 맛이 저온 창고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곡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김장철이 도래하면 소문을 듣고 새우젓을 직접 구입하러 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많은 상인들이 저온 창고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추세여서 부평토굴의 저장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식약청에서 「젓갈 단계별 위생적 관리지침」으로 젓갈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기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부평토굴을 새우젓 숙성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 부평토굴의 주변 환경과 토굴 안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쉽게 배출되지 않아 생긴 물웅덩이들로 인해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부평토굴 새우젓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제4절 | 인천 대표 막걸리, 소성주

인천탁주합동회사(부평구 청천동 소재)는 1974년 정부의 1지역 1탁주공장 정책에 의해 인천 11개 양조회사가 모여 만든 회사인데, 현재는 10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다.²⁹ 그 인원이 180명에 이르렀다. 인천탁주의 역사는 일제시기인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80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막걸리를 쌀로 만들 수 있는 법이 통과되자 1990년 1월 11일 양조장 업계 최초로 쌀막걸리를 출시하고, 1993년부터는 일본, 미국 등의 수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 미국 LA와 시카고의 국제식품쇼에 출품돼 호평을 받았으며,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음료대회 주류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로 자리를 잡았다. 1992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우수 포장을 받을 정도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수익의 일부는 기부, 봉사 활동 등의 방식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사랑의 열매 대상(기부분야 금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에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50번째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인천탁주에서 만든 ‘소성주(邵城酎)’의 명칭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인천의 지명인 매소홀(買召忽)을 소성현(邵城縣)으로 변경하였는데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한마디로 인천의 막걸리라는 의미이다. 인천탁주 1공장의 2층은 탁주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회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 쌀막걸리 1호 생산에 대한 기사(출처: 『매일경제』, 1990년 1월 11일자; 정규성, 『인천탁주, 그 히스토리』, 인천탁주, 2015, 55쪽에서 재인용)

²⁹ 주주회사 및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다. 대화주조 정규성 대표, 동영주조 이영구, 부림주조 유지창, 부천양조 조동윤, 영화양조 구경희, 인천양조 임혜영, 주안양조 심지섭, 창영양조 이창열, 계림주조(합자) 이창열, 태안양조(합자) 박병준·김순애·고한민 등이다.



❖ 인천탁주 전경(좌)과 인천탁주 현판(우)(출처: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2018, 140쪽)

현재 인천탁주합동회사 대표이사인 정규성은 쌀막걸리 신제품 개발 및 기계화 등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2006년에 신제품 쌀막걸리 소성주를 출시하여 인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정규성은 3대째 가업으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 양조장의 역사와 변천, 조부와 부친의 양조장 운영에 대한 자료 및 추억 등을 가지고 있어 한 세기 인천의 술 문화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집안에서 보관 중인 양조장 관련 자료들은 3대를 거치는 과정 속에 양조장 변화와 현재의 추세를 살피는 중요한 자료이다.

탁주, 일명 막걸리는 청주를 뜬 후 남은 지게미에 물을 넣어가며 체에 거른 술이다. 따라서 맑은 술인 청주와 달리 투박한 맛이다. 막걸리는 ‘마구’, ‘거칠게’라는 막자와 거르다가 합성되어 생긴 단어라고 한다. 현재 양조장에서 제조되는 막걸리 대부분은 청주를 뜨지 않고 그대로 채주한 12~15도 정도의 원주(原酒)에 물을 타서 알코올 도수 6~8도를 맞춘 것이다. 그런데 막걸리의 법적 명칭은 ‘탁주(濁酒)’이다.

막걸리, 혼탁주, 약주 등은 거르는 정도에 따라 술 이름이 달라진다. 막걸리는 앞선 세 가지 술 중 가장 덜 거른 것이고, 그 다음이 혼탁주, 약주 순이다. 그러나 술의 선호도가 시대에 따라 달라 1970년대까지는 약주가 주류를 이루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막걸리가 인기를 끌었다. 혼탁주의 알코올 도수는 8도 정도이다.

1) 막걸리 제조 과정

막걸리는 시간과 온도 등 외부 여건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제조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과거 국실(麴室)은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발효하는 공간이다. 발효는 24시

간 내내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 2~3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찢 싹에서 열기가 나면 자주 뒤집어줘야 한다. 또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벽을 두껍게 하고 그 위에 나무 등을 덧대었다. 쌀을 찌는 기계는 스팀으로 하고 난로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효모균이 죽는 단점이 있다. 통상 효모균을 만드는 데 2일 정도가 소요되며, 효모가 들어 있는 누룩을 첨가해 발효시키면 막걸리가 된다. 효모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로 곰팡이류 미생물이다. 효모라는 용어는 술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생겨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에서 유래되었으며, 효(酵)는 술미를 뜻하는 한자이고, '끓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국실에서 효모를 만들고 나면 '공장'에서 배양을 하는데 1~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본래 배양은 2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나 탄산 제조 등 막걸리 제조기술이 발전하면서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된 것이다. 현재 배양을 하는 통은 사각형으로 2,000ℓ 용량인데, 그 이전에는 8,000ℓ통을 사용하였다. 정규성은 배양 용기로는 항아리를 최고로 친다. 막걸리는 30℃가 넘으면 확 쉬어버리는데 항아리는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에서 항아리 내 곰팡이 발생을 우려하여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다. 소성주회사에서는 1960년대까지 항아리를 이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늦게까지 항아리를 이용한 곳은 포천 이동막걸리라고 한다.

막걸리 찌꺼기는 가축 먹이용으로 사용하였기에 그것을 압축해서 외부에 팔았다. 특히 막걸리 찌꺼기를 먹은 가축은 육질이 좋아진다고 여겨 1960년대 연수동, 계산동에서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 갔다. 막걸리 찌꺼기는 여물과 섞어 가축에게 먹이는데 그러면 여물이 발효가 되어 부드러워진다. 막걸리 찌꺼기는 '모르미'라고 하고, 1950년대에는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인천탁주 제조장의 인원은 26명이다. 2005년부터 제곡기와 냉각기, 탱크 등 제조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다. 막걸리 제조 과정은 저장→도정→증자→제곡→발효→숙성→제성→포장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저장은 저장탱크 3개에 쌀을 임시 저장하는 것으로 입국(粒麴)을 만들기 위한 쌀과 주원료인 증립종을 보관한다. 도정은 막걸리 재료인 쌀을 세척하는 과정으로 1, 2차 세척을 하며, 증자(蒸蒸)는 증미용 시루 쌀 3,000kg 정도를 200~300℃ 스팀으로 찌내는 것으로 90분 찌고 10분 뜸들이기를 거쳐 38℃가 되게 식힌다. 그러면 술밥(꼬두밥)이 된다. 제곡은 안남미(태국쌀)에 제

곡균(백곡균)을 싹에 뿌려 증식하는 것으로 제곡균은 누룩으로 곰팡이균을 띄운 것이다. 쌀 1,500kg 정도 발효가 가능하다. 종곡 발효는 38±3℃에서 48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발효는 발효실에서 1~4차 담금하여 숙성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1차 담금은 제곡기에서 나온 입국과 물, 효모를 넣고 발효에 필요한 효모를 확대 배양하는 과정이다. 2차는 1차 담금에 있는 원료에 증자기에서 나온 술밥과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는 과정이고, 3차는 14% 정도의 알코올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하여 72시간 동안 숙성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때 찢쌀(증자미)과 누룩을 섞어 발효를 하는 과정 속에서 1~2일 차부터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생성된다.



저장 탱크에 쌀 저장



증자(쌀을 찌서 술밥 만들기)



발효(1~3차)



제성(숙성 과정)



포장



출고(각 대리점으로 운송)

❖ 막걸리 제조 과정(출처 :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2018, 144쪽)

숙성은 덧술을 냉각기로 발효를 억제하는 과정이고 제성은 제성실의 1만 9,000리터 용량의 제성탱크에 1만 6,000리터 정도를 넣어 1~2차 여과를 통해 술지게미를 거르고 술 도수를 6도에 맞게 물을 섞어 희석시킨다. 포장은 막 걸러서 만들어진 탁주를 매일 아침 자동 주입기에서 소성주 병에 담는 과정이다. 병은 1병에 750ml이고 한 상자에 20병(총 15l)이 들어가며 10℃ 냉장차로 출고를 한다. 출고한 막걸리는 대리점, 공판장, 인천시 내 슈퍼마켓 등으로 납품된다.

2) 시대에 따른 막걸리 재료

막걸리의 재료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본래 막걸리는 쌀을 주재료로 만들었으나 6·25전쟁이 끝나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면서 1965년 막걸리 제조에 쌀 사용을 전면 금하는 「양곡관리법」이 발표된다. 따라서 쌀 대신 밀가루를 이용한 밀막걸리가 생산되게 된다. 밀은 1960~1970년대 막걸리의 주재료로 사용되었고, 당시는 밀막걸리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1975년 통일벼의 대풍작이 거듭되고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하자 1977년 남은 통일벼로 쌀막걸리를 빚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밀막걸리에 익숙한 서민들은 쌀막걸리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2년 만인 1979년 정부는 또다시 쌀이 부족해지자 쌀 사용을 금지하고 밀막걸리를 만들게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주조 관련 제조 방침이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양조장은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1990년 3월 다시 쌀막걸리 제조가 허용되면서 막걸리 시장에는 밀막걸리와 쌀막걸리, 그리고 밀과 쌀을 혼합한 일명 ‘동동주’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쌀막걸리의 주종인 쌀은 통일벼인데 정부에서는 잉여 쌀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양조를 허가한 것이다. 쌀막걸리는 인천탁약주합동제조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주’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였다.³⁰ 1990년 1월 11일 인천 탁주는 시판되는 날로부터 애주가들의 호평을 받아 품귀현상을 빚었고, 당시 인천탁약주합동제조 제1공장에서는 3만ℓ의 쌀막걸리를 생산하여 23개 공판장에 750ml들이 막걸리 한 병당 350원에 출고하였다. 그 쌀막걸리는 대중 음식점과 술집에서는 한 병당 600원에 판매되었고, 인천시 내 막걸리 소비량은 일일 4만 5,000ℓ 정도였다.

30 「쌀막걸리 호평, 첫날부터 품귀」, 『경향신문』, 1990년 1월 12일자.

밀과 쌀로 만든 막걸리는 그 맛이 차이가 나는데, 밀막걸리가 텁텁하고 가스가 잘 차는 반면 쌀막걸리는 찌꺼기가 생기지 않고 맛이 부드럽다.

“밀막걸리는 좀 텁텁하죠. 쌀막걸리는 좀 훌훌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밀막걸리는 미숙주로 내보내거든요. 탄산이 더 많아요. 완숙을 시킬 때 퀴퀴한 냄새가 나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이 돼서 안 그러는데. 막걸리는 완숙을 시키면 탄산이 약하고, 냄새가 덜 나는데 쌀막걸리는 밀막걸리보다 탄산가스가 덜해요. 사람들이 그 미묘한 것을 알더라고요. 20년 넘게 대표하면서 느끼는 건데, 소비자들이 알고 좋은 거는 계속 가고, 아닌 거는 내치더라고요. 밀막걸리는 4일 정도 후에 출고됐던 거 같아요. 쌀은 7일에서 10일까지 해서 완숙을 해서 출고하죠.”³¹

막걸리는 재료에 따라 그 가격이 달랐다. 과거 쌀이 밀보다 비싼 시기에는 쌀막걸리가 밀보다 500~700원이 비쌌다. 그러나 수입쌀을 재료로 사용하다 보니 밀이나 쌀막걸리 모두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천탁주의 경우, 밀과 쌀막걸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공존하다가 그 이후에는 밀막걸리는 사라지고 쌀막걸리만 유통되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는 밀막걸리도 생산 및 유통되고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쌀막걸리만 생산하고 있으며, 쌀막걸리 전국 점유율이 70~80%에 이른다. 물론 밀막걸리는 특유의 맛이 있어 여전히 일부 사람들이 즐긴다. 한편 과거 포천 이동막걸리는 밀막걸리 가운데 최고의 맛으로 전국에 유명하였다고 한다.

현재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은 국산보다 안남미 수입 쌀을 많이 사용한다. 그것은 수입쌀이 국산 쌀보다 발효가 잘되기 때문인데, 현재 한국에서 만드는 막걸리 주재료는 모두 수입 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쌀은 밀보다 막걸리를 만드는 데 쉽지 않으나 공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어느 지역의 막걸리나 그 맛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막걸리 시장은 맥주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위기를 맞는다. 술의 주요 고객인 청장년층이 막걸리 대신 맥주를 즐기면서 막걸리 양조장

31 정규성 소성막걸리 대표

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양조장을 폐업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업주도 늘어났다. 그러나 2009년 일본의 젊은 여성층이 막걸리를 즐겨 먹는다는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대중들의 관심도가 증폭되었다. 또한 현대식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쌀막걸리가 소개되면서 막걸리에 대한 기존의 텁텁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관념에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음료수로 얼린 막걸리를 즐겨 마신 것도 막걸리 생산 증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망해가던 막걸리 제조장이 다시 회생되고 설비 등을 보완하였다.

인천탁주합동회사의 대표 상표인 소성막걸리는 2006년부터 상품화하여 2007년부터 높은 매출을 올렸다. 막걸리의 재료인 쌀은 업체가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령, 막걸리 재료인 쌀은 국가에서 비축된 쌀을 공급을 받거나 수입 쌀의 경우도 국가에서 배정한다. 그런데 쌀의 경우 오래된 비축 쌀은 막걸리의 맛을 내는 데에는 떨어지고 막걸리 단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천탁주합동회사는 수입한 햅쌀을 사용한다. 쌀 품종도 자포니카보다 안남미 쌀로 알려진 인디카가 발효 효모균을 증식시키는 데 탁월하여 그것을 사용한다.

3) 막걸리 용기의 고급화

막걸리를 담은 용기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1979년 막걸리의 고급화를 꾀할 목적으로 병막걸리를 생산하였다. 그런데 병은 무거워서 다루기 힘들었고, 또한 병마개가 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병막걸리의 10%는 터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였다. 그리고 수거된 막걸리병을 일일이 손으로 세척하는 것도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현재는 유리병을 자동으로 세척하지만 당시에는 자동 세척기가 너무 고가라서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병에서 PE(폴리에틸렌)병으로 교체를 하였는데, 병 자체가 약해서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쓰러지면서 막걸리가 쏟아지곤 하였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PE병을 넣을 수 있는 플라스틱캡을 만들었다. 또한 PE병은 공기를 넣어서 그 형태를 잡아야만 했는데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면서 바람을 넣어 그 형태를 맞추었다고 한다. 물론 현재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한다.

인천 탁주는 우리나라 최초로 팩막걸리를 생산하였다. 1987년 인천탁주협회가 200

mℓ 종이용기[테트라(tetra)팩] 막걸리 시판 허가 요청을 하자,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과 가격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렸다.³² 본래 인천탁주협회는 보관이 용이하고 운반이 편리한 테트라팩에 막걸리를 넣어 팔자는 것이었는데, 일부에서는 다른 지방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 용기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하였다. 한편, 당시 국세청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보고 품질 손상과 가격 인상의 용인만 없다면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는 막걸리 용기 품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팩막걸리통이 등장하기 이전에 모든 막걸리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통에 담아 시판되었으나, 냄새가 심하고 장기보존이 안 되어 위생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였다.³³ 막걸리는 쌀을 찐 다음 발효제인 누룩을 넣어 적당히 익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일주일일 채 되지 않아 출고량의 20% 정도가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어 폐기되는 것이 일상사였으며, 막걸리통 마개에 작은 구멍을 뚫어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나 구멍을 통해 나오는 냄새가 심하고 때로는 막걸리가 이 구멍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로 막걸리는 매년 출고량이 20% 감소하였다. 인천탁주는 프랑스의 와인 용기가 팩으로 대체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막걸리가 잘 익은 상태에서 발효를 중단시킨 다음 맛이 변하지 않도록 급랭시켜 팩에 넣는 설비를 도입하여, 막걸리의 포장 용기를 팩으로 바꾸었다. 팩막걸리는 상온에서도 6개월 이상 유통이 가능하고 현대적 유통을 위해 바코드를 채용하였다.

32 「막걸리 종이 용기 논쟁」, 『매일경제』, 1987년 5월 20일자.

33 「인천탁주 '농주' '명가' 막걸리 '팩' 포장 6개월간 '맛' 그대로」, 『동아일보』, 1993년 12월 6일자.



❖ 팩농주(출처 :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2018, 151쪽)

인천탁주는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한 팩막걸리를 개발하고 1992년 8월부터 시판하였다. 1990년대 초반 사양길을 걷고 있는 막걸리 사업에서 새로운 맛과 포장 방법의 개발을 통해 막걸리의 중흥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팩농주는 쌀막걸리를 숙성시켜 맛을 들인 후 멸균 열처리해 테트라팩에 포장하여 산패의 원인인 잡균을 없애고 효모의 작용을 정지시켜 보통 3~4일에 불과한 유통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잡균 번식에 의해 생기는 가스를 없애고, 음주 후의 트림 따위로 인한 역한 냄새를 제거하여 전체적으로 막걸리의 맛을 크게 개선하였다. 인천 농주는 알코올 도수 7도의 쌀막걸리로 960ml 용량의 종이팩 포장에 담아 860원에 공급하였고, 1ℓ 우유팩보다 약간 납작한 포장으로 장거리 휴대도 가능하였다. 1992년 9월 처음 출하된 팩막걸리는 상공부로부터 우수포장상품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국순당도 1993년 12월 11일에 캔막걸리를 출시하는 등 주요 막걸리업체가 보관 용기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4) 막걸리와 세금, 안전 기원

막걸리사업은 식약청, 국세청, 농림부 등 여러 개의 부서와 관련을 맺고 있다. 막걸리는 식품이기에 식약청의 정책과 통제를 받고, 출고품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원료인 쌀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의 지원을 받는다.

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1960년대에는 세무서에서 아침에 양조장으로 출근하여 그 양을 대략 적어 잦고,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들 때는 밀가루 한 포당 제조되는 막걸리 양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즉, 밀가루 한 포당 생산되는 막걸리 양을 산정하거나 막걸리 제조통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대략 세금을 부과하였다. 막걸리가 통으로 상품화되면서는 막걸리 뚜껑에 납세 딱지를 붙여져서 판매가 되었다. 과거와 달리 막걸리 생산량을 속일 수가 없어 탈세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막걸리 생산과 관련하여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공장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였다. 고사는 기계, 시설 등이 새로 설비될 때 돼지머리, 북어, 막걸리 등을 제물로 진설하여 간단하게 하고, 굿은 막걸리 공장에서 1999년 한 번하고 정규성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진행하였다. 이것들이 인연이 되어 서해안배연신굿 보존회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적도 있고, 그들의 행사에 종종 막걸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5) 인천 소성주의 미래

막걸리 생산은 2009년에 극점에 다다르다가 점차 떨어졌지만 현재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표 정규성은 여전히 막걸리가 국민주로 자리를 잡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막걸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수는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과거보다 적지만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는 힘들다.

소성주는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로 지역 점유율이 70%에 이른다. 그밖에 서울막걸리, 포천막걸리, 국순당막걸리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막걸리는 해당 지역에서는 인천 소성주와 마찬가지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비록 막걸리가 전국 판매 제한

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런 관습은 존재하는 셈이다. 또한 막걸리 제작에 대한 정보를 막걸리 회사끼리 공유하고, 막걸리 재료와 제작 공정, 시스템이 유사하다 보니 전국 막걸리 맛의 차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소성막걸리 공장 도매가는 750ml 기준 700원에 팔리고 있다. 대략 생산량은 하루에 6만 병 정도이고, 사전 주문방식이 아닌 형태로 막걸리를 생산하다 보니 때로는 막걸리가 남는다. 이때 재고로 남은 것은 온도를 확 낮춰서 발효를 지연시키고, 다음 날 생산된 막걸리와 섞어 맛을 조절한다. 막걸리는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 많이 나가며, 과거와 달리 여름철에도 상점이나 가정에 냉장고가 모두 비치되어 꾸준하게 팔린다. 물론 여름에는 막걸리보다 맥주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겨울에는 도수가 높은 것을 찾는다. 막걸리 판매는 농사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과거 모내기 등 농번기인 4~5월에 막걸리 판매량이 급증하였고, 선거라도 겹치면 막걸리 소비가 급증하였다. 일명 '막걸리 선거'를 치른 것이다.

막걸리는 소주에 비해 도수가 약해 마시는 양은 자연스레 많아진다. 소주 1병을 먹는 사람이라면 막걸리를 2병 정도 마실 수 있는데, 막걸리는 곡주이다 보니 마시다 보면 속에서 위로 올라오고 소주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그런데 막걸리는 과거 서민의 술로 크게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현재 막걸리 회사들은 고급화를 위해 일반 고급 술처럼 기술개발에 서로 열을 올리고 있다.

막걸리 양의 변화 시도를 꺾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500ml 막걸리통을 개발하여 시판을 하였으나 그 양이 적다고 생각되어 판매가 잘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막걸리는 풍부해야 한다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혼자 마시기에 약간 부담되지만 750ml 막걸리가 보편화되었다. 한때 어느 회사에서 700ml 막걸리를 판매하였다가 가격만 올리고 양은 적게 하였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한다.

막걸리 제조 과정은 외부에서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제맛의 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에 제조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경험이 많고 제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막걸리 맛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현재, 막걸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과거와 달리 막걸리 유통 지역 제한이 사라지면서 전국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막걸리를 생산하는 것이 회사의 운

명을 좌우한다. 정규성 대표는 1997년도부터 좋은 밀가루를 사용하고, 지하수도 100m 정도에서 200m로 더 깊이 파서 정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는데, 일주일 만에 막걸리 맛이 달라졌다고 한다. 정규성에 따르면, 막걸리는 '물이 살아있어야 효모균 증식도 잘되고 수돗물은 하루 놓아두었다가 사용해도 술맛이 물맛'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막걸리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온도 문제이다. 적당한 온도를 잘 맞춰줘야 막걸리가 잘 익기 때문이다. 정규성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의 막걸리 연구와 시설 투자의 결실로 질 좋은 소성막걸리가 탄생하게 되었고, 회사 빚 30억 원도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 동안 막걸리 동업 사장들에게 배당금을 주지 못하였고, 막걸리가 당시 사양사업인 상황에서 회사 빚을 갚는 것만으로 사장들은 만족하였다고 한다. 그저 폐업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다.

| 제5절 | 주거와 생활문화

1. 일제시기 노동자 사택

1) 군수품 사택의 진존

부평 지역의 주거 환경은 1940년대 이 지역이 군수공업의 중심이 되면서 집단 주택이 주를 이루는 변화를 겪었다. 영단주택, 검정사택, 미쓰비시(삼릉) 출사택, 다다구미(평화촌), 철도 관사, 자동차 사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단주택은 산곡동 근로자주택이라고도 하며, 경인기업회사라는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지어진 집단 주택이다. 특히 한옥 형태의 사택을 건설하여 1940년 인천육군조병창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공급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광복 후에는 부평미군기지 관련 종사자들이 머물렀고, 이후 부평수출공단을 비롯해 한국베어링, 대우자동차의 근로자들이 자리를 채워갔다. 부평의 여러 근로자 주택지들 가운데 건설 당시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규모 면에서도 전국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 검정사택 항공사진(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검정사택은 1940년대 초 66여 호 규모로 건립된 도쿄제강의 사택으로 지붕 또는 외벽에 검은색 칠을 해 검정사택으로 불렸다. 도쿄제강은 부평조병창 민간 하청 공장이었으며, 1940년대 초반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 문서 도면에 표기되어 있다. 검정사택은 한 지붕에 4집이 사는 연립형 주택이며, 한 가구당 방 2개,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구조는 산곡동의 영단주택과 유사하며, 안방에는 부엌이 딸리고 다락이 있으며, 건넌방은 안방과 별도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청천1동 검정사택과 산곡동 영단주택 모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산곡동의 영단주택이 대단지로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라고 한다. 즉, 산곡동의 영단주택은 대규모 주택지로 조성된 반면, 청천1동 검정사택은 소규모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검정사택 인근을 한때 도깨비시장이라고 하였는데, 과거 미군 부대의 미제 물건을 거래할 때 단속이 나오면 게 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검정사택 골목은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으나, 해방 이후 서로 길 쪽으로 집을 내어 짓는 바람에 골목은 좁아졌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담벼락은 허물어졌다. 검정사택은 미쓰비시 사택과 마찬가지로 연립 형태(4호·2호)로 부엌,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7년 항공사진에서 4호 사택이 12동, 2호 사택이 6동, 1호 사택이 6동으로 확인되는데, 줄사택과 같은 모습이다. 동 간의 간격이 제법 넓어 건립 당시 소방차 출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가옥 확장으로 인하여 길이 협소해져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변화하였다. 각 호당 면적은 4호 사택이 가장 협소하고, 2호 사택이 큰 편인데, 이곳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4호 사택은 작은 사택, 2호 사택은 큰 사택이라고 불렀다. 4호 사택은 작은 사택이라고 불렸지만, 삼릉(미쓰비시) 사택보다는 크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2020년 7월 철거 전에 4호 사택 중 2개소, 2호 사택 중 1개소를 실측하여 자료로 남겨둔 것은 다행이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삼릉사택(三菱畝宅) 또는 홍중사택(弘中畝宅)이라고 한다.³⁴ 부평2동을 삼릉이라고 부르는데, 삼릉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1938년 히로나카쇼코(弘中商工)라는 일본계 기계제작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부평의 철도변에 들어서서 제조를 시작하였다. 철로를 사이에 두고 공장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사택이 들어섰는데 이를 히로나카상공사택(弘中商工社宅)이라 불렀다. 히로나카상공은 경영난에 빠지면서 일본 중공업인 미쓰비시회사가 부평 공장과 함께 인근 사택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고, 이때부터 이 지역을 미쓰비시의 한자 표기인 삼릉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 히로나카상공주식회사 부평공장 사택촌 전경(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34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2016, 24쪽.

1942년 7월의 미쓰비시 부평공장의 사택 용지는 5만 4,664평이었으며, 직원 사택이 88동으로 1,389평, 공원 사택이 26동으로 1,197평, 그 외에 합숙소와 공동목욕탕이 50동으로 1,221평 등 모두 합쳐 164동으로 3,807평이나 되었다. 삼릉 출사택은 동쪽의 부영로 760-1과 760-2번지의 구사택지와 서쪽의 760번지의 신사택지로 나뉜다. 구사택은 10호 연립으로 약 10동가량이 건설되었으며, 신사택은 단독 사택을 비롯하여 2호 연립 11동, 4호 연립 4동, 6호 연립 4동, 10호 연립 8동 등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 미쓰비시 신사택(상)과 구사택(하) 전경(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2016, 16~17쪽)



구사택지의 경우 도로의 확장으로 일부가 철거되었으며 많은 건물이 공가로 남아있다. 사택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건물의 한쪽 끝 사이에 공중화장실을 배치하였다. 신사택지의 단독주택과 양성소 건물은 철거되었으며, 2동의 연립이 남아있다. 연립 사택 중 6호는 모두 철거되었으며, 5호와 10호 연립 사택 일부도 최근 사라졌다.

다다구미(多田組)는 지금의 롯데백화점 앞 원통천(元通川) 북개변 일대를 가리킨다. 인천육군조병창 확장공사 때, 하청업자인 다다구미의 현장 사무소가 있었던 곳이라서 붙여진 명칭으로, 광복 후 다다구미에는 빈한한 사람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였는데, 과거 다다구미가 있었던 곳이라서 마을 이름을 그대로 부르다가 1960년대 초에 평화촌이라 고쳐 불렀다.

1899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부평역이 설치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부평역이 들어선 곳은 인천도호부와 접하고 있는 부평도호부의 남쪽 지역으로 주막과 외양간이 있었던 빈한한 농촌이었다. 1940년 부평 지역이 군수공업의 중심이 되면서 공장 건설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였고 부평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1일 2,000명에 달하게 되고 역사도 4배 이상 크게 개축하여 이전하였다. 부평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1명에 2명으로 늘어났고, 관등도 5등 서기에서 1939년 이후에는 3등 서기로 올라갔다.

부평의 남쪽 부평동 697-22번지와 725-9번지에 철도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철도 관사가 들어섰다. 철도 관사는 2호 연립의 관사 16동 32호로 건설되었다. 당시 부평역의 직원은 2명이었으므로 철도 관사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 근무하는 철도 종사자가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기준으로 7등 관사에 해당하는 규모로 판임관(判任官)이나 고원(雇員)에 보급되는 것인데, 인천 지역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관직도 판임관에 속하는 서기(書記), 기수(技手), 철도수(鐵道手)였다. 관사는 목구조이며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지붕은 시멘트 기와로 덮었다. 방은 6조 다다미방 2개, 4조 반 다다미방 1개 등 3개였으며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이 배치되었다. 방에는 모두 반침을 두었으며, 한 곳만 도꼬노마[とこのま: 방의 상좌(上座)에 바닥을 한 층 높게 만든 곳]를 함께 두었다. 현재 철도 관사는 1호씩 2동이 남아있으며, 상가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 부평 철도관사 전경(출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시카와지마(石川島)자동차제작소, 도쿄와사(東京瓦斯)전기공업주식회사, 다투(ダット)자동차제조 등 세 회사가 1937년 합병하여 도쿄자동차공업을 설립하였다. 1939년 도쿄자동차산업은 국산자동차주식회사와의 합병을 목표로 부평에 13만 2,231㎡(4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조립 공장과 부품 공장을 건설하였다. 두 회사는 합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1940년에는 국산자동차주식회사의 부분 부품 공장이 도쿄자동차공업의 부대 공장으로서 소개되고 있다. 도쿄자동차공장은 1941년 디젤자동차 전용허가업체로 지정되어 디젤자동차공업으로 개칭하였고, 부평의 소화정에 위치하였다.



❖ 국산자동차주식회사 사택 전경



❖ 디젤자동차주식회사 사택 전경

국산자동차주식회사는 1941년 5월 26일에, 디젤자동차주식회사는 1944년 6월 29일에 사택 건축을 신청하였다. 국산자동차주식회사는 부평정 207번지(현 부평동 401번지)와 109-6번지(현 부평동 406번지)에 2호 연립주택으로 10동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5동 30호가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디젤자동차주식회사는 소화토지구획정리지구의 197호 가구(현 부평동 379번지)에 4호 연립주택 5동 20호와 2호 연립주택 5동을 조성하였는데 모두 영단주택의 정형(丁型)과 무형(戊型)의 표준 평면을 적용하여 건축되었다. 현재 국산자동차주식회사의 사택은 5동 6호가 남아있으며, 디젤자동차주식회사의 사택은 무형 평면의 2동 8호가 현존하고 있다.

2) 조선주택영단과 주거문화

조선주택영단(이하 영단주택)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1941년 6월 14일에 설립되었다.³⁵ 당시 주택 개발지로 고시된 지역은 17개 도시에 총 1억 8,425만 1,160㎡이며, 사업 인가가 난 지역은 인천, 경인, 경성, 흥남, 평양, 대구, 청진 등 7지구였다.³⁶ 이 당시 주거지 개발의 성격은 우선 도시에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지의 확대라는 외형적 동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수산업의 본격화와 이에 따르는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주요 도시를 병참기지화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군수공장을 세우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본격적인 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한 것이다.³⁷ 조선주택영단은 2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하였지만,³⁸ 자금난과 물가상등으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에 1만 2,184호를 건설하는 데 그쳤다.³⁹

³⁵ 『조선총독부관보』 4316호, 1941년 6월 14일자.

³⁶ 박혜선, 「인천지역 주거문화의 역사에 대한 소고」, 『인천역사』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99~135쪽.

³⁷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162~193쪽.

³⁸ 주택규모로 보면 갑(甲) 4,000호, 을(乙) 6,000호, 병(丙) 4,000호, 을(乙) 3,000호, 정(丁) 3,000호이다(山田忠次, 『朝鮮住宅營團に付て』, 『朝鮮社會事業』 20-2, 朝鮮社會事業協會, 1942).

³⁹ 박혜선, 「인천지역 주거문화의 역사에 대한 소고」, 『인천역사』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104쪽.

조선주택영단에서 인천에 건설한 주택은 부평 산곡동 87번지 일대를 비롯해 남구 용현동 488번지 일대, 송의동 184번지·348번지·147번지이다.⁴⁰ 영단주택의 유형은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갑(甲, 건평 20평)·을(乙, 15평)·병(丙, 10평)·정(丁, 8평)·무(戊, 6평) 등 5종류로 나누어 대지는 건평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병(丙)·정(丁)·무(戊)형은 2호 연립으로 지어 블록을 구성하였다.⁴¹ 그런데 계층별 평면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되어, 갑형 11종, 을형 10종, 병형 4종, 정형 2종, 무형 2종 등 총 29종으로 구성되었다.⁴² 갑형은 주로 중상층 시민을 위한 주택이었고, 을형은 중층, 병형은 중하류층, 정형과 무형은 하층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갑형은 분양을 원칙으로 삼았고, 을형은 희망자에 따라 분양하고 병형 이하는 모두 임대주택으로 하였다. 그런데 영단주택의 공급 정책은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차별하여 갑형은 주로 일본인 관리나 사원들에게 분양되고, 을형은 일본인과 한국인 반반 정도, 병·정·무형은 주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분양되었다.⁴³ 그리고 욕실은 갑형, 을형, 병형에는 내부화되었으나 정형과 무형의 경우는 욕실은 없고 화장실이 가옥 안에 설치되었다. 위의 자료에 근거하면, 산곡동의 영단주택은 무(戊)형에 해당하고, 분양 이전까지 임대 형식으로 매달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현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산곡동 영단주택 가운데 현지 주민들이 ‘신(新)사택’으로 호칭하는 곳은 부엌-방 등의 구조로만 이루어진 연립 형태이며, 주민들은 집 밖 공중화장실을 사용한 점에서 일반적인 영단주택의 유형과는 다르다.

40 노상주, 「조선주택영단의 주택지 형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41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162-176쪽.

42 손장원, 차동석, 「인천지역 전통 주거건축물의 평면 및 배치유형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5, 4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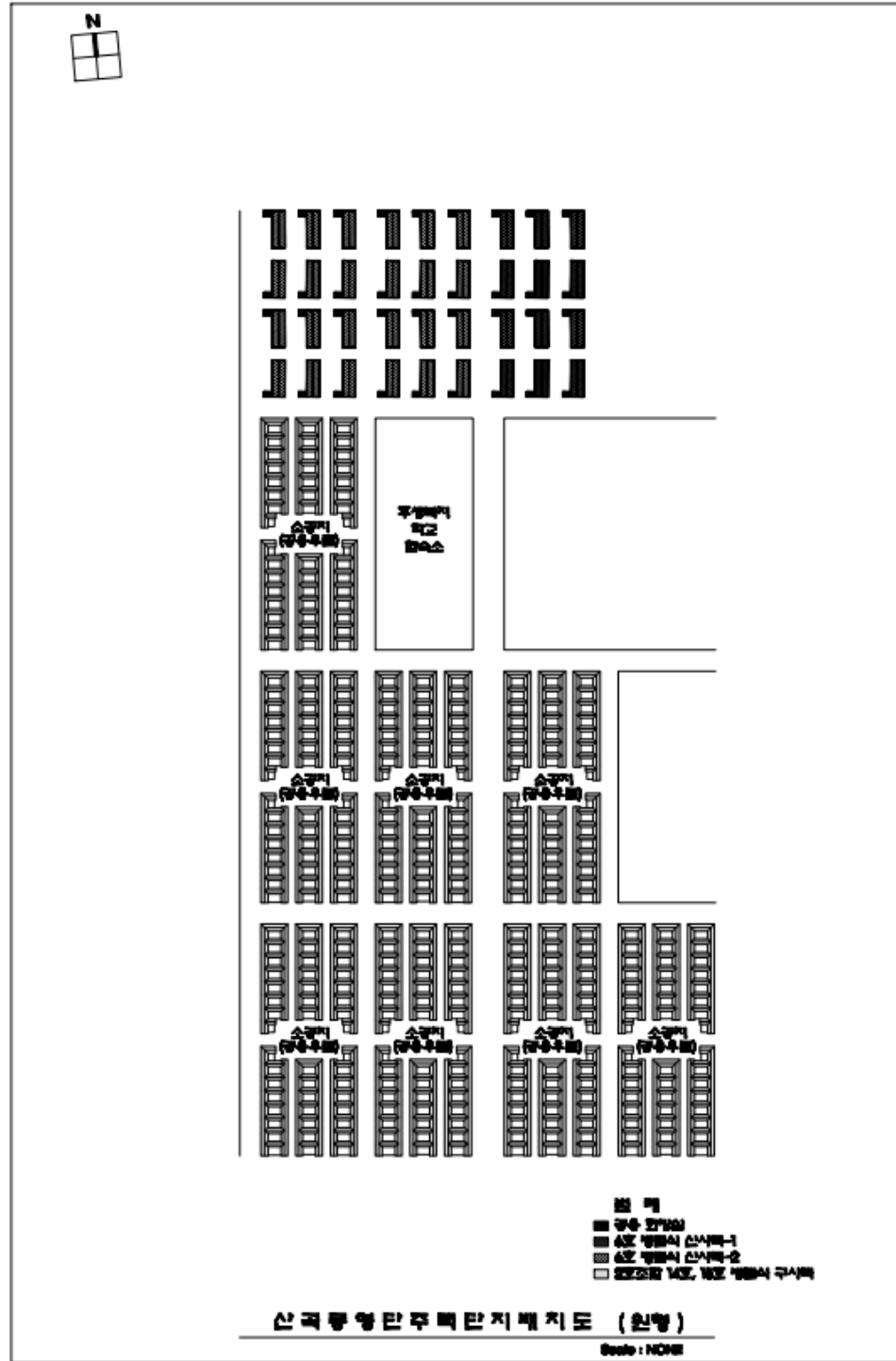
43 손장원, 「국제도시로의 변화(7) 인천의 영단주택」, 『기호일보』, 2008년 1월 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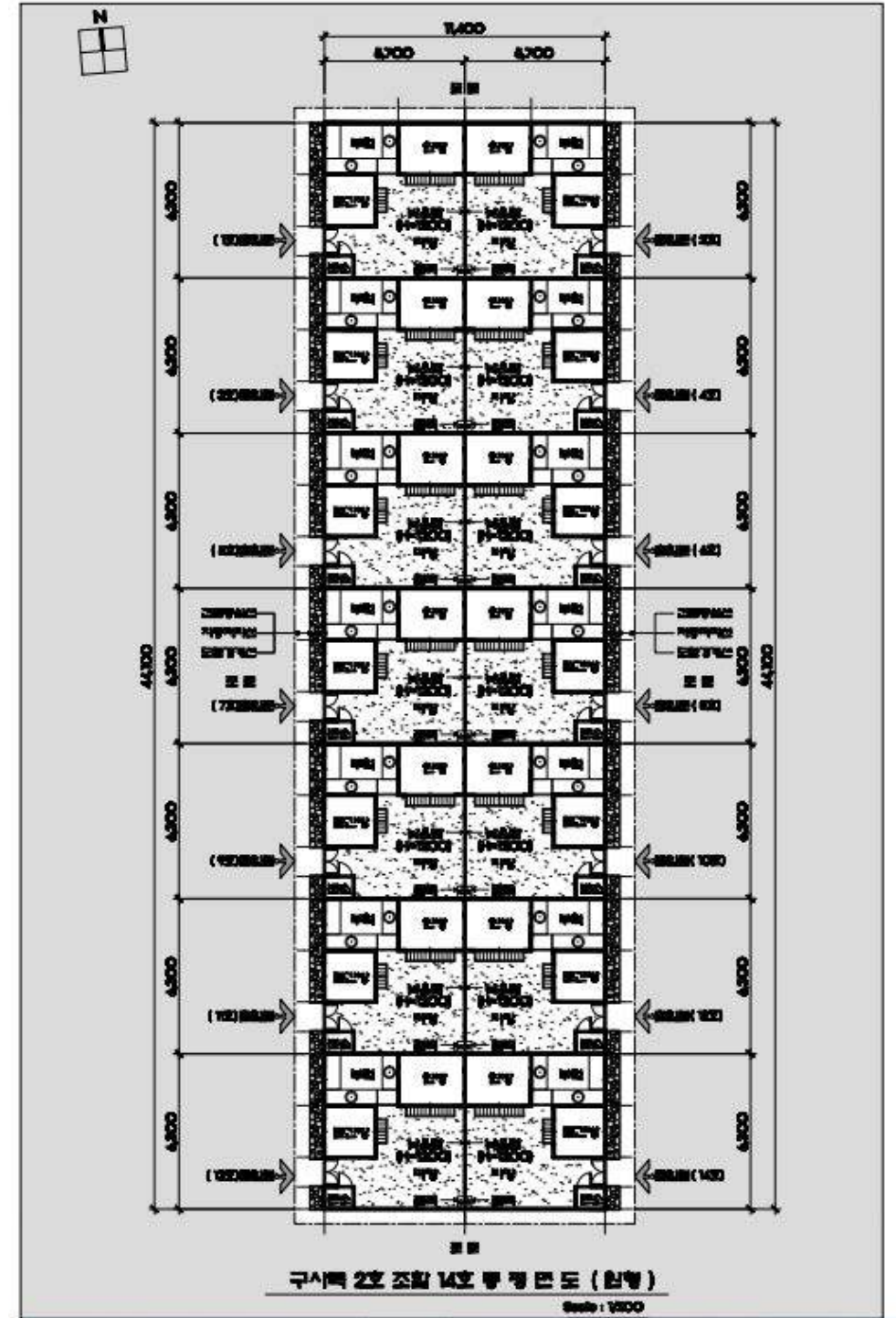
❖ 상공에서 본 산곡동 노동자 주택(사진 홍승훈)

산곡동 영단주택의 당초 건설 계획은 8가구(街區) 1만 3,013.8평의 부지에 조선식 목조 기와지붕 한옥으로 48동 704호를 배치하고, 각 가구는 6동 88호로 구성하는 것이었다.⁴⁴ 현재 영단주택의 가곽(街廓: 구역)은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사택’은 8가곽(주택)과 1가곽(학교·합숙소·후생복지시설) 등 9개 가곽, ‘신사택’은 3가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사택은 총 8가곽에 48개동 704호로 배치되어 있고, 신사택은 총 3가곽에 36개동 216호로 배치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단주택의 당초 건설 계획은 ‘구사택’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신사택은 조선주택영단의 가장 작은 무형보다도 더 작은 규모였다.

44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2014, 부평역사박물관, 45쪽.



❖ 산곡동 영단주택 전체 구조(작성 이종숙)(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2014, 192쪽)



❖ 산곡동 영단주택 평면도(작성 이종숙)(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2014, 199쪽)

산곡동 영단주택은 조병창 근로자를 위한 한옥형 가옥으로 기역자형과 일자형으로 구분되고, 기역자형은 ‘구(舊)사택’, 일자형은 ‘신(新)사택’이라고 현지에서 불리고 있다. 구사택은 글자 그대로 먼저 지어진 사택으로 1943년 완공되었고, 신사택은 후에 지어졌다. 조선주택영단은 1944년 8월 부지에 대한 정지 공사를 끝내고, 건축 공사를 시작했으며 목표 수량은 500호 중 우선 연내에 214호 준공을 계획하였다.⁴⁵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현재 ‘신사택’ 호수(216호)와 비슷한 것을 보면 그곳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500호는 해방과 함께 무산된 것으로 보이며, 연내 214호 준공 계획도 해방 이후에 신사택이 완공되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근거하면 미처 완성하지 못했다.



❖ 신사택과 구사택 경계 도로(좌)와 신사택 골목(우)



영단주택은 해방 이후 1948년 대한주택영단(大韓住宅營團)이 설립되어 관리하다가, 6·25전쟁이 끝나고 1954년 주택에 대한 개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1960년 개인에게 불하되었다. 이에 대한 사실적 내용은 최종욱의 「주택분양계약증서(住宅分讓契約證書, 1954)」, 「토지불하계약서(土地拂下契約書, 1961)」,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1962)」 등을 통해 알 수 있다(최계순 소장). 「주택분양계약증서」에 의하면 최종욱은 소유의 주택(산곡동 474, 495호)에 관해 1954년 10월 분양 계약금 5만 1,600원을 지불하였는데, 계약 갑(甲)이 대한주택영단(大韓住宅營團)이 아닌 조선주택영단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1954년에도 조선주택영단에서 지은 집에 대한 명의는 여전히 존속한 것으로 여겨진다. 1961년 산곡동 87번지의 404호 「토지불하계약서」에도 갑(甲)이 조선주택영단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8평 토지에 대해 2만 8,000원에 불하를 하였고 계약금 5,800원을 먼저 지불하고 6개월 이내에 잔고 2만 2,200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수증은 대한주택영단(大韓住宅營團)에서 발행하였다.



❖ 주택분양계약증서(1954)(좌)와 토지불하계약서(1961)(우)(홍성일 소장)(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등기권리증」은 1962년 10월 17일 인천지원(仁川支院)에서 접수한 것으로, 산곡동 87번지 403-404의 14평 대지에 대해 대한주택공사가 최종욱에게 매도하였다는 증서이다. 「등기권리증」에는 발급 비용으로 3,600원을 받았음을 명기하고 있다. 위의 문서 등을 통해 보면, 1948년 대한주택영단(大韓住宅營團)이 설립되었지만, 제구실을 제대로 하

45 『매일신보』, 1944년 8월 25일자.

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곡동 영단주택의 경우 해방 이후 미군이 조병창과 함께 접수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산곡동 영단주택의 경우 해방 이후 불법 증축 과정이 심화되어 건평 6평의 건물에 14평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개인 소유권 인정은 1961년 토지불하계약을 통해 해소되었다. 현지의 원주민들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합법적으로 금액을 주고 인수하였다는 증언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구사택과 신사택은 가옥 평면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구사택의 경우는 조선 전통 기와에 2개의 방과 부엌이 딸려 있으나, 신사택의 경우는 양기와에 방 1개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신사택은 방과 부엌을 합쳐 9자(2.7m)이고 그 사이에는 미닫이문을 설치하였다. 구사택은 집 내부에 뒷간이 있고, 좁지만 안마당이 있는 반면, 신사택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안마당이 없는 일자형 가옥이다. 구사택의 공동화장실은 1가곽마다 1개씩 총 3개소가 있었다고 현지 주민들은 증언한다. 화장실 내부는 대변과 소변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영단주택은 6·25전쟁 때 파괴되어 공터로 남기도 하고, 신축 건물로 개조를 하였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산곡동에 전통 기와 판매점과 한옥 유지 보수업체가 존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빈집이 증가하면서 불량 주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20년사』에 의하면 “부평 산곡동의 조병창 근로자 사택에는 한국 사람만이 살았으며, 그곳에는 오오가베⁴⁶식의 공법을 피하고 종전의 한국식 심벽으로 지었다. 이 단지는 도로가 넓은 것이 특징이며 그것 때문에 그 후 부평시가지 건설에 중심 역할을 했고, 슬럼화를 면해 현재도 비교적 깨끗한 서민 주택가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인 건축가 곤 와지로(今和次郎)도 “이 주택지야말로 재래의 풍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어제의 신규 계획 주택지(경성 도림동 영단주택지)를 견학한 것과 다른 유쾌함과 아름다움을 느꼈다. 조형적인 면이나 공간 계획적인 면도 만족스럽다. 다시 말하면 관습적 미의 식에도 만족을 주면서 또한 습관적인 기능을 어떤 마찰도 없이 수행하는 무대로서 작은

46 오오가베(おおかべ)란 목조 건축에서 기둥 양쪽에 판자를 붙이거나 회칠을 해서 기둥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한 벽 따위를 말한다.

불편도 없음을 통감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⁷

위의 지적처럼 영단주택은 당시 초가가 일반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건축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언급한 글은 1979년으로(기준점 불분명, 2014) 현재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며, 하나의 지붕과 담으로 지어진 연립가옥으로 이웃집에 사생활이 노출되고, 같은 꼴로 지은 집이라서 자신의 집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산곡동 영단주택지는 일제 말 건설 때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대문, 창 등 정면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기와지붕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각 주택의 형태나 전체 거리 풍경도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구사택은 대문으로 진입을 하면 왼쪽에 뒷간이 위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마당이 있고, 안마당을 통해 문간방과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엌 공간은 안방과 문간방 사이에 위치하고, 아궁이의 불은 안방 온돌로 전달되고, 문간방은 아궁이를 통해 불을 지핀다. 신사택은 부엌과 방으로만 이루어진 평면 구조로 부엌을 통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 신사택 안마당



◆ 신사택 부엌

47 박혜선, 「인천지역 주거문화의 역사에 대한 소고」, 『인천역사』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121쪽.



❖ 구사택 대문



❖ 신사택 내부 복도

산곡동 영단주택은 한옥 형태를 가졌다고 하지만, 연립 형태를 취하면서 전형적인 한옥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지 주민들이 주택이라는 용어 대신 ‘사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물론 ‘조병창에서 근로자를 위해 지은 집’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겠지만, 일반적 주택과 다른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사택은 많은 인력을 집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구사택’의 경우 주택의 형태는 한옥처럼 꾸미었지만, 한 지붕에 벽면을 사이에 두고 앞집, 뒷집, 옆집을 배치하였다. ‘신사택’의 경우는 부엌과 방으로 배치하고, 7호를 병렬로 배치하여 과거 엮진 사택을 연상하게 한다.

영단주택은 가곽을 중심으로 가옥을 배치하고, 1가곽에 6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1동에는 보통 14호가 생활을 한다. 공중 대중 시설로는 공중우물과 공중화장실을 들 수 있다. 공중우물은 ‘구사택’ 지역에 1가곽당 1개의 우물을 설치하여 6개동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최근까지 우물터 3개가 남아있으나 나머지 우물터는 가옥에 포함되어 그 터가 사라졌다. 공중화장실은 화장실이 가옥 내부에 없는 ‘신사택’ 지역에서 각 동의 가장자리에 1개소씩 설치하여 14호가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침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인원수에 비해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 옛 우물터에 만든 텃밭

영단주택은 산자락을 따라 일렬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집 안으로 진입하기 용이하게 대문 앞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계단 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그 단이 많아진다. 현재, 대문 앞 계단을 설치한 가옥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구사택’의 안방과 문간방에는 각각 툇마루를 달았다. 안방과 문간방은 별도의 공간으로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툇마루를 통해야만 한다. 결국, 안방과 문간방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안마당을 통해 각각의 툇마루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것은 영단주택이 부부 중심이 아닌 조병창의 젊은 근로자를 고려해서 방을 분배하였기 때문이다. ‘구사택’은 벽면을 사이에 두고 앞집, 뒷집, 옆집 등 3호가 인접되어 있는데, 옆집의 경우 각각의 안방이 벽면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꼴이다. 안방은 집주인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영단주택의 경우는 상대방의 사생활이 손쉽게 노출될 수 있다. 영단주택 사람들이 이웃집 상황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심지어 대화도 한다고 할 정도이다.

영단주택의 대문은 크기는 작지만 쌍여닫이문을 달았고, 방문은 미닫이문이다. 그리고 모든 안방에는 부엌 방향으로 다락을 설치하였고, 부엌은 방의 지면보다 1.5m 낮게 설치하였는데, 이런 구조는 한국 전통 가옥의 형태를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다락

방은 가족 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영단주택은 해방 이후 평면상의 변화와 증축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해방 이전 ‘일제’라는 명확한 소유자가 있는 반면 해방 이후 그들이 사라졌고, 가족 수의 증가와 6·25전쟁, 공업화 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난은 대지 내 공지인 도로를 중심으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주택의 증축은 한두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단주택에서 이루어졌고, 대로와 인접한 지역은 골목에 인접한 주택보다 증축 폭이 2배에 해당된다. 도로에 면한 주택들은 전면을 점포로 개조하거나 주거공간으로 확충하여 셋방이나 수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점포들은 현재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한 경우도 많지만, 지금도 과거 점포를 알리는 간판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의 증축을 통해 방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마루를 달아 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 증축하여 만든 뒷간 2칸

그러나 주택의 증축은 생활의 편의를 가져왔지만, 소방도로의 폭이 좁아져 차량은 물론 사람 두 사람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이다. 산곡동 영단주택 도로는 남측의 20m 도로는 그대로 남아 4차선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단지를 남북으로 가르던 12m 도로는 도로 양쪽으로 상가들이 증축되어 들어오면서 8m 정도의 폭으로 줄어들었고, 단지 내의 주 구획도로로 만든 24개의 소도로의 폭도 8m, 6m에서 각각 6m, 4m 정도의 폭으로 줄었다. 결국 과거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소도로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주택의 증축과 점포의 형성은 기존의 건축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동시설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8개에 이르는 공동우물은 신축과 증축 과정을 통해 사라졌거나 복개되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우물은 바가지우물⁴⁸이었으나 후에 수도꼭지가 1개 달린 공동수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공동수도도 집 안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자연스레 사라졌다. 현재 예전 우물터 가운데 1곳만 수도를 설치하여 생수를 받고 있다. 시장 상가로 바뀐 영단주택은 앞을 모두 터서 상품 전시에 유리하게 만들어 그 원형을 찾기 어렵다.

산곡동 영단주택지는 지대의 높이에 한때 변화를 가져왔다. 산곡동 영단주택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연탄을 난방의 주원료로 사용하면서, 연탄재를 도로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지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아랫집은 도로보다 낮아졌고, 윗집은 도로와 높이가 같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버린 연탄재의 높이는 1m 정도였는데, 도로에 보도블록을 깔 때 연탄재를 파내어 본래의 높이를 되찾았다고 한다.

48 우물의 수량이 풍부하여 두레박을 사용하지 않고 우물가에 있던 조롱박과 같은 바가지만으로도 물을 떠서 사용할 수 있던 우물을 말한다.



❖ 연탄가게

1980년대부터 영단주택의 실내가 현대식으로 개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기와 밑에 흙이 떨어지면 아예 흙을 제거하고 함석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벽면, 바닥 등을 시멘트로 고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가스 도입과 더불어 입식 부엌으로 개량되면서 공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마당 부분을 거실과 부엌 공간으로 꾸미면서, 거실 공간이 가족의 담소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안방과 문간방의 공간 구조가 확대되었고, 대문 입구 증축에 따른 화장실 이외의 별도 공간을 보일러, 세탁기 등 다용도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민들은 집을 현대식으로 새로 짓거나 일부는 2, 3층을 올리기도 하였다.



❖ 현대식으로 입식화된 주방

영단주택의 일부 주택은 6·25전쟁 때 폭격으로 사라졌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 조병창 양성소 식당은 6·25전쟁 때 화재로 전부가 소멸되어 현재 산곡1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외의 소실된 주택지는 텃밭이나 닭,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는 공간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6·25전쟁 때 함포 사격으로 파괴된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으면서 주택의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현재 노인회관 옆 공터도 폭격으로 인한 것이며, 일부 공터는 교회나 주민센터, 의원 등 대형 시설이 들어섰다. 한편, 영단주택 가운데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옆집이나 이웃집, 아랫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다. 이때 ‘반 채’를 구입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중간 벽을 사이로 집이 두 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한 채’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반 채를 구입한 주민 상당수는 벽을 터서 공간 구조의 변화를 통해 넓게 쓰거나 현대식 가옥으로 개조를 하였다. 반 채 3개를 구입한 사례도 보인다.

최근에는 주택을 구분하기 위해 벽면의 색깔을 각각 달리 칠하기도 한다. 주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연립 형태이기에 고령의 주인이나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제집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단주택 주민의 가장 큰 수입은 임대와 점포 수입이다. 영단주택은 일제 말기 조선

주택영단에서 인천조병창의 임대주택으로 관리했으며, 임대인들은 집세를 매달 지불하였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또다시 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고 수익을 챙기었다. 그래서 한 집에 몇 가구씩 사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재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조병창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 위주였다. 결국 임대인은 한 방에 여러 명에게 월세를 주고 임대료를 챙긴 것이다.

해방 이후 개인들에게 영단주택이 불하된 이후에도 집주인들의 주요 소득은 임대 수입이었다. 주인들은 쪽방을 만들고 화장실을 증설하는 등의 집의 개조를 통해 임대 수익을 높이었다. 1973년 미군 부대 에스컴이 산곡동을 떠나기 전까지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양공주'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챙기었고, 후에는 부평공단(1970~1980년대)·한국베어링공업(1973, 산곡동) 근로자와 공수부대(5공수와 9공수) 군인 등을 통해 임대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수부대와 공장 등의 이전, 인근 주변의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임대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간 임대 수입이 생활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었던 주택 소유자들은 더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상당수의 원주민들이 산곡동을 떠났고 그들의 집들은 서울 등 도시민들에게 팔려나갔다. 빈집 수의 증가와 주택의 불량화가 가속화되면서 임대 수입은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영단주택의 경기는 오래전부터 임대료 수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조병창에 근무한 사람들에 따르면, 일제시기 영단주택 내에는 점포가 없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조병창 근로자들은 조병창 내 상점을 통해 생필품을 구입하였는데, 그곳에서 배달을 해주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미군이 조병창을 접수하고 에스컴 부대가 들어오면서 영단주택을 중심으로 한 산곡1동에는 수많은 점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점포는 미군은 물론 미군 부대와 공단 근로자,接客업자(일명 '양공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미군이 떠난 후 미군 부대 종사자와接客업자들도 함께 산곡동을 떠나갔지만, 공수부대와 부평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업은 지속적으로 흥행하였다. 그러나 영단주택의 점포 영업은 공수부대와 공단 이전 이후 위축되었고, 대형 마트가 인근에 자리를 잡으면서 영단주택 내의 상당수의 점포가 폐업을 하게 이르렀다. 현재 영업을 하는 점포도 과

거에는 늦게까지 장사를 하였지만, 현재는 손님이 없어 오후 7시면 문을 닫는다. 그런데 새우젓 점포는 인근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소래 등 멀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 유지되고 있다. 새우젓은 김장철이나 보쌈, 국 등에 양념으로 먹는다.

영단주택의 점포는 1960년대에 대로변을 따라 천막 노점상이 줄을 지어 장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노점상은 산곡동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공수부대, 베어링공장, 전남방직, 신한제분, 동양철강이 있어 장사가 잘되었다. 이들 노점상은 오늘날 점포와 시장을 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 시장과 대로(大路)에는 채소·생선·김·기름·곡물·계란·소금·과일·양파·고기·신발·옷·보석·이불·속옷·이발소·지업사·만들집·옷수선집·포장마차·꽃가게 등 다양한 점포가 있다. 그런데 점포마다 상품이 겹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 영단주택지 내 점포주는 서울 등 도시민이 다수이며, 어느 야채가게는 보증금 300만 원에 매달 15만 원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과거 롯데마트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장사가 잘되어 월세로 3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



❖ 소금과 생선을 파는 가게(좌)와 야채가게(우)

점포 장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외상이다. 1960~1970년대에는 외상 장사가 일반화되었고, 월급날이면 외상값을 갚는 사람들로 붐벼, 이날이 상인들에게는 '대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외상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대로 외울 수 없어 점포 주인들은 그 사람의 특징을 새겨 장부에 올렸다고 한다. 가령 '똥똥보', '딸 두집', '대머리집', '눈 한

짜 없는 사람', '새벽 아줌마' 식으로 장부에 적었다. 당시에는 식품을 포장해서 팔지 않고 비닐에 직접 담아서 팔았다.

2014년 현재, 영단주택 내 점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업점이다. 즉, 음식점, 의류점, 슈퍼·잡화점, 미용실, 식품점, 학원, 학교 등이다. 그러나 지역 면적에 비해 독특한 업종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만하다. 건축과 관련하여 자재 판매, 설비와 수리 등이 높은 비중(3번째)을 차지하는 것은 영단주택이 60년이 넘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축을 손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전통 기와 판매점이 존재하는 것도 한옥으로 영단주택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수많은 업종이 휴업을 한 것도 영단주택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군 부대와 공수 부대 철수, 주민들의 이탈과 재개발에 따른 빈집 증가, 대형 마트 입점 등의 요인으로 영업점 운영이 힘들어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을 한 상가가 눈에 띄게 보인다. 특히 현재, 음식점 32곳 가운데 14곳이 폐업을 하였고, 슈퍼·잡화 20곳 가운데 7곳, 미용실 15곳 중 6곳, 부동산 8곳 중 2곳, 의류 매장 25곳 중 7곳, 건축자재점도 25곳 중 5곳, 전자(수리, 설치) 10곳 중 2곳이 폐업하였다. 그밖에 영업점 수량도 많지 않은 컴퓨터게임장, 이사 업체, 세탁소, 사진관, 이발소, 방앗간, 식품, 학원, 문구 매장, 청과물 등 각각 1곳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 상태이다. 1970년도 미군 감축설이 나왔을 때 산곡동의 집값과 땅값이 급격히 떨어졌고, 흥청거리던 접객업소도 방매가 나붙었다. 또한 외상값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공공한 업소가 많았고 실제로 외상값을 떼어먹고 떠난 미군도 많았다. 당시 산곡동 33곳 점포 중 22곳이 문을 닫고 전업을 하였다는 기사도 보인다.⁴⁹ 한편, 일부 여성은 동거한 미군과 결혼을 하기 위해 국제결혼상담소에 결혼 수속을 위임하였으나 수속비를 떼어먹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하였다.⁵⁰

49 「미군감축론과 기지촌 주변-부평」, 『동아일보』, 1970년 7월 11일자.

50 「은방울-국제결혼상담소란 간판을 걸어놓은 사이비단체가 기지촌을 파고들면서 양공주들을 괴롭히고 있다」, 『매일경제』, 1970년 12월 11일자.



◆ 영단주택 중심지 대로

마지막으로 영단주택의 영업점은 대로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9~12통의 대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중요한 영업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의 집값은 과거 다른 영단주택보다 2배 정도 비쌌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차이가 사라졌다.

2. 1960년대 신촌의 주거 문화

1930년대에 신촌은 허허벌판이었고 외지인들이 모여들면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면서 '새마을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후 '신촌'으로 바뀌었다.⁵¹ 초기의 신촌은 주거지보다는 밭이었으나 일제시기 조병창과 6·25전쟁 이후 애스컴이 자리 잡으면서 점차 집이 증가하게 되었다. 오히려 신촌 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집들이 지어지면서 좁은 골목을 중심으로 집이 서로 마주보는 밀집형으로 바뀌었다.

51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2015, 178쪽.

신촌의 변화 양상은 시대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50~1960년대에는 애스컴과 인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미군, '양공주'를 상대로 한 영업점이 발달하였고, 미군 부대 근무를 위해 신촌으로 몰려들었다. 당시에 마을 중심 대로인 신촌로를 따라 교회, 주택, 상점 등이 형성되었고, 미군 부대를 마주한 경원대로를 따라 클럽 등이 들어섰다. 신촌로 좌우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주거가 형성되었으나, 신촌로와 경원대로, 신촌로와 원통천 사이에는 골목길을 따라 작은 규모의 집들이 빼곡하게 지어졌다. 그리고 철길 밑의 쌍굴 터널 주변으로는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섰다. 이처럼 신촌 지역은 점차 사람들 이주가 증가하면서 골목길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택이 형성되었다. 현재 신촌의 골목길은 20개가 넘는다.

신촌의 민가 형태는 기억자형이 주류를 이루고 일자형과 디귤자형이 보인다. 1960년대 신촌에 이주한 사람들은 신촌로를 벗어나 원통천 상류 지역을 따라 판자와 함석으로 지은 일명 '햇고방'에서 생활하였다. 햇고방은 함석지붕에 집의 뼈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흙벽으로 지은 일자형 집으로 돈이 없는 이주민이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이었다. 신촌 주민들에 따르면, "미군 부대 내 목재를 가져다가 집을 지었는데 제대로 갖춰서 지은 집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당시 신촌 땅 대부분은 박문여자고등학교 소유였으며, 주민들은 대부분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햇고방(하코방)은 벽면을 판자로 마감하였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대단히 추워 생활하기 무척 어려웠다. 햇고방은 추후 벽돌로 벽면을 만들고 지붕에 기와를 얹는 등 약간의 개조가 이루어졌다.

일자형 가옥에서 살고 있는 이○○씨(익명요청, 1931년생)의 집은 신촌의 공터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았다. 벽면은 흙벽으로 마감하고 뼈대 없이 지었기 때문에 '햇고방'이라고 스스로 부른다. 당시 이씨의 기억에 따르면, "신촌교회 인근에는 기와집이 있었으나 신촌 지역 대부분은 햇고방 형태였다"고 한다. 1950년대 신촌에 클럽이 들어서면서 국가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양공주' 거처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햇고방 내부의 구조는 한옥과 같으며, 안방에는 다락방이 있기도 했다. 다락방은 일반 농촌에서는 집 안의 귀중품이나 일상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였지만, 신촌의 다락방은 자식들의 공부방과 잠자리로 활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2개의 방에 많은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심지어 2개의 방 중 1개는 월세로 임대한 경우도 있기 때문

에 다락방의 활용은 절대적이었다. 이씨의 집은 빗물이 스며들어 2001년에 지붕을 손보고, 담을 벽돌로 교체하여 겨울철 추위를 막았다.

집의 공간 활용은 안방은 부부 내외와 딸들, 건넌방은 아들들이 사용하였다. 다락방은 딸들 공부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잠을 자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다락방은 2~3명은 족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씨는 방 2칸 중 1칸을 '양공주'에게 사글세로 준 적이 있으며 그의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였다.

기억자형은 신촌 내 현재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다. 그런데 기억자형은 "신촌의 일자형 가옥이 70% 정도였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근거하면 과거 일자형 가옥을 증축 및 개축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기억자형의 구조는 부엌-안방-마루-건넌방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나 신촌의 기억자형은 마루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신 뒷마루가 달려 있어 각각의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결국 과거 햇고방을 증축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이 기억자형으로 바뀐 셈이다.

김○○씨(익명요청, 80대)의 집은 대문으로 들어서면 광이 있고, 옷방-안방-부엌-건넌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을 방으로 개조하였는데, 외문과 내문 2개의 문을 달았다. 안채의 다른 부속 건물과 달리 독립된 공간으로 과거 이곳을 '양공주'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한다. 현재는 고추 등을 말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방과 옷방은 뒷마루가 달려 있으며, 건넌방은 부엌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떨어져 있다. 따라서 건넌방도 외지인에게 임대 가능했다. 안마당에는 우물이 있으며, 현재는 감자 등을 말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김씨의 집은 임대를 위해 방의 수를 늘린 셈이다. 그런데 김씨의 집은 이웃집 2채와 1필지로 되어 있어, 결국 1필지에 3채가 있는 셈이다.

박○○씨(익명요청, 60대)의 집은 2채의 기억자형 집을 현재는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집도 마루 공간은 없고 방 앞에 좁은 뒷마루만 존재하고 있다. 앞채는 과거 '양공주'들에게 임대를 주었다. 본래 2채의 대문이 각각 있어 앞집의 임대자는 본래 가옥의 대문을 이용하고, 주인은 집 한쪽에 대문을 달아 그 문으로 출입하여 각자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집은 박씨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앞집의 작은방을 제외하고 안방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이다. 그리고 뒷간은 앞채 대로변에 있어 역시 대문을 통해 뒷간을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대로변 뒷간 문을 마감하여 집 안에

서 뒷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뒷간은 재래식 뒷간을 변기 등만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집이 낡고 비가 새지만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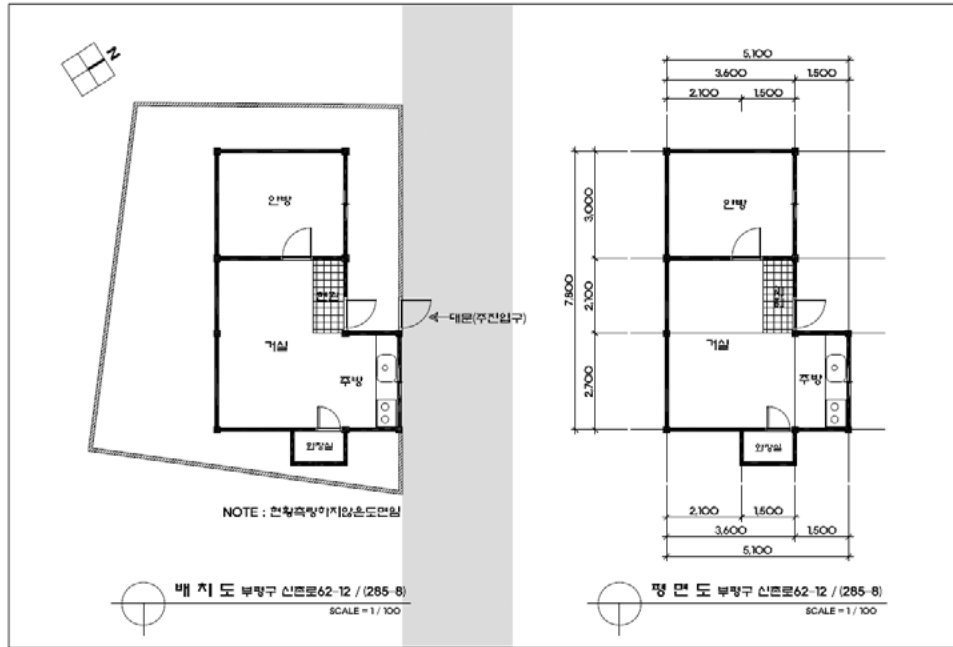
집 안의 우물 자리에는 수도를 달았다. 신촌에서 안마당이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우물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것은 마을로 흐르는 원통천으로 인해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현재 집의 공간은 앞채의 작은방은 박씨의 딸 3명이 사용하고, 뒷채의 건넌방은 부부 내외가, 안방은 시어머니와 아들 2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신촌의 주택은 안마당의 유무와 그 규모에 따라 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핫고방이라고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일자형으로 대문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자리를 잡고 각각의 공간은 뒷마루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반해 안마당이 있는 가옥은 기억자형을 띠고 있으며, 안마당 내부에는 우물이 있다. 김○○씨(익명 요청, 1921년생)의 가옥은 안마당이 있는 규모가 큰 기억자형 집인데 방과 부엌, 화장실을 증축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은 디근자형이다. 집은 대문을 들어서면 문칸방(쪽방)-부엌-안방-마루-건넌방-끝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뒷문 쪽의 별도 공간에 방 2개를 증축하였는데 그것을 ‘아랫방’이라고 부른다. 아랫방을 제외하면 집의 형태는 기억자형인데 다른 기억자형과 달리 마루가 존재한다. 이것은 본래 기억자형 주택은 마루가 있었는데, 일자형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기억자형으로 바뀌면서 마루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랫방은 1996년에 임대를 주기 위해 지은 공간으로 부엌과 화장실이 별도로 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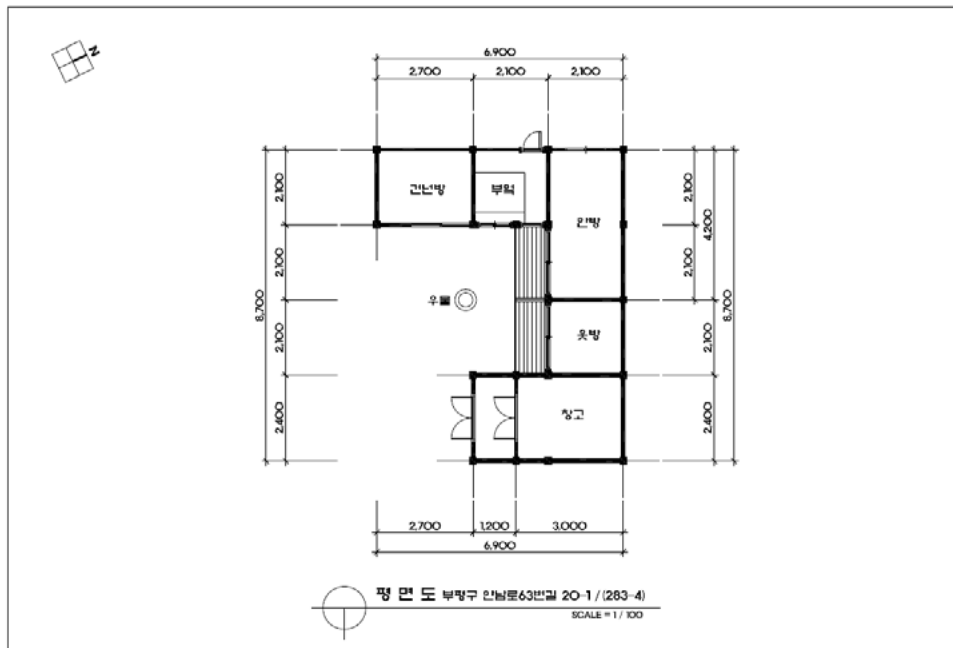
김씨 집의 특징은 방이 많다는 것이다. 애초에 방을 많이 구성한 것은 친척들의 거주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임대를 주었다. 문칸방은 고아 출신 형제들이 생활을 하였고, 부엌이 별도로 없어 잠만 자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안방은 부모가, 건넌방은 아들 형제, 끝방은 딸이 생활하였다. 집 안마당에는 우물이 있다. 과거 아이스크림을 사 가지고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는 경우 양동이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녹지 않게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우물물이 시원하다는 의미이다. 부엌에는 물솥, 밥솥 2개를 걸었고, 석유곤로가 등장하면서 그곳에서 찌개 등을 끓였다. 물솥은 물뿐만 아니라 메주를 만들기 위해 콩을 삶을 때도 사용하였다.

김씨의 뒷집 대문을 열면 바로 원통천과 연결된다. 신촌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김씨의 집은 교회 쪽으로 대문이 있고 천변 쪽으로 손쉽게 나갈 수 있게 뒷문을 설치하였다. 김씨 집을 통해 원통천이 복개되기 이전에는 마을 전체 폭이 그리 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원대로와 골목에서 실개천이 흘렀기 때문에 마을이 물길 가운데 자리 잡은 셈이다.

신촌의 주거 형태는 대형 건물 속에 전통 가옥이 파묻혀 있는 형국이다. 신촌 맞은편 현대아파트는 1983년에 분양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맞은편 지역인 신촌에도 부동산 투기와 개발 계획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새로 신축된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은 10~15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건물은 현재 분양 중이기도 하다. 특히 부평공원이 조성되고 원통천이 복개되면서 인접 지역은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자리를 잡았다.



❖ 부평구 신촌로 62-12 가옥 평면도(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2015, 186쪽)



❖ 부평구 안남로 63번길 20-1 가옥 평면도(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2015, 189쪽)



❖ 신촌로



❖ 담장에 그려진 벽화



❖ 김씨네 툇마루

신촌 전통 가옥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우선, 임대를 위해 방을 증축하거나 개조한 사례가 많다. 이것은 클럽의 '양공주'와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임대를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현재는 증축한 방이 빈방이거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집 주변에는 함지박이나 화분에 나무나 꽃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집은 대문 위 공간에 나무와 꽃, 고추 등을 심었다. 일부 집은 헐린 집 공터에 텃밭을 만들어 배추, 무 등을 심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불량 주택 단지에서 고추, 상추 등의 야채 등을 재배하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셋째, 집집마다 장독대와 우물이 있다. 장독대는 과거의 흙 단 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시멘트로 단을 만들어 흙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장독대에는 된장, 고추장 등의 장항아리를 올려 둔다. 신촌 지역에 우물이 있는 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물론 현재는 우물을 사용하지 않아 우물을 덮어두거나 그 자리에 수도를 설치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신촌에 수량이 풍부하여 어느 곳이나 파면 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동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전통 가옥이 오래되어 지붕에 비가 새는 집들이 보인다. 그래서 기와와 함석을 새롭게 얹은 경우도 있지만, 지붕 전체를 천으로 씌우고 그 위에 타이어 등을 올려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막았다. 벽면의 경우는 흙벽에 회칠을 하여 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았다.

다섯째, 부엌과 재래식 화장실에 설치한 공조 시설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다. 창문도 과거에 설치한 방법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재개발과 관련하여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집들 가운데 빈집이 많이 남아 있다. 빈집은 불량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다.

3. 1970년대 청천동 국민주택

청천1동 10통 은행나무와 목욕탕이 자리 잡은 지역에는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연

립형 가옥이 3개의 골목을 사이에 두고 즐비하게 연결되어 있다.⁵² 국민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근거하면 1964년 10월 20일에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960년대에 청천1동으로 온 이주민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국민주택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197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주택은 재개발에 따라 원주민들은 이사를 간 상태이지만, 당시의 건축 평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국민주택 2채를 사들여 2층 연립 가옥을 만든 10통장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집을 장만하여 생활할 수 있게 만든 가옥'이라고 설명하였다.



❖ 청천동 83-7번지 국민주택 평면도(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장수산 맑은내 마을, 부평 청천동』, 2016, 167쪽)

52 부평역사박물관, 『장수산 맑은내 마을, 부평 청천동』, 2016, 166쪽.

국민주택이란 명칭은 ‘문화주택’이란 명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한국 전통가옥과 다른 의미로 표현한 것이고, 가옥의 특징은 하나의 지붕에 두 집이 벽을 사이에 두고 생활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이 ‘반 집’이고 벽을 사이에 둔 나머지 집을 구입했을 때 ‘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 집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식 가옥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평수도 산곡동의 영단주택보다도 매우 넓다.

국민주택은 대문을 들어서면 2m 정도 너비의 가옥의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통해 집 담장 옆에 설치한 뒷간과 벽면 사이의 갈무리 공간을 다닐 수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통로에 텃밭을 설치하여 배추, 파 등을 심었으며, 통로에는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장대를 이용해 줄을 달아매었다. 집 안채로 들어가는 문은 미닫이문을 설치하였고, 집 내부는 마루, 부엌이 딸린 안방, 쪽방, 건넌방이 있다. 쪽방은 부엌과 건넌방 사이에 있는 방으로 통상 자식들이 이용하기에 ‘학생방’이라고 부른다. 건넌방과 쪽방에는 겨울철 난방을 위한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과거 부엌은 전통 부엌처럼 지면이 내려간 상태이고, 연탄을 연료로 하고 양은솔 3개를 걸었다.

국민주택은 기본 평면구조를 유지한 채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안방에 딸린 부엌은 입식으로 바뀌었고, 건넌방과 쪽방의 아궁이 공간은 화장실과 세면 공간으로 개조하였다. 일부 가정은 바깥 뒷간을 없애고 집 안의 쪽방을 화장실과 세면 공간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평면구조의 변화가 없다 보니 안방에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1m 정도로 좁으며 짧다.

국민주택의 기본 구조는 후에 청천1동에 지어진 슬라이브 가옥이나 베란다가 설치된 가옥에서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1970년대 이후 지어진 현대식 가옥의 원형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 주거 전용면적이 1호당 85㎡ 이하를 말한다.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 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를 시행하였다. 청천동 주민들이 말하는 국민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국민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다.

4. 십정동 달동네

십정동 주거는 윗열우물과 달동네가 큰 차이를 보인다. 윗열우물은 비록 빌라 등 현대식 건물들이 최근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전통 가옥이 남아 있다.⁵³ 대부분의 전통 가옥은 성씨네 미음자집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기억자형과 니은자형, 기억자형과 일자형이 조합을 이룬 형태이다. 달동네 주거는 일부 가옥이 빌라로 바뀌었으나 좁은 골목을 중심으로 민가가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 형태이다.

십정1동 주민은 큰 대로변과 상권이 발달한 지역과 좁은 골목을 끼고 사는 주민들 사이의 생활 수준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좁은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길도 좁아 예전처럼 인력거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이다. 또한 ‘하코방(하고방)’이라고 부르는 작은 집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주민 대부분은 도시개발에 밀려 외지에서 이주해온 영세민들이고, 또한 더욱 영세한 근로자나 외국인들은 이들 집에 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동네 가옥들은 하나의 담을 경계로 촘촘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집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여 부족한 공간을 증축하거나 변형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다. 가령 대문의 위를 장독대로 활용하거나, 뒷간을 방이나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대문 한 귀퉁이에 뒷간을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다리를 통해 옥상을 작물들을 건조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53 부평역사박물관, 『열우물마을 부평 십정동』, 2017, 87쪽.



❖ 사다리



❖ 지붕 보호용 매트

달동네 가옥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제외하고는 집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마당이 있는 집은 하나도 없으며, 그 대신 안마당을 작업 공간과 이웃 간의 정감을 나누는 장소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통로는 화재 발생 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며, 위생에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의 노인회나 청년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기도 하였다. 마을 곳곳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다. 한편,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을 주민들은 화분이나 고무 대야 등을 통해 고추나 배추 등을 재배하기도 한다.



❖ 상추 재배(좌)와 방범 창살(우)

또한 비탈진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의 담이 골목길 밑에 위치하는 형상이다. 집의 창문을 열면 사생활이 거의 노출되는 형국이라 창문이 닫힌 경우가 대부분이며 창문을 여는 경우 발을 차기도 한다. 창문에는 철조망을 씌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는데, 지금도 철조망을 씌운 집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

한때 석유 값이 폭등하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집들이 무척 늘었다.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연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재래식 부엌을 가진 집들도 허다하여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영세민 가운데 일부는 구청으로부터 연탄을 무상으로 받기도 하였다.

달동네는 2020년 개발로 모두 헐렸다. 한때 몇 년간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수리 등의 제반 조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방치한 채 개발하기만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상당수였다. 이는 불량 집을 양산하고 미관을 해치며 지역의 슬럼화를 촉진시켰다.



❖ 연탄재

달동네 집의 벽면은 벽돌을 세우고 그 위를 시멘트로 덧발라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 들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1950년대에만 하더라도 블록 등으로 쌓아 집 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추웠다고 한다. 부엌은 대부분 가정에서 입식으로 바꾸었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솥에 음식을 하기도 한다. 솥은 보통 3개를 거는데, 작은 솥에는 국을 중간 솥에는 밥을, 큰솥에는 물을 끓인다. 뒷간은 수세식이 있는 가정도 있지만, 여전히 재래식 뒷간을 사용한다.

5. 화랑농장과 주택

화랑도의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의 화랑농장은 1953년 5월 6일 김국환을 필두로 이북 출신 40여 명의 상이용사들이 만든 협동농장이다.⁵⁴ 1951년 가을에 이북 출신의 상이용사들은 미군 부대가 있는 산곡동 화랑농장 주변에 일제 때 파 놓은 토굴이나 산등성 인근에 천막을 치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였다. 1952년에는 화랑농장에 목조건물인 화랑교회가 생겼고, 미군 제1해병대 중군목사가 전도하러 왔다가 1953년 2월에는 예배당을 만들어주었다.



❖ 화랑농장 창설기념 사진(1953)(김국환 유족 소장)(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⁵⁴ 부평역사박물관,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 2019, 26쪽.

1953년부터는 화랑농장에 상이군인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인천공보 기사에 따르면 그 수가 192명, 약 2년 뒤인 1955년에는 200여 명에 이르렀다.⁵⁵

당시 화랑농장은 자활 농장인 동시에 경기도 정양원(靜養院)의 분실(分室)로 상이용사를 대상으로 한 치료와 직업교육을 병행하였다. 정양원은 「상이군인 정양원 규정」(1953.1.8.)에 의해, 전투, 공무, 전지, 계엄 지구에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퇴직한 후 가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군속 또는 군인을 수용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화랑농장을 경기 정양원 화랑농장이라고 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 경기 정양원 화랑농장 신축공사 낙성식(1955.3.5.)(출처 : 국가기록원, CET0043611)

1955년 3월 5일 1시, 화랑농장 신축 공사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미군 제8057부대의 자재와 기술 원조를 받아 건립된 것으로, 당시 신문 보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규모를 갖춘 유일의 집단농장’이라 평하였다.⁵⁶ 건물은 총 11채였고, 그 안에는 농업기

⁵⁵ 「황무지 팔만여 평을 개간」, 『조선일보』, 1955년 2월 9일자.

⁵⁶ 「상이군인을 위한 집단농장」, 『동아일보』, 1955년 3월 7일자.

술 지도소, 합숙소, 식당, 농산물 가공실, 축산 시험실 등이 설치되었다.

화랑농장은 농장장, 부농장장, 총무, 서리, 경리 등 조직을 두어 운영하였고, 초대 농장장은 김국환이 담당하였다. 초기 화랑농장은 정부에서 제공한 10여만 평의 땅을 개인별로 500~1,000평씩 나눠 갖고, 보리와 야채 등을 재배하면서 소와 돼지, 오리, 닭 등을 사육하였다. 우사에서는 50마리 정도의 소를 키웠고, 교회 앞 양계장에서는 수백 마리의 닭을 키웠다. 또한 미군은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잔반을 화랑농장에 주었고, 상이용사들은 쓰레기와 잔반을 분류하여 쓰고 먹을 수 있는 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농장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아가자 농장의 운영을 둘러싸고 부평극장 주변에 생활하는 상이용사 사이에 세력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화랑농장에 들어온 상이용사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회부 관할로 정양원이라는 간판은 달았지만, 국가의 지원은 많지 않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김국환이 자활 농장을 만들었으나 산지라서 땅이 척박하고 개간한 땅 역시 미군 부지라고 해서 다시 수용당하기도 하였다.⁵⁷ 상이용사들은 자활을 모색하였지만, 완전 자립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상이용사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54년에는 상이용사 20여 명이 안산 초지동과 원곡동으로 이전하여 농장 확장을 모색했고, 농장 이름도 화랑농장으로 명명하였다. 당시 농토 규모는 30만 평이었고, 10만 평만 개간해도 적자는 보충된다고 보았다.⁵⁸ 안산에 화랑저수지, 화랑남시터는 화랑농장으로 인해 생긴 명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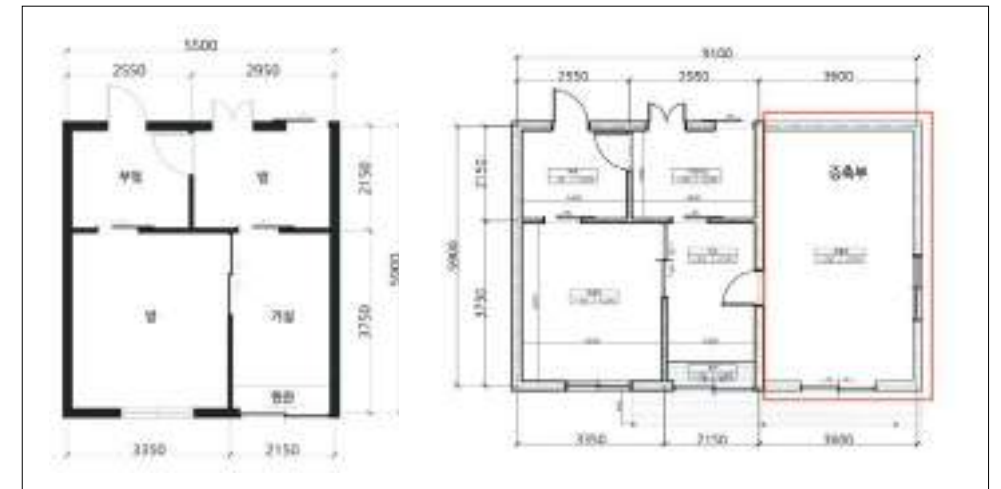
화랑농장 해체는 1961년 정양원의 해체와 맞닿아 있다. 화랑농장에서 땅을 불하받았던 상이용사들의 선택은 땅을 헐값에 팔고 이주하거나 그곳에서 살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이용사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였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섯 사람 정도였다. 그 가운데 한 명이 화랑농장을 주도한 김국환이었고, 2001년 사망할 때까지 화랑농장에 머물렀다. 현재도(기준 시점) 그의 부인과 자손들이 화랑농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57 「황무지 팔만여 평을 개간」, 『조선일보』, 1955년 2월 9일자.

58 「황무지 팔만여 평을 개간」, 『조선일보』, 1955년 2월 9일자.

화랑농장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는 1950년대부터 1960년까지이며, 1961년 화랑농장이 폐쇄되면서 농장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상이용사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화랑농장이란 과거의 지명이 현재까지도 지역민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는 건 특이한 일이다. 현재 농장이 없는 화랑농장을 많은 사람들이 가축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현존 농장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상이용사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상이용사에게 시집을 오려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화랑농장에서는 1955년 2월 9일 상이용사 23명이, 1956년 4월 9일에는 9명이 현재의 협성원에서 합동 결혼식을 통해 가정을 꾸렸다. 결혼식이 끝나면 잔치는 벌어졌지만 하객은 없었다. 그것은 상이용사들이 모두 이북 출신으로 남한에 친인척이 없기 때문이고, 신부 하객도 참석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결혼한 상이용사들에게는 약 33㎡ 정도의 공동주택을 지어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문화주택이라고 할 정도로 모양이 좋고 튼튼한 건물로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였다. 문화주택은 단지 내에 단층집으로 화랑농장과 농장 본부 사이에 50채가 건설되었는데, 실제로는 미혼인 상이용사에게도 한 채씩 제공되었다. 당시 지어진 화랑주택은 한 채만 남아있으나 개보수가 이루어져 초기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 화랑주택 평면도(추정)(좌)와 현존하는 화랑주택(산곡3동 369번지) 평면도(우)(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 I, 2019, 108쪽)

화랑주택은 시멘트블록 벽에 기와를 얹은 田자 형태로 마루, 안방과 부엌, 작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루가 집의 주 출구이고, 안방과 작은방으로 통할 수 있게 문을 달았으며 안방에는 부엌이 딸려 있다. 난방과 음식 조리는 연탄을 사용하였고, 작은방에도 연탄아궁이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방 안에서 입김이 나오고 걸레가 얼 정도로 난방에 열악한 집이었다. 화장실은 집집마다 집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하였는데, 후에 지어진 것이다. 초기에는 마당이나 울타리도 없어 집의 구획이 명확하지 않았고, 두 집이 한 마당을 사용하였다.

제6절 | 종교 생활

1. 부평 최초의 천주교, 부평2동 본당

부평2동 본당은 1910년 무렵 설립되었다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내 폐지되었고, 1941년 다시 부평 공소가 설립된 후 1952년 부평2동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인천에서 두 번째 본당이자 부평 최초의 본당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964년 7월 14일 부평 본당에 속했던 부평1동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며, 부평 본당의 명칭이 부평2동 본당으로, 부평1동 공소의 명칭이 부평1동 본당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1900년대 초반, 부평 지역에 첫 공소가 설정되었다. 부평 공소는 제물포 본당(현 답동 본당)의 주임신부였던 드뇌[Eugene Deneux, 한국명 전학준(全學俊)]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뇌 신부가 작성한 1910년 연말 보고서에 1909년부터 1910년까지의 부평 공소 교세 현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평 공소는 그가 부임한 1904년부터 1909년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평 공소 설치 직후에 몇몇 신자들은 열의를 가지고 활발하게 전교하여 신자 수가 늘어났으나 1916년부터 부평 공소는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활발히 활동하였던 신자들이 다른 공소로 옮겨 가고 소극적 활동을 하던 김홍민 공소회장

마저 물러났다. 결국 드뇌 신부가 설립하였던 부평 공소는 1927년 연말 보고서 이후 기록에서 사라져 폐지된 듯하다.

1941년 12월 28일, 폐지되었던 부평 공소가 다시 설립되었다. 당시 제물포 본당의 제 5대 주임신부로 있던 임종국(바오로) 신부가 조병창에 근무하는 신자 직원과 노무자들을 위해 부평 공소를 재설립하였다. 1930년대 말부터 부평2동은 군수시설로 인하여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다. 재설립 당시 부평 공소의 신자 수는 약 20명이었다. 광복 후 부평 공소의 신자 수는 약 50명으로 늘어났고, 1952년 3월 1일, 부평 공소는 부평 본당으로 승격되어 답동 성당에 이어 인천에서 두 번째 본당으로 탄생하였다. 본당 설립 배경에는 연안 본당의 김영식 신부가 6·25전쟁으로 인하여 고아수가 급증하자 고아원 사업에 뜻을 두고 있다가 노기남 주교의 허락 아래 고아 사업의 후보지로 부평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부평 본당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부평 본당의 주보는 「성모성심」으로 설정되었다.

부평 본당은 산곡 공소와 서곶 공소, 서해안 모든 도서를 관할 구역으로 하였고, 교동도와 연평도를 공소로 설정하였다. 당시 본당 구역 내의 신자 수는 부평동 지역 140명, 백마장 공소 117명, 서곶 및 백석에 84명이었다. 본당 부지로는 파괴된 채 버려져 있던 박문여자고등학교의 대지 1만여 평 중 3,000여 평을 노기남 주교와 답동 본당의 주임신부이며 박문여고의 교장이었던 임종국 신부의 양해 아래 이양받았다. 김영식 신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박문여자중학교 기숙사(부평동 665-8, 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를 수리·증축하여 일부는 보육원인 연백성모원으로, 다른 일부는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였다.

1955년 김영식 신부는 현 부평2동 본당이 위치한 대지를 구입하였다. 당시 야산이었던 대지의 정지 작업은 미군 장비를 지원받았고, 건축금을 낼 수 없는 신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본래 2층 건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비의 부족으로 우선 1층만을 건축하고 1957년 약 137평의 성전이 준공되었다.



◆ 1957년 영세 기념 사진(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2016, 205쪽)

1960년대 이후 부평2동 본당에서 관할 구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본당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1964년 부평4동 본당(당시 부평1동 본당), 1974년 간석4동 본당(주안 본당 관할 일부 포함), 1978년 옛 주원 본당(주안1동 본당 및 간석4동 본당 관할 일부 포함), 1982년 부평3동 본당(산곡 본당 및 주원 본당 관할 일부 포함), 1983년 일신동 본당, 1983년 부평5동 본당(부평4동 본당 관할 일부 포함) 등으로 분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2동 본당의 신자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1952년 당시 400명이던 신자 수가 1960년 2,546명, 1970년 2,401명, 1980년 4,135명, 1989년 4,323명, 2002년 4,878명으로 오히려 점차 늘었다. 2016년 현재, 부평2동 본당 신자 수는 약 5,000여 명으로 그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

2. 부평감리교회

1940년 창립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평교회(이하 부평감리교회)는 삼릉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로, 동수역과 남부고가교를 가로지르는 부영로에 위치한다. 현재 등록 교인이 7,000여 명에 달한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다. 우

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가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인천에 감리교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부평감리교회는 1940년 5월 24일, 정확진의 집에서 9명의 교우가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었다. 비록 예배당 없이 가정집에서 시작된 신앙 활동이었으나 부평감리교회 자체는 물론 기독교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부평감리교회에서는 이날을 교회 창립일로 삼는다.

이어 1942년, 대지 25평을 매입하여 건평 12평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였는데, 이 예배당이 부평감리교회 최초의 예배당이다. 홍창준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서 부평2동 파출소(치안센터) 방향의 아래쪽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1951년 6·25전쟁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홍창준(1909~2001) 목사가 부평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당시 전쟁 이후라 삼릉에 피란민이 많았는데, 교인은 30~40명 정도였다. 1981년 1월 1일, 홍창준에 이어 홍은파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 부평감리교회 전경(부평감리교회 소장)(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2016, 208쪽)

1993년 본관(현 별관)과 교육관이 신설되며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기존 교회 인근의 빌라, 동사무소 건물 등을 매입하여 대규모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교회는 부일초등학교와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당시 교회 증축과 관련하여 교통 영향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늘어나는 차량의 흐름과 주차시설이 문제가 되었다. 부평감리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은 2003년 9월의 일이다. 2001년 부일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2003년에 준공된 것이다. 옛 본관은 별관으로 사용하고 매입한 부일초등학교 부지에 새 본관과 선교 센터를 신설하였다. 현재 등록 교인은 약 7,000여 명이고, 삼릉에 거주하는 신자 이외에도 삼릉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신자들이 부평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부평신촌성결교회

부평신촌성결교회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통틀어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다. 1956년 설립되었으며, 요즘은 도시에서 교회 종소리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지만 적어도 1960년대 신촌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마을을 물들였다. 신촌성결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 초종을 치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재종을 쳤다.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모인 신도들은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그날의 예배를 준비했다. 1965년 8월 무렵 교회 집회는 일주일에 모두 여섯 차례 있었다.

신촌성결교회는 주민들이 결혼을 했을 때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식이 군대를 갔거나 새로 가게를 개업했을 때 교회에 나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 당시 발간된 교회 『주보』에는 그때 신촌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현재 교회 내 당회실에는 164호(1963년 9월 15일 발행)부터 현재까지의 주보가 1년 단위로 제본되어 보관되어 있다. 1963년 당시 신촌교회의 정식 명칭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촌교회’였다. 주소는 부평동 283번지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320번이었다.

교회는 미군 부대와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갔다. 군목 등이 교회를 찾아와 설교를 하기도 하고 교회 증축을 위해 미군이 울타리를 쳐주거나 교회 정문을 철문으로 개조해

주는 등 물자 지원도 잇따랐다. 교인 수도 나날이 늘어 1965년 10월에는 200명을 넘어섰다. 신촌성결교회는 몇 차례 증축을 거쳤는데, 1968년 『주보』의 표지에는 새로 건축한 교회 건물을 넣기 시작했다. 신촌성결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청과 이만신 목사다. 서울신학대와 승전대를 나왔으며 ‘초교파적 부흥 강사’로 이름을 알린 성직자다. 신촌성결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중에도 부흥회 일로 타 지역에 출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만신 목사는 2015년 2월, 향년 86세로 타계하였다.



❖ 1966년 신촌성결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사진(신촌성결교회 소장)(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2015, 127쪽)



❖ 미군이 헬기를 지원해 신촌성결교회 철탑을 올리고 있다(신촌성결교회 소장)(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2015, 127쪽).



◆ 신촌성결교회 전경

4. 어린이 교회 '부평삼능교회', 출소 여성을 위한 '첫 새벽의 집'

부평2동 758-38번지, 불과 몇 년 전까지 이곳에는 부평삼능교회와 '첫 새벽의 집'이 있었다. 1979년 부평삼능교회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교회 형태로 개척되었고, 첫 새벽의 집은 출소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로 1980년 2월 설립되었다.

부평삼능교회와 첫 새벽의 집 설립은 김정희(金貞姬) 목사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3대를 이어온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김정희 목사는 농촌운동을 위하여 신학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목회 일에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1970년 한국신학대학(현 한신대학교)을 졸업한 후, 1971년 법무부의 교회사(敎誨師: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교화를 돕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교도소 직원이 되었다.

김정희 목사는 5년 동안 교회사로 활동하며 여성 재소자를 위한 재활사업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1970년대 전국 교도소 재소자의 5% 가량인 6만여 명이 여성이었는데,

대다수 여성의 학력이 낮았고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을 위한 갱생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녀는 수원, 전주, 대전 등 각지의 교도소를 돌면서 여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당시 교도소 안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견주어 차별받고 있었다. 글을 배우거나 기술을 익히는 일조차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정희 목사는 여성 재소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익히게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선 교활동을 병행하였다.

교도소를 떠난 김정희 목사는 1978년 8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애초에 목회에 관심이 없었던 그녀가 교회사 생활을 통하여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부평삼능교회를 개척한 것은 목사 안수 이듬해인 1979년의 일이다. 특이한 점은 초창기 교회가 어린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연 것은 교도소에 들어온 수형자들 중 어렸을 때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빠르게 갱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척 초기, 교회는 독립된 예배당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목사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20평대의 주택에서 교회를 시작하였다고 술회한다. 교회에서는 신앙활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오전에는 유치부 아이들과,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다. 책과 장난감을 준비하여 언제나 아이들이 한방 가득 찼다고 한다. 또한 김정희 목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인인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였고, 친분이 생긴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어린이 목회로 시작된 교회가 1년 뒤에는 어른도 수십여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

1980년 2월, 김정희 목사는 출소한 여성 재소자들을 위하여 '첫 새벽의 집'이라는 복지시설을 설립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내 선교위원회 안에 특수 선교부 관할의 기관이었다. 5년 이상의 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사회로 나서는 여성들, 특히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기술교육·정신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소망의 집이 바로 첫 새벽의 집이다. 그런데 첫 새벽의 집 건립과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었다. 총 3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이 중 2억 원은 전국 교회와 해외 보조 청원금으로, 나머지 1억 원은 국내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

다. 여기서 국내 모금 방법이 인상적이다. 일명 1만 원짜리 ‘사랑의 카드’를 판매하여 모금 활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모금 활동으로 건립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의 선교, 자선단체 등에 도움을 청해 보았으나 준공 날짜를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서울 남연합회에서는 이 일을 위해 1983년 6월 20일 자선음악회를 열어 수입금 전액을 건축비로 회사하기도 하였다. 결국 건물은 처음 계획과는 달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0년이나 걸려서 완공되었다. 첫 새벽의 집의 각종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자활사업이다. 첫 새벽의 집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중 주로 하는 사업이 삼베로 수의를 만드는 일이었다. 궁중 수의 전문가인 신영숙 집사가 이를 도왔는데, 일반 수의와는 달리 바느질이 꼼꼼하고 값이 시중의 절반밖에 안 되어 많이 팔렸다고 한다. 또한 장의업을 겸하여 여자 시신의 염을 하기도 하였다. 첫 새벽의 집에서 6개월에서 1년간 다양한 교육을 받은 이들은 다방면에 걸쳐서 취업을 하였다. 첫 새벽의 집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총 195명의 여성 재소자가 첫 새벽의 집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다. 이들은 한복 바느질, 미용사, 조리사, 가정도우미 등으로 진출하였는데, 그중 식당 잡역부(49명), 한복 바느질(39명), 미싱사(32명)로 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염사(4명)와 장의사(5명)로 취업한 사례가 주목된다. 이는 첫 새벽의 집 자활사업을 통하여 수의 제작과 염, 장의업 등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평삼능교회와 첫 새벽의 집의 운영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다. 결국 2011년 교회 부지와 건축물은 채권자가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2012년 2월 경매가 개시되었고 2차례의 유찰을 거쳐 같은 해 7월 매각이 완료되었다. 매각 직후 교회 건물은 재개발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물의 해체 후 재개발 사업의 진전이 없었다. 현재 교회 부지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남겨져 있으며, 기존의 교회 간판만이 덩그러니 땅 위에 놓여있을 따름이다.

5. 70년을 넘게 이어온 사찰, 호명사

부평2동에 1943년 불교 태고종 계열의 호명사가 설립되었다. 이 절은 1943년 박응삼(朴應三) 성하(星河) 스님이 창건한 한국 불교 태고종 호명사(이하 호명사)다. 태고종은 고려 말의 고승인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 1301~1382)의 통불교 사상을 실천하는 종단으로, 호명사 인근에 위치한 덕현사(구 석굴암) 역시 태고종에 속한다. 호명사의 창건과 관련해서는 호명사 경내에 최근 건립된 호명산 호명사 사적비(護明山護明寺史績碑)에 ‘호명산하(護明山下)에 자리 잡은 호명사(護明寺)는 1943년 박응삼(朴應三) 성하(星河) 스님께서 창건하시고 호명사(護明寺)라 명명(名命)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 호명사(사진 허수미)

현재 호명사의 주지는 2대 주지인 법운 스님이다. 법운 스님은 부평서국민학교 13회 졸업생인데, 인근의 부평감리교회 홍은파 담임목사는 14회 졸업생이다. 두 사람 모두 삼릉 일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한 명은 불교(태고종), 다른 한 명은 개신교(감리교) 등 각각 종교계 인사로 성장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부평감리교회가 1940년, 호명사가 1943년에 설립되었기에 두 종교 시설은 각각 지금까지 삼릉 주민들의 종교적 구심점이 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갈등을 빚기보다는 오히려 마을의 대소사에 함께 힘을 모았다고 한다. 한편 2016년 현재 호명

사 부지는 공원화 사업 대상 지역이다. 지난 1986년 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이로부터 30여 년이 흘렀다. 2020년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제가 실행되어 민간 공원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호명사에서는 경내에 호소문을 게시하는 한편 탄원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6. 무속

인천의 무속은 6·25전쟁 이전까지는 지역적인 독창성을 가졌을 것이나 오늘날에는 황해도 무당이 중심에 서 있다. 즉, 6·25전쟁 때 황해도에서 이한주 무당이나 이들의 신 딸이 인천 전체 무당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방과 6·25전쟁을 통해 서해안으로 이주해온 무당들이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풍어굿과 대동굿을 주관하였고, 1960년대부터 조기잡이가 사라지면서 인천 도서 지역의 배들이 인천으로 모항(母港)을 옮기면서 황해도의 무당들도 인천, 서울 등지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이다. 굿을 잘한다는 소위 큰무당들은 인천을 생활 근거지로 삼으면서 신딸들을 육성하였고, 경기 서해 도서 지역과 단골 관계를 형성하면서 풍어굿 등을 계속하였다. 현재 인천연안부두, 소래 등지의 풍어제나 문화축제에서도 황해도 계통의 무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부평의 상당수의 무당들은 굿보다는 점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수의 무당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무업만을 통해서는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무당들이 전세 또는 월세로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으며, 무업보다는 식당 등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평4동과 십정동 무당의 경우 자신 소유의 집에서 무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상당수가 임대로 살고 있다. 또한 무업을 통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이며, 노령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평상시에 대문을 닫고 생활하는 무당들도 허다하다.

부평의 상당수 무속인이 불량 주택과 재개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타 인천 지역이나 서울 등지도 공통된 현상이다. 이들 불량 주택은 인천의 도시 재개발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으며, 무업을 생업으로 한 사람들은 인천의 또 다른 불량 거주지역으로 이사 가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무당집이 많으면 집값이 싸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원소유자들은 무속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세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집이 공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당들에게 집을 거의 무료로 내어준다.

부평의 많은 무속인들의 나이가 60세 넘는 고령이라는 점이다. 부평4동의 경우도 40대의 무속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0세가 넘는 고령이며, 80세가 넘는 무당도 상당히 있다. 또한 근래 무속인들 사이에는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간에 소통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한자리에 정착한 무속인들 사이에 간혹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무당들이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수시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어머니와 신딸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신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교류가 몇몇 큰무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 굿을 통해 무당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지금은 굿이 성행하지 않으면서 유대 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유형의 무속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전통적 무당들의 생업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과거 고객이 무당집을 찾아가 자신의 일상을 알아보는 것에서 지금은 카페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무속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속인들은 대부분 간판과 전화번호를 통해 대중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간판이나 상호의 색깔도 붉은색을 주로 사용하여 일반들의 눈에 띄게 만든다. 그리고 간판이나 대문에는 붉은색 “궂”자를 새겨 무속인의 집임을 알린다. 집의 대문 앞이나 벽면 등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는 흰색 깃발, 붉은색 깃발, “궂”자 등을 장식한다. 간혹 태극기를 거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무속인의 간판명을 보면 절 관련 명칭이 많이 보인다. 즉, 사(寺), 암(巖), 불사, 보살, 정사 등의 명칭인데, 무속인들의 법당에는 부처를 모신 경우도 많으며 나이 많은 무속인은 승려처럼 조용히 수양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산곡동 무속인 주택 표시



❖ 걸립 장군

표 5 무속인 표시

지역	점집 이름	표시
부평4동	장군보살	홍기와 백기
	계룡산 약사보살	홍기와 '군'자가 있는 백기, 문에 '군'자
	산신도사	홍기
	이름 없음	홍기와 '군'자가 있는 백기, 문에 '군'자
	성호남	태극기, 오색기, 홍기와 '군'자가 있는 백기
	이름 없음	문에만 '군'자
	이름 없음	문에만 '군'자
	이름 없음	홍기와 '군'자가 있는 백기, 문에 '군'자
	이름 없음	대문과 벽에 '군'자
	이름 없음	홍기와 백기, 문에 '군'자
	이름 없음	홍기와 백기, 문에 '군'자
	이름 없음	홍기와 '군'자가 있는 백기, 문에 '군'자
	이름 없음	홍기와 '군'자가 있는 백기, 문에 '군'자
	용궁불사	홍기와 백기
	신촌	덕암사
양보살		흰색깃발에 붉은'군', '군'
일월도사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도솔궁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목화당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장군보살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지산사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반야암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연화암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승연암		흰색깃발에 붉은'군', 태극기, '군'
장군보살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천신사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천신소도		연등, '군'
용궁불사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연꽃
천등불사		'군'
무명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경보사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연꽃
천신당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파란색깃발, '군', 연꽃
보현정사		흰색깃발에 붉은'군', 붉은색깃발, '군'
용천사		흰색깃발에 붉은'군', '군'
약사열래암		흰색깃발에 붉은'군', 붉은색깃발, 태극기, 연등
무명		태극기, 흰색깃발에 붉은'군'
무명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청명정사		흰색깃발에 붉은'군', 붉은색깃발, 태극기, '군'
대관령보살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군'
무명		태극기, 흰색깃발, 붉은색깃발
영신암		

민가에서는 문이나 창문에 집 안의 부정을 막는 부적이나 엄나무 등을 걸었다. 이○○씨(익명 요청)의 현관문 위쪽에는 30년이 넘은 엄나무가 걸려 있다. 엄나무를 전라도 지역에서는 ‘호랑이가시나무’라는데 이사를 오면서 잡귀가 근접하지 말라고 건 것이다. 호랑이라는 맹수에 바늘과 같은 가시나무의 의미를 지닌 엄나무를 통해 부정을 막은 것이다.



춘첩



부적



삼재부적



엄나무(호랑이가시나무)



❖ 인천가족공원 묘지 전경(사진 홍승훈)

7. 인천가족공원과 장례문화

부평구 부평2동 광학산 북사면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은 인천 유일의 화장터와 납골당, 무덤이 조성된 장례 공원이다.⁵⁹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한 사람이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인 경우에 화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인천가족공원은 도시계획에 의해 1970년 165만㎡의 부평묘지공원이 결정되었고, 1975년 주안에 있는 시립 화장장이 이전·신축되면서 1976년 묘지공원이 조성되었다. 1979년 장묘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묘지를 관리하다가 1996년 한국장묘관리연구회 인천광역시지회에 민간 위탁 관리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⁵⁹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도심의 재발견 만월산과 경인가도』, 2017.

인천가족공원은 승화원, 봉안당(납골당)과 묘지, 외국인 묘역, 자연장, 장사문화홍보관, 세월호추모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화원은 1일 72구를 화장할 수 있는 20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있고, 봉안당(납골당)은 추모의 집(2003), 금마총(2007), 만월당(2010), 평온당(2015), 별빛당(2017) 등 총 5개로 이루어져 있고, 별빛당을 제외한 4개의 봉안당은 만장된 상태이다. 묘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일반묘 3만 1,672기와 계획적으로 조성한 조성묘 7,323기 등 총 3만 8,995기이다. 자연장은 수목 장립 2곳과 잔디장 2곳이 조성되어 있으며, 별마루 잔디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418주에 1,366기가 만장된 상태이다.

장사문화홍보관은 친환경적인 자연장 홍보를 통한 새로운 장사문화 전환을 유도하고, 우리 장사문화의 역사와 미래, 세계 각국의 장사문화 간접 체험, 제사상 차림 등의 내용이 꾸며져 있다. 세월호추모관에는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일반인 희생자를 모신 곳이고 현재 44명이 안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수색 작업을 하던 잠수부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추모관은 참사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고인들의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세월호 축소 모형, 노란 리본 등을 조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가족공원에 조성된 외국인 묘역에는 9,330기가 있으며, 여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이다. 1883년 개항 후 외국인들이 그 어느 곳보다 많았던 인천에 외국인 묘지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권을 노린 일본, 청국(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들이 물밀듯 인천 땅에 상륙한 뒤 외국인 특정 거주지역인 조계지가 설정되고, 외국인들은 그곳에서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며 생활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연히 노환 또는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러자 외국인들은 유해를 본국으로 보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주지 인근 야산을 골라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청인 묘지(의장지), 각국 지계 외국인 묘지, 일인 묘지가 자리 잡기 시작해 현재 인천가족공원에 이장하게 이르렀다.

중구 북성동 8,000평에 달하는 ‘외국인 공동묘지’는 1883년 7월 첫 매장이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공동묘지였다. 외국과의 수교 이전에 인천에서 활동하던 외국

인들이 숨지면, 일단 바다 인근 언덕에 묻었다가 나중에 공동묘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1914년 지계제도가 철폐된 후 각국의 영사관이 관리를 하던 외국인 묘지는 1941년 3,000여 평만 남긴 채 5,000여 평을 철도 부지로 수용당하였다. 6·25전쟁 중에 일부 묘가 파괴되거나 유실되었던 것을 복원·관리하다가 주변이 개발되면서 1965년 연수구 청학동에 4,000여 평의 묘역을 조성해 이전했다. 1986년부터 외국인묘지관리소를 운영하였으나 1997년 폐지되었고, 이후 기본적인 관리·운영만 하다가 2017년 5월 인천가족공원 내 외국인 특화 묘역으로 이전하였다.

청학동 외국인묘지 주인들은 개화기에 인천에서 체류하다가 숨진 선교사·의사·군인·세관원 등이다. 미국인 17기, 독일인 11기, 영국인 9기, 러시아인 5기, 이탈리아인 3기, 호주·네덜란드인 각 2기씩, 프랑스·캐나다·스페인·폴란드·체코·중국인 각 1기씩, 미화인 11기 등 66기의 외국인 묘가 안치되었다. 그 가운데 인천에서 의료 선교로 널리 알려진 성공회의 엘리 바 랜디스 박사, 세창양행의 행켈, 타운센드 상회의 월터 타운센드 등 인천과 인연을 맺은 인물도 이곳에 안장됐다.

‘의장지(義莊地)’라 불린 청국인 공동묘지는 1884년 3월 7일 정부와 청국이 맺은 「인천구 화상 지계 장정(仁川口華商地契章程)」에 의해 생겼다. 장정에는 ‘제물포에서 10여 리 떨어진 지대 안에 청상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산을 골라 공동묘지를 만들 수 있다’고 명기되었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넓고, 묘지를 지킬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청인들은 중구 내리(內里)에 임시 매장지를 만들었다. 그 이후 남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자리, 만수동, 부평공동묘지로 세 차례 이전하였는데, 그때마다 정부 당국이 내세운 이유는 하나같이 ‘개발’이었다. 내리에서 도화동으로 이전할 때에는 일본의 식민지 건설에 따른 시가지 정비가 그 구실이었다. 또 1959년 도화동에서 만수동으로 이전할 때에는 인천도시계획에 따른 개발, 1988년 만수동에서 부평가족공원으로 이전할 때에는 만수동 택지지구 조성 및 구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부평공동묘지로 이전한 중국인 묘역은 우리의 묘제와는 달리 방형 토광묘 형식을 취하고, 묘비와 봉분 사이도 적벽돌로 담장을 쌓았다. 묘비의 앞쪽 좌우에 지전(紙錢)을 태우는 화로가 조성되어 있다.

초기 한반도 거주 화교들의 경우, 대부분 삶의 터전은 고향인 중국에 그대로 둔 채

흘로 조선에 건너와 돈벌이를 하는 이른바 ‘단신출가(單身出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인천에서 사망하면 시신은 배를 통해 고향인 산둥성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근처에 위치했던 산둥동향회관(山東同鄉會館) 한쪽에는 배에 실어 고향으로 운구해 갈 시신을 보관하는 임시 안치소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 시체안치소에 시신을 쌓아두는 것은 위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례관에도 맞지 않았다. 그들이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가매장할 수 있는 임시 매장지를 중구 내리 일대에 만들었다. 언제든 기회가 닿으면 고향으로 옮겨갈 시신이었기에 특별히 묘비를 세우지는 않고 간단한 표식 정도만을 해둔 일종의 가묘(假墓)였다. 인천 화교들이 기존의 내리 묘역을 반납하는 대신, 지금의 도화동 인천대학교 자리로 무덤을 옮겼을 당시에 도매장의 목적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59년 도화동에서 만수동으로 화교 묘지를 이전할 때에는 인천시는 50년간 무상 임대조건으로 만수동의 토지 2만여 평을 중국인 공동묘지 용도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인천 화교사회는 만수동으로 묘지를 이전하기로 하고, 기존의 도화동 터를 매각해 화교학교를 신축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만수동으로의 묘지 이전을 확정된 시점에 남은 도화동 공지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인천의 성광학원(선인학원의 전신)과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급기야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일명 ‘부르도자 사건’이라 부른다. 성광학원이 도화동 화교 묘지의 토사를 무단으로 채굴해 간 것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아예 ‘불도저’로 무덤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교사를 신축했다는 데에서 비롯된 별칭이다.

인천 화교사회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진정서를 냈고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성광학원의 신축 교사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성광학원은 인천시의 시정 조치에 불응하고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에는 화교사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성광학원 측의 승소로 끝이 났고, 결과적으로 화교사회는 자신들의 공공재산을 눈앞에서 빼앗겨 버린 셈이 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중국인 공동묘지를 둘러싸고 화교들의 수난은 계속됐다. 심지어 그동안 독자적인 묘역을 조성해왔던 중국인 공동묘지가 지금의 부평 인천가족공원으로 옮겨가면

서부터는 한국인 묘역, 일본인 묘역과 함께 공원 한쪽에 ‘중국인 묘역’이란 조그만 간판만 내걸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금 무덤을 철거하고 납골당으로 개장(改葬)이 되었다.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의 재정비를 통해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 생태를 복원해 궁극적으로 시민공원화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이에 화교들에게도 중국인 묘역에 자리한 봉분을 모두 없애고 화장을 통한 납골을 요구했던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천 화교사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왔으나 지금은 중국식 봉안당과 사당(廟)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일본인 공동묘지는 인천 중구 신흥동과 경동 사이의 작은 구릉지에 1884년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 목숨을 잃은 자들로 1888년 2월 1일 신흥동에 일본인 전용 묘지와 화장장을 설치했다. 1902년 여러 곳에 있던 묘를 범부 대신 이하영 소유였던 울목동 야산으로 옮겼고 이때 화장장도 이전하였다. 화장장은 그 이후 지금의 인천소방소 자리로 옮겼다가 1933년 다시 주안으로 이전·신축하고, 1976년 지금의 부평공동묘지에 화장장을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천가족공원 외국인 특화 묘역에 일본인 묘비군 50여 기가 모여 있으며, 승려·순사 등 여러 계층임이 확인된다. 일본인의 상례는 대부분 화장을 하기 때문에 봉분 없이 묘비를 세우는데, 광복 이후 연고가 없던 무덤이므로 묘비만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인천가족공원 입구 추모꽃 판매점 모습
(출처: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도심의 재발견 만월산과 경인가도』, 2017, 271쪽)

인천가족공원 입구에는 다른 추모공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꽃을 파는 상인과 꽃을 든 추모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죽은 사람에게 꽃을 바치는 것은 이전 일반적인 일이며, 그 목적이 망자의 아름다운 내세를 기원한다든지 시신의 썩는 냄새를 꽃의 향으로 가려 주어 고약한 냄새를 약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시신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되어 있지만, 장례식장 입구에도 국화로 장식한 근조 화환을 세우고, 망자의 위패를 모신 제단 또한 꽃으로 장식하고, 사회장, 국민장 등으로 치러지는 장례에는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한다. 특히 근조 화환의 수를 통해 상주의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기도 한다.

한국 장례에 꽃이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 죽은 이를 운반하는 상여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하였다고 해서 ‘꽃상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상례 풍속에 등장하는 꽃은 일제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나라꽃인 국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

장례 화환의 등장은 1919년 1월 21일 승하한 고종과 1926년 순종 국장 장례식 사진첩의 사진에서도 보인다. 고종과 순종의 국장 분향소의 장식과 조화에는 일본 신사의 흰 종이 장식인 ‘가미시데(かみしで, 紙垂)’가 등장하고, 제관의 우두머리를 일본 신사의 신직(神職)이 맡고 있어 일본식의 영향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광복이 되고 일본식 ‘가미시데’나 ‘타마구시(たまぐし, 玉串)’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여수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의 1948년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의 장례식과 1950년 손양원 목사 장례식에서 우리가 익숙한 화환이 보인다. 이것은 기독교식 장례의 영향을 받아 분향 대신 헌화를 한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어윤희 여사의 장례,⁶⁰ 김병로 선생 1주기 추도식⁶¹ 등에서 장례식과 추도식에서 국화 화환이 등장하는 반면, 1970년대 안동 지역의 유림(儒林) 빈소에 지역 국회의원이 화환을 보냈는데, 어르신들이 ‘상갓집에 무슨 꽃이냐’며 짓밟는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면, 한국의 농촌에서는 헌화하는 풍속이 없었다.

그런데 1974~1975년 육영수 여사의 장례·추모와 관련한 국화 화환의 신문 기사가 많이 실리고, TV에서도 반복적으로 방영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흰 국화를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업화한 장례 꽃장식인 근조 화환으로 자리 잡았음을 뜻한다. 여기에 애도

의 글을 비단에 써 붙이는 민족 고유의 만장(輓章) 문화가 더해져 오늘날의 근조 화환 문화로 정착되어 왔다. 고인을 사랑한다는 뜻과 죽은 혼을 기리는 뜻을 내포하는 흰 국화는 한국 장례식에 대표 꽃으로 자리 잡았다.

60 「이 여성을 보라-어윤희여사의 별세에 즈음하여」, 『경향신문』, 1961년 11월 22일자.

61 「신문회관서 열린 고 김병로선생 추념식」, 『동아일보』, 1965년 1월 13일자.



참고 문헌



단행본

- 김현석, 인천광역시 편, 『부평에 새긴 노동의 시간』, 국립민속박물관, 2018.
- 김현석,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전쟁유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서출판 선인, 2019.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0년사 : 1941~1978(大韓住宅公社 20年史 : 1941~1978)』, 대한주택공사, 1979.
- 류창호,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보고서, 2017.
- 한만승,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국립민속박물관, 2018.
- 인천광역시 부평구, 『富平史』,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7.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2,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註)부평군읍지』, 인천광역시, 2005.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2016.
- 부평역사박물관, 『열우물마을 부평 십정동』, 부평역사박물관, 2017.
- 부평역사박물관, 『장수산 맑은내 마을, 부평 청천동』, 부평역사박물관, 2016.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도심의 재발견, 만월산과 경인가도』, 부평역사박물관, 2017.
- 부평2동 본당, 『하나되게 하소서』, 부평2동 본당 50년사 화보집, 2002.
- 인천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5.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 근현대주거문화 관영주택과 사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4.
- 인하대학교박물관, 『부평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 천주교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 『인천교구사』, 천주교인천교구, 1991.
- 천주교 인천교구 부평4동 교회, 『부평4동 본당 30년사』, 천주교 인천교구 부평4동 교회, 1995.
- 石橋雅威, 『朝鮮の鹽業』, 友邦協會, 1983.



논문

- 김수영, 「해방이전 건립된 철도관사의 공급방법과 평면유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노상주, 「조선주택영단의 주택지 형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류창호, 「소금이 만들어낸 근대의 표상과 仁川의 염전」, 『인천역사』8, 인천시역사자료관, 2011.
- 박혜선, 「인천지역 주거문화의 역사에 대한 소고」, 『인천역사』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 손장원, 차동석, 「인천지역 전통 주거건축물의 평면 및 배치유형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5.
- 유승훈, 「인천연안의 염업」, 『인천연안의 어업과 염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1.
- 황은수, 「주안 염전의 축조 배경과 과정」, 『남동구 20년사』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0.

신문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매일신보』
- 『황성신문』

사료

- 경성전매지국주안출장소, 『주안염전개요』, 1922.
- 농상공부수산물국(農商工部水産局), 『한국수산지』1, 1908.
- 인천교육회, 『인천향토지』, 1932.
-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전매사』3, 1936.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제 3 장

부평골목 120장면 +1
추억을 지나 '역사'로 가는
마을 골목

제3장

부평골목 120장면 +1 추억을 지나 '역사'로 가는 마을 골목

여기 사람이 있었다,
여기 삶이 있었다,
여기 역사가 있었다.

유 동 현(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사라지고 있다.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다. '재개발사업', '주택조합결성', '원도심재생사업' 같은 근육질의 언어가 난무한다. 오래된 골목과 마을이 불도저의 삽날을 피해 가지 못하고 '어!'하는 순간에 사라지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시곗바늘은 변화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간 속을 걷는 인간이다. 골목 안쪽 집들은 시간에 녹고 세월에 닳아버리고 있다. '자연사(死)'를 꿈꿔 보지만 폐허를 재촉하며 마을의 죽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빨간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철거'로 마을의 종말을 고(告)한다.

개발업자에게 소멸되어 가는 동네는 삶의 공간은 물론 역사·문화의 공간도 아니다. 그저 폐허일 뿐이다. 폐허가 돼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해서 폐허가 되고 있다. 우리 마음 한구석도 '폐허'가 되었다.

집, 학교, 고개, 시장, 개천, 공원 등을 길게 이어주는 오래된 길은 그 자체가 도시의 나이트다. 부평 사람들의 삶의 패총들이 곳곳에 쌓여 있고 인생의 크고 작은 웅이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다.

이제 오래된 골목과 마을은 추억을 지나 '역사'로 가고 있다. 마을과 골목에는 우리의 '흔적'이 켜켜이 저장돼 있다. 이곳의 이야기는 지역 역사책의 첫 줄이 된다.



❖ 천연 골바람이 솔솔 부는 그녀들의 전용 에어컨. (십정동)



❖ 콩나물 자라 듯 쑥쑥 크는 뒷동네 아파트들 (산곡동)



❖ “할멈, 너무 빨리 다듬지 말어. 다하면 할 일 없어.” (십정동)



❖ 우리 동네가 없어졌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실눈 뜨고 본다. (청천동)



❖ 그야말로 동네잔치. 맨 앞 1열 차지는 학원가기 싫은 아이들 차지. (십정동)



❖ 어제까지 오가던 우리 골목길, 오늘은 저 금지선을 넘는 순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평동)



❖ 사람과 사람 거리 두기는 철길과 철길 사이 간격만큼 딱! (일신동)



❖ 깨진 유리창 너머에서 갠 봄. (갈산동)



❖ 냉장고는 죽어서 화장고(花藏庫)가 된다. (삼산동)



❖ 식구가 늘면 칸을 나누고 그것도 모자라면 지붕 위에 다락방을 세웠다. 아무리 누추하고 낡았어도 우리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주'였다. (청천동)



❖ 내 재산 함께 지켜 자손만대 물려주자. 그런데 업자에게 제대로 물렸다. (심정동)



❖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십 년간 어깨를 서로 기대고 살았던 이웃들은 서둘러 하나둘 떠났다. 떠나자마자 중장비가 들어와 옆집 앞집을 무참히 부수어 버렸다. 고립무원이 되었다. (청천동)



❖ 아프겠다, 못 넘겠다. 진돗개보다 강한 것이 병 조각이었다. 담 위에 박혀 시퍼렇게 빛나던 유리 파편을 보고도 담장을 넘을 강심장은 없었다. 미국 코카콜라 본사는 콜라병이 죽으면 '세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삼산동)



❖ 이 골목은 언제나 정지하면. 움직여봐야 슬로모션 (산곡동)



❖ 어느 날 집 주변에 가림막이 높게 쳐졌다. 서둘러 우리 집을 삼베로 염(염)을 하듯 둘러쳤다. 곡(哭) 소리가 들린 지 오래되었다. (청천동)



❖ 담벼락의 용도가 참 다양하다. 안쪽 주인집이 말리고 있는 것인지 골목 건너편 집이 말리는 것인지 궁금하다. (부평동)



❖ 한동안 고개 가우뚱하게 했던 그 표지판 '왜, 절에 간첩 신고를 하지?' (산곡동)



❖ 조각보 감산 동네 어귀 집. (부개동)



❖ 동네 슈퍼를 감싸 안은 울트라 슈퍼 나팔꽃 (산곡동)



❖ 나무야, 너는 살아났구나.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 이주민들에게 전해주렴. (산곡동)



❖ 학교 가는 고갯길은 늘 힘들다. 하지만 구멍가게 다녀오는 길은 언제나 신난다. (십정동)



❖ 붉은 깃발로 표시한 개발 절대 반대 (부평동)



❖ 그것은 마치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솟대 같았다. 실제로 그것은 한 가정의 안락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다. TV를 보려면 집집마다 '안테나'라는 첨단 도구를 세워 공중에 날아다니는 전파를 잡아야 했다. 그때 우리는 지붕마다 옥상마다 안테나라는 솟대를 세워놓고 살았다. 아직도 어느 집 지붕에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안테나 유물이 세워져 있다. 솟대처럼 솟은 그 안테나는 여전히 희미한 흑백 TV의 추억을 찾아 헤매고 있다. (산곡동)



❖ 짹짹. 굵이 굵이 인생길을 걸어온 우리 어머니들에게 박수! (십정동)



❖ “빨간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그것을 본 순간 변소(뒷간)가 생각났다. 집 뒤편에 있던 변소에는 빨간 전구가 하나씩 달려 있었다. 이 빨간 전구는 부평구 십정동 철거 주택에서 ‘발견’했다. 변소가 아니라 안방에 매달려 있었다. 주인은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도 5층짜리의 빛으로 생활을 했을 것이다. 어디로 이주했는지 모르지만 집 주인이 LED 조명 아래서 100층처럼 밝은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십정동)



❖ 군용 기차는 여덟시에 떠났네. (일신동)



❖ 곡선과 직선의 어색한 실루엣. (산곡동)



❖ 뼈만 남은 살풍경. (청천동)

❖ '몬드리안 콤포지션'과 견줄 만한 백마장 스타일 벽체 (산곡동)





❖ 용상이 따로 없다. 햇볕 따스하고 세상 편한 의자에 앉으면 임금 부럽지 않다. 오고가는 사람 구경은 덤! (부평동)



❖ 이 높은 곳까지 와서 제 몸 불사른 연탄이 고맙다. (십정동)



❖ 옛날 골목에서 파는 옛날 수제비. (부평동)

❖ 추억의 갈증을 적셔주는 우물이다.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다. 두레박으로 퍼 올린 물을 바로 식수로 마셨다.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했고, 여름철에는 아이들에게 등목도 시켰다. 우물은 동네의 '1급 시설물'이었다. 나름대로 사용 규칙을 세워놓았고 청결을 유지했다. 먼지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다란 지붕을 씌웠고, 아예 뚜껑을 만들어 닫아 놓기도 했다. 이끼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우물 안을 청소하는 날은 어김없이 마을 잔치날이었다. 뛰어놀다가 우물가로 달려가 벌컥거리며 물을 마셨던 그 시절이 그리다. (부평동)





❖ 법랑 같은 담벼락. 이제 동네 아이들의 낙서가 그려진 담벼락은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부개동)



❖ 그 집 앞 오가다 보니 어느덧 내 머리에도 서리 내렸네 (산곡동)



❖ 물어보는 게 아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부평동)



❖ 기차 기다리다 지친 붉은 수수. (일신동)



❖ 누가 우리 집 뒤에 먹다버린 거대한 옥수수대를 꽃았을까. (산곡동)



❖ 제일 맛있는 술은 골목에서 오랜 친구들과 마시는 술. 물론 공짜 술은 더 맛있다! (청천동)



❖ '영수 바보'라고 썼나? (산곡동)



❖ 오랜 세월 동네 사람들 옷을 책임졌다. 작업대 서랍 한쪽에는 이웃들의 옷본이 가득하다. 옷본에 적힌 약방 아줌마, 사진관 아줌마, 5동 반장 아줌마 등의 기록마저도 정감이 넘친다. (산곡동)

❖ 모든 술꾼을 개선장군처럼 맞이한다.
빈 막걸리통으로 만든 막걸리집 개선문 (부평동)





❖ 한때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집집마다 옥상에 있던 저 노란통의 비밀. 그들은 저것을 전술핵과 관련 있다고 했다는 철 많이 지난 우스갯소리. (갈산동)



❖ 미군부대 동네 아이들은 놀거리가 많았다. 부대로 끝없이 이어지는 철길에서 여름엔 개구리 잡고 가을엔 잠 자리를 쫓았다. (산곡동)



❖ 십정동산(産) 고랭지 배추. (십정동)



❖ 신촌 골목 입구에서 한가롭게 별을 찌고 있는 70대 무속인에게 얘기를 건넸다. 동네에 많은 무속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혼자 살며 서로 내왕을 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과연 그들은 각자의 운명, 무엇보다 부평 신촌의 앞날을 점치고 있을까. (부평동)



❖ 근무는 캠프마켓에서 했지만 그들의 휴식과 욕정은 길 건너 앞 동네 '신촌'에서 해결했다. 그곳은 미군들의 영외 위락 공간 '기지촌'이었다. 기지촌은 '외국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촌락'이라고 풀이된다. 신촌 마을 안에는 어둡고 굴곡진 우리의 근·현대사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부평동)



❖ 그곳은 가장 먼저 불이 켜졌고 가장 늦게 꺼졌다. 담배 가게는 동네의 좌표이자 골목의 등불이었다. 애연가들은 출퇴근길에 담배 가게를 꼭 들렀다. 작은 구멍으로 지폐 들이민 손등만 보고도 '거북선', '술', '88라이트' 등이 알아서 튀어나왔다. 담배 가게 주인은 동네 애연가들의 기호를 모조리 꿰차고 있었다. "담배 좀 작작 피워라." 오지랖 넓은 담배 가게 아저씨의 잔소리도 더벅머리 청년들은 꾸벅 인사로 넘겼다. 담배 가게 하나로 자식들 대학공부 다 시켰다는 '전설'은 이제 담배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졌다. (청천동)



❖ 빼앗긴 집에도 봄은 오는가. (청천동)



❖ 세월과 함께 흐르지 못하고 소멸되어 가는 동네는 역사나 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폐허일 뿐일까. (부평동)



❖ 광풍이 분다. 개발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부평동)



❖ 더 건드릴 필요가 없다. 오랜 시간을 살며 집 주인의 취향대로 만들어 온 지금 주민의 공간보다 아름다운 건 만들 수 없다. (부평동)



❖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발길을 비추어 준 보안등. (갈산동)



❖ 개발의 명암. (정전동)



❖ 의자결의. 사람들은 떠났어도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일신동)



❖ 부평 곳곳은 끊임없이 비워지고, 다른 한쪽은 채워지고 있다. 사라지는 동네이지만 그곳은 살아온, 그리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산곡동)



❖ 내일 마을이 '멸망'해도 오늘 할아버지는 빗질을 한다. (부평동)



❖ '미쓰비시[三菱]'의 미스매치 구도. (부평동)



❖ 불 꺼진 마을의 유일한 등대. (청천동)



❖ 외 등, 외진 등, 외로운 등. (십정동)



❖ 아불사, 맏소새! 눈을 떠보니 절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상만 남겨 놓고 모조리 사라졌다. 절방은 제단 흔적만 남겨 놓았다. 재개발의 삽날은 사찰이라고 비껴가지 않았다. 와르르 우당탕. 사바의 세계는 끊임없이 부수고 다시 짓고 하며 서 방정도를 꿈꾼다. 부처님은 다시 눈을 감아 버린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염원한다. 나무아미타불. (청천동)



❖ “이래도 행복 안 해?” 땅따먹기에 포위된 사람들. (십정동)



❖ 가림막은 ‘가림막’이다.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청천동)



❖ '전당포(典當鋪)'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슬프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민초들에게 은행 문턱은 높기만 하다. 애써 장만한 은수저, 진공관 라디오는 물론 어제 입었던 양복을 들고 전당포 철창 앞에 섰다. 주인의 돋보기안경 너머 눈초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몇 푼 손에 쥐고 나온 그는 저당 잡힌 물건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생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요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속 '라스콜리니코프'는 소설 속의 인물이길 바랄 뿐이다. (산곡동)



❖ 그녀들의 노천 테라스. (십정동)



❖ 뒤 바람을 막아주고, 앞 햇살을 받아주던 담벼락 밑은 늘 따스했다. 찬바람 휘몰아치던 골목에서 뛰어놀다가 콩콩 얼어버린 꼬마들은 하나둘 이 담벼락으로 모여들었다. 그곳은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을 꿈꾸던 양지였다. (부평동)



❖ '담을 쌓다' 참 무서운 말이다. 잘 지내오던 사람과 관계를 끊어 버리고 속마음을 터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담을 매일 매일 쌓다가 또 허물어 버릴까. (부개동)



❖ "충성, 땅 밟은 거 시정하겠습니다. 국방부 땅인 줄 몰랐습니다!" (일신동)



❖ "니가 가라, 하와이." (청천동)



❖ 문패는 집을 가졌다는 상징이자 증표였다. 문패를 달기 위해서는 대문이 있어야 하고 대문에 내 이름 석 자를 걸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집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집을 장만한 날, 아버지는 문기둥에 커다란 문패부터 다시고 괜한 큰기침을 하셨다. 그 문패는 '작은 왕국'의 연호(年號)였다. (갈산동)



❖ 일단 이주한 집 쪽만 '와르르, 우르르' 전락 작전. (십정동)



❖ 꽃으로 화장한 담장과 늙은 기와 지붕의 어색한 동거 (산곡동)



❖ 태풍전야. 제발 저 틈새로 빠져나가주길 (청천동)



❖ 방금 미장원에서 나온 엄마의 파란 캡을 뒤집어 쓴 집 (부평동)



❖ 대문에 새겨진 시간의 주름 (일신동)



◆ 내일은 내일. 심각한 애연가는 담배 못 피우면 오늘 죽을 수도. (청천동)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산곡동)



◆ 문은 시간을 품고 있다. 대문은 한 가족의 이야기, 더 나아가 그 동네가 품은 서사를 말해준다. 세월이 흐르면 문도 변한다. 주름지고 검버섯 핀 대문 앞에 서면 부평이 지나온 시간을 더듬어 볼 수 있다. (부평동)



❖ 햇볕에 말리고, 고추에 소독하고. (갈산동)



❖ 자동차에게는 막다른 골목. 경고 무시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 (산곡동)



❖ 옥상은 엄마의 공간이다. 엄마의 장독이 놓여 있고 빨랫줄이 걸려 있다. 한켠에는 시절에 따라 햇살과 빗물을 받는 엄마의 작은 정원이 있다. 햇살 좋은 가을날, 옥상 장독 속에서 고추장, 된장, 간장이 익어 간다. 스마트홈, IoT, 인공지능 등 제아무리 과학이 날뛰어도 햇볕과 바람이 익히는 장(醬)맛을 따를 수는 없다. 모든 걸 쓸어버리는 재개발의 거센 광풍이 아니라 장독 속을 맛있게 익히는 '미풍'이 불었으면 한다. 엄마의 공간은 늘 그곳에 있어야 한다. (삼산동)



❖ 집주인의 가슴은 더 크게 뚫렸을 듯. (부평동)



❖ 위스키 마시던 미군은 갔고, 막걸리 마실 부평 사람들을 위한 간판. (부평동)



❖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고 골목 안쪽 집들이 하나둘씩 무릎 꿇으며 주저앉았다. 개발업자의 눈에는 소멸되어 가는 동네는 역사문화의 공간이 아니다. 그저 폐허일 뿐이다. 그들은 티라 노사우루스 이빨처럼 동네를 삼켜댄다. (십정동)



❖ 일본식 주택 담장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부평동)



❖ 오래된 마을, 낡은 골목도 문화재 아닐까. (부평동)



❖ 편지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비어 있을 뿐이다. 여전히 대문에는 각각각색의 함이 걸려 있다. 우편함은 집주인의 개성이 등복 담긴 ‘주택의 얼굴’이었다. 빨강, 파랑, 노랑, 알록달록... 가장 예쁜 우편함은 편지가 반쯤 걸려 있는 모습이다. 가을 어느 날 부평동 276-44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당신이 안녕하시다면 저도 안녕합니다.” 낯익은 필체로 쓴 편지 한 통이 낡은 우편함에 꽂혀 있기를 상상해 본다. (산곡동)



❖ 동네 이발소는 머리카락 수만큼이나 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십정동)



❖ 파라솔 걸친 문을 드나들 때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산곡동)



❖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정지용의 '향수' 중). 선조들은 지붕을 '집의 위(上)'를 뜻하는 '집웅'으로 불렀다. 지붕은 하늘을 이고 맞닿아있다. 초가, 기와, 루핑, 양철, 함석, 슬레이트, 슬래브, 아파트 지붕... 어떠한 지붕이든 집웅(지붕) 아래 도란도란 거리며 행복하기를. (삼산동)



❖ 자신의 등허리 휘는 줄도 모르고 매일 어두운 골목 밝힌 골목 등. (일신동)



❖ 산곡동이 좋은 거니, 그대가 좋은 거니? 그대가 있는 산곡동이 좋은 거다. (산곡동)



❖ 세상은 넓고, 골목은 좁다. (부평동)



❖ 로봇 태권브이든 마징가제트든 우리 마을을 지켜주오. (산곡동)



❖ 굴뚝은 종종 막혔다. 1년에 한 번 정도 검댕을 제거해야만 했다. “뚫어~” 징 소리와 함께 굴뚝 길을 울리던 외침이다. 한 손에 징을 들고 굽은 어깨에 돌돌 만 쭈시개와 검정 털복숭이 솔대로 무장한 굴뚝 소제부의 얼굴과 옷은 늘 검댕이 솟아있다. 터벅터벅 오르는 그의 고갯길은 늘 비탈졌다. 검댕으로 가득한 굴뚝같은 이 세상, 멀리서 그의 징 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 (갈산동)



❖ 대문 앞에 펼쳐진 폐허. (청천동)



❖ 부평사람들의 삶의 패총들이 곳곳에 쌓여 있고, 인생의 크고 작은 웅이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다. 집, 학교, 고개, 시장, 개천, 공원, 빌딩, 운동장 등을 서로 길게 이어주는 오래된 길은 그 자체가 도시의 나이테다. (십정동)



❖ 보일락말락. 들길락말락. 들릴락말락. 이제 골목이 없어지면 놀이도 없어진다. (산곡동)



❖ 천천히 세월을 식힌 골목계단. (십정동)



❖ 이 마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외관에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모여 사는 방법과 그를 위한 공간의 구조적 풍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랑방으로, 때로는 놀이터로 때로는 침터로 이용되는 집 앞의 길들은 공동체를 엮는 띠줄이었다. (산곡동)



❖ 골목길 3년이면 개도 동네 대소사를 논한다. 매일 골목 안에 쌓였던 이야기는 소멸된 동네와 함께 사라졌다. (산곡동)

❖ 약육강식의 개발 시대. 골목은 약(弱)이고, 아파트는 강(強)이다. 불도저 공룡한테 다 먹히는 것은 아닌지. (정전동)





❖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추억을 보존하면서 하는 도시 개발은 개꿈인가. (부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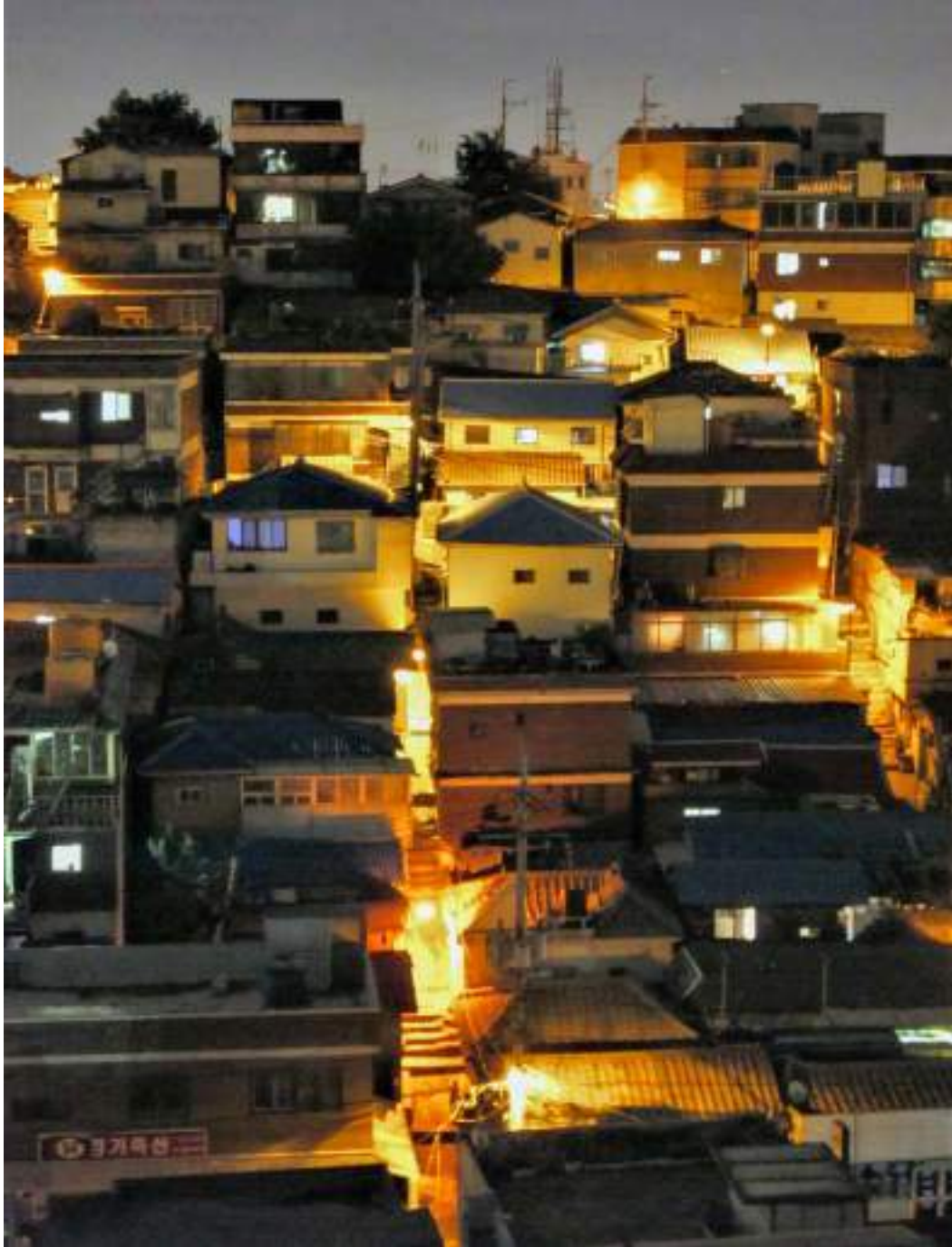
❖ 예전에는 꽃과 수죽관, 지금은 미수가루, 다음은 뭘 팔까. (산곡동)



❖ “너, 우리집에 불만 있었나?”. 헝그리 시대는 갔고, 앵그리 시대가 왔다. (청천동)



❖ 두발, 세발, 네발 인생. (산곡동)



❖ 아랫동네부터 무허가 집짓기가 시작되었다. 앞집의 어깨를 짚고 다른 집이 올라섰다. 집들을 나누는 담장은 없다. 담을 칠 공간조차 없었다. 집의 벽이 곧 담장이 되었다. 산 모양을 따라 낮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었다. 오를 수 있는 곳까지 집들이 들어섰다. 그렇게 산동네가 되었다. (십정동)



❖ 설움과 아픔으로 길게 이어진 층층층층층층층층층계. (십정동)



❖ 연필, 지우개, 볼펜, 필통, 크레용, 색연필, 공책, 풀, 자, 가위, 칼, 압정, 호치키스, 클립, 수첩, 일기장 등이 선반마다 빼곡했다. 전과, 지구본, 실내화, 체육복은 물론 가짜 손목시계, 허접한 선글라스 등도 취급한 만물상이었다. 방과 후 삼삼오오 몰려가던 문방구는 신기한 장난감과 오락거리 게다가 주전부리까지 해결할 수 있어 아이들의 사랑방이자 놀이방이었다. (십정동)



❖ 모세 지팡이가 가른 홍해 골목. (청천동)



❖ 설치 미술, 어렵지 않다. 내다 버린 하얀 변기도 얼마든지 '오브제'가 될 수 있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종종 접한다. 우리의 삶이 녹아 있는 노천 갤러리는 연중무휴, 무료입장이다. (산곡동)



❖ 그래도 태극기가 가장 위. (산곡동)



❖ 언제부턴가 동네 이름을 '열우물 마을'이라고 달달하게 불러서 불렀지만 그곳의 삶은 산비탈 길만큼이나 비탈졌다. 산꼭대기 오를 수 있는 곳까지 집들이 들어섰다. 다닥다닥 앞집의 어깨를 짚고 다른 집이 무동 타듯 올라섰다. 이웃과 내 집을 나눌 담은 없었다. 담을 칠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식구가 늘어나도 넓힐 한 평이 없어 옥상 위에 쪽방을 올렸다. 사다리를 만들어 지붕 한 귀퉁이에 장독대와 텃밭을 만들었다. 십정동에는 건축학개론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 가옥이 즐비했다. (십정동)



❖ 빨래는 매일 빨아도 현수막은 365일 자리를 지킨다. (청천동)



❖ 지붕의 소재(재질)도 세월에 따라 진화한다. 초가, 루핑, 양철, 함석, 기와, 슬레이트, 슬래브... “타타타-닥, 타타타-닥”. 비오는 날, 함석지붕은 4분의 2박자 노래를 들려주곤 했다. 한 주택 두 지붕인 이 집의 빗소리는 서로 다른 가락이 전해질 것이다. (부평동)



❖ 미쓰비시(三菱)의 흔적 엿보기. (부평동)



❖ 더 이상 포스트맨은 벨을 울리지 않는다. 이 동네에 배달할 우편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골목을 오르는 오늘 의 발걸음도 거의 일 년 만이다. 어쩌면 다신 올라올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동네 주민들은 받을 편지가 없어도 우편배달부가 집 앞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반가웠다. 그 어깨의 낡은 우편낭(郵便囊)처럼 열우물 산동네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다. (십정동)



❖ 대통령보다 통장님의 손길이 더 간절한 동네. (부평동)



❖ 사용한 전기(電氣), 기록된 전기(傳記). (갈산동)



❖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개구리만 튀어 오르는 게 아니다. 아이들도 스프링처럼 튀어 오른다. 트램펄린이 동네 어귀에 설치되면 아이들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을 풀기라도 하듯 사각 철조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천방지축으로 튀어 오른다. 요즘은 아웃도어형 아이들이 거의 없다. (십정동)



❖ 여기 사람이 있었다. 여기 삶이 있었다. 여기 역사가 있었다. (청천동)



제 4 장

인물로 보는 부평의 대중음악

- 제1절 _ 에스컴 시티(ASCOM CITY)와 음악 도시 부평
- 제2절 _ 두드리는 여자 드러머, 김삼순
- 제3절 _ 묵묵하게 한길로 걸어온 베이시스트 한광오
- 제4절 _ 영혼으로 연주하다, '락캠프'의 터줏대감 정유천
- 제5절 _ 부평에서 태어나 운명처럼 음악을 만난 구창모
- 제6절 _ 재즈의 성지 '버텨라인'의 대표 허정선
- 제7절 _ 부평 창작 음악의 현재와 미래 : '예술숲'의 김면지 대표
- 제8절 _ 음악 도시 부평의 정체성 찾기

제4장 인물로 보는 부평의 대중음악



장 유 정(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1 제1절 | 애스컴 시티(ASCOM CITY)와 음악 도시 부평

‘APO 901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이것은 ‘부평’ 대신 미군들이 사용하던 미군 사서함의 주소였다. 부평에는 미군 수지원사령부인 애스컴(ASCOM, Army Support Command)이 있었고, 그곳의 주소가 ‘APO 901 샌프란시스코’였다. 애스컴은 원래 한말의 순국지사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땅이었다. 하지만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자 민영환은 자결하였다. 이후, 친일파 송병준(宋秉峻, 1858~1925)이 이 땅을 차지했고, 1939년에는 일제가 이곳에 인천육군조병창(仁川陸軍造兵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무기나 탄약 등의 장비를 제작, 저장, 보급하기 위한 시설’인 조병창은 식민지 조선을 병참기지화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일제가 떠난 자리에는 미군이 들어왔다.

1945년 9월,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발표한 통치에 대한 포고문이 「맥아더 포



◆ 애스컴 시티(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고령」 혹은 「맥아더 포고령 제1호」이다. 「맥아더 포고령」에는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미군이 직접 한반도를 통치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 따라 1945년 9월부터 미군이 부평에 주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8년 3월 12일에 클럽 ‘아카닥’이 부평 애스컴 시티에 처음 문을 열었다.

부평 지역에는 캠프 마켓(Camp Market), 캠프 헤이즈(Camp Hayes), 캠프 그란트(Camp Grant), 캠프 타일러(Camp Tyler), 캠프 아담스(Camp Adams), 캠프 해리슨(Camp Harrison), 캠프 테일러(Camp Taylor) 등 7개의 캠프가 형성되었으며, 이 구역을 모두 합쳐 ‘애스컴 시티(ASCOM City)’라 하였다. 이곳은 한국에 들어오는 미군들이 다른 캠프로 배치되기 전 머물며 훈련을 받던 곳이었다. 먹고 마시는 음식, 비누와 수건 같은 생활용품 등이 모두 미국에서 이곳으로 들어왔다. 단순히 생필품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곳을 통해 미국의 대중음악을 위시한 대중문화도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다. 시차를 크게 두지 않고 미국에서 유행하던 음악과 문화는 이곳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는 단지 미국 문화의 유입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어느 지역보다 부평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중음악과 문화를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었음을 뜻했다.

지리적으로 인천과 부평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전에는 부평과 인천 사이의 차별이나 구별이 존재하기도 했다. 특히 미군 위안부의 존재는 부평을 낮게 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그들의 존재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부평의 사람들이 음악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는 과거를 낭만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부평에 사는 사람들이 음악을 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생계나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더 절박하거나 간절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평과 관련된 음악인들은 누가 있었을까? 여기서 부평 출신이거나 부평에서 활동한 모든 음악을 다루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부평에서 태어나 부평에서 활동했거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몇몇 음악인들의 삶과 음악을 기록해서 기억하기로 한다. 김삼순, 한광오, 정유천, 구창모, 허정선, 김면지 등이 그들이다. 그들과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그들의 삶과 음악을 살펴보고, 이후 부평 출신 음악인들을 개괄하기로 한다.

| 제2절 | 두드리는 여자 드러머, 김삼순

드러머 김삼순은 1948년 12월 27일(주민등록 기준)에 부평1동에서 1남 5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호적에는 김삼순으로 올라가 있었으나 동사무소에 불이 나면서 이름을 다시 올릴 때 집에서 부르던 김덕례라는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인천에 음악인 협회가 생기면서 등록을 하려고 호적등본을 떼어 보니, 거기에는 김삼순이란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그때부터 김덕례란 이름이 아닌, 호적에 등록된 김삼순이란 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1950년에 6·25전쟁이 터지자 아홉 식구가 걸어서 피란을 갔다. 동생 두 명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다. 어디선가 총탄이 날아오는 위기의 상황 속, 옆에서 걸어가던 누군가가 쓰러져 죽기도 했다. 그토록 엄혹한 상황에서 김삼순의 가족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 김삼순보다 10살 많은 둘째 언니 김유순(1938년생)이 김삼순을 업고, 김삼순의 어머니는 김삼순보다 2살 위의 오빠인 김덕순(1946년생)을 업고 피란을 갔다. 큰언니 김유덕(1936년생)과 아버지는 짐 실은 수레를 서로 밀고 끌었다.

일찌감치 아코디언을 배운 김삼순의 오빠 김덕순은, 1960년대 초반에 만담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장소팔과 고춘자 팀의 밴드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약 7년 동안 전국 순회공연을 다녔다. 김삼순의 큰언니 김유덕은 1957년에 인천 신신예식장에서 미8군 최초의 밴드로 알려진 ‘토미스 밴드’의 악단장이자 드러머였던 김윤옥(1922년생)과 결혼하였다.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에서 태어난 김윤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럼 등의 악기를 배웠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2017년에 김윤옥을 처음으로 조명한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은 그가 어려서부터 서커스단을 따라 전국을 돌며 음악을 배운 것으로 추정하였다.¹

김윤옥이 중요한 이유는 한명숙, 길옥윤, 이봉조 등 미8군 무대에서 활약한 대중음악인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삼순에게 처음으로 드럼을 가르친 사람이 김윤옥이었다. 요컨대 김윤옥은 김삼순의 드럼 선생이자 음악적 스승이었다. 김윤옥은 6·25전쟁 당시 육군으로 참전한 공적으로 1951년 5월 7일에 금성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서훈 기록에 따라 2020년 9월 21일자로 발행된 훈장증이 김윤옥의 후손에게 전달되었다.

¹ 김윤옥의 발견과 기록은 『20세기 인천부평 대중음악』(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017), 75~78쪽을 참고하였다.



◆ 김삼순의 형부이자 드럼 스승인 김윤옥(사진 김삼순)

부원여자중학교에 다녔던 김삼순은 명신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처음 학생을 뽑을 때, 부원여중 졸업생이어서 바로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1965년부터 형부 김윤옥에게 드럼을 배운 김삼순은 그 당시 이미 부평 애스컴에서도 연주했다. 명신여상 2학년을 다니던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1966년에 서울로 올라갔다. 그때 서울에서 함께 한 구성원은 드럼에 김삼순을 위시하여, 리드 기타 김정해, 세컨드 기타 고정희, 베이스 기타 이은희, 보컬에 임종임과 이길교였다. 여성으로 구성된 밴드인 '레이디버즈(Lady Birds)'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미8군 무대에 섰던 것은 아니다. 1966년에 서울에 올라간 그들은 약 6개월 동안 지도를 받으며 연습했다. 6개월 동안 별도의 월급 없이 숙식 제공만 받으며 연습에 매진했던 것이다. 매 끼니는 미리 악단장이 연결시켜 준 식당에서 해결하였다. 김삼순은 이때 자신들을 지도했던 분들 중 김도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냈다.

서울에서 음악 지도를 받으며 일반적인 작은 무대에도 올랐고, 1967년에 시민극장에서 열린 '보컬그룹 경연대회'를 위시하여 여러 차례 경연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멤버 중 김정해가 개인 사정으로 밴드를 떠나면서 김정해 대신 남자가 기타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8군 무대 오디션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1968년에 드디어 오디션을 통과한 레이디버즈는 미8군 무대에 섰다. 오디션 때 드럼 솔로 「Wife Out」을 연주하다 스틱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기도 했다.

◆ 김삼순의 학창시절(사진 김삼순)



미8군 무대의 오디션은 밴드 오디션과 프로 쇼 오디션으로 나뉘었다. 김삼순이 받은 프로 쇼 오디션은 총 A, B, C 등급까지 있었다고 한다. A, B, C 중에서 여기저기 가장 많이 불러 다닌 등급은 B 등급이었다. 왜냐하면 B 등급의 보수가 A 등급의 보수보다 낮아서 부르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B 등급을 받은 프로 쇼는 전국구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한편 미8군 부대의 클럽은 크게 장교 클럽, 중상사 클럽, 사병 클럽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매니저들은 각 클럽에서 좋아할 만한 밴드를 섭외하곤 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던 레이디버즈는 사병 클럽에서는 주로 비틀스의 모든 노래를 연주하고 불렀다.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쇼는 음악가의 연주는 물론이고 마술, 댄스, 스트립쇼로 구성되었다. 무용수가 스트립쇼를 하는 동안 레이디버즈가 반주를 해주기도 했다. 다른 멤버들과 달리 악기의 특성상 무조건 앞을 보고 연주해야 연주해야 하는 김삼순은 그런 상황이 민망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전체 쇼 중 레이디버즈는 거의 한 시간을 맡아 연주하였다. 레이디버즈는 한 달에 10번에서 15번 정도 연주했다. 월급제라서 일을 몇 번 하든지 월급은 나왔다. 미8군 무대 공연이 없어 시간이 빌 때는 이미자나 최희준 쇼 등에 특별 출연하였다. 월급 외에 과외로 돈을 더 벌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연을 다녔던 레이디버즈의 이동 수단은 관광버스였다. 의상과 악기를 싣고 다녔는데, 일을 도와주는 남성 두 명이 함께 다니며 악기 등을 옮겨주었다. 공연은 보통 저녁에 있었고, 밴드는 하루 전에 공연장에 도착해 주변도 돌아보곤 했다. 당시 월급은 한 달에 3만 원으로 그 당시 2~3급 공무원 월급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이었다.



❖ 레이디버즈 시절의 김삼순(사진 김삼순)



❖ 레이디버즈 시절의 김삼순(맨 오른쪽)(사진 김삼순)

김삼순은 1970년 12월 25일에 결혼하면서 음악을 그만두었다. 김삼순의 남편은 김삼순이 중학교 때부터 펜팔을 했던 사람이었다. 김삼순보다 두 살 많은 외삼촌이 군대 가기 전에 김삼순 집에 있다가 해군에 입대했는데, 그때 외삼촌의 상사가 김삼순과 결혼한 사람이었다. 여동생이 있냐는 상사의 질문에 외삼촌이 김삼순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때부터 김삼순과의 펜팔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삼순이 중학교 3학년이던 1964년부터 1970년에 결혼할 때까지 두 사람은 계속 펜팔로 인연을 이어 갔다.

그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얼굴을 보지는 못했었다. 그러다 해군이 있는 진해로 레이디버즈가 공연하러 가게 되었다. 이미자 쇼가 전국 순회공연을 할 때였다. 부산에 들렀다가 김해를 거쳐 진주와 진해로 가는 일정을 펜팔을 주고받던 그 해군에게 알렸더니, 그가 김삼순을 보러 극장에 왔다. 해군복을 입고 올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신사복을 입은 그는 잘생기고 키도 컸다.

김삼순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해 시택이 있는 진해에서 약 1년을 살다 인천으로 올라왔다. 해군을 제대한 김삼순의 남편은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해양경찰을 선발하던 해에 1차로 합격해 3년 동안 근무하였다. 하지만 밑수가 심했던 그 시절, 고지식했던 남편은 원칙과 신념대로 일을 하려 했으나 녹록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해양경찰 생활을 정리하였다. 그 후, 김삼순은 남편을 대신하여 그때부터 2020년 현재까지 35년 동안 식당일을 하며 3남매를 키웠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식당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하다.

그렇다고 김삼순이 드림을 놓은 것은 아니다. 김삼순은 현재 인천그린실버악단과 인천 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전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드럼과 퍼커션(percussion : 심벌즈, 캐스터네츠 따위의 타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맡아 연주하고 있다. 인천그린실버악단이 생긴 지는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김삼순은 2006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 인천 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의 경우, 김삼순은 2000년도에 들어가 현재까지 20년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김삼순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드림을 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식당 일을 하며 드림 연주까지 하는 일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음악이 없었다면 오히려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드림을 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그는 천생 드러머였다. 여전히 드림을 두드리는 그녀는 영원한 현역이다.



❖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김삼순

| 제3절 | 묵묵하게 한길로 걸어온 베이시스트 한광오

한광오는 1946년 7월 31일에 부평2동(삼릉)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한덕재(1925년생)와 어머니 강옥림(1926년생) 사이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부평서초등학교, 인천사범병설중학교,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아버지 한덕재는 강한성 씨에 이어 소신여객 2대 주주로 불리는 부자였다. 야구로 유명한 인천고등학교에서 럭비를 한 한광오는 한양대학교 체대에 들어가 미식축구를 하였다. 하지만 운동보다 음악이 좋았던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본격적인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음악을 하게 된 것은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는 부평이라는 도시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에스컴과 클럽에서 흘러나온 음악들이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다. 실제로 한광오도 웬만한 팝송은 다 따라 부를 정도로 많은 노래를 알고 있었다.

한광오는 늦게 베이스 기타를 시작한 편이다. 공부하고 운동하다 대학에 가서야 베이스 기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96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서 한 학기 다니다 중퇴를 한 그가 음악을 한다 했을 때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 음악을 한다고 하니 좋아할 부모가 없었을 것이다. 그때 한광오는 돈은 직접 벌어서 생활할 테니 악기만 하나 사달라고 아버지께 말하였다. 그렇게 1965년부터 부평에서 음악을 시작했다.

몸이 말라서 ‘멸치’라는 별명이 있었던 황준근과 한광오가 주축이 되어 ‘포 핸디(4 handy)’라는 6인조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하였다. 색소폰(황준근), 베이스 기타(한광오), 보컬(김명숙), 드럼(이영준), 기타 1(신승남), 기타 2(한효섭)로 구성된 밴드였다. 그들은 부평에 있는 인터내셔널 클럽에서 처음 일하였다. 한광오 집에서 연습을 이어갔던 그들이 연주한 음악은 주로 비틀스의 곡들이었다.

한편, 에스컴은 1960년대가 전성기였다. 한광오는 미8군 무대에 공연단을 공급했던 가장 큰 단체 중 하나인 화양 소속이었다. 그는 1965년에서 1967년까지 에스컴에서 연주했다. 오디션 이후에 등급을 받았고, 등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계약에 따라 특정 클럽에 거의 매일 가서 공연을 했다. 보통 세 시간 공연으로 이루어지고, 한

시간 기준으로 세 시간을 공연하면 ‘세 타임’을 한다고 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하우스 밴드가 보통 세 타임을 모두 연주하지만, 주말에는 쇼 단이 들어왔다. 쇼 단은 세 타임 중 한 타임을 맡아 스트립쇼, 무용, 마술 등으로 한 시간 공연을 꾸렸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와 공장 사람들이 사는 사택이 있던 곳은 광복 이후에도 계속 ‘삼릉’이라 불렸다. 당시 이곳에는 에스컴에 들어가는 연주자들이 모여서 지냈다. 저녁 5시가 넘으면 까만 차들이 삼릉으로 연주자들을 데리러 오곤 했다. 보통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양복을 입고 대기하던 그들이 에스컴에 들어가 연주하였다. 한 번에 13팀 정도가 같이 이동하다 보니 장관을 연출하곤 했다.



❖ 미8군 클럽 음악인 픽업 장소 표지판(부평2동 인천철도 1호선 동수역 3번 출구 앞)

에스컴에서 활동하던 한광오는 1967년 8월에 ‘군예대’로 군대에 들어갔다. 한광오는 같은 군예대였던 김도향 씨를 기억해 냈다. 당시 김도향 씨는 1군 예하사단 소속이었으나 1군 군예대로 파견 생활을 하였다. 1970년 7월에 제대한 한광오는 의정부 미8군 무대에서 연주를 하다 그해 12월에 제주관광호텔로 갔다. 제주도로 가기 전에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일하던 정성조가 신중현에게 한광오를 베이스 기타 연주자로 추천했다. 사실, 신중현의 동생 신수현도 군대에서 기타를 쳤고, 원주에 있는 미군 부대 ‘캠프롱’에서 한광오는 신수현과 함께 일주일에 세 번 연주하기도 했다. 그 인연으로 신중현이 서울 연세대학교 입구에 작곡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을 때는 그곳에도 가곤 했다. 그곳에서 임

성훈도 보고 펠시스터즈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렇게 인연이 있었기에, 만약 신중현과 함께 연주를 했다면 한광오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약속과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광오는 이미 제주도에서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제주도 일을 뿌리치고 신중현에게 갈 수 없었다.

제주에서 연주를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한광오는 인천 ‘프린스호텔’에서도 8개월 정도 일했다. 그런데 인천 사람들의 텃세가 심한 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평 출신의 음악인이 인천에서 연주를 하면, 인천 출신의 음악인 한 명이 일자리를 빼앗긴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한광오는 인천 사람들의 텃세를 그렇게 이해했다.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덕분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 1972년도쯤에 프린스호텔도 그만두었다.

한광오는 평생 음악을 했다. 한 번도 놀아 본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동아일보』 1977년 10월 29일자에는 「김중신과 에밀레」 음반 광고가 실려 있다. 즉 김중신이 옛 을지극장 자리 맥주홀 ‘판코리아’에서 ‘김중신과 에밀레’라는 그룹사운드를 만들어 활동하며, 「오랜만일세」라는 음반을 발매했다는 것이다. 한광오는 연도를 헛갈리기는 했으나, 자신이 에밀레에서 베이스를 쳤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75년에서 적어도 1979년도까지 한광오는 ‘김중신과 에밀레’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 친구로 이루어진 ‘김중신과 에밀레’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기타에 임원섭, 건반에 송기동, 색소폰에 최정환, 드럼에 구진희, 보컬에 김중신, 베이스 기타에 한광오였다.

한광오는 1980년에는 광주 ‘현대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였다. 그곳에서는 서울에서 내려간 밴드와 광주 밴드까지 총 두 밴드가 연주하였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자 두 팀 모두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나이트클럽에서는 광주 밴드를 정리한 뒤 돈을 더 주고 한광오 밴드만 남기려 했다. 하지만 지역 음악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한광오는 광주 밴드를 쓰라 하고 올라왔다. 그런데 그해,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어쩌면 의리와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한광오의 성격 덕에 광주에 있었다면 겪었을지 모를 눈물겨운 고통을 피해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음악을 계속 이어갔던 한광오는 1982년 9월경부터 ‘한광오와 한마음’을 만들었다. 드럼에 최용철, 기타에 함이현, 건반에 김원기, 색소폰에 권영주, 트럼본에 김홍주로 이루어진 밴드였다. 그들은 전국을 돌며 몇 달 계약 조건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

다 울산관광호텔에 있을 당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광오는 후배들끼리 연주하도록 하고 올라와 약 3개월 동안 아버지 간병을 하였다. 그렇게 장남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였다.

그는 2004년 2월경부터 인천그린실버악단에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인천 시니어 악단을 창단하여 인천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활동 중이다. 2011년부터는 인천 미추홀노인복지관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리고 다문화 결손 청소년들에게 통기타 강의로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 악단 합주와 연습을 위한 개인 연습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기타와 드럼, 색소폰 등의 개인 교습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복지관 교육생들과 함께 매월 3회 요양원과 노인 복지시설 등으로 꾸준히 봉사활동도 하였다. 그렇게 그는 묵묵하게 베이시스트라는 한길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연주자이자 음악인이다.



◆ 김삼순과 한광오(2020, 인천시부평구문화재단 지하)

| 제4절 | 영혼으로 연주하다, '락캠프'의 터줏대감 정유천

정유천은 아버지 정호석(1936년생)과 어머니 박영옥(1940년생) 사이에서 1958년 9월 8일(음력)에 1남 2녀 중 장남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부평 에스컴(ASCOM)에 취직하면서 서울 불광동을 잠시 거쳐, 정유천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1966년에 부평에 이사 와 지금까지 쪽 부평에서 살며 '락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부친은 에스컴에서 제빵 관련 일을 했을 뿐 집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군 부대에 다니시던 부친이 음악을 좋아하여 집에는 당시 유행하던 팝송을 녹음한 소형 릴테이프 녹음기 등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유천도 산곡초등학교(당시 산곡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클리프 리처드(Cliff Richard)·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패티 페이지(Patti Page)·톰 존스(Tom Jones)·카펜터스(Carpenters)·짐 리브스(Jim Reeves) 등의 음악을 위시하여 팝송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집에 미제 라디오도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AFKN을 통해 다양한 미국의 음악을 들었다.

정유천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밴드부가 창단되면서, 그는 밴드부 1기가 되어 음악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여기서 정유천은 4, 5, 6학년 3년 동안 악보를 보는 법과 악기 다루는 법을 배웠다. 20~25명 정도로 이루어진 밴드부는 「워싱턴 포스트 행진곡(Washington Post March)」이나 「쌍독수리 행진곡(Double-headed Eagle March)」 등 주로 행진곡을 연주하였다.

여러 악기 중에서 정유천은 마칭 실로폰을 담당했다. 성함을 '이 익'으로 기억하는 당시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밴드 부원들에게 모든 악기를 가르쳤다. 아침 조회에서 학생들이 각 반별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돌 때, 앞에서 밴드부가 행진곡을 연주하면 학생들이 뒤를 따랐다. 또한 밴드부는 이따금 동네에서 퍼레이드도 하였다. 그걸 본 정유천의 모친은 음악을 연주하며 퍼레이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여 울컥했고, 그러한 아들이 자랑스러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정유천은 부평 동중학교 2회 졸업생이다. 중학교에는 밴드부가 없었으나 당시 야외 전축(휴대용 전축)의 준말인 '야전'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들었다. 당시 많이 들었던 음악 중에는 CCR(Credence Clearwater Revival),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Grand Funk Railroad), 딥 퍼플(Deep Purple),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 레드 제플린(Led Zeppelin) 등의 음악들이 있었다. 특히 미국의 인스트루멘탈 밴드인 '더 벤처스(The Ventures)'의 음악은 기타를 배우며 가장 많이 듣고 카피해서 연주하던 음악이기도 하다.

점차 음악에 빠져들었던 정유천은 기타를 너무 갖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당시 여의치 않았던 시절에 부모님께 그냥 기타를 사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당시 한 반이 70~80명이 되었는데, 정유천은 키가 1m 70cm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덩치가 남산만 하다 하여, '남산'이란 별명마저 지니고 있었다. 큰 키와 덩치 덕분에 육상부였던 정유천은 중학교 3학년 때 인천 청소년 육상대회에 나갔다. 당시 그는 200m, 400m, 그리고 계주에 출전하였다. 그때 정유천은 육상대회에서 상을 타면 기타 하나만 사달라고 부친께 말하였다. 정유천은 200m에서 2등을 하고, 400m와 계주에서도 입상하였다. 결국 부친이 기타를 사주셔서 정유천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타를 칠 수 있었다.

『이인성 기타 교본』²을 보고 독학으로 기타를 연습하던 정유천은 인천 동산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기타가 더욱 좋아진 정유천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하루 종일 기타를 쳤다. 당시 친구들 중에는 서로 어울려 다니며 담배를 배우고 피우는 친구도 있었지만 음악을 듣고 기타를 치는 일에만 몰두했던 정유천은 담배를 배우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정유천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전 세계적으로 딥 퍼플, 레드 제플린, 블랙 사바스 등의 록 음악이 유행하였다. 정유천도 당연히 그러한 음악을 듣고 따라 연주하였다. 부평은 이른바 '음악 빨'이 센 곳이었다. 부평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음악 관련 정보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딥 퍼플의 「하이웨이 스타(Highway Star)」 같은 노래가 유행하면 거의 동시대에 그러한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비록 정유천이 고등학교 시절에 전기 기타(electric guitar)를 살 수 없었

2 『이인성 기타 교본』은 1964년부터 13권가량이 간행되었다. 기타 교본의 성공에 힘입어 이인성은 1960년대 후반부터 창계천 5가에 '이인성 음악학원'을 설립하였고, 수많은 대중음악인들이 이곳에서 기타를 배웠다. 이인성은 '패키지 쇼라 불린 미8군 쇼의 개척자이기도 했다. 그는 1960년대에 드럼·기타·베이스 기타·가수·합창·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의 음악 지망생들을 미군 무대에 진출시킨 음악 감독이자 매니저 역할을 했다.

으나, 악기 등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친구(최명식)를 둔 덕분에 전기 기타를 종종 연주해 볼 수 있었다.

약 8년 동안 애스컴에서 일하던 정유천의 부친은 정유천이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애스컴의 일을 그만두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이미 미군이 점차 철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그곳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감원’이라는 말을 했던 것을 정유천은 기억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곧 ‘감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 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을 보며 정유천은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눈치챘다고 한다.

이후, 정유천의 부친은 애스컴에서 나와 작은 도넛 가게를 운영하였다. 도넛은 맛있었으나 미제 설탕이 아닌 우리나라 설탕을 사용하면서 여름에 금방 녹아버리는 설탕 때문에 도넛이 눅눅해졌고, 그 때문에 도넛의 반쯤이 들어오며 가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모든 생활을 접고 정유천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 했다. 하지만 부친이 이민 사기를 당하면서 이민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후 부친이 정화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돼, 정유천은 음악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유천은 1977년에 밴드를 만들어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1978년에는 정식으로 5인조 밴드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드럼·기타·세컨드 기타·베이스 기타·보컬을 모두 갖춘 정유천의 밴드는 신포시장 안에 있던 ‘맥심 고고장’에서 오디션을 거쳐 음악을 연주하였다. 보통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3~4시간 정도 연주하였다.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대타 멤버를 구하지 못한 밴드 사정 때문에 정유천은 1979년 4월 11일에 입대를 며칠 앞두고까지 밴드 활동을 하였다.

정유천은 해군 군악대에 입대하여 진해 통제부 군악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해군 군악대 입대 지원 시험은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최명식)가 사 온 지원서를 제출하고 함께 기타 부문으로 실기 시험까지 봤다. 하지만 친구는 떨어지고 정유천만 붙어서, 결국 그는 군대에서 꼬박 35개월 내내 기타를 쳤다.

1982년 3월 11일에 제대한 정유천은 계속 밴드를 만들어 음악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1985년에 군대 후배이면서, ‘참새를 태운 잠수함’의 일원인 이종만의 친구 최종욱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유천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충격이 컸다. 지인들이 최

종욱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써놓은 원고들을 발견했다. 정유천과 이종만은 최종욱을 기리기 위해 그의 유작을 몇 개씩 나누어 가진 다음 곡을 붙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음악이 생애 전부는 아니겠지만」과 「장돌뱅이(원제 메밀꽃이 피어날 무렵)」 등은 이종만이 곡을 붙이고, 「빨간사과», 「오랜 시간이 흘러갔네», 「이야기」 등은 정유천이 곡을 붙이기로 했다. 마침내 부제에 ‘창녀’라 붙어 있는 최종욱의 「빨간 사과」가 정유천의 작곡을 거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이 노래는 ‘미군 위안부’의 삶을 다룬 노래로 의미가 있다.

이 노래는 ‘자유인’이라는 밴드 이름을 달고 낸 음반에 실려 1987년에 세상에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음향에서 1991년에 독집 음반을 발매한 정유천은 1992년에 2집 음반을 발매하였다. 이 음반에는 「빨간 사과」와 더불어 「하나뿐인 지구」가 실려 있다.

1980년대 말부터 환경 등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던 정유천은 「하나뿐인 지구」와 같은 노래를 통해 환경문제를, 「꿈을 잃은 아이」에서는 주입식 교육 문제를, 「귀향」에서는 당시 사회 문제였던 이농(離農) 등을 다루었다. 실제로 정유천의 음반 뒷면에는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모든 핵무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정유천과 그의 노래가 실린 음반들(사진 정유천)

부평 마사회 농협 로터리 부근 건물 2층에 후배 유지제와 홍순승이 운영하던 ‘블루스 파크’라는 클럽이 있었다. 1996년에 정유천은 그곳에서 자신이 꾸린 ‘내추럴 푸드’라는 밴드(드럼에 정규식, 베이스 기타에 이상현, 기타와 보컬에 정유천)로 매일 저녁에 한 시간씩 공연하였다. 이후 1년 만에 영업이 어려워진 ‘블루스 파크’가 문 닫을 처지가 되자, 정유천 스스로 새 클럽을 열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해서 1997년에 부평 삼거리에 ‘ROCKCAMP(락캠프)’(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 근방)를 열었다. 개업 초기에는 “현충일 빼고는 거의 1년 내내 운영했다”고 할 정도로 호황이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밴드들은 물론이고 서울과 제주 등 각 지방에서도 밴드가 몰려와 하루에 3~5팀씩 매일 공연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클럽으로 자리를 잡았다. 당시에 인천에는 밴드가 40~50팀 정도가 될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점차 그들이 흥대로 올라가면서 인천과 부평에는 밴드 문화가 시들해졌고, 점차 인디 문화와 클럽 문화도 사라지게 되었다.

클럽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2006년 부평 ‘락캠프’를 정리한 정유천은 아내와 함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강화도 외포리로 옮겨, 계속 ‘락캠프’라는 이름으로 카페 겸 클럽을 운영했다. 공연 인프라가 전무했던 강화도에 비정기적으로 록 밴드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면서 락캠프는 강화도에서 문화 대안 공간 구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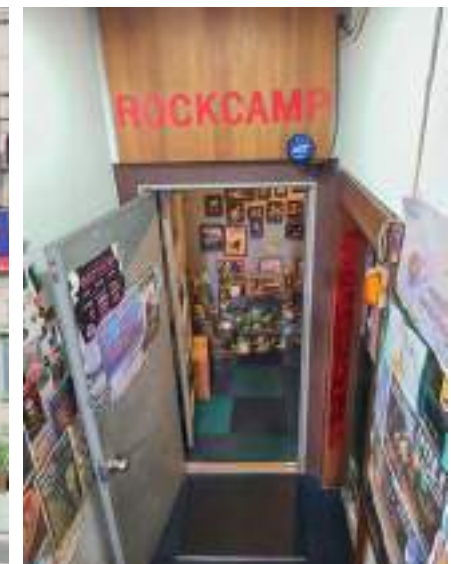
이후, 2010년에 다시 부평으로 돌아온 정유천은 현재 위치에 ‘락캠프’(인천 부평구 길주로)를 열고 2020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으나, 그전까지 매주 토요일 ‘락캠프’에서는 록 밴드를 위시한 다양한 공연이 정기적으로 펼쳐졌다.

한편, 정유천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동갑내기인 지금의 아내(김정숙)와 1985년에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정유천의 큰딸인 정예지는 신중현의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신찬호와 엮전들’의 보컬을 맡고 있다. ‘신중현과 엮전들’에서 이름을 따온 ‘신찬호와 엮전들’은 ‘락캠프’에서도 가끔 연주한다. ‘우주의 아이돌’로 통하는 정예지는 인천에서 청년 기획자로 활동하며 「인현동1999」와 「첫째 딸」 등의 음악을 발표하였고 ‘락캠프’의 기획실장을 맡아 공연 일정을 정리하고 있다.

‘락캠프’에서는 보통 20시 30분부터 평균 3~4팀 정도가 공연을 한다. 한 팀이 30분

정도 공연하고, 밴드 교체 시간으로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기는 하나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된다. 전국에 있는 밴드들이 이곳에 와서 공연을 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밴드 섭외가 잘 될 때는 미리 한 달 정도의 일정이 잡히곤 했다. 락캠프 초기에는 오디션을 거친 밴드들이 365일 내내 공연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인디 음악의 전성기였고, 그 당시 많은 밴드들이 이곳에서 공연하였다.

블루스 음악에 관심을 지닌 정유천은 2001년부터 드럼 박상명, 베이스 기타 임민호와 더불어 ‘정유천 블루스 밴드’를 결성해서 연주해 왔으며, 현재는 밴드 ‘불타는 버스’ 멤버였던 조영환이 베이스를 맡고 있다. 2021년에는 블루스 음반을 낼 계획도 있다. 그가 낼 음반에는 1970년대 부평 미군 부대 앞 동네 신촌의 이야기를 담은 「신촌」과 부평 클럽 거리의 모습을 노래한 「에스컴 시티 나잇」, 현대인들의 모순적인 삶의 모습을 노래한 「21세기 블루스」, 그리고 환경 문제 등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도 실려 있다 한다. “국민할 만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도 대중음악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하는 그는 단순한 음악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음악인이면서 사회 운동가라 할 수 있다.



◆ 락캠프 입구



❖ 락캠프 내부와 공연모습(사진 정유천)

정유천은 현재 연주 활동과 클럽 운영뿐 아니라 지역 문화와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부평구문화예술인 협회장과 인천대중예술고 전환 TF팀 부단장을 역임한 그는 부평올스타빅밴드의 단장을 맡고 있다. 지역 초·중학생들을 모아 올스타주니어빅밴드를 창단하여 청소년 음악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2003년에 인천 지역 밴드들을 모아 인천밴드연합을 결성하여 ‘썸머 록 페스티벌’을 열었고, 자선 공연 ‘사랑의 록 콘서트’를 15년째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에 있는 라이브클럽이 모인 ‘인천대중음악전문공연장 협회’를 만들어 ‘인천 라이브뮤직 홀리데이’와 ‘인천 라이브클럽 데이’, ‘펜타포트 라이브클럽 파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라이브클럽이 모인 단체인 사단법인 ‘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대표이사로 ‘대한민국 라이브뮤직 페스티벌’과 ‘라이브클럽 페스타’ 등을 기획하고, ‘홍대 앞 라이브클럽 활성화 사업’과 ‘썸디 티켓 라운지’ 등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 블루스란 ‘영(靈)의 음악’이라고 한다. 멋지게 연주하려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연주 자체에 심취되어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기교에 힘쓰는 젊은 음악인들의 행태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즉, 음악 교육도 기교와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자신만의 색깔과 철학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정유천이 부친을 따라 부평에 오지 않았다면 음악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부평이란 도시는 정유천에게 음악적 자양분을 제공해 준 도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음악 도시’ 부평으로 가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부평 캠프마켓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영국의 ‘하이드 파크’나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대형 공연이 가능한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가 부친을 따라 부평에 올 때는 아니었는지 모르나, 그의 큰 딸 정예지는 물론이고 서도소리를 전공한 둘째 딸 정은지도 블루스를 노래한다. 지금은 음악을 쉬고 있으나 막내아들 정바른이도 힙합을 전공하였다. 아버지 정유천에게서 시작된 음악 유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인천과 부평에서 이루어

지는 음악 관련 사업이 그곳에 거주하며 음악 활동을 하는 음악인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뜻심과 애정으로 '락캠프'를 지키고 있는 정유천에게서 음악 도시 '부평'의 미래를 본다. 부평의 음악이 궁금하거든 '락캠프'를 가라! 그곳에 정유천이 있다.



❖ 정유천의 블루스 밴드, 부평올스타빅밴드, 올스타주니어빅밴드

| 제5절 | 부평에서 태어나 운명처럼 음악을 만난 구창모

구창모는 1954년 4월 27일(양력)에 부평 신트리에서 태어났다. 외동아들이던 구창모는 외삼촌 형인 이승재(이하, 이승재로 통일) 덕분에 일찍 음악을 접했다. 외삼촌 덕이 잘 살았는데, 당시 굉장히 넓은 마루에서 이승재를 위시한 밴드가 연습을 했다. 어린 구창모는 당시에 관객석에서 지휘봉을 잡고 대장 노릇을 하곤 했다. 즉 당시만 해도 시골이었던 그곳에서 밴드의 연주 소리가 나면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 이승재의 총애를 입은 구창모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대장 노릇을 했던 것이다.

이승재 덕분에 구창모는 6살 때부터 기타를 만져볼 수 있었다. 애스컴에서 연주한 이승재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틀스 음악을 위시하여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나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집에 있는 광석라디오로 수많은 음악을 들었던 것이다. 「오동동 타령」이나 「유정천리」를 들었던 것을 그는 기억했다.

이승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승재의 아버지이자 구창모의 외삼촌인 이용철의 별명도 ‘기타쟁이’였을 정도로 외가에 음악 유전자가 발달해 있었다. 외탁을 해서인지 구창모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당에 동네 어른이나 주민들이 모이면 노래를 부르곤 하였다. 주로 트로트나 신민요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초등학교 때 이미 이승재에게 기타의 기본을 배웠으나 별도의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만 해도 음악하는 사람을 ‘딴따라’라고 해서 천히 여겼기 때문에 집에서는 오직 공부만 해야 했다. 부친은 구창모가 부평 동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다. 이후, 외삼촌과 모친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에서 시험을 보고 배재중학교에 들어간 구창모는 배재중학교에 이어 배재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서울로 이사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가출도 해 보았다. 1971년에 이승재는 「눈동자」로 이미 가수 데뷔를 하였다. 구창모는 ‘오비스 캐빈’ 등 이승재가 출현하는 클럽들을 찾아 공연을 보러 다녔다. 그러면서 구창모 또한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였으나, 집안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음악을 업으로 삼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당시 대학교는 오늘날과 다르게 정원 미달이 많아서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추천서

를 써 주면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았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최소한 고려대학교는 가겠다는 생각으로 대학 지원을 했으나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다. 결국 삼수 끝에 구창모는 1975년에 홍익대학교 옆에 있던 홍익공립전문대학에 입학하였다. 1976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에 짧게 다녀온 그는 1978년에 홍익대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중학교 동창이 “너 지금 뭐 하나?”고 물었던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에 매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편입하여 학교에 간 첫날, 수업을 듣고 나오니 자신보다 먼저 대학교에 들어간 고등학교 1년 후배 홍대선이 구창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홍대선이 1976년에 ‘블랙테트라’란 음악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보컬을 맡은 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면서 보컬이 필요해 구창모를 찾아온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결국 운명처럼 다시 음악을 만난 것이다.

군대에 있던 1977년도에 제1회 대학가요제를 보며 그 대회에 꼭 나가고 싶다고 마음 먹었다. ‘블랙테트라’의 보컬로 있으면서 대학 축제도 다니고 대학가요제 준비도 하였다. 1978년에는 TBC에서 주최한 제1회 ‘해변가요제’에 출전했다. 배철수를 처음 만난 것도 ‘해변가요제’ 예선에서였다. 당시 ‘블랙테트라’는 「구름과 나」라는 노래로 금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애초부터 대학가요제에 나가고 싶었던 구창모는 ‘블랙테트라’로 대학가요제에 나가려 했다. 하지만 ‘해변가요제’ 측에서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대학가요제에 나갈 수 없었다.



❖ 해변가요제 음반 앞면과 뒷면

그에 반해, 배철수가 포함되어 있던 '활주로(Run Way)'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로 입상하긴 했으나, '블랙테트라'만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자 대학가요제에 나갔다. '블랙테트라'와 '활주로' 모두 학교 동아리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했다. 이후, 배철수가 1979년에 '송골매'를 먼저 조직하였다. 구창모는 당시 공부를 하겠다 마음먹고 설악산 망월사에 들어갔다. 큰 결심을 하고 절에 들어간 지 한두 달 지났을 때 배철수가 음악을 하자고 그곳까지 찾아왔다.

결국 1980년 1월부터 배철수와 함께 4인조(배철수·구창모·김정선·이봉환)로 송골매를 시작하였다. 악기 살 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디스코텍에서 오디션을 보고 연주를 시작했다. 종로3가에 있던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이었는데, 디스코텍에서 디스코 음악이 아닌 록 음악을 연주한다는 이유로 결국 10일 만에 해고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심기일전하여 드럼과 베이스 주자를 영입해 6인조 밴드로 재편하였다.

송골매로 활발하게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한 구창모는 「희나리」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다 1991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가요제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아는 선배를 만나면서 그곳에서 약 30년 동안 사업을 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이다. 현재 구창모는 가끔 공연은 하지만 방송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부평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에 그곳을 떠나긴 했으나 구창모 또한 어린 시절에 부평의 음악적 자양분을 흡수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부평 음악의 핵심은 '밴드 음악'이라고 한다. 같은 부평 출신의 사촌 형 이승재의 음악 활동은 물론이고 구창모 자신이 '블랙테트라'와 '송골매' 등을 거쳤던 것도 아마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접한 부평의 '밴드 음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구창모의 말처럼, 그가 음악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부평에서 태어난 것을 그가 선택할 수 없었듯이, 음악을 했던 것도 그가 선택할 수 없던 일이었다. 그건 선택이 아니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재즈 연주자들에게 일종의 '성지(聖地)'로 통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인천에 있는 '버텨라인'이다. 그곳을 운영하는 허정선 대표가 바로 부평에서 나고 자란 부평 토박이이다. 그는 1966년 12월 14일에 부평동 현 마사회 근처 하촌(그 당시 부르던 지명)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후 5, 6살 때부터 부평2동('삼릉'이라고도 부른다)에서 20살 초반까지 쫓 살았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허정선이 다니던 복인천여자중학교 옆에는 '유니버설 클럽'이라는 미군 클럽이 있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면, 학교 담벼락 너머로 밴드들의 음악 연주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자연스럽게 애스컴에서 들려오는 음악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애스컴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주로 팝송이었다. 예를 들어, 조영남이 노래한 「물레방아 인생」의 원곡인 CCR(Credence Clearwater Rivival)이란 그룹의 「Proud Mary」가 그것이다. 허정선은 중학교 시절 「Proud Mary」 등을 듣고 자연스럽게 노래를 외워 흥얼거리곤 했다. 당시 팝송을 주로 듣던 허정선과 그의 친구들은 부평시장과 부평의 '대한극장' 근처를 돌며 올리비아 뉴튼존(Olivia Newton-John) 등의 이른바 '뺨판'(불법 복제 음반)을 사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던 허정선은 중학교 시절에 기타를 잠깐 배웠다. 그가 20살 때 인천에는 카페가 몇 곳 있었다. 1983년에 문을 연 '버텨라인'도 그중 한 곳이었다. 1대에서 3대까지의 대표를 거쳐 4대 대표는 허정선의 고등학교 동창인 변유정이었다. 변유정과 허정선은 음악이 좋고 사람이 좋아 어울려 다녔다. 그러면서 허정선도 자연스럽게 카페 운영이나 경영에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허정선은 '버텨라인'을 인수하기 전인 1987년에 신포동 내리교회 후문에 '소리창고'의 문을 열었다. LP 음반을 틀어주던 곳이었었는데, 허정선은 그 공간을 아지트처럼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맥주 가격도 모르던 시절에 겁 없이 뛰어들었던 사업은 쉽지 않았다. 결국 3년 만에 적자로 '소리창고'의 문을 닫아야 했다.

이후에 우연히 아는 분을 따라 오산에 갔다가 허정선은 권리금 없이 비어 있던 다방

을 인수하여 ‘섬’이라는 카페의 문을 열었다. 5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그곳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 오산의 카페를 넘기고 허정선은 다시 부평으로 올라왔다. 4대 대표였던 변유정이 결혼을 하면서 허정선이 1994년 12월에 ‘버텨라인’을 인수, 1995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1대 대표가 운영하던 당시에는 ‘버텨라인’에 LP 음반만 1,000장 정도 있었다. 허정선이 인수하면서 본인 소장본과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음반 약 5,000장이 현재 버텨라인에 있다.

‘버텨라인’이 중요한 것은, 그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공연장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1997년에 신관웅이 13인조 빅밴드와 함께 공연을 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버텨라인’에 자주 놀러 오던 인천 출신 색소폰 연주자인 남진우가 이곳에서 공연을 하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그가 바로 신관웅에게 전화를 걸어 공연을 제안했다. 그 당시 카페 안의 탁자를 모두 치우고 신포동 동사무소에서 의자를 빌려서 깔았는데, 1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여기저기 포스터를 붙이긴 했으나 SNS가 없던 시절에 입소문을 타고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 첫 공연은 성공한 공연이었다.



◆ 버텨라인 입구와 내부



그 후,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인천에서 재즈를 하던 분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재즈 음악인인 송석철·남진우·최용민 씨 등이 주축이 되어 ‘버텨라인’에서 공연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앰프 등 최소한의 것만 두었으나 점차 외국에 있는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악기나 음향 등을 갖추게 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버텨라인’의 운영도 어려워졌다. 사실 그 이전부터 허정선은 30평대의 아파트 한 채를 쏟아부었다. 그래도 허정선의 ‘버텨라인’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재즈 뮤지션들은 여전히 많다. 하지만 공연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 ‘버텨라인’이기도 하다. 사람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하냐고 물으니, 허정선 대표는 “도를 닦는다”고 대답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법정 스님의 책을 보고 감동받은 허정선은 스님이 될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버텨라인’에 손님 한 명 없이 적막했던 어느 날 천장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허정선의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갔다. ‘여기가 절인데, 굳이 어딜 가나?’ 하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허정선은 ‘버텨라인’에서 도 닦고 공연을 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2020년 현재까지 그곳을 지키고 있다.

허정선은 인천과 부평의 시군 차원에서 지역 클럽이나 공연장에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 즉, 새로운 공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연장들이 지속적으로 공연을 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기존 공연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20~30년 동안 버텨 온 라이브 공간들이 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허정선은 그들과 그 공간들을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시절 잘 놀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힘이 빠져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허정선 대표는 정말 지쳐 보였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재즈 클럽인 ‘버텨라인’에서 계속 재즈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천시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도 최근에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0년 이상 오래된 가계에 주는 ‘백년가계’(2020. 8.)에 ‘버텨라인’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10월

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버텨라인’을 ‘이어가계’로 선정하였다. 식당이 아닌 음악 공간으로 ‘백년가계’와 ‘이어가계’에 선정된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다.

허정선 대표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저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저 공연만이라도 지원을 받아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래된 명소이자 재즈의 성지라는 이유로 허정선 대표에게 계속 버티라고 말하며, 이른바 ‘열정페이’를 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그가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앞으로도 오랫동안 ‘버텨라인’에서 재즈가 연주되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 제7절 | 부평 창작 음악의 현재와 미래 : ‘예술숲’의 김면지 대표

‘예술숲’은 국악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공연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단체이다. 여러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창작 플랫폼인 ‘예술숲’의 대표 김면지는 부산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그녀는 지방 시립 악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결혼과 동시에 인천에 올라와 이곳에 정착하였다.

2000년에 올라왔으니, 부평에서 산 지 어느덧 20년이 되어간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지역 축제를 돌아보던 그녀는 축제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의 전통문화 원형 콘텐츠를 발굴해서 공부하리라 마음먹었다. 현재의 ‘예술숲’을 만들기 전까지 약 6년 동안 김면지는 부평문화원 문화재 연구위원 자격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부평두레놀이’를 발굴하여 복원하고 재현하였다.

2016년에 김면지는 ‘예술숲’을 설립하였다. 김면지는 예술적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주의자적인 기획자이다. 월급을 주는 운영 팀은 4명이지만, 헤쳐 모이는 예술가들만 100명이 넘는다. 처음에 예술 생태계가 똑바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창작가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술숲’을 열었다. 그러므로 ‘예술숲’은 국악 쪽에서 설립된 최초의 작곡가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부평구청 앞이자 '락캠프' 바로 옆에 '예술숲'의 사무실이 있다. 김면지 대표가 생각하기에, 부평에서 축제를 기획한 것과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등록한 것이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 그는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악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음악극은 「미쓰, 수염 씨」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20년에 인천의 가치를 담은 작품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이다.

김면지 대표가 생각하는 부평 음악의 정체성은 '록 음악'이나 '밴드 음악'이다. 밴드 음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밴드 음악가 자신들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음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평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 콘텐츠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밴드 음악은 삶 속에 있어야 하고, 장소성, 시대성, 음악성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연을 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술숲'의 김면지 대표는 부평 음악의 현재이면서 미래이기도 하다. 기존의 것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재현하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하지만 부평 예술의 현재와 미래는 결국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과 연결될 것이다. 그 때문에 '예술숲' 김면지 대표의 작업은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것이 결국 인천과 부평의 미래가 될 것이고, 미래에는 그의 작업이 전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김면지 대표와 예술숲에서 기획한 공연들

| 제8절 | 음악 도시 부평의 정체성 찾기

에스컴 시티가 있던 부평은 서양의 재즈, 팝, 그리고 록 등이 처음 소개된 대중문화의 관문과 같은 곳이다. 6·25전쟁 이후 에스컴을 통해 수많은 유형의 물자와 무형의 문물

이 흘러들어 온 것도 이곳이다.³ 하지만 부평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비록 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울지라도 부평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했던 음악인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소중한고도 가치 있는 일이었다.

다만 지면의 한계와 여러 제약으로 부평과 관련된 모든 음악인을 만나지는 못했다. 직접 면담을 할 수 없었으나 부평과 관련된 음악인으로 김재덕(서울패밀리의 리더), 차경수(차차차오남매), 김청산(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멤버), 이철호(사랑과 평화 보컬), 차영수(전 클러바더스 악단의 리더), 김진호(전 예그린 음악학원장), 안기승(Top Steps), 조광진, 강오식, 이승재, 최성수, 유심초, 백영규, 이훈만, 홍수철, 신지(코요태), 박기영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으나 이관섭 선생과 황준근 선생도 기억해야 할 부평의 음악인들이다.



❖ 차차차오남매(출처 : 인천광역시)



❖ 차차차오남매가 사용하던 악기(비프라폰, 메트로놈, 마라카스)(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 차차차오남매(출처 : 인천광역시)

이들 뿐만이 아니다. 1960년대에 활동한 수없이 많은 음악인들이 부평의 에스컴 시티의 클럽에서 공연을 하였다. 1950년대부터 에스컴 시티에 있던 클럽들로 부산홀, 홍콩홀, 키클럽, 하니문, 아리랑클럽, 신장홀, 수도클럽, 신일홀, SEVEN, WHITE ROSE, 평양홀, 드림보트홀, 서브달러, 맘보클럽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봉조, 현미, 한명숙, 키보이스, 조용필, 허영란, 배호 등 1960년대 대중음악을 이끈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였다. 당시 미8군 무대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970만 달러이고, 이는 외화 총 수입의 10%에 달한다고 하니 미8군 무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여러 자료들과 부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음악인들을 통해 부평의 음악 정체성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

3 이목연 정리, 『음악 도시 부평, 문화정체성 찾기』, 부평의 제21실천협의회 문화복지분과, 2013, 3쪽.

기가 어려웠다. 재즈, 팝, 록 등 저마다 다양한 음악을 들어 부평 음악이라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삼익악기, 영창악기, 콜트 기타 등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기 공장이 유독 부평에 몰려 있다는 것 역시 단지 우연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음악적 자양분이 풍부한 부평에서 흘러나온 음악을 어느 한 가지만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수많은 음악들이 울려 퍼졌다. 다만 클럽에서 활동했던 연주자들을 떠올리면 기본적으로 라이브를 추구하는 밴드 음악이 부평 음악의 특징이 아닐까 한다. 그렇게 짝 튼 밴드 음악이 대학으로, 주류 대중음악계로, 인디 음악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았을까 한다.

2000년대 들어 부평이나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밴드로는 KBS 드라마 「추노」의 OST를 부른 글루미 써티스(Gloomy 30's)를 비롯하여 GUTZ(3인조 인디밴드), 써드스톤(3인조 인디밴드), 리규영(루비살롱레코드 대표), 하일라이츠, 락타이거즈, 덤덤라디오, 카멜라이즈(포크트리오), NARANG, 블루니어마더, 부평올스타악단장, 정유천블루스밴드 등이 있다.

2015년에 부평은 음악 도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인천의 부평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배영수 기자에 따르면, 부평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부평이 ‘음악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의 말처럼, 음악 도시 부평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먼저 부평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상,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미군 무대가 있던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음악 도시 부평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지역 주민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 있는 음악 애호가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과 부평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부평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과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평의 지역 음악인들 및 주민들과 더불어 다시 찾은 부평 땅에서 신나고 즐겁게 음악 문화가 꽃피우기를 기원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부평역사박물관, 『헬로우 애스컴 시티(1945~1973) 굿바이 캠프 마켓(1973~2019)』, 부평역사박물관, 2020.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음악 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복지분과, 2013.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0세기 인천부평 대중음악』, ㈜태림스코어, 2017.

〈면담 일정〉

1. 2020년 5월 29일(금) 오전 11시 김삼순·한광오 선생님 면담
2. 2020년 7월 21일(화) 오후 3시 정유천 선생님 면담
3. 2020년 7월 28일(화) 오후 4시 ‘예술숲’ 김면지 대표 면담
4. 2020년 7월 28일(화) 오후 6시 ‘버텨라인’ 허정선 대표 면담
5. 2020년 8월 6일(목) 오후 1시 마포 소재 커피숍에서 가수 구창모 면담
6. 2020년 8월 16일(일) 오후 2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라이브클럽에서 김삼순 선생님 면담





제 5 장

부평의 극장, 극장의 부평 - 부평의 극장 문화사

제1절 _ 극장의 존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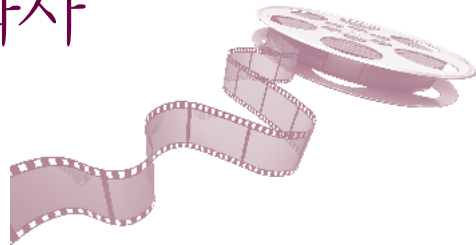
제2절 _ 부평의 극장 탄생의 역사

제3절 _ 부평의 대표 극장들 : 부평, 금성, 백마, 대한

제4절 _ 멀티플렉스의 등장

제5절 _ 극장 속의 부평

제5장 부평의 극장, 극장의 부평 - 부평의 극장 문화사



한재연(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강사)

| 제1절 | 극장의 존재론

1. 고대 그리스 극장의 존재론

지금은 인류의 공통 문화유산이라 할 그리스 비극을 논할 때,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 극장의 존재다. 기원전 400년 이전에 이미 그리스 비극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라는 세 명의 거장 극 시인에 의해 그 이상 더 높이 치솟을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여기에는 연극을 ‘모두를 위한 예술’로 간주한 아테네식 문화 민주주의의 영향이 크다.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연 페리클레스 집권 시기부터 아테네 시민들은 연극 티켓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말하자면 전 시민을 위한 문화 쿠폰을 이때부터 발행한 셈이다. 아테네 시민들의 비극 관람은 단순히 예술적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 감각, 일체감 형성을 위한 시민 교육의 일환이었다. 한 사회의 공동 텍스트를 갖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역할을 연극이 담당했는데, 그 연극은 노천 원형극

장에서 거행되었다. 지금도 유형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극장은 당대의 공연 양식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며 당대 건축술의 첨단을 예리하게 드러낸다.

무대 위에 동전 하나만 떨어져도 가장 멀리 떨어진 객석까지 들릴 만큼 고대 그리스의 노천극장은 음향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당대의 비극은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듣는 것’이었고, 이는 전기 조명이 등장하는 20세기의 극장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극작가와 배우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탁월한 대사를 관객에게 들려주는 능력이었다. 상상해 보라. 해가 진 저녁, 시민들은 노천극장에 모인다. 사방에는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고, 무대 위에서는 배우와 코러스가 비극을 읊는다. 관객들은 ‘공포와 연민’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귀가한다. 다음 날 아침, 시민들은 서로 만나 전날 저녁에 본 연극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엇인가 공통적인 것을 보고 듣고 느낀 후 나누는 대화는 각자의 관심사를 떠나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한마디씩 발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럴 때 극장은 단순히 유희의 장소를 뛰어넘어 공동체 형성의 촉매 역할을 한다. 누가 아테네 시민인가? 바로 함께 비극을 관람한 사람들이다.

2. 20세기 이후 극장의 사회적 역할

20세기 들어 극장의 사회적 역할은 고대 그리스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되었다. 이제 관극(觀劇)이라는 행위는 사회적 교육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유희거리에 더 가깝다. 극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압도적인 것은 20세기 예술의 총아인 영화였다. 이 두 가지 변화, 다시 말해 관극 행위의 오락성,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의 압도적 우위는 근대 도시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연극을 비롯해서 무용, 오페라 등의 각종 공연 예술은 복제가 불가능하다. 영화는 그에 비해 국경을 넘어 똑같은 텍스트를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매체였다. 초창기 영화가 무성영화였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체플린의 무성영화는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작이었다. 복제 예술인 영화의 등장은 이전 시대의 극

장 광대에 불과했던 배우에게 천상의 별만큼이나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근대사회의 대중들은 도시의 익명성에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극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시민처럼 국가로부터 티켓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영화를 골랐다. 이제는 각자 내 돈 주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대중 예술의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꼭 봐야 할 것도 없고, 꼭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없었다. 모두와 공동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코드로 소통했다. 극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동시에 각자의 시선 안에 닫혀 있는 곳이 되었다.

제2절 | 부평의 극장 탄생의 역사

1. 「시네마 천국」 vs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걸작 「시네마 천국」(이탈리아, 1988)과 정지영 감독의 문제작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한국, 1994)는 극장 문화사 혹은 극장의 존재론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아주 유용한 텍스트다. 어쨌든 20세기의 극장은 열린 공간이자 닫힌 공간인지, 어떻게 균중을 만들기도 하고 균중에서 이탈해 개인으로 만드는지, 이율배반적인 담론의 매개이자 은유로서 존재한다. 극장은 익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자 모여서 개인의 내면 속으로 가라앉는 공간이기도 하다.

「시네마 천국」은 영화의 제목 자체가 극장명이다. 번역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되어서 영화의 세계에 빠져 사는 토토의 상상 세계가 천국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골 성당의 신부가 관리하는 극장의 이름이 바로 'Cinema Paradiso', 즉 '낙원 극장'이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서도 시골인 잔카르도가 영화의 배경인데, 그런 지명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시칠리아의 팔라조 아드리아노(Palazzo Adriano)에서 촬영했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잔카르도만큼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극장은 단지 영화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광장 역할을 한다. 한데 어울려 노는 공간이자 서로의 근황을 파악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맞선을 보지 않아도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아 짝을 맺는 공간이자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 수업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영화 속 극장은 일상의 남루함과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 주는 휴식과 상상의 공간이다. 영화 속의 극장은 쾌적하지도 조용하지도 않다. 관객들의 관람 태도는 오늘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편안하다.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키스 장면을 생략하면 휘파람을 불어제긴다.

다 알다시피 이 영화에 나오는 '낙원극장'은 한 번 불타고 나서 새롭게 지어져 '신(新) 낙원극장'이 된다. 이전의 극장에 비하면 꽃단장을 한 이 극장도 30년 후에는 텔레비전과 비디오에 밀려 폐관하게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극장이 폭파되는 장면은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장례식만큼이나 엄숙하다. 극장 안에서 활기차게 소리치고 휘파람을 불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한 노인이 되어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극장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본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듯 극장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다.

'신(新) 낙원극장'이 폭파되기 전, 이미 영업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거미줄이 쳐진 극장 안으로 들어선 토토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영화와 삶이 만나는 지점을 눈물겹게 확인한다. 어두컴컴한 극장에 앉아 우리는 무엇을 배웠던가. 그것은 아주 단순한 가르침 이리라. 어떤 아름다운 장면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도 끝이 있다. 이 영화는 끄트머리에 와서야 맨 처음이 더욱 또렷하게 해석되는 인간사의 비밀을 던지시 암시하기도 한다. 그 시절엔 몰랐으나 돌아보니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던가!

「시네마 천국」이 한 편의 서정시라면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대담한 보고서다. 할리우드 직배 영화의 위협 속에서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투쟁을 하는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근대의 박래품(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품)으로서 영화란 무엇인가? 그 영화를 보고 자란 우리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뼈아프다.

실제 삶보다 극장 속에서 보낸 삶이 더 긴 주인공 병석을 보자. 그에게 영화란 유리 공장을 다니는 가난한 아버지와 쇼 단에서 거의 벌거벗고 봉춤을 추는 누나의 삶에 눈

을 감게 만드는 도피적 환상이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먹고 자란 병석은 자신의 진짜 삶을 마치 영화처럼 여긴다. 일상적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다. 극장 바깥의 현실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데 극장 안의 스크린에서는 바다 건너의 찬란한 삶이 펼쳐진다. 자꾸만 현실에는 눈감고 싶어지고 환상에는 눈을 뜨고 싶어진다. 결국 병석은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하지만, 그 완벽한 시나리오는 결국 할리우드 영화라고 불리는 미국 영화들의 모작에 불과했다.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망에 의해서 병석의 삶은 그 자체로 식민화된다.

「시네마 천국」이 추억에 바치는 송가라면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우리의 추억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과거를 낭만화하는 방식은 곧 병석이 극장 안으로 도피했던 그 환상의 굴복이 아닌가. 그 환상을 거부했던 병석의 친구 명길은 그저 그런 ‘방화(邦畵)’를 만드는 삼류 감독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¹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나온 이후,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영화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그것은 예술적 성장이자 산업적 성장이었기 때문에 명실상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 불릴 수 있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할리우드 키드’를 극복했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기생충」에 도달할 수 있었다. 현실이 시궁창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연꽃을 찾았던 아이(키드) 시절을 지나 우리는 시궁창의 현실을 제대로 그리면 그것이 곧 연꽃임을 깨달은 청년이 된 것이다. 물론 이 극복의 훈련을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망설임 필요도 없이 녹록하고 축축하고 귀퉁이 냄새가 풍기던 우리의 초라한 극장이라고 답할 수 있다. 바다 건너 잘사는 나라의 화려한 삶을 담은 스크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건을 그대로 노출하던 극장 공간을 인식했을 때 ‘할리우드 키드’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1 ‘방화’라고 불리던 한국 영화를 알아보고 업신여기던 할리우드 키드 병석에 비해 명길은 어느 순간 한국 영화만의 ‘재미’를 발견한다. 이에 관해서는 안정효의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민족과문화사, 1992) 299쪽을 참조하였다.

2. 부평극장에서 「미션」을 본 한 젊은이

이제는 고인이 된 박광정은 독특한 개성으로 잊히지 않는 배우다. 그가 맡은 배역은 현실의 비루함과 고단함을 서민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배우면서 연극 연출가이자 극단 대표이기도 했으니 그의 삶은 극장과 매우 밀접했다. 『씨네21』의 인기 코너였던 ‘續 내 인생의 영화’에 실린 그의 글은 우리에게 극장 문화사가 무엇인지, 한 인간에게 극장이란 어떤 공간인지, 영화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어떤 요소가 작용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부평의 극장 문화사를 본격적으로 여는 마당에 그의 글은 길게 인용해도 좋을 듯하다.

아무튼 수많은 작품들이 제 기억 속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내 인생의 영화는 「미션」(롤랑 조페, 1986)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아마도 1986년 말이나 87년 초 부평역 근처의 어떤 극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부평역 근처이니 부평극장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보질 못해서….

그때 저의 상황은 군 제대 뒤, 입대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른 뒤에 학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학과를 선택하지 못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응시했다가 면접날 용기가 없어서 응시하지 못했던 학과에 다시 가고 싶어서 공부는 했으나 나이를 계산해보니 졸업 뒤엔 입사 시험을 볼 수 없는 나이이기에 낙담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까지 저의 꿈은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영화를 볼까 하고 나갔다가 「미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영화는 자주 보러 다녔지만 영화에 대한 꿈을 꾸거나 더더욱 배우에 대한 생각은 꿈도 꾀보지 않았던 때이기에 최소한의 상식으로 ‘로버트 드 니로’가 나온 다기에 막연히 보고 싶단 생각으로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에 이끌려 빨려 들어간 영화의 후반부에 자신의 의지와 신념대로 총탄이 날아오는데도 의연하게 걸어가다 죽음을 맞이하는 ‘제레미 아이언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행히 극장 안에 관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울다 정신을 차려보니 왠지 썩스럽더군요. 그래서 남은 게 시간이었던 시절이었고 부은 눈도 가라앉힐 겸 또 보기로 마음먹고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때는 한번 표를 사서 들어가면 본인이 나가기 전까진 계속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봤던 영화의 느낌은 사라지고 감흥이 없더군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눈물이 쏟아졌던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극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울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흘린 눈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을 할 때였나?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 일을 결국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신념대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인가? 직접 부딪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고민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결국 연극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연극영화학과를 선택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 좋게 원하던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고 그 이후에 학과 수업을 통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내 인생의 영화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미션」은 20년 전 고민만 많았고 어떤 희망을 꿈꾸지 않았던 시절에 저를 돌아보고 꿈을 꾸게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내 인생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비록 치기어린 생각이었지만 세상에 대한 치열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은 생각에 반성도 하고 치열함이 사라진 자리에 유연함이나 세련됨이 더해졌나에 대해서 돌아켜보았지만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덧붙여 고백하자면 최근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질 못했습니다. 집에서 보는 영화와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느낌이 많이 다름을 알면서도 이놈의 게으름 때문에 ……

앞으로 가능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내 인생의 영화’를 찾아보겠습니다.²

위의 글은 영화란 극장에서 봐야 ‘내 인생의 영화’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극장 바깥의 삶, 그때의 심정과 기분을 안고 우리는 극장으로 들어간다. 객석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영화 관람의 전부는 아니다. 극장 바깥의 삶과 극장 안 스크린의 삶이 만나는 지점에서 영화 관람은 비로소 어떤 의미를 띤다. 똑같은 「미션」을 봐도 누구에게나 같은 감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삶은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가진다. 상상의 공간인 극장도 그 제약 속에 있다. 부평역 근처에서 혼자 극장에 들어간 재수생 박광정은 극장 밖으로 나와 귀가할 때 뭔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골방에서 넷플릭스 ‘땡작(명작)’을 보는 것과 큰 차이점이다. 이미 내용을 알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보는 영화와 재수생 박광정이 절박한 심정으로 보았던 「미션」은 얼마나 다른가. 극장 문화사란 이렇게 극장의 안과 밖에서 우리의 삶이 허구와 만나 모종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가장 극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1986년과 1987년 사이의 겨울, 부평역 근처 극장 앞에서 「미션」이라는 영화의 간판을 보던 한 젊은이의 모습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자. 타이틀은 ‘부평의 극장, 극장의 부평’이다.

3. 타임머신을 타고 옛 부평으로

전근대 시기 부평은 이름처럼 넓고 평평한 땅에 대부분의 인구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다. 따라서 전문적인 연희 집단이나 공연 공간이 생기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알다시피 극장은 도시의 산물이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 극장이 들어선다.

조선시대까지 상설 옥내 극장은 전무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실내 극장은 비용을 치르고 극장에 입장해 감상을 기다리는 관객층이 있어야 존재 가능하다. 지금도 적자인 공연이 많다는 걸 감안할 때, 실내 극장의 설립과 유지에 상당한 자본과 인구의 유입을 전제로 한다. 실내 극장이 일찌감치 탄생했던 나라들은 모두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근대 시기 우리나라의 공연 양식은 ‘마당’이라는 공연 공간의 조건에 맞춰서 성립

2 박광정, 「續 내 인생의 영화 <미션>」, 『씨네21』602, 2007.

되었다. 세밀한 감정 묘사보다 과장된 행위가 많고, 서사 구조가 조밀하게 짜이기보다는 그때그때 관객의 반응에 따라 늘어지기도 하고 축약되기도 하는 것에는 이런 까닭이 있다. 또한 공연 집단은 한곳에 동지를 틀지 못하고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살아야 했다. 관객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연 집단이 어느 시기에 와서 공연하면 구경하는 식이었다. 그 공연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 또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실내 극장과 고정 레퍼토리가 없다는 점에서, 또 극예술의 연행자들이 사회적 지위는 고사하고 경제적 안정도 누리기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확립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좋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야 진행된 것처럼 극장 문화사라 불릴 분야의 근대화도 이 시기에 와서야 이뤄졌다.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인부좌(仁富座)는 인천에 설립되었다. 한국영화사 연구가인 한상언에 의하면 그동안 최초의 근대식 극장으로 불리던 협률사(協律社)는 최초가 아니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인부좌는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의 유희 공간이었다. 일본인 거류민단의 신문이었던 『조선신보』 1892년 5월 6일자 기사에 이 극장이 소개된다. 이 인부좌를 비롯하여 협률사나 축항사(築港社) 등의 초기 극장들은 모두 현재의 동인천 지역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개항장과 더불어 항구가 근접한 지역에 최신 문물이 더 활발히 수입되었음을 보여준다.³

부평에 근대식 극장이 지어진 것은 한참 후인 1943년이다. 이 사실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부평구가 인천광역시 안에 속해 있지만 일상생활 측면에서 인천과 부평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를테면 ‘최초의 근대식 무대는 인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소개될 때 그 인천은 부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는 조병창으로,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로 이용되었던 군사 도시 부평은 산업화 시기에는 공업 도시로서의 면모가 강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무대가 되는 은강이 바로 부평이다. 이제는 어엿한 ‘문화 도시’로서 그 면모를 일신했지만 도시로서 부평의 출발은 자연발생적이지 않았다. 부평이라는 도시는 1939년 조선총독부의 조병창 설치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부평이라는 도시는 시초

3 한상언, 「활동사진시기 조선영화산업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0, 22~26쪽.

부터는 계획된 신도시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아직 극장이 없던 부평에 어떤 볼거리가 있었을까. 1943년에야 상설 극장인 부평영화극장이 설립되었으니 1939년부터 1943년까지 극장에서 상연되거나 상영되는 볼거리는 없었을 것이다. 임시 상영막을 치고 간간히 영화 상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기 제작된 영화 편수 자체가 적고 대부분 체제 동원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을 위한 관극 행위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웃지 못할 다음과 같은 일화도 존재한다.

범죄 사실을 다루고 있는 기사이기는 하나 당시의 공연 양태를 보여주는 유추 자료로서 1930년대 말의 신문 기사를 보자. 가독성을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현대 한국어 표준어로 바꾸었고, 한자는 뜻이 통할 경우 한글로 전환했다.

劇團(극단)에 숨은 桃色魔窟(도색마굴) 西門署(서문서), 肅清斷行(숙청단행)
지방순회를 기회로 처녀유인한 왕관좌 취조 따라 죄상판명중

영터리극단이 지방순회를 하며 묘령녀를 별별 감언이설로 꼬여다가 남녀배우가 도색행락을 일삼다가는 밥값에 줄려 작부로 팔아먹고 혹은 사기의 미끼로 제공하는 등 유괴 사기극을 연출하던 도색 사이비극단의 단장과 주모배우 일당 오명이 서대문서에 일망타진되었다. …… 최규환(26)과 서정구(39) 등 십 명은 왕관좌라는 지방순회 전문의 극단 결단식을 거행한 후 …… 동 극단원들은 다시 현저정 46의 99 호옥순과 이백란(19)을 역시 전기와 같은 감언이설로 꼬여 김포와 부평, 광주 등지로 역시 지방순회를 하며 일방 여전히 도색행락을 감행하던 중 역시 수입이 좋지 못하자 이백란과 호옥순을 광주 모 주점에 판 후 잔여극단원은 시흥, 의정부 등지로 순회를 계속하며 전기주점에 매각(賣喫)한 양 여배우 몸값을 주선하려 백방으로 주선하다가 여의치 못하고 드디어 지난 1월 중순 서빙고에서 남았던 남녀배우가 뿔뿔이 산지사방하고 단장과 주모 배우만 그간 도망하여 다니다가 죄상이 서서에 알게 되어 유치장 신세가 된 것이라는데 이러한 영터리 도색극단은 비단 전기 왕관좌뿐만 아니라 무슨 극단 무슨 좌 하는 간판만 세우고 여배우를 하여 줌네 하고 꼬여 도색과 사기극을 연출하는 숨은 사실이 적지 않음에 비치어 엄벌하는 동시에 동서에

서는 다른 극단에도 내사의 손을 뻗치기로 되었다.⁴

‘도색 극단’을 만들어 인신매매 행각을 벌이는 극단이 ‘적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봐서는 위 기사에 등장하는 단원들이 극단을 만들고 제대로 된 공연을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하지만 위 기사를 보면 극단을 만들어 순회공연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 인천과 부평에도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적지 않은 극단이 순회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 시달렸던 것을 보면 공연을 볼 만한 관객도 거의 없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대 중국의 시골에서는 여전히 극단원들이 트럭에 나눠 타고 다니며, 현지 유지의 동의를 얻어 공터에 천막을 세우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연 레퍼토리도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공연 수익도 변변치 못하다. 1930년대 후반의 조선에서는 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4. 병참기지 부평, 영화 수난기의 조선

앞서 말했듯이 1930년대 후반 부평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일제는 중국으로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 병참기지를 찾았는데 그 맞춤형 곳이 바로 부평이었다. 전근대 시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던 부평은 그 이후 지금까지 공업 도시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 기지로서 조선을 활용하고자 했던 일제는 인천항을 통해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기로 했다. 경성과 인천 사이 넓은 평야 지대였던 부평은 병기를 비롯한 군수물자의 생산 공장으로서 적합했다. 1938년부터 조국 국산자동차와 홍중상회 등의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부평은 신도시로 급성장했다.

대규모 공업지대가 조성되고 외부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로소 부평에는 극장이 들어섰다. 그 극장이 바로 1943년에 설립된 부평 최초의 상설 극장인 부평 영화극장이다. 드디어 부평의 극장 문화사를 기술할 때,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일

4 「劇團에 숨은 桃色魔窟 西門署 肅清斷行」, 『동아일보』, 1933년 2월 8일자.

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부평영화극장의 설립을 요즘의 극장 건립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극장 검열이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극장 설립을 인가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실제로 이 시기 극장은 전시 총동원 체제의 선전과 동원의 장이었다. 이 시기 상연작과 상영작이 어떤 것이었는지 극장 자체의 기록은 찾기 어렵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시 뉴스 상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기사에서 극장의 용도는 ‘뉴스’와 ‘문화영화’ 상영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화진흥공사(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펴낸 『한국영화자료편람 : 초창기~1976년』을 보면 1940~1945년 사이의 소재목이 ‘수난기’이다. 1940년 「조선영화령」을 공포한 조선 총독부는 1942년이 되자 사실상 영화업계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영화사 10개를 통폐합하여 조선영화주식회사라는 어용 회사를 설립했고, 영화인들은 그 회사에 흡수해 버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유로운 창작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모든 영화는 ‘전쟁 수행을 위한’, ‘국책 영화’로 한정되었다. 부평영화극장은 바로 이런 엄혹한 시기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는데 이는 이 극장의 설립 목적 자체를 짐작케 한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제작된 영화의 제목만 보아도 이 시기 영화 제작의 목적은 전시 총동원 체제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영화 「망루의 결사대(望樓の決死隊)」(1943) 중 한 장면
(출처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1943년 「망루의 결사대(望樓の決死隊)」는 김정정이 감독하고 눈물의 여왕 전옥이 주연한 영화인데 줄거리를 살펴보면 어용 영화가 분명하다. 제작은 고려영화협회와 일본의 영화사 동보이다. 일종의 조일(朝日) 합작 영화라 볼 수 있다.

조만국경인 만포진에는 국경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마적들이 의례히 경비대를 습격해 오곤 한다. 어느 날 밤 마적단의 일원인 중국인 아들이 습격계획을 알아

차리고 만포진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찾아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피하려 하나, 아버지는 피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경비대에 알려준다. 드디어 마적들과 경비대 사이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경비대가 위기에 처했을 무렵 긴급 출동한 일경들이 가세하여 마적들을 전멸시키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⁵

중국은 조선과 일본의 공동의 적이라는 게 이 영화의 주제다. 조선과 일본의 일체 단결만이 국란의 위협으로부터 삶의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 허무맹랑한 설정의 영화가 부평영화극장의 상영작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설 극장에서 최신 프로를 상영했다면 이 영화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이 영화를 어떤 심정으로 관람했는지 궁금하나 당대 관객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

이 해에는 「젊은 모습」이라는 영화도 제작되었다. 이 영화도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일본의 쇼치쿠, 동보 3개사가 합작한 형식상 조일 합작 영화이다. 이 영화는 일본 내의 65개 상영관에서 동시 상영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영화는 조선인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기 위한 국책 영화였다.

1944년에는 조일 합작을 내세워 더욱 노골적인 어용 영화가 세상에 나왔다. 일본 감독과 배우가 내한하여 만든 「너와 나」, 「병정님」, 「사랑의 맹서」 등이 상영되었다. 이 영화들은 모두 ‘내선일체’를 강조했다. 「너와 나」는 조선인 청년과 일본인 처녀의 사랑 이야기에 자발적 창씨개명과 전쟁 참여가 플롯으로 엮였다. 「병정님」은 더욱 노골적인 이야기로 전쟁터에 가는 조선인 아들을 보고 부모가 드디어 제국 신민이 됨을 자랑스러워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랑의 맹서」는 일본인 교사가 조선인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 영화 「사랑의 맹서(愛の誓い)」(1945) 중 한 장면
(출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5 한국영상자료원, 「망루의 결사대(望樓の決死隊)」 줄거리 요약 설명 내용.

다. 일본 풍습을 배우고 익혀 얼른 황국신민이 되자는 게 주요 골자이다.

식민지 말기 조병창으로 조성된 신도시 부평에 들어선 극장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었을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근대적 구경거리로서 극장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영화를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 영화 「너와 나」(1944)
(출처: 『한국영화연감』)



❖ 영화 「병정님(兵隊さん)」(1944) 스태프 일동 사진
(출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5. 최초의 상설 극장 부평영화극장

1930년대 후반의 신문 기사를 보면 경성과 부평에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영화사 초기에 부평은 촬영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인데, 상설 극장의 설립은 1943년에 와서야 이뤄졌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극장은 신규 설립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을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고 지어졌다. 그래서 단순히 요즘 같이 유흥거리의 마련이나 극장 흥행을 목표로 한 극장 같지만은 않다.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군수 기지에 징용되어 왔는데 이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내선일체’를 강화하는 영화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1940년에는 ‘부평역전에 대극장출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仁川】 부평의 공장지대는 날로 발전을 보게되야 일취월장의 발전상이다. 이제 기인구(其人口)는 월평균 칠팔천 명씩 증가하는 비례로 본다면 금년 내에 능히 오만을 돌파할 것도 무난한 사실이다. 이 발전상에 착안(着眼)해야잇는 모재벌(某財閥)에서는 발서(발서) 대규모의 극장을 설계하야 방금 당국에 교섭중이라 한다.⁶

위 기사에 나온 모 재벌의 이름은 아베 타이스케(安部泰輔)다. 날로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라면 상공업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도 양적 팽창을 하게 되는데, 사업가라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물론 시기가 시기인지라 사업의 수완이었는지 당국에 충성을 바치는 행위로서의 극장 설립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⁷

극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필요하지만 당국의 허가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당국과 교섭 중’이라는 기사가 1940년 여름에 났는데 실제로 설립 허가가 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다. 1943년 여름에는 ‘상설극장 부평에도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전 기사에서 부평이 ‘인천’에 포함되어 송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때는 ‘부평’이 기사 앞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사이에 부평이 인천과 구별될 수 있는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췄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6 「부평 역전에 대극장출현」, 『매일신보』, 1940년 6월 22일자.

7 이 점에 대해 김현석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극장을 경영했던 아베는 부평의 대표적 재력가였다. 아베농장을 경영한 지주이면서 부평요업의 대표이기도 했다. 그 밖에 부내면협의회원이나 부평변영화장 등도 맡으면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부평역에서 미쓰비시 공장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기부한 것도 아베였다. 전 시 군수 공업 도시로 급격히 전환돼 가던 부평 한복판에 상설 극장이 허가된 건, 당연히 선전의 목적이 컸을 것이다. 더구나 극장이 개관될 무렵은 이미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가 각각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와 조선영화배급사로 통합되면서 영화 통제 체제가 마무리된 시기였다. 전쟁의 광풍이 끝을 향해 달려가던 시대에 노동자들의 도시였던 부평에 매일 같이 문화영화가 상영됐다. 부평의 극장은 결국 일본이 공급하던 ‘문화’의 전파자로서 연대기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김현석, 「부평을 스쳐간 극장의 시대」, 『작가들』, 2020년 가을호, 213쪽)

【富平】 약진도상에 있는 신흥도시 부평에 그 문화선양을 위하여 상설극장 설치 문제가 오랫동안 숙제로 되어 있던 지난 21일부로서 부평 아베 씨에게 경기도 당국으로부터 극장 설치 인가가 내리고 24일에는 건축허가가 내렸다. 기구는 아베 씨의 독영이며 장소는 부평 소화정(昭和町) 중앙시로 공비는 약 3만원인데 근일간 착공할 것이라 하며 극장명은 부평영화극장(富平映畫劇場)이라 하고 뉴스 문화영화 등을 매일 상영하게 되어 부평 발달 사상에 새 기록을 남기고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개관될 예정이다.⁸

1943년이면 일제가 성전(聖戰)이라는 미명하에 전시 총동원 체제로 들어선 때였다. 부평영화극장이 설립 허가가 났다는 기사 바로 아래에는 ‘목재는 전력증강에’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한다. 개인에게는 목재의 배급을 중단하고 군용 시설, 산업 방면 등 전력 증강에 사용되는 곳에 우선 중점 배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때, 극장 역시 한가하게 극영화를 상영하고 자유롭게 관람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는 없었다.

1944년 여름, ‘수송간담회’라는 제목 아래 짙막한 기사이지만 당시 부평영화극장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지 짐작케 한다.

【부평】 결전 수송의 애로를 타개하고자 부평경찰서에서는 28일 오후 3시부터 관내 각 중요공장의 수뇌자, 운수업자, 우마차 운반 통제 조합 간부 등 참집(參集) 아래 부평영화극장에서 수송간담회를 개최한다.⁹

앞서 서술하였듯이 부평은 일제에 의해 군수 기지로서 활용되었고 전시 기간 내내 군수물자 생산은 물론 수송에도 최일선에 있었다. 따라서 1943년 말에 설립된 부평영화극장이 원래의 목적대로만 사용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영화 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영화감상만을 위한 자율적 공간은 아니었으며 단순히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간이 되기도 어려웠다. 1945년 신년 벽두에 나온 ‘영화극장서 순익금헌납’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자.

8 「상설극장 부평에도 설치」, 『매일신보』, 1943년 7월 27일자.

9 「수송간담회」, 『매일신보』, 1944년 8월 27일자.

[부평] 부평영화극장(富平映畫劇場)에서는 선달 그림날과 정월 초하룻날 수입에서 순익금 3백원을 육해군O병금으로 바쳐달라고 2일 본보 부평지국에 현금 기탁하였다.¹⁰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영화관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40년 쌀 80kg 1가마의 가격이 22.68원으로 현재 가치로 15만 2,347원에 해당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틀 치 순익금은 현재 가치로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그렇다면 하루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순익금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으로 당시 부평영화극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부평영화극장은 부평 최초의 상설 극장이라는 점, 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극장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지만 상술했듯이 전시 동원 체제의 전시장이 되었다는 한계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

6. 해방 이후 부평영화극장에서 부평극장으로

해방 이후에도 부평영화극장은 그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영업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의미로 여러 회사와 단체의 광고가 신문에 실렸는데, 그중에는 부평영화극장도 있었다. 관주(館主)의 이름에는 설립자 아베 타이스케가 아니라 임양성(任梁成)이 들어가 있다.¹¹

김현석은 이에 대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실치 않다고 썼는데 ‘부평의 유일한 극장’이라는 표현에서 두 극장 사이의 연속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² 부평영화극장이 해방 이후 다른 용도의 건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또한 부평영화극장을 두고 다른 극장을 새로 지었다는 기록도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확실한 연결고리가 나타나

¹⁰ 『영화극장서 순익금헌납』, 『매일신보』, 1945년 1월 5일자 “육해군O병금”에서 O는 글자를 판독할 수 없고, ‘병’은 ‘별’의 오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해군전별금”으로 읽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¹¹ 『대한일보』, 1948년 8월 18일자.

¹² 김현석, 「부평을 스쳐간 극장의 시대」, 『작가들』, 2020년 가을호, 213쪽.

지는 않으나 여러 상황을 유추해 볼 때, 부평영화극장을 조선인 임양성이 인수해서 운영하지 않았나 싶다.

해방 직후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산업 현장에 쓰일 전력이 우선 배당되고 극장과 같은 여흥 시설에는 전력 공급을 중단할 때가 있었는데, 부평극장이 이에 해당하였다. 1948년의 정부수립 축하 광고에 등장하는 극장명은 부평영화극장이었는데, 전력 공급 중단 기사에서는 부평극장으로 되어 있다. 이게 단순히 오기인지 아니면 극장 개명을 알려주는 것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부평] 당국의 지시로 특별 송전을 정지하게 되어 부평의 유일한 부평극장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 생산면의 전력사정으로 보아 정지한다고 하나 한편 영화의 국민 교화적 사명으로 볼 때 또한 더욱 중요한 바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특별 배전을 계속하여 주기를 일반은 바란다 고 한다.¹³

영화라는 매체가 ‘국민 교화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흥미롭다. 전력 사정을 봐서는 영화관에 전력을 끊는 것이 피치 못할 일이라고 보면서도, 특별히 즐길 것들이 없는 해방 직후의 풍경 속에서 특별 배전을 해 주길 바라는 일반의 바람도 이해할 만하다. 영화를 즐기기에 시절이 엄혹했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극장이 극장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가 먼저라는 상식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엮힌 데 덮친 격이랄까. 1949년 9월에는 전국 각지에 ‘유행성 하기 뇌염’이 발생하여 서울에서만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동 기사는 뇌염이 모기에 의해서 발생하여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으며 학교는 휴교, 극장은 휴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仁川發=고려] 지난 5일 부평에서 네 명의 뇌병 환자가 발생하여 한 명이 사망하였다 함은 기보하였거니와 6일에는 다시 인천 구(舊) 시내에 침입하여 송림동에서 1명, 문학동에서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6일 경기도 경찰국 발표에 의하면 뇌염은 관내 11

¹³ 「특별배전중지로 부평극장 폐문」, 『동아일보』, 1949년 3월 5일자.

개 경찰서 관내에 만연되어 6일 하오 5시 현재로 발병자 273명 중 103명이 벌써 사망되었다고 하며 방역에 종사하다가 순직한 경찰관도 포천, 연안 경찰서에 각 1명씩 있다 한다.¹⁴

코로나19로 극장이 텅 빈 현재의 상황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옛 기사다. 전력 공급이 어렵고 질병과 같은 재난 때문에 극장업을 제대로 못해서일까. 1950년 2월 24일 연합신문 4면에는 인천에 다액 체납자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는 부평극장도 포함되어 있다. 앞선 1949년 3월 5일자 신문 기사에서 부평영화극장이 아니라 부평극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듯이 여기에도 부평극장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1949년에 들어서 부평영화극장은 부평극장으로 개명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당시 부평극장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98만 2,804원이다. 극장 운영이 대단히 힘들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 부평극장에서 어떤 공연이 상연되고, 어떤 영화가 상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만 1953년 연말과 1954년 연초의 상연 기록이 『조선일보』 연예란에 실려 있다.

연극 「P맨」 1953년 12월 22일부터

약극 「물결의 우는 새」 1954년 1월 8일부터

사극 「미륵왕자」 1954년 13일부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부평영화극장’ 시절도 ‘영화’를 붙여 놓기는 했으나 영화 상영 외의 용도로 극장을 사용했듯이 ‘부평극장’ 시절에도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을 상연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작품 제목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아쉽다. 유추해 보건대 공연 기간이 대략 1주일에서 보름 정도이고, 다른 지역 극장에서 다른 시기에도 상연된 것으로 보아 순회 극단의 레퍼토리가 아니었나 싶다. 이 시절 극장이란 공

14 「경찰 이명도 순직」, 『동아일보』, 1949년 9월 9일자.

간은 “쇼도 보고 영화도 보는” 곳이었다.

1955년 6월에는 당시 극장의 풍경을 짐작케 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제목이 「위생시설이 불비, 부평극장에 물의」다.

[부평] 당지 주민의 유일한 오락기관인 부평극장은 위생시설 불완비로 시민의 비난이 높아가고 있는데 동극장은 변소의 악취와 매점 시설의 불비 등으로 하기 위생에 적신호를 울리고 있는 것이라 한다.¹⁵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들어서기 이전 전국 어느 극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다. 소설가 안정효는 장편소설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에서 6.25 직후 극장 사정을 이렇게 기술했다.

“나는 거의 날마다 만원 사례로 미터지는 2분 동시 상영 통통 극장에 가서는,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에서 한여름 물결물결 풍겨나오는 지린내를 맡으며, 무릎이 저릴 정도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속옷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로,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종아리에 쥐가 날 때까지 발돋움을 하고 선 채로, 무수한 영화를 보면서 하루 하루의 인생을 꿈처럼 살았다. 기립 자세로 우리들은 날이면 날마다 꿈을 꾸는 것이다.”¹⁶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극장이란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으로 여겨지곤 했다. 상영되는 영화는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연관의 상태, 특히 그곳의 냄새는 ‘지린내’로 기억난다. 의자는 또 얼마나 더러웠던가. 극장은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던 동네 깡패들의 집결지이기도 했다. 문제는, 극장 시설이 지금에 비해 턱없이 낙후되었다는 사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러 사람들이 극장에 갔다는 것이다. 안정효가 자세히 묘사해 놓았듯이 그것은 문화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던 시절, 영화관만이 바다 건너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보여주었기

15 「위생시설이 불비, 부평극장에 물의」, 『경향신문』, 1955년 6월 26일자.

16 안정효,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민족과문화사, 1992, 84-85쪽.

때문이다. 저개발 빈곤국의 황량한 풍경을 매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장 안에 들어와서 지린내에도 스스로 코를 막고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이다. 극장의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지린내’보다는 화면 속 인물이나 사건에 더 심취하지 않을까 싶다.

이 당시 극장은 쇼도 보고 영화도 보는 곳이었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었다. 다중 집합 시설로서 극장은 지역의 큰 행사를 치르는 곳이기도 했다. 1956년에는 ‘대한참전전우회’의 부평지부 결성식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온다.

[부평] 대한참전전우회 부평 특별지부가 지난 11일 상오 10시 부평극장에서 내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었는데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박봉진, 부지부장 하병길 이강원¹⁷

이런 단체의 집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 유세장으로 쓰기도 했던 만큼 이 당시 극장은 많은 사람을 실내에 수용하여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이기도 했다.

7. 극장 간판 그리던 서양화가 이득찬

1990년대 중반까지 극장 간판은 극장의 개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다. 미국 영화 배우의 얼굴을 실물과 너무 다르게 그려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한 극장 화가가 있기도 했지만 1960년대 부평극장의 화가 이득찬은 요즘 말로 치면 ‘아티스트’였다. 그는 국전에 두 번이나 입상한 서양화가였다. 그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두 건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17 大韓參戰戰友會(대한참전전우회) 迎日郡支部結成(영일군지부결성), 『조선일보』, 1956년 3월 16일자.

관록 지닌 노장
영화예술에도 참여
문교부장관상 이득찬 씨

내각수반상 이득찬 씨=“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그림을 그려보려 했다”고 말하는 이득찬(48=인천시 부평동 45) 씨는 평양 출신, 일본 신전(神田) 창평(昌平) 중학을 졸업, 1.4후퇴 때 월남, 공색한 살림으로 화필을 던진 적도 있었으나 이번 내각수반상을 받은 ‘고깃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밖에도 62년도에 출품한 ‘초설’이 문교부장관상, 그전에도 ‘박노인’ 등을 출품, 입선한 예가 있다. 삼남의 아버지인 이씨는 한국예술영화사와 부평극장 등에 8년 동안 근속했다.¹⁸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1962년과 1963년 연거푸 국전에서 큰 상을 받는다. 그가 미술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호구지척이 영화미술과 극장 간판 그리기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지금이라면 영화제작사에 속한 영화미술가와 극장에 속한 극장 간판 화가의 거리가 상당히 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경제적으로 곤궁하던 시기인 만큼 무엇 하나 가릴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8년간 근속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는 같은 사건과 인물을 다루고 있는 다른 기사를 살펴보자.

가시밭길 헤치고
한때는 극장선전판 그리기도

‘배를 기다리는 여인들’이라는 유화로, 서양화 부의 1등 작품으로 뽑히고, 제12회 국전의 제3등 입상인 내각수반상을 차지한 이득찬(48) 씨는 나이에 비해서 늦게서 국전무대에 ‘데뷔’한 새 얼굴이다. 그는 작년 11회 국전 때 서양화 부의 문교부장관상을 획득하면서부터 별안간 그의 존재를 알렸었다. 그는 인천시 부평동 451에 주소를 두고 부평극장에서

18 「국전 16일 개막, 공예부문에 처음 최고의 명예, 飛鷹紋文機」, 『동아일보』, 1963년 10월 12일자.

선전그림으로 생계를 이어오는 등 매우 험난한 길을 걸어온 화가였다. 그러나 그는 일제 때 동경의 태평양미술학교를 졸업했고 최근에는 서울의 한국예술영화사 소속으로 영화미술에 손을 대고 있다.¹⁹

국전 입상 두 차례의 부평극장 간판 화가 이득찬. 그는 그 이후 부평을 떠나 부산으로 가는데, 이후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부평의 미술사를 기술할 때, 빼놓지 말고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그의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다.

제3절 | 부평의 대표 극장들 : 부평, 금성, 백마, 대한

1. 부평극장 (1943~2000년대 초)

영화진흥공사(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펴낸 『한국영화자료편람 : 초창기~1976년』을 보면 ‘전국공연장(극장) 일람표’가 나온다. 여기에는 극장명, 극장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허가 연월일, 상영 구분, 공연물 종류 등의 항목이 기입되어 있다. 이때 인천은 아직 독립된 도시로 다뤄지지 않고 경기도에 속해 있다. 인천에는 모두 15개의 극장이 있는데, 부평에는 4개의 극장이 소개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구와 동구에는 개봉관이 있는데 비해 부평의 4개 극장은 전부 재상영관이라는 점이다. 또한 서울이나 부산의 극장이 ‘영화와 연극’을 함께 ‘공연물 종류’로 기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인천의 극장은 전부 ‘영화’만을 ‘공연물 종류’로 적어놓고 있다.

부평의 4개 극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먼저 목록에 올라 있는 극장은 부평극장이다. 소재지는 인천시 북구 부평동 229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소경무로 나와 있다. 좌석수는 좌석과 입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부평극장의 경우 좌석이

776개, 입석이 53개로 합쳐서 829석이다. 이는 부평극장이 중구 신흥동의 자유극장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진 극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허가 연월일은 1956년 3월 30일로 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상영 구분은 재상영관이고, 공연물 종류는 영화다. 부평극장에 관한 최초의 신문 기사는 1940년 6월 22일 『매일신보』에 나온다. 극장 설립을 위해 당국과 교섭 중이라는 기사다. 부평극장의 폐관 시기는 2000년대 초로 추정된다. 1999년까지 부평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한겨레』에 실렸기 때문이다. 지금 부평 로데오거리라 불리는 곳에 부평극장은 그렇게 50여 년 넘게 있다가 사라졌다. 이것이 멀티플렉스 극장의 등장 때문인지 아니면 지대 상승으로 인한 건물 처분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설에 의하면 부평극장의 극장주가 주변의 건물들도 사들인 건물주였고, 나중에 이민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도)

구분	극장명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허가 연월일	상영 구분	공연물 종류	
				좌석	입석				
1	이화극장	인천시 중구 영종동 228	이화	408	30	1949. 10. 27	재상영	영화	
2	중앙극장	경기도 고양시 14	조영준	314	3	1957. 4. 25	*	*	
3	민정극장	인천시 남동구 28	이금서	388	58	1950. 9. 27	재상영	*	
4	자유극장	중구 신흥동 13	안익준	813	38	1953. 8. 18	재상영	*	
5	조선극장	중구 신흥동 52	조용성	452		1951. 11. 27	재상영	*	
6	이화극장	중구 신흥동 30	조용성	336	113	1951. 10. 15	재상영	*	
7	문화극장	중구 동 20	김영준	438		1951. 10. 15	*	*	
8	현대극장	성원동 103	송금성	637		1951. 10. 14	*	*	
9	국민극장	남구 중서동 124	김경서	532	90	1950. 9. 18	재상영	*	
10	경인극장	* * 120	조영준	418		1951. 6. 18	재상영	*	
11	한동극장	중원동 471	송경준	672		1951. 8. 18	*	*	
12	부평극장	북구 부평동 229	소경무	776	53	1956. 3. 30	*	*	
13	관성극장	인천시 북구 부평동 262	김희호	488		1951. 8. 20	*	*	
14	백마극장	* * 120	이영준	358		*	*	*	
15	백마극장	성원동 347	김영준	452	22	1951. 11. 18	*	*	
16	중앙극장	수원시 팔달동 25	조영준	753		1951. 7. 5	*	*	
17	중앙극장	* * 24	송경준	1,382		1,382	1951. 1. 25	*	*
18	부평극장	북구 128	김희호	488	155	1951. 8. 1	*	*	
19	이화극장	인천시 중구 27	김희호	408		1951. 8. 0	*	*	

❖ 전국 공연장 현황(경기도 소재 공연장) (출처 :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 초창기~1976년』, 1977)

19 「首班賞 이득찬씨, 가시밭길 헤치고」, 『경향신문』, 1963년 10월 12일자.



❖ 부평극장(출처: 국가기록원)

부평극장의 폐관 이후 같은 자리에 보아프라자라는 복합 테마 상가가 들어선다는 기사를 『매일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분양에 차질이 생겨서 현재는 스타빠루뚜로 리모델링되어 재분양되었다고 한다. 네이버에서 부평극장을 검색하면 이제는 스타빠루뚜 빌딩이 나오고 극장명 앞에는 (구)가 붙는다. 이 글의 서두에서 고 박광정 씨가 「미션」을 본 극장이 바로 부평극장이다. 이제는 스크린에서 빛나던 배우들도 다 늙어버리고, 영화관은 사라지고,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청년도 세상을 떠났다 생각하니 극장이란 삶의 덧없음을 가르쳐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2. 금성극장 (1963~1996)

다음으로 나오는 극장은 금성극장이다. 소재지는 인천시 북구 부평동 362. 대표자는 김진호, 좌석은 입석 없이 490석이다. 1960년 8월 20일에 허가를 받았고, 역시 재상영관이면서 영화 전용 극장이다. 1962년의 신문 기사를 보면 금성극장에 관한 언급이 짧게 나온다. 이는 신문에서 금성극장을 다룬 최초의 기사다.

한미친선 강연회

[인천] 16일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금성극장에서는 시내 각 동장급 이상의 기관장 등 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친선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강연회 연사에는 박 경기지사, 차 경찰국장, 재건국민운동본부 경기지부 차장 등 3명이 있었다.²⁰



❖ 금성극장(출처: 국가기록원)

490석이 정원인 극장에 900여 명이 모였다니 인산인해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한미 관계에 있어 부평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리라.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에서 한미 친선은 강연회를 열어서 강조할 만큼 중요했을 텐데, 이는 연사의 면면을 보면 확인된다. 궁금증은 더 큰 부평극장을 놔두고 왜 금성극장에서 이 행사를 열었는가 하는 점인데 아마도 829석의 부평극장에서 행사를 열 때, 자리가 비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앞서도 서술했듯이 1990년대 이전 극장은 이렇게 공공 행사의 장이기도 했다.

²⁰ 「한미친선 강연회」, 『경향신문』, 1962년 6월 17일자.

금성극장의 폐관 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신문 전단광고에서 1996년 2월까지 금성극장에서 상영하는 광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후로 봄이 타당하다. 부평극장과는 도보 5분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던 금성극장은 경쟁하는 극장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극장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부평극장이 「아마데우스」를 상영할 때, 금성극장은 「어우동」을 상영하는 식으로 영화 팬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능을 했으리라(두 작품은 1986년 서울 개봉관 외국 영화, 한국 영화 각 부문 흥행 1위 작품이다. 이때까지는 지방 극장의 관객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제 금성극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월드프라자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금성극장의 상영작이 담긴 간판의 이미지 몇 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작품의 면면이 꽤나 흥미롭다.²¹

1969년 박찬 감독의 다큐멘터리 「노래하는 박람회」는 당대의 톱스타 구봉서가 출연하여 노래와 춤을 선사하는데 쇼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산업박람회를 소개하는 데 더 비중을 두었다. 말하자면 극장식 쇼를 필름으로 찍어 상영을 하면서 관의 행사인 산업박람회를 소개하는 방식인데 오늘날 정부 기관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이문열의 장편소설 『사람의 아들』을 한국 예술영화의 거목인 유현목 감독이 영화화한 동명의 작품은 1980년에 제작되어 그 이듬해 극장에 걸렸는데 부평의 금성극장에서도 상영되었다. 나중에 예술영화 전용관인 루미에르 극장의 주인이 되는 하명중 씨가 고뇌하는 청년 민요섭 역을 맞아 열연했는데, 이토록 형이상학적인 진지한 탐구를 보여주는 영화를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는 요즘, “철저한 인간 방황, 좌절, 죽음”을 카피로 새겨 넣은 포스터를 보며 남다른 감회에 젖게 된다. 이 영화 포스터에는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이문열 원작의 문제작’이라는 문구도 삽입되어 있는데, 오늘날 포스터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또한 이 영화에는 텔레비전에서 활약하느라 거의 영화에는 출연하지 못했던 최불암 씨가 극중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남 경사로 열연했다.

시간을 쫓겨 뛰어넘어 1993년에는 사진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고 극장 포스터에

21 인천의 옛 극장을 포스팅 하는 ‘애관 보는 것을 사랑한다’ 블로그(<https://blog.naver.com/ykhp/220931210789>)의 ‘금성극장(1960~1996)’ 포스트를 참고하였다.

는 「황비홍3 - 사왕쟁패」라는 제목과 이연걸의 얼굴이 뚜렷하다. 이 당시는 홍콩 영화가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거둬들 때였고, 그중에서도 서극 감독의 액션 영화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특히 황비홍 시리즈는 외세의 위협 속에 중국의 무예로서 나라를 지키려 한다는 주제가 우리에게도 보편성을 띠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 테크닉 면에서도 당시 홍콩 영화는 한국 영화를 멀찌감치 앞서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유명한 ‘사자탈 신’은 두고두고 봐도 명장면이라 할 만하다. 실제로 이 영화를 당시에 관람한 필자는 한국 영화는 언제 이 수준에 도달하나 탄식을 했는데, 이후 홍콩 영화는 하락세로 들어섰고, 한국 영화는 이른바 르네상스기를 맞이하여 상승기를 맞이하게 된다.

3. 백마극장(1963~1991)



◆ 백마극장(출처 : 국가기록원)

세 번째로 언급된 극장은 백마극장이다. 소재지는 인천시 북구 산곡동 87이다. 극장 대표자는 이장유, 좌석 수는 입석 없이 좌석만 365석이다. 원래는 1950년대 후반 산곡시장 안에 서부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했었는데 1963년 백마극장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라 한다. 『한국영화연감』에는 백마극장의 허가 연월일이 나오지 않는데, 부평역사 박물관에서 펴낸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에는 1963년 10월 21일로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 있다. 허가일로부터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26일 백마극장은 준공하였고, 1991년 폐관할 때까지 산곡동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백마극장에 관한 서술은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에 가장 자세히 나타나 있다.

백마극장은 1991년 폐업을 하고 1992년부터는 극장 1층 공간을 터서 임대를 주어 1층의 원형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극장 2층의 모습이나 1층의 과거 출입문, 영화 간판 등은 예전 영화관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과거 1층에는 매표소 및 휴게소, 현관, 좌우 복도, 객석, 무대, 화장실과 창고, 변전실 등으로 공간 구성이 이루어졌고, 2층은 좌우 복도와 객석, 영사실로 꾸몄다. 1층 면적은 531㎡, 2층은 171.96㎡이고, 극장 총 좌석은 352석이다. 영화 간판은 한 사람이 그리며, 영사실은 5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였다.²²

총 좌석 수는 아마도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좌석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변동이 생긴 모양이다. 현재도 백마극장은 극장 간판이라든가 원형의 일부를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장 운영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어서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²³

김현석은 백마극장이 들어선 장소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는데, 이는 부평의 극장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서 길더라도 인용할 필요가 있다.

22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110쪽.

23 백마극장 대표 김명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연장 설치허가증(북구청장, 1990.2.5.)」, 「남녀화장실 철거 및 화장실수리로 인한 극장 휴관신고서(북부 소방서장)」, 「건축허가준공확인원(인천시장, 1978.5.19.)」, 「건축허가준공확인원(인천직할시장, 1986.3.26.)」, 「사업자등록증(동인천세무서장, 1979.2.28.)」. 흥미롭게도 당시 극장 점검 결과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심야 영화 상영 근절, 재떨이 교체 및 종업원 명부, 화장실 수리 및 도색, 매점 가격 표시 미비, 장내 흡연자 단속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인천 지역 극장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짐작할 만한 자료다(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111쪽).

백마극장이 들어선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평역 인근이 아니라 소위 ‘산곡동 영단주택단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아직 경인고속도로나 부평공단이 건설되기 이전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영단주택단지는 신촌이나 삼릉과 더불어 대표적인 기지촌 중 한 곳이었다. 흔히 백마장이라고 부르던 이곳에 극장이 들어선 건, 당시 부평에서 차지하는 기지촌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기지는 1973년 무렵부터 해체를 시작한다. 기지가 축소되고 군인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갔다. 그것과 맞물려 1966년 부평수출산업공단이 기공식을 개최했고, 196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이 개통됐다. 부평의 성장 동력이 기지촌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시장의 주요 고객도 공단 노동자들로 채워지던 시점이다. 그러한 때를 전후해 대한극장과 금성극장이 개관하며 이들을 점차 흡수해 갔다. 1990년대에 기록된 두 극장의 등록 연도는 각각 1973년과 1976년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 첫 개관 연도는 이보다 훨씬 앞선 1960년대다.²⁴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군사 도시 부평이 공업 도시 부평으로 면모가 바뀌면서 시장의 주요 고객도 공장 노동자들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에게 값싼 오락거리로서 영화 관람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이후 1980년대 백마극장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백마극장 대표 김명수 씨의 증언을 보자. 그는 1984년부터 백마극장을 경영했다.

“극장을 그만두게 된 것은 1980년대에는 미성년자관람불가인 선정적인 영화가 판을 치는 시기였는데 극장관람을 저지당한 불량청소년들로부터 아들(고등학생)이 폭력을 당하면서 아예 극장 문을 닫았다. 그런데 김 씨는 극장 사업은 겉모습은 그럴 듯하나 실제 수익이 많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하였다.

김 씨는 극장에서 영화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공연도 한 달에 한 번꼴로 하였다. 당시의 연예인으로는 이미 고인이 된 서영춘, 장소팔과 고춘자, 허장강 등인데, 산곡동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공연 시간은 당시 통행금지 시간이 적용되는 시기인지라 11

24 김현석, 「부평을 스쳐간 극장의 시대」, 『작가들』, 2020년 가을호, 215쪽.

시 30분 이전에 마쳤다. 그러나 공연 수익도 떨어지면서 6개월에 한 번꼴로 하였다.²⁵

1980년대 백마극장에서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었고 어떤 쇼들이 펼쳐졌는지 위의 글을 보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하다. 백마극장은 욕망이 들끓다 못해 폭력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했지만 왕년의 연예인이 펼치는 쇼도 보는 산곡동 주민들의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는 장소였다. 재밌는 것은 극장식 쇼의 인기가 날로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컬러텔레비전의 등장 이후 왕년의 흑백텔레비전의 연예인들의 쇼가 구식이 되어버렸음을 암시한다. 1990년대 이후 극장식 쇼가 사라진 데에는 텔레비전 버라이어티 쇼의 재미가 훨씬 커진 것과 더불어 야간 업소에서 연예인 출연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금성극장과 마찬가지로 백마극장에서는 어떤 영화가 상영되었는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아쉬운 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1992년 「유리벽 속의 두 연인」과 1994년 「갯어웨이」가 상영되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1992년 가을에 상영된 「유리벽 속의 두 연인」은 감독이 정인철인데, 주연도 역시 정인철이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데 줄거리가 요상하다. 앞으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영화는 핏진성²⁶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방향으로 전진한다. 다만 남녀상열지사를 눈요깃거리로 만드는 데 감독의 관심사가 쏠려있는데 이후 감독이자 주연인 정인철 씨가 에로영화 쪽으로 간 것이 참으로 그럴 듯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갯어웨이」는 할리우드 영화다. 1994년에 로저 도널드슨이 연출하고 알렉 볼드윈과 킴 베이싱어가 주연한 작품은 1972년에 샘 페킨파 감독이 연출하고 스티브 맥퀸이 주연한 동명 영화의 리메이크 작이다. 이 영화는 이후에도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상당히 흥미로운 줄거리를 갖고 있다. 끝이 없는 추적과 도주, 배신과 음모가 펼쳐지는 가운데 시원한 총격전은 덤이다. 오락영화로서 지금도 평점이 대단히 높은 영화라 1994년에도 상당한 관객을 모았으리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이 영화를 그 당시에 보았는데 액션, 서스펜스, 스릴러를 두루 갖춘 영화여서 대단히 만족했던 기억이 있다.

25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111쪽.

26 작품에서 텍스트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개연성이 있는, 즉 그럴듯하고 있음직한 이야기로 독자에게 납득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2020년 기준 백마극장 주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부평구청의 포토 갤러리를 들어가 보면 된다.²⁷

4. 대한극장 (1963년~현재)



❖ 대한극장(출처: 국가기록원)

『한국영화연감』에서 대한극장은 부평의 네 극장 중 가장 나중에 소개되어 있다. 주소지는 인천시 북구 부평동 347. 대표자는 김운봉이고, 좌석 수는 입석 22석을 포함해 총 484석이다. 극장 허가 연월일이 1963년 11월 16일이고, 역시 부평의 다른 극장과 마찬가지로 재상영관이다.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부평 영화관’을 검색하면 CGV 부평, 롯데시네마 부평과 더불어 대한극장이 나온다. 그렇다. 앞의 세 극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한극장은 아직도 자기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동인천의 애관극장이나 미림극장과 더불어 부평의 대한극장은 인천의 극장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극장이라 할 만하다. 대한극장에

27 인천광역시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sub/photo.jsp>).

관한 김현석의 언급을 살펴보자.

대한극장 역시 다다구미라고 부르는 기지촌 맞은편에 위치했다. 신촌이나 삼릉과도 연결된 장소였다. 부평역에 화물열차가 들어오던 시절인데다가 주변에 연탄공장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고, 역 광장에 사람들이 붐비던 때라 다소 어수선한 환경이었지만,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았다. 그러한 분위기가 골목길에 있던 부평극장이나 금성극장과 대비되는 지점이었다.²⁸

대로(大路)에 위치했다는 점, 그것이 대한극장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 아니었나 싶다. 대한극장은 멀티플렉스 등장 이전의 지역 극장이 어떠했는가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일종의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극장이다. 매표소와 매점의 모습부터 극장 복도의 대기석까지 그 형태면에서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의 병석이가 거닐고 있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 어떤 이가 27년 만에 부평 대한극장을 찾았는데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썼다.²⁹ 10년은 고사하고 몇 해만 지나도 건물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는 세태에 비춰 보자면 이처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은 고맙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르면 “3대에 걸쳐 운영하는 곳이라 그런지 일반 대형 영화관보다 관리가 훨씬 철저”하다고 하는데, 필자의 관심은 극장의 청결도보다는 이벤트에 있었다. 이는 작은 지역 극장이 지역민과 밀착해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부평 대한극장에서는 ‘시네마 이벤트’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가능한데 프리포즈를 하거나 자신이 만든 작은 영화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상영하는 데 좋을 듯하다. 3~5분 정도의 짧은 영상부터 1~2시간의 영상까지 가능하다. 프리포즈를 1~2시간 하지는 않을 테니 본 영화 뒤에 붙여서 프리포즈를 할 때는 3~5분 정도가 적당하고, 자기 영화를 친구들에게 상영할 때는 1~2시간이 알맞지 않

을까 싶다. 그리고 영화 팬이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이벤트가 두 개 더 있는데 영화 상영 후, 영화를 배경으로 인증 샷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요, 상영이 끝난 영화의 포스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둘이다.

대한극장은 현재 두 개의 상영관을 갖고 있다. 최대 여섯 편의 영화를 교차 상영한다고 하는데 부평역사 근처 대한빌딩 3층과 4층 두 개 층에 한 개씩의 상영관을 갖고 있으며 각 관은 202명을 수용할 수 있다. 큰 극장은 아니지만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으로서 유용한 쓰임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데 최근 극장 현황을 살펴보니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모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고객과 소통하며 운영하는 극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극장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짐작해 본다. 마지막 공지 사항이 2020년 5월 27일자인데 다른 분과 2미터 이상 떨어져 앉아 주세요”,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다.

부평 대한극장의 상영작은 상당히 다양하다. 매우 대중적인 할리우드 영화, 한국 대중영화를 비롯하여 유럽 예술영화도 있고 한국 독립 장편영화도 있다. 객석 수가 적은 만큼 많은 영화를 교차 상영하여 다양한 취향의 관객을 만족시키면 앞으로도 통련하는 부평의 극장이 되지 않을까 한다.

최근 상영작 중에서 특기할 만한 작품을 고르자면 「어른이 되면」(한국, 2018), 「1991, 봄」(한국, 2018), 「미쓰백」(한국, 2018), 그리고 「보디가드」(미국, 1992)이다.

현재 정의당 국회의원인 장혜영 씨가 연출한 「어른이 되면」은 시설에 사는 장애인 동생 혜정을 데려와 같이 사는 감독 본인의 이야기를 찍은 다큐멘터리다. 이 작품의 제목은 「어른이 되면」이지만 더 가슴이 뭉클한 질문은 “우린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이다. 이 영화의 대한민국 총 관객 수는 4,871명이었다. 그러니 상영관은 얼마나 적었을까. 이런 소수를 위한 영화도 상영한다는 점에서 부평 대한극장은 작은 극장으로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

「1991, 봄」 역시 다큐멘터리 영화다.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24년 후에야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은 암 환자다. “야만의 시대, 결백은 사치였다”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에는 늙고 병든 강기훈 씨의 얼굴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그의 손목

28 김현석, 「부평을 스쳐간 극장의 시대」, 『작가들』, 2020년 가을호, 216쪽.

29 장문석, 「인천 부평 놀거리 56년 역사 대한극장」, 2018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incheontogi/221229598957>).

에 채워진 수갑이 보인다. 이 영화의 총 관객 수는 5,703명. 역시 소수만이 감상한 영화다.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작품을 동네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데서 역시 부평 대한극장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미쓰백」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아동 학대를 다룬 독립영화다. 그해의 독립 영화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 작품은 제작비 16억 5,000만 원에 월드 박스오피스 수입이 약 60억 원이다. 좋은 영화를 만들어 이익도 본 셈이다. 한지민 씨는 이 영화를 통해서 비로소 예쁘고 귀여운 배우가 아니라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로 인정받는다.

「보디가드」는 1992년 작품으로 백인 경호원과 흑인 여가수의 일과 사랑을 소재로 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최근 이렇게 재개봉을 하는 영화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시사적이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영화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기에는 ‘아우라’가 없다는 것, 또 명작은 다시 극장에서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부평 대한극장이 이렇게 추억의 영화를 재개봉할 때 적절한 규모를 갖고 있지 않나 싶다.

부평 대한극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부기한다. 이 극장은 2014년에 제작되어 2015년 여름에 개봉된 「오늘영화」라는 작품에 등장한다. 세 명의 감독이 만든 단편영화를 붙여 놓은 유니버스 영화인 「오늘영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흑역사가 아니라) ‘백역사’는 윤성호 감독이 연출했는데, 이 작품에 부평 대한극장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온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찾아서 약속대로 영화를 보려고 하는 그 극장이 바로 부평 대한극장이다. 아마도 멀티플렉스와 다른 오래된 매표소의 생김새가 감독에게 이 극장을 촬영장소로 선택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부평 대한극장의 역사에 흥미가 생긴 외국인이 영화를 보고자 했는데 영어 자막이 없어서 보기 어려웠다는 글이 있었다. 당장 상영하는 모든 한국 영화에 영어 자막을 붙일 수는 없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극장 운영진은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 극장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 제4절 | 멀티플렉스의 등장

서기 연도의 앞 숫자가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부평의 극장 문화도 멀티플렉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김현석은 이러한 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단관 극장의 쇠락은 멀티플렉스의 확산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부평시장의 쇠퇴나 공단의 변화와도 연결돼 있다. 시장은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을 즐기는 터전이었다. 제조업 공장이 사라지면서 극장 관객의 한 축을 이루던 공단 노동자들도 사라졌다. 1990년대 비디오 대여점이 전성기를 누리며 소규모 극장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이제 영화는 멀티플렉스와 인터넷이 잠식하는 시대가 됐다.³⁰

위와 같은 해석에 필자는 몇 가지 질문을 덧붙이고 싶다. 경제 수준의 향상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단관 극장의 낙후성을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좀 더 쾌적하게 영화를 관람하려는 관객을 위해 기존의 단관 극장들은 적시에 설비 투자를 했던가. 홈시어터의 성능이 날로 향상되는 시대에 영화관이라면 화질과 음질이 최상의 상태로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단관 극장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였나.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단관 극장이 멀티플렉스에 밀려 사라져 간 현실이 아쉽지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필자는 멀티플렉스와 인터넷이 잠식하는 영화 시장에 이제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관련 법규를 만들어 더 늦기 전에 독과점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한국 영화 보호를 위한 스크린쿼터는 이제 대기업이 제작하고 배급하는 영화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데 더 이바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의 상영관 수가 10개면 뭐하겠는가. 이 중 8개를 자사 제작 영화에 할애하고 나머지 두 개 관에서만 다른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와 같은 독점 상영을 막기 위해 멀티플렉스 내에서 일정 수 이상의 상영관이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 천만 관객이 드는 세 편의 영화를 관객들이 일률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백만 관객이 드는 30편의 영화

30 김현석, 「부평을 스쳐간 극장의 시대」, 『작가들』, 2020년 가을호, 216쪽.

를 다양하게 감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평에서 가장 먼저 멀티플렉스의 문을 연 극장은 키넥스다. 부평역사 쇼핑몰이 2000년 2월에 개장했고, 키넥스는 그 안에 9월 개관했다. 이후 7년 2개월간 운영되던 키넥스는 2007년 11월 「세븐 데이즈」 상영을 끝으로 폐관했다. 같은 자리에 롯데시네마 부평역사점이 리모델링을 거쳐 그 이듬해 9월 4일 개관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16 부평역 7층. 총 9개 상영관이 있고, 총 좌석 수는 1,290개다.

2003년 5월 2일에는 네오씨네플렉스 극장이 청천동에 문을 연다. 예전에는 공장 부지였던 곳에 아이즈빌 아울렛이라는 쇼핑몰이 들어서고, 그 안에 부평의 두 번째 멀티플렉스 극장이 개관한 것이다. 이 극장은 다음 해인 2004년 6월 19일에 CGV 부평으로 재개관한다. CGV 부평은 현재 화질과 음질 면에서 인천에서 가장 뛰어난 극장으로 손꼽힌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89 아이즈빌 아울렛. 총 10개 상영관이 있고, 좌석은 총 1,552석이다. 롯데시네마 부평점은 2006년 3월 1일 개관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66 다운타운일레븐 6~10층. 전체 상영관은 9개, 좌석은 총 1,523석이다.

현재 ‘부평’과 ‘영화관’을 검색하면 CGV 부평점과 롯데시네마 부평점, 롯데시네마 부평역사점 이렇게 세 곳의 멀티플렉스가 가장 먼저 뜨고 그다음에 부평 대한극장이 따라온다.

멀티플렉스 극장만 놓고 본다면 세 극장이 모두 쇼핑몰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관 극장 시대의 영화 관람 문화와 멀티플렉스 시대의 그것이 사뭇 다를 수 보여준다. 단관 극장이 영화를 보러 가는 곳이었다면 멀티플렉스 극장은 영화도 보러 가는 곳이다. 이를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식으로 말하자면 극장 바깥과 극장 안이 이제 더 이상 남루한 일상과 찬란한 환상으로 대비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멀티플렉스는 그 자체로 화려할 뿐만 아니라 연계된 공간인 쇼핑몰도 그에 못지않게 환상적이다. 그 공간들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 보인다. 이제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더 이상 탈일상적인 진귀한 행사가 아니라 생활이 되어버린 지금, 재수생 박광정이 「미션」의 라스트 신을 보고 흘렸던 눈물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시네마천국」의 토토가 자신의 옛

친구인 알프레도가 남긴 필름 조각들을 보고 흘리는 눈물을 이제 잊고 있지는 않은지. ‘즐거웬 끝이 없다’고 외치며 더 더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멀티플렉스와 IPTV의 시대, 극장으로 가는 길이 그 자체로 하나의 설렘이었던 과거를 추억하는 일은 달콤하면 서도 씁쓸하다. 풍요의 시대에는 결핍을 몰라 그 풍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역설이 떠오른다.

| 제5절 | 극장 속의 부평

지금까지 부평의 극장과 그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다. 이제는 극장 속의 부평, 즉 한국 영화 안에 나타난 부평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제강점기부터 영화 촬영소로서 부평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부평이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화면 안에 들어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 독립영화사에서 노동운동을 담은 영화로서 「파업전야」(1990)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독립영화 제작 단체인 ‘장산곶매’가 5·18 광주항쟁을 다룬 「오! 꿈의 나라」를 발표한 후, 충무로로 대표

되는 상업 영화계를 제외한 대학가를 위시한 독립영화계는 새로운 시도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이에 노동절 101주년 기념작품으로 「파업전야」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



◆ 영화 「파업전야」(1990) 촬영 현장(한독금속 부평공장)
(출처 : 『오마이뉴스』, 2020년도 6월 21일자; 장산곶매 제공)

동자들과 이들을 탄압하는 사측과 중간관리자들의 대립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1989년부터 제작되었는데 당시 연출과 스태프를 담당했던 장산곶매 회원 중에 노동운동을 해본 이가 없어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애로 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파업전야」 제작을 위해 취재했던 강헌(음악 평론가, 현 경기문화재단 대표)의 회고에 따르면 장산곶매 회원들은 세 개 조로 나뉘어 구로, 부평, 인천의 공단 지대를 답사했다고 한다. 이 중 한독금속의 공장이 있던 부평이 촬영지로 선택되었다. 당시 한독금속 노조 위원장이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어서 촬영 우선순위로 고려된 것이다. 사측은 방위산업체로서 촬영을 거부했지만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직장 폐쇄를 단행함으로써 「파업전야」는 한독금속 부평공장에서 촬영하게 되었다.³¹

「파업전야」는 총제작비 2,000여 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수익금은 예상외로 대단히 컸다. 1억 원 안팎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는 제도권 상영이 아니라 전국 각지를 돌며 공장 과 대학 등지에서 상영한 데서 힘입은 바 크다. 한국 독립영화의 전설적인 작품의 배경이 부평공단이라는 점에서 「파업전야」는 부평의 극장 문화사를 기술할 때 특기할 만하다. 부평이 영화의 소비지만이 아니라 생산지이기도 했고, 부평 공단에서 찍은 노동 영화를 전국의 대학생과 노동자 약 80만 명이 관람했으니 이는 다시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21세기 최초의 트랜스 아시아 영화로 손꼽히는 「엽기적인 그녀」(2001)에는 부평 역전이 아주 또렷하게 여러 번 등장한다. 견우(차태현)가 만취한 엽기적인 그녀(전지현)를 업고 모텔을 찾아



❖ 영화 「엽기적인 그녀」(2001) 중 부평역사 배경 장면
(출처 : 영화 「엽기적인 그녀」 DVD 캡처 화면)

31 성하훈, 「“고난의 행군 같았다.” 노동 영화 역사, 「파업전야」의 시작」, 『오마이뉴스』, 2000년 6월 21일자.

두리번거리는 장면에서 ‘부평역’의 네온사인은 반짝인다. 또한 극 중 전지현의 집이 부평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두 청춘 남녀의 연애가 전철 1호선을 두고 서울과 인천에서 벌어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역시 2001년에 개봉한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는 그 장소성에 있어서 ‘인천 영화’임에 틀림없다. 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다섯 명의 여성이 이제 성인 문턱에서 겪는 일종의 입사식을 그린 이 영화에서 인천의 곳곳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그녀들의 내면 풍경을 외면화한다. 부평 지하상가 역시 그런 내면 풍경의 외면화로 선택된 장소이다.

2010년대에는 열우물 마을 부평 십정동에서 찍은 영화가 여러 편 나온다. 이는 영화 촬영의 특성상 인원 통제가 쉬운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가 영화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민병훈 감독의 「터치」(2012)는 십정동 일대를 형이상학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즐거리를 잠깐 살펴보자.

절망의 끝에 선 순간 기적이 찾아온다! 전 국가대표 사격선수였지만 알코올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고 중학교 사격코치를 하고 있는 남편 동식(유준상)과 간병인 일을 하며 병원 물래 돈을 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환자들을 무연고자로 속여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아내 수원(김지영)은 어린 딸 주미와 함께 힘들지만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동식은 코치 재계약 문제로 이사장이 주는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시다 음주 운전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사격부 학생 채빈을 차로 치게 되고, 당황한 나머지 뺑소니를 치다가 경찰에게 잡히게 된다. 남편 동식의 뺑소니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돌보는 노인 환자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게 된 수원은 그 사실이 발각돼 결국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원은 딸 주미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고 수소문 끝에 낯선 집에서 주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 가족에게 평범한 행복이라는 기적의 순간은 찾아올 수 있을까?³²

32 한국영상자료원, 「터치」 줄거리 요약 설명 내용.

영화 속의 풍경은 너무나 사실적이게 빈곤하다. 민병훈 감독은 십정동이 한낮에도 밤처럼 너무 고요해서 자기 영화의 공간으로 선택했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밝혔다. 「터치」의 여자 주인공인 수원은 집에 있어야 할 자신의 딸 주미가 보이지 않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한다. 그 동네가 바로 십정동이다. 빈곤의 풍경 속에는 빈곤 때문에 강박해진 사람들이 출몰한다. 이상한 소년이 갖고 있는 딸의 강아지 인형을 단서로 추적에 나선 수원은 곧 딸이 있는 곳을 찾아낸다. 문제의 장면은 그 다음이다. 간신히 딸을 찾고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수원은 바로 그곳에서 죽어가는 여자를 본다. 여자의 숨은 붙어 있지만 다리는 괴사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 누가 봐도 산송장인 여자는 가난한 자는 살기도 어렵지만 죽기도 힘들다는 진실을 드러낸다.

수원은 생활고 때문에 죽어가는 여자를 잊으려 하지만 좁은 방에 갇혀 서서히 몸이 썩으며 죽어가는 여자가 자꾸 떠오른다. 결국 그녀는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여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여자는 죽어가면서 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순간 수원은 자기 자신도 구원 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동식 역시 다른 곳에서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해방된다. 붕괴 직전의 가정을 이루고 있던 수원과 동식은 각자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새벽에 조우한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돌아오고, 세상은 기적처럼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아니 오히려 딸 주미를 생각하면 절대로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인간이 사는 곳에 수원은 무엇인가 이끌리듯이 다시 다가간다.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복지 공무원에게 호소도 해보고, 아는 병원 응급실에 가서 환자를 치료해 달라고도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다. 수원은 처음엔 보는 것조차 두려웠던 여자의 몸에 손을 대고 고통을 덜 느끼도록 처치를 하려고까지 한다. 이 터치는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제 가파른 골목을 올라 도달하는 지상의 가난한 집은 구원을 체험하는 장소로 성화(聖化)된다.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에서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십정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영화에서도 십정동은 자기 이름이 아닌 ‘은광동’으로 불리는데, 은광동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름이다. 따라서 서울의 허름한 달동네로 설정되어 있는 ‘은광동’은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공간인 셈이다.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은 이 동네에 대해 갖고 있는 남과 간첩 원류환의 애뜻한 감정이다. 생활 세계의 장소로서 은광동은 별로 매력적인 주거지는 아니다. 대중교통에서 내려 동네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멀고 고갯길은 오르는데 힘이 들어서 나이든 사람의 출입을 힘들게 한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내리막길은 겨울철에 위험하다. 조금만 잘못해도 미끄러지기 일쑤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골목은 또 어떤가. 동네 아이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을 때,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애를 쓰지만 결국 찾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이를 찾기 위해 온 동네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선다는 설정은 은광동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원류환은 외형과 상관없이 이 동네를 떠나기 싫은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리라.

영화의 서사와 관련해서 십정동은 액션의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북한의 엘리트 혁명 전사이자 남과 간첩이라는 인물 설정 때문에 이 영화에는 필수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테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찾기 위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원류환은 동네 주택의 지붕을 거의 나는 듯이 뛰어넘으면서 아이를 찾는다. 이럴 때 아파트만으로 이뤄진 동네라면 액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남과 간첩들과 별이는 액션 장면에서도 십정동의 골목이나 저층의 주택들은 효과적인 세트 노릇을 한다.



◆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티저 포스터(출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은밀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은 소박한 사람들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서 십정동은 액션 장면을 뛰어넘어 등장인물과 관객 모두에게 정서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골목이라도 봄날의 풍경과 겨울의 풍경은 다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가장 서정적인 대목이라 할 부분에서 은광동 골목에는 눈이 내린다. 이미 원류환은 동네를 떠났지만 그에게 엄마 비슷한 노릇을 했던 석이 슈퍼의 주인은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그의 모습을 떠올린다. 특정 장소가 어떻게 등장인물과 결부되어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악의 연대기」(2015)는 부산과 동탄 신도시, 그리고 부평에서 촬영되었는데 제작진이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십정동 골목을 선택한 이유는 ‘심리적 압박감’을 극도로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인천의 골목길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심리적인 압박감은 물론이고 긴박한 추격 신을 위해 장소를 찾던 「악의 연대기」 제작진은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좁은 골목길을 선택했다. 빼곡히 들어선 집들과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골목길은 영화 속 긴박한 추격 신을 완성시키는 데 최적의 장소였다. 두 사람 이상 다닐 수 없는 매우 좁은 골목길에서 펼쳐진 숨 가쁜 추격은 어둡고 불규칙한 공간에 내재된 인물의 불안감을 투영해 극의 긴장감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추격 신의 탄생을 예고한다.³³

열우물 마을의 골목길들은 미로 같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서면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공간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 신을 찍으면 그 자체로 긴장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 따라서 이때 십정동은 특정한 감정이 결부된 장소라기보다는 특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형적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뷰티 인사이드」(2015)는 영화보다는 영화 속 주인공의 일터로 나오는 ‘카페 발로’가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31에 위치한 이 카페는

이후 각종 뮤직비디오나 화보의 촬영지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수많은 젊은 이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를 누린다. 카페 발로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바쁜 공장단지 속에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곳, 빈티지 가구와 소품 안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 힐링이 필요해” 아름다움은 인간의 내면에 있다지만 매일 얼굴이 바뀌는 연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가득한 이 영화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인천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은 한국 영화 촬영지로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부평구는 인천에서 가장 적게 촬영지로 선택된다고 한다. 유동 인구가 많고 거리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에 인천 중구와 동구는 영화는 물론이고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인데, 이것은 빈티지 혹은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장소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가 첨단 도시의 장면을 찍기 유용하고, 중구와 동구의 낙후된 모습에서 과거의 장소를 떠올린다면 부평은 이제 어떤 이미지로 영상 속에 들어설 것인가. 부평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만드는 영화에서야말로 부평이 참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내비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자기만의 영상을 제작하는 시민 교실이 부평에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33 다음영화, 「악의 연대기」 제작 노트 설명 내용.



참고 문헌



단행본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안정호,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민족과문화사, 1992.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각 해당 연도.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 초창기~1976년』, 1977.

논문

김현석, 「부평을 스쳐간 극장의 시대」, 『작가들』, 2020년 가을호.
 박광정, 「續 내 인생의 영화 <미션>」, 『씨네21』602, 2007.
 한상언, 「활동사진시기 조선영화산업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0.

신문

『경향신문』
 『대한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오마이뉴스』
 『조선신보』
 『조선일보』



영화

「1991, 봄」 (권경원 감독, 한국, 2018)
 「갯어웨이」 (로저 도널드슨 감독, 미국, 1994)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감독, 한국, 2001)
 「너와 나」 (허영 감독, 조선, 1941제작, 1944 개봉)
 「노래하는 박람회」 (박찬 감독, 한국, 1969)
 「망루의 결사대 望樓の決死隊」 (금정정 감독, 조일합작, 1943)
 「미션」 (롤랑 조페 감독, 영국, 1986)
 「미쓰백」 (이지원 감독, 한국, 2018)
 「병정님 兵隊さん」 (방한준 감독, 조선, 1944)
 「보디가드」 (믹 잭슨 감독, 미국, 1992)
 「뷰티 인사이드」 (백종열 감독, 한국, 2015)
 「사람의 아들」 (유현목 감독, 한국, 1980)
 「사랑의 맹서 愛の誓い」 (최인규 감독, 조선, 1945)
 「시네마 천국」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 이탈리아, 1988)
 「악의 연대기」 (백운학 감독, 한국, 2015)
 「어른이 되면」 (장혜영 감독, 한국, 2018)
 「엽기적인 그녀」 (곽재용 감독, 한국, 2001)
 「오늘영화」 (윤성호 외, 한국, 2014)
 「유리벽 속의 두 연인」 (정인철 감독, 한국, 1992)
 「은밀하게 위대하게」 (장철수 감독, 한국, 2013)
 「젊은 모습 若き姿」 (도요타 시로 감독, 조일합작, 1943)
 「터치」 (민병훈 감독, 한국, 2012)
 「파업전야」 (장동홍·이재구·장윤현 감독, 한국, 1990)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정지영 감독, 한국, 1994)
 「황비홍3 - 사왕쟁패」 (서극 감독, 홍콩, 1993)





웹사이트

'애관 보는 것을 사랑한다' 개인 블로그(<https://m.blog.naver.com/ykhpdp/222116550201>)

다음 영화(<https://movie.daum.net/main>)

씨네21(<http://www.cine21.com/>)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ncheontogi>)

인천광역시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한국영상자료원(<https://www.koreafilm.or.kr/>)

부평사
富平史





제 6 장

부평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프리즘 - 부평의 문학과 스토리 콘텐츠

제1절 _ 인문 공간으로서 부평

제2절 _ 전통 시대의 부평 문학

제3절 _ 부평 조병창을 통해 해방이라는 실체를 한눈에 보여준 「해방공장」

제4절 _ 별스런 세상, 부평 애스컴 미군 부대

제5절 _ 마이너리티 부평, 마이너리티 한하운

제6절 _ 부평, 노동문학의 산실이 되다

제7절 _ 부평, 새로운 스토리 콘텐츠로 탄생하기 위하여

제6장 부평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프리즘 - 부평의 문학과 스토리 콘텐츠¹



이 현 식(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문학평론가)

모든 문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문학작품을 읽는 것도 당연히 사람들이다. 문학이 인간의 이야기이자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설령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 혹은 외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모두 인간의 자질들이 투영되어 있다. 약삭빠르거나 우직하고 혹은 성실하거나, 아니면 매우 공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인간의 특정한 성향과 성격이 대상에 투영되어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즉, 그들은 인간의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피조물들이 대개 그렇듯이 어떤 문학작품도 인간의 조건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존재한다. 시공간이야말로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현실 속에서 시간이 없는 공간이 있을 수 없고 공간이 없는 시간도 존재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그러므로 항상 물리적으로 동시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원초적 조건들이다. 모든 물질이 그러할진대 사람 역시 예외적일 수는 없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공간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¹ 여기에서 스토리 콘텐츠라 함은 소설 등 본적 서사문학을 포함하여 웹툰, 뮤지컬, 영화, 드라마, 연극 등 이야기의 요소를 갖춘 창작물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것이다.

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사라진다. 크로마뇽인이나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로마의 황제들, 세종대왕, 아인슈타인, 링컨, 안중근 등 모두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공간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진 존재들이다. 존재의 방식이나 사라지는 이유야 모두 다르지만 어쨌거나 생겨나서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가 로마의 황제이거나 서울역 앞의 노숙인이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진다.

인간이라는 생명체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에서 존재하듯 인간 상상력의 산물인 문학 역시 그런 존재 조건을 무시하고서는 거론하기 어렵다.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모두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과 이도령은 비록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 속에서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존재이다. 『춘향전』은 전라도 남원 속중 연간이라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물론 모든 문학작품에서 시공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람들의 정서를 다루는 시 장르는 뚜렷한 시공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 속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가 시공간이라는 조건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학에서의 시간이나 공간은 현실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간의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사람처럼 특정한 시간대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문학작품은 그것이 다루는 소재나 내용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이 있다. 이걸 비교적 명확하다. 계속해서 『춘향전』의 예를 들자면 이 소설이 다루는 내용이 조선시대 속중 연간, 전라도 남원 고을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소설이 다루는 내용의 시공간이 뚜렷한 것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와 공간을 거론하는 또 다른 차원이 하나 존재한다. 요컨대 『춘향전』이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작품이 대상으로 하는 시공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뜻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1980년대 서울에서 발간된 잡지에 발표되었지만, 그것이 다루는 시대와 공간은 1945년 해방 직후 전남 벌교이므로 발표된 시기와 공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작품의 창작 혹은 발표된 시기를 뚜렷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춘향전』의 창작 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작품이 창작되거나 발표된 공간도 꼭 집어서 특정할 수 없다. 남원이 배경이라고 해서 『춘향전』이 반드시 남원에서 창작되었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남원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닐지 모르나 그렇다고 남원과 『춘향전』의 실제 창작 장소가 필연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시기 역시 똑같다. 숙종 시대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춘향전』이 같은 시대에 창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여기에 문학작품은 그것이 읽히는 시대와 공간이라는 차원이 하나 더 있다. 사람들이 해당 작품을 읽고 즐기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은 또 다른 차원에서 거론될 문제이다.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창작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사람들에게 읽히기는 그 시대부터 현재까지라고 말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공간 역시 조선에서 창작되었지만 『춘향전』은 해외에서 최초로 번역된 우리 문학작품이기도 해서 공간적으로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읽히고 있다.

그러니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 글의 주제인 ‘부평의 문학’을 거론하려면 이런 문제가 우선 정리되어야 한다. 흔히 ‘한국문학’을 두고 국문학 개론서에서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다룬 문학’으로 정의 내리듯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을 정의 내리는 것처럼 했을 때 우선 걸리는 것이 ‘부평 사람’일 터이고 ‘부평의 사상과 정서’ 역시 더 커다란 난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부평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고 ‘부평의 사상과 정서’는 무엇인지, 아니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부평이라는 공간을 다룰 때,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우선 문학작품의 내용에서 공간적으로 부평이 거론되는 것이 첫 번째 이 글의 대상이 된다. 부평의 문학작품을 거론할 때 당연히 문학작품에서 공간의 주요 배경으로 부평이 등장하는 것을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단순한 공간적 배경인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설정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춘향전』의 배경인 남원이, 남원이 아니라 수원이거나 혹은 서울, 또는 부평이라고 한들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

면 『춘향전』의 공간인 ‘남원’도 그 의미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그곳이 단순히 여러 공간 중 하나인 부평인지,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부평인지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스치듯 등장하는 무대가 부평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주 무대로 부평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려면 당연히 작품 내부의 해석과 그것이 공간과 연계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품 내부의 해석은 그렇다 쳐도 공간과 연계된 의미 또한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는 공간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간은 그냥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좌표를 찍듯이 북위 몇 도와 동경 몇 도로 지정된 수치로서는 절대 드러날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승전국에 의해 북위 38도 선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 북으로는 소련이 남으로는 미국이 들어와 일정 기간 지배하는 과정만 생각해 보아도 자명하다. 그것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반문명적 폭거나 다름 아니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계량화된 기준으로 선을 긋고 나뉘버리는 것은 사람들의 존재 조건인 공간에 대한 인문적 인식이 부재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이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인문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해 부평이 문학의 공간으로 등장할 때 부평이라는 공간의 인문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우리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부평에서 만들어진 문학이라는 점이다. 명확하게 부평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평과의 연관성 속에서 창작된 것이라면 이 또한 ‘부평의 문학’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부평 출신의 문인이나 특정한 삶의 공간으로 부평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면 설령 부평이라는 지명이 작품 속에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부평의 문학으로 검토할 대상이 충분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이때에도 부평으로서의 공간적인 의미가 작품에 충분히 드러나야 하고 그렇게 해석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아무 작품이나 부평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오히려 경계해야 마땅하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부평에서 특별히 의미 있게 읽히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다. 부평의 문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즉, 특별한 연유로 해서 그것

이 부평에서 의미 있게 읽히고 부평의 많은 시민들의 정서와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작품 역시 부평의 문학으로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족하다. 그럴 경우 이 또한 그렇게 된 연유를 비롯해 부평과 작품 내부와의 관련성 등 여러 가지가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평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더욱 다양해지거나 뚜렷하게 규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은 이 글의 대상은 아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유독 부평에서만 의미있다고 평가받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중적 베스트셀러여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시나 소설을 부평 사람이 많이 읽는다고 부평의 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평의 시민들만 특정한 문학작품을 좋아하고 그 판매량이나 대출 빈도 등이 다른 도시에 비해 확실한 차별성을 보일 만큼 차이 나는 숫자를 기록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문학작품이나 스토리 콘텐츠의 향유 현황을 지역별로 조사한 통계 조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문학작품이나 콘텐츠 향유가 달리 나타날 만큼 인구수나 영토 면에서 구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1 제1절 | 인문 공간으로서 부평

그렇다면 이제 부평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차례이다. 앞에서는 문학작품에서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이 글의 방향과 관련한 원칙을 언급했다면 이제부터는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부평이라는 공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서 부평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공간으로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점검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부평의 문학에 대한 좌표로 삼고자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정리한 내용은 반대로 부평의 문학을 검토하면서 얻은 결과라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즉, 부평이란 어떤 공간인가, 부평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었고 여기에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려면 부평의 지정학적 특

성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실제 부평 사람들의 삶을 다룬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이해를 확대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평 사람들의 삶을 다룬 자료가 바로 부평의 문학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부평의 문학은 인문 공간으로서 부평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루 참조하여 일단 부평이 삶의 공간으로서 어떤 특징을 지닌 곳인지를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부평(富平)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고려 말 1310년부터이다. 이때부터 시작해 일제시기인 1914년까지 약 600년 동안 부평이라는 지명이 꾸준히 사용되었다. 1914년 이후에는 부천(富川)으로 쓰이다가 1940년에 인천과 통합되면서 다시 인천부 부평출장소로 개칭되면서 ‘부평’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였고 1968년에 부평출장소가 다시 인천시 북구(北區)로 명명되면서 사라졌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더불어 인천시 북구가 계양구와 부평구로 분구되면서 부평이라는 이름이 재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² 그러나 1968년과 1995년 사이에도 ‘부평동’이라는 이름이 동명(洞名)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부평이라는 이름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부평의 옛 이름이 주부토(主夫吐), 장제(長堤), 수주(樹州), 계양(桂陽) 등으로 다양하게 쓰였으나 가장 오래 사용된 이름이 부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을 만큼 ‘부평’은 현재 하나의 지명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름이 되었다.

부평이라는 지명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부평은 지리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지명일까? 이를 행정구역의 변천에 따라 시대별로 세세하게 가르자면 복잡하기 한이 없다. 시기별로 어느 구역이 부평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그 강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변화를 모두 따져보는 것은 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부평이라는 지명이 어디까지를 포괄하는지만을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부평이 연접하고 있는 고을을 보자면 서울과 김포, 시흥, 이제는 부평을 포함하여 행정구역이 된 인천 등이 있다. 서쪽으로는 인천, 북쪽으로는 김포, 남쪽으로는 시흥, 동쪽으로는 서울과 연접해 있는 곳이 부평이다. 즉, 서울 서쪽의 한강 이남, 계

2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의 역사』, 부평문화원, 2007, 25쪽. 이후 부평의 행정구역, 인구 등 부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양산 남쪽의 평야 지역이 부평인 셈이었다. 해방 이후에 서울과 부평 사이에 부천이라는 도시가 하나 더 생겼다는 변화를 추가하면 오늘날까지 큰 변화는 없다. 부평을 중심으로 보자면 동쪽으로는 부천이, 북쪽으로는 김포와 한강이, 남쪽으로는 시흥과, 서쪽으로는 인천이 있는 평야 지대가 부평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면 엄밀하게는 현재의 부평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보다 훨씬 좁다. 경인고속국도(이하 경인고속도로로 칭함)를 경계로 해서 계양산 부근까지는 계양구이지 부평구는 아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부평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지역으로 계양산 일대를 빼버리는 것도 이치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부평도호부가 지금의 계양구 소재 부평초등학교 안에 있을 정도로 계양구는 행정구역의 명칭으로는 계양구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부평의 강역 안에 위치했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계양구에 왜 부평초등학교가 있는 것인지도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곳이 오래전부터 부평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었던 것을 이해하면 수긍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수백 년 동안 계양구, 서구와 부천의 일부는 부평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왔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부평을 현재의 행정구역 안으로 축소시켜 접근하지 않고 위에서 정리한 강역을 중심으로 다루려 한다.

문학이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이 부평에서 살아온 내력이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검토하자는 글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굳이 제도적인 행정구역을 낱낱이 따져 부평에 들어가니 아니니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평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부평은 원래 한강 하구의 계양산을 주변으로 굴포천이 흐르는 평야 지역이었던 까닭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간 고을이었다. 계양산을 배경으로 남쪽을 향해 도호부 청사가 있었던 지금의 계양구청 일대가 오히려 부평의 원 중심지였다. 도호부 청사에서 남쪽으로 벌어진 들판이 바로 부평평야이다. 도호부 청사에서 보면 만수산, 만월산 등 지금의 남동구 일대까지 넓게 뻗은 평야를 보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서울로 가는 물길도 한강을 이용하면 편리했다. 부평도호부 청사가 지금의 계양산 자락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이곳이 교통의 요지이자 배산임수로 관아가 들

어서기 적당한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도 부평이 지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조선 이후였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 인근에 위치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그렇게 보면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도인 개성과 멀리 떨어진 부평은 그리 주목받는 곳은 아니었던 셈이다. 수도인 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고을에 불과한 곳이 고려 때까지의 부평이었다.

그러나 이런 양상이 근본적으로 점차 뒤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근대 개항이다. 인천이 개항되고 경인선 철도가 놓이면서 부평의 운명도 조금씩 바뀌게 되고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놓이면서 그 변화는 더욱 확연해진다. 다시, 부평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평야 지대라는 것을 되새겨 보자. 인천이 서울로 가는 가장 가까운 항구도시라는 점에서 인천의 개항은 조선의 개항으로 여겨지게 될 정도로 근대의 각종 문물과 제도 등이 인천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부평은 그런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중간 지대로서 드넓은 평야 지대에 위치한 고을이었다. '평야'라는 말 역시 농업을 전제로 한 것인데 2차 산업,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공장을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가 너른 들판이다.

원료를 수입하고 생산물을 수출하기에 편한 항구가 인근에 있고 한국 최대의 시장인 서울이 다른 한편에 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부평은 이제 개항과 함께 본격적인 변화의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국면이 곧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컨대 부평은 이제 농업에 기반을 둔 서울 변두리의 농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계양산 자락에서 부평역 주변으로 점차 지역의 세력권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부평역과 가까운 곳이라야 공장이 들어서기 좋고 공장 주변으로 일거리를 찾아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기에도 편리했던 것이다. 부평역 주변이 도시의 새로 떠오르는 중심이 되고 부평으로 이주한 주민들도 이곳에 모여 살게 되면서 신도시가 형성된 것이다.

부평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조선 후기 무렵 대략 1만 명 내외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10년에는 1만 7,777명, 1930년에는 2만 8,379명, 1953년에는 3만 367명, 1957년 말에는 4만 3,000여 명, 1962년에는 대략 8만 7,000여 명까지 늘어난다. 인구의 자연 증가분도 분명 있겠지만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평의 인구 추이만 분석한 연구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후 부평의 인구는 더욱 급속하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1960년대 미군 부대인 애스컴의 주둔과 1968년 경인고속도로의 개통,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단지의 입지는 부평의 인구를 가파르게 증가시켰음에 틀림없다. 2006년 행정구역상 부평구의 인구가 57만 명을 넘어서고 계양구의 인구가 33만 명을 넘어서서 이른바 부평 강역은 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도시군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는 인구가 조금 줄어 부평구는 약 50만 명, 계양구는 약 30만 명이 되었으나 여전히 인구 밀집도가 큰 거대 도시로서의 특성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울 변두리 농촌 마을이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개항과 식민지 근대로의 개편 과정의 한 가운데에 부평이 놓여있었던 까닭이 크다. 부평은 개항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통로에 있던 고을이었다. 경인철도가 놓이고 전기나 통신이 가설될 때 부평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근대적 산업 생산의 필요성이 늘어날 때 인천도 인천이겠지만 부평의 넓은 평야 지대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이 만주 진출을 위한 후방 기지로 식민지 조선의 쓸모를 발견했을 때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부평이었다. 최대 수출입항인 인천을 배후로 하고 있으며 식민지 조선의 수도인 서울과 맞닿아 있는 부평은 말 그대로 ‘천혜의 장소’였던 셈이다. 1934년 「조선 시가지계획령」에 의거하여 부평의 272만여 평의 농지가 공업용지로 설정되었고 1939년부터 부평에 금속, 기계, 자동차 등의 중공업 업종을 중심으로 공장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마침 1937년부터 일본은 이미 중국을 침략하여 중일전쟁이 진행되던 와중이기도 했다. 영등포에서 부평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지역이 거대한 공장 지대로 바뀌어가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특히 부평은 1939년 이른바 조병창(造兵廠)이 들어서면서 군수 조달 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다. 조병창은 소총과 총검, 각종 탄환과 포탄, 차량 등을 제작하는 곳으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전개함에 따라 그 생산량을 더욱 확대하면서 공장 지대를 늘려갔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주거, 생활 기반, 조병창과 관련 있는 하청 공장의 입지 등으로 이 일대가 하나의 거대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이제 부평은 과거처럼 평화롭게 농업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 한가로운 전원 마을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던 것이다. 외지로부터 일자리를 찾아 흘러들어오는 인구도 많아지면서 계양산 자락이 아니라 부평역 일대가 새로운 도시의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³

그런데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은 1945년에 일본의 패배로 끝나고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물러간다. 그러나 국토가 분단되어 일어난 1950년 한국전쟁은 거의 3차 세계대전급의 화력을 투여하면서 결국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정리되고 이에 따라 참전했던 미군이 대한민국 곳곳에 주둔하게 된다. 부평은 바로 한국 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애스컴 시티(ASCOM City)가 바로 그곳으로, 정식 명칭은 미군수지원사령부로 ‘Army Service Command’이다. 이곳은 애스컴 ‘시티’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부대 하나가 독자적인 자립적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물자를 지원하는 병참기지였으므로 물자도 풍부했고 노동 인력도 많이 필요로 했다.

이곳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려워도 1953년에 부평의 인구가 약 3만여 명이었던 것이 1960년에는 약 7만여 명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보아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애스컴 시티를 빼놓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⁴

전쟁 이후 극도로 낙후된 경제 상황에서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와 군수 경제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부평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호황이었고 평균 소득 수준도 다른 도시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미군의 주둔은 휴전 기간이 길어지고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차츰 그 규모가 줄고 역할도 조정되었다. 한국의 산업화 또한 진전되면서 과거와 같이 극도로 낙후된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애스컴은 그 기능을 조정해 캠프 마켓으로 축소되게 된다. ‘시티’가 ‘마켓’으로 바뀐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1963년부터 국가 수출산업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구로 지역에 3개 단지(1~3공

3 개인사를 말하자면 조부모가 식솔을 이끌고 충청남도 아산에서 부평으로 정착한 것도 이 시기였다. 시골에서 부평 조병창이라는 곳에 가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주했다고 생전의 조모께서 내게 얘기해 주셨다. 그게 1940년을 전후한 때였다고 한다.

4 부평의 인구 변화는 필자가 모두 『부평의 역사』(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문화원, 2007)에 근거하여 구성한 것이다.

단), 인천·부평 지역에 3개 단지(4~6공단)를 조성하였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부터 시작해 이 공단 지역을 경유하도록 설계되었다. 철강, 기계, 자동차를 만드는 거대 공장으로부터 화학이나 섬유 공장, 식품 공장과 자그마한 하청 공장에 이르기까지 부평에는 여러 종류의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부평 미군 부대에 비해 국가 산업단지인 공단은 본격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부평에는 대규모 노동자들이 거주하기 시작한다. 일제시대에 조병창이 있었을 때에도 공장은 있었지만 도시의 일정 구역 전체가 공장만으로 구성된 공단이 체계적으로 조성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자연스럽게 외지로부터 일감을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부평은 이제 확연하게 하나의 도시로서 그 외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부평역과 부평시장 주변으로 유흥가가 형성되고 공단 주변으로 주택가도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부평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 도시의 새로운 시민들이 되었다. 부평은 공장들이 밀집한 산업도시로서의 면모가 뚜렷해지게 된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변두리 농촌 마을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산업도시로서 그 위상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른바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기업은 노동력이 더 저렴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고 국가 수출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나 비중도 줄어들게 된다. 공장은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났으며 제조업의 쇠퇴 역시 눈에 확연해질 정도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기 시작한다. 이른바 굴뚝 산업은 쇠락하고 기술집약적인 새로운 산업이 각광받게 된다. 부평과 계양은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공단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경인철도가 1974년에 전철로 재개통된 이래 1992년에 경인고속도로 8차선 확장 개통, 1999년에 경인철도의 복복선 개통 및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과 2012년에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개통 등으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확대됨에 따라 부평은 심리적으로도 더욱 서울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제 서울의 확장판으로서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가 거대 수도권의 영역 안으로 편입되어 가는 국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2019년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계양구도 들어가 있다. 대부분 서울 주변의 지역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이후 부평이나 계

양의 인구 증가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부평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 제2절 | 전통 시대의 부평 문학

근대 이전의 부평을 상징하는 문인으로는 고려시대 계양도호부 부사를 지낸 이규보(李奎報, 1168~1241)를 들 수 있다. 이규보는 계양도호부의 부사로 약 13개월 정도 재임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도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이규보는 고려시대 학자이자 관리, 그리고 문인이다. 지은 책으로는 『동명왕편(東明王篇)』, 『개원천보영사시(開元天寶詠史詩)』, 문집으로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 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이규보는 문재(文才)가 뛰어나 굉장한 많은 작품을 생전에 창작했다고 한다. 그중 일부가 『동국이상국집』에 전한다.⁵

이규보는 1219년(고종 6) 모종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중벌을 면하는 대신 계양으로 좌천된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 부평은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불과했으므로 좌천의 성격이 명확하였다. 그의 정식 직책은 계양도호부부사병마검할(桂陽都護府副使兵馬黔轄)이었다. 이때는 아직 부평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기 전이었다. 부평이라는 지명은 1310년에 길주목이 부평부로 바뀌면서 등장했고 그 이전은 앞서서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주부토, 장제, 수주, 계양, 길주 등의 지명이 사용되던 때였다.

이규보가 전통 시대의 부평을 상징하는 문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문인에 비해 부평을 다룬 시(詩)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숫자의 문제이기 앞서 이규보가 노래한 부평 관련 시 중에는 주목해 볼 것도 적지 않다. 좌천된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부평 사람들의 삶을

5 『동국이상국집』에는 2,088수 정도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문에 그의 시 중 만 분의 일쯤을 수습했다는 것을 보아서도 그의 문재(文才)나 왕성한 창작력을 짐작할 수 있다.

엿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규보의 시는 전통 시대의 사대부들의 여느 시들처럼 틀에 박힌 자연 예찬이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읊조리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문인들의 시는 부평이라는 지명이 무색할 정도로 상투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⁶ 그러나 이규보의 시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나는 본래 서생이라	我是本書生(아시본서생)
스스로 태수라 칭하지 않네	不自稱太守(불자칭태수)
이 말을 고을 사람에게 부치니	寄語州中人(기어주중인)
나를 늙은 농부로 여기네	視我如野耆(시아여야구)
억울하면 곧 와서 호소하여	有蘊卽來訴(유은즉래소)
어린아이 어미 젖 찾듯 하네	如兒索母乳(여야색모유)
비 내리지 않은 오랜 가뭄	久旱天不雨(구조천불우)
이 또한 나의 죄이네	是亦予之咎(시역여지구)
은근히 부모에게 사과하지만	慙勸謝父老(은근사부로)
속히 벼슬 그만두는 것만 같지 않네	不如速解綬(불여속해수) ⁷

(후략)

이 시를 보면 시적 화자인 내가 마을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얼핏 드러나 있다. 아울러 마을 사람들이 아마도 이규보 자신이었을 시적 화자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지도 드러나고 있다. 작은 일조차 부사(副使)에게 의지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과 그들을 잘 포용하고 보살피려는 시인의 마음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규보의 시는 상대적으로 생활의 진실성이 드러나 있는 시편들이 적지 않고 그를 통해 시적 화자의 섬세한 심정 또한 가감 없이 드러나고 있어서 뛰어난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일 터이다.

6 이영태, 『옛 지도와 함께하는 한시 여행-인천으로 가는 길』, 채륜, 2017, 132~190쪽에는 이규보의 시를 포함해 고려와 조선 시기의 부평과 계양을 노래한 한시가 정리되어 있다.

7 이영태, 『옛 지도와 함께하는 한시 여행-인천으로 가는 길』, 채륜, 2017, 183~184쪽.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좌천되어 계양의 이른바 시골 촌구석에 처박혀있는 본인의 억울한 심정 또한 그대로 드러낸 시도 흥미롭다.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退公無一事(퇴공무일사)
백수로 외로운 죄인과 같네	白首若孤囚(백수약고수)
벼슬의 즐거움 알지 못하고	未識邦侯樂(미식방후락)
부질없이 임금 뒤따른 것만 생각하네	空思法從遊(공사법종유) ⁸

(후략)

이규보를 제외하고 전통 시대의 부평을 노래한 시인 가운데 특이한 경우를 꼽으라면 조선 후기 정조(正祖) 대왕의 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이 직접 특정한 고을에 대한 시를 지은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정조 역시 여러 고을을 시로 읊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개혁 군주라는 정조가 부평을 지정해서 시를 지었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으나 사도세자가 아니라 큰아버지인 효장세자의 아들로 즉위할 수밖에 없었다. 기구한 그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시대는 개혁과 르네상스로 대표된다. 왕위에 오른 후 수원에 화성을 축성하고 친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을 조성하면서 정국의 전환을 도모해 갔다.

정조는 재위하는 동안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현릉원을 자주 찾았다. 행차 도중에는 김포에 있는 장릉(章陵)에 들러 제사를 모시고 가곤 하였다. 장릉은 인조의 생부인 원종과 그의 비 인현왕후 구씨의 능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왕의 일행은 장릉에 도착하기 전 부평도호부에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정조가 어사대에서 활을 쏘고 옥은지에서 손을 씻은 후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한다.⁹ 그래서일까 정조의 시와 문을 엮은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부평에 대한 시가 한 편 전해지고 있다.

8 이영태, 『옛 지도와 함께하는 한시 여행-인천으로 가는 길』, 채륜, 2017, 179쪽.

9 문화재청, 『서울·경기·인천 문화유산 이야기여행』, 문화재청, 2013, 480쪽.

계양산 빛 곱고 또 곱구나 桂陽山色極嬋妍(계양산색극선연)
 너른 벌판 좋은 땅에 가을 곡식이 가득하고 百里秋登上上田(백리추등상상전)
 백성은 풍요롭고 정사가 공평하면 그만이니 民富政平斯可矣(민부정평사가의)
 누가 다시 무성현의 고사를 이을런가 誰能更續武城絃(수능갱속무성현)

「부평에 머물러 읊다(富平府治 晝停呼韻)」

정조가 부평에 들렀을 때 유독 계양산의 산 빛깔이 고왔던가 보다. 아마 시의 정황상 가을이 깊어갈 때가 아닌가 한다.¹⁰ 단풍이 드는 가을의 산 빛은 아름답다. 정조는 계양산 자락에 펼쳐진 부평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가을 곡식이 가득한 모습에 스스로 만족한 것 같다. 그러나 백성이 풍요롭다고 생각한 것이고 정사도 공평하다고 자평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부평(富平)’이라는 지명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시적인 말놀이(말장난, pun)을 한 흔적도 엿보이기는 한다. 공자의 제자 자유(子遊)가 무성이라는 마을에 재상이 되어 예악을 숭상하게 만든 고사를 떠올리면서 마을을 잘 다스리는 일의 즐거움을 노래로 읊고 있다. 부평(富平)이라는 지명을 떠올리고 정조는 자신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를 시에 담아 표현하려 했던 것 같다. 부평이라는 지명에는 풍요로운 평야라는 뜻도 있지만 부를 공평하게 누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정조는 부평이라는 지명의 뜻을 되새기며 그런 생각을 시에 담아 놓았다.

어쩌면 이 시를 지을 때 정조의 마음은 한껏 너그럽고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전력을 다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꽤나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들른 부평에서 드넓은 평야의 풍족한 들판과 가을의 산 빛을 보고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 흥에 취해 이런 시를 지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전통 시대의 부평은 바다가 가까운, 평범한 농촌 지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려나 조선 시대의 시가에 나타난 부평은 가뭄에 험겨워하고 습한 날씨로 고생을 하는가 하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여느 농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10 이 시를 지었을 때가 1797년(정조 21) 10월이라는 주장이 있다. 『정조실록』 등을 확인하면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https://blog.naver.com/jawkoh/221658633191> 참조).

제3절 | 부평 조병창을 통해 해방이라는 실체를 한눈에 보여준 「해방공장」

개항이 되고 일본의 식민지를 겪는 과정에서 부평은 점차 농촌이 아니라 공업도시, 혹은 군수 기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개항은 조선이 어떻게 근대 체제 안으로 편입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하는 방식이 이제 그 전과는 전혀 달라지고 있음을 개항을 통해 조금씩 생활로 접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성냥이나 비누 같은 신기하고 새로운 물건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들이 개항된 항구를 통해 유입되고 퍼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방식은 이전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다. 돈과 상품이라는 것을 이제 조선 사람들도 알기 시작한 것이다. 상품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한다.

부평은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연하게 과거의 옷을 벗기 시작한다. 전에 없던 공장들이 논과 밭 가운데 생겨나고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부평의 변화를 드러낸 식민지 시기의 문학작품은 과묵한 탓인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해방 직후 부평을 배경으로 한, 매우 귀중한 작품이 발표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규원의 「해방공장」이다. 「해방공장」은 1948년 9월 『우리문학』 10호에 실린 단편소설이다. 『우리문학』은 조선문학가동맹 서울시지부에서 편집해 발간한 작은 잡지이다. 70여 쪽밖에 되지 않는 잡지이지만 종이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읽을 것이 귀하던 당시 사정을 감안하면 작은 잡지라고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시와 소설, 수필과 비평 등이 실려 있고 당시 주목받았던 인천 출신 비평가 김동석도 글을 실었으며 당시로서는 신인인 손소희 작가의 수필도 실려 있다. 요컨대 『우리문학』은 해방 직후 문단에서 비중 있게 출간된 잡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1948년 9월에 10호가 나왔다는 것은 창간호가 곧바로 종간이나 폐간호이던 당시 사정을 감안하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발간 체제를 갖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우리문학』이 아마도 조선문학가동맹 서울시지부의 기관지로서의 위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한다.



❖ 「해방공장」이 게재된 잡지 『우리문학』(출처: 『경인일보』, 2017년 8월 11일자)

한편 이규원(李揆元, 1909?~?) 역시 한국문학사에서 이름이 낯익지는 않다. 식민지 시대에 시를 발표한 경력이 있는데 충실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문인은 아니다.¹¹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공장」을 소개하는 『우리문학』 편집자의 말을 들어 보면 이 소설이 3부작으로 계획된 것 가운데 1부이며 작가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한다.¹² 아울러 편집자에게 이규원이 “해방 전부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가 신인 작가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요컨대 원래 문학 활동을 했던 작가 이규원이 어떤 이유에서였건 부평의 공장에 취업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소설을 쓴 것이 「해방공장」이라는 단편이라는 것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11 이규원의 생애와 행적, 그의 작품 활동 등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생년도 혼란스럽다. 부평역사박물관의 특별기획전 「1945년 군수기부 부평의 기억 '해방공장」에서 이규원은 1911년생으로 소개되었으나 한국시집박물관 자료실에는 이규원이 1909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일본 동경의 상지대학(上智大學) 신문과를 졸업하고 “수십 편의 시를 신문, 잡지 등에 발표하였고 장편소설 『폭풍전야』를 쓰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이유는 장편 『폭풍전야』는 함대훈의 소설이지 이규원의 것은 아니다. 이규원은 이용악이 1937년에 발간한 시집 『분수령』에 서문을 쓰기도 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그가 당시 문단에서 비중 있게 활동하고 있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2 실제 소설 끝부분에는 “해방공장 제1부 끝”이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해방공장」은 해방 직후는 물론 식민지 시대에도 흔하지 않은 대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더구나 1945년 8월 15일 정오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인 관리를 몰아내고 공장자치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까지가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더욱 의미 깊다. 실제로 당시에 어느 공장에서 벌어졌음직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 작품은 기록적 가치도 갖고 있다. 즉, 해방을 맞아 생활의 현장인 공장에서 혼란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정리해 갔는가를 매우 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더구나 그 무대가 부평 조병창에 위치했던 미쓰비시(三菱) 제강 인천제작소로 추정되는 곳이어서 더욱 의미 깊다. 이 작품에는 곳곳에서 당시 부평의 모습이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컨대 도입부에 “서울과 인천을 이어놓은 식민도로(殖民道路)-말하기를 산업도로를 앞에 끼고 부평평야(富平平野)에 풍덩 주저앉은 이 군수공장은 ……” 같은 대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게다가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해방 직후 재산과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숨어버린 일본인 관리자들을 찾아 나서는 장면 역시 매우 현실적이다. 소설에서는 현재도 일부가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출사택과 관리자들이 거주하는 주택가가 등장한다.

용기종기 닭집모양으로 느러서있는 공원사택 앞을 지났다. 바락크 건물로 칠팔 채 한 데 붙어있는 줄기집들인데 퇴색한 채 수리를 하지 않아 양철은 삭아 내려앉고 벽은 허물어졌다. 앞가슴 뼈가 앙상하고 뱃대기만 볼룩한 아이들이 벌거벗은 채 뛰놀았고 몇몇 집에서는 일본사람 세간을 샀는지 찬장이며 등근상 나부랭이를 건어드리고 있다. 아직도 가네무라니 미야모도니 하는 문패가 매달려 있기도 하지만 일장기를 태극기로 개조해서 달아놓은 집도 있었다. 조금 언덕 바라진 남향 쪽은 일본인 사원들 사택이다. 골목이 넓고 줄렁 집이 아닌데다가 상나무 사철나무 등을 뽕뽕이 심어 제법 주택의 면모를 이룩했다.¹³

13 이규원, 「해방공장」, 『작가들』67, 도서출판다인아트, 2018, 209-210쪽. 『작가들』 67호에는 원문과 일일이 대조하여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게 정본화한 텍스트가 실려 있다. 이 글에서도 『작가들』에 실린 「해방공장」을 주 자료로 삼았다. 원문에 충실하다 보니 현재의 맞춤법에 비추어보면 잘못된 표기가 많은 점은 감안해야 한다.

위 소설의 인용 대목에 나오는 곳은 지금도 이른바 ‘삼능 줄사택’이라고 불리는 곳을 짐작하게 만든다.¹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공장도 차량(車輛) 공장, 제관(製罐) 공장, 기계(機械) 공장, 목형(木型) 공장, 포탄(砲彈) 공장, 도장(塗裝) 공장, 창고(倉庫) 등인데 이는 부평의 조병창에 들어서 있던 시설들과 일치한다.

소설은 한편으로 일본인 관리자들에게 해산금을 받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한 새로운 관리와 생산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해방의 감격도 감격이지만 일본인 관리자들에 제압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장을 정상 가동시키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일본인 관리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과거에 일본인 편에 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친일파,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일부 이기적인 노동자들의 묘사를 보면 당시에 갑자기 찾아온 해방이 감격으로만 대할 것이 아닌, 새로운 현실의 등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해방공장」은 부평의 한 공장을 무대로 하면서도 당시 우리 민족이 맞닥뜨린 해방의 실체와 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소설사의 수작으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다.¹⁵

게다가 이곳에 등장하는 부평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커다란 공장이 연이어 있는 산업지대이고 대공장 노동자들의 숨결이 녹아든 생활의 공간이면서 일본인 관리자들이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요컨대 「해방공장」을 통해 비록 늦었지만 부평이 비로소 한국 근대문학사의 한복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4 삼능이라는 지명은 부평 사람들에게는 낯익은 지명이다. 그러나 이는 미쓰비시 제강 인천제작소(三菱製鐵仁川製作所)의 사택이 있었던 곳에서 유래한다. 미쓰비시를 한자어로 음독하면 ‘삼능’이다. 부평이 고향인 필자도 어린 시절과 고교 시절 삼능에 살던 친구 집에 놀러가곤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곳에 능이 세 개가 있어 ‘삼능’인가 어렵듯이 짐작만 하고 있었다. 동인천에서 32번 버스를 타면 ‘삼능’을 경유해 부평까지 갈 수 있었다. 노선 안내 표지판에 ‘삼능’이라고 적혀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15 그러나 이 작품은 오늘날의 젠더적 감수성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일본인 사장의 딸을 조선인 노동자들이 성추행하는 장면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그 시절 시대적 인식의 한계라고 옹호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TV가 가정마다 보급되기 전, 영화가 거의 유일한 오락이던 1950~1960년대의 영화 감독 신상옥은 한국 영화계를 이끌던 기동이자 대중 스타이기도 했다. 그가 아내인 영화 배우 최은희에 연이어 북한의 공작원에 의해 비밀리에 납북되어 북에서 여러 편의 영화를 찍다가 극적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온 일화는 말 그대로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해서 신상옥 감독은 더욱 유명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신상옥 감독의 초기 영화 중에 「지옥화(地獄花)」라는 작품이 있다. 1958년 개봉한 이 영화는 신상옥 감독의 부인인 최은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이다. 부인이 주연 배우이고 남편이 감독인 영화였던 것이다. 이 작품은 한편으로는 기이한 로맨스와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감 넘치는 범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최은희는 이 영화에서 일종의 팜프파탈 격으로 형제인 두 남자 사이에서 질투를 유발하는 도발적 여주인공으로 연기한다. 그러나 최은희, 극 중 이름인 소냐는 엄밀히 말해 양공주에 불과하다. 미군에게 몸을 팔아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가 양공주인데 당시 관점에서는 장교를 상대로 하는 1급 양공주로 특별한 존재처럼 등장한다. 그런데 그런 소냐가 원래 동거하던 남자인 영식을 배신하고 그의 동생인 동식을 유혹하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점에서 불륜과 치정을 다룬 이야기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영화는 미군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죄의 계획과 실천을 이야기 축으로 하고 있다. 그 범죄라는 것이 다름 아닌 미군들의 보급 물품을 대량으로 훔쳐내는 것이었다. 열차로 이동하는 미군들의 군수품을 열차 통째로 훔쳐내려는 야심찬 계획을 고안해 내지만 결국 이들은 소냐의 밀고로 일망타진 당하게 된다. 영화는 개울이 넓게 흐르는 벌판에서 쫓고 쫓기는 가운데 소냐와 영식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살아남은 동생 동식이 자기를 짝사랑한 양공주와 함께 버스를 타고 귀향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렇게 줄거리에 비춰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미군 부대가 주된 배경이다. 양공주가 등장하고 미군의 군수 물품을 빼돌리는 이야기이므로 미군 부대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주로 등장하는 곳이 부평의 ASCOM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영화 속에 ASCOM이라는 표지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

다. 애스컴 주변의 양공주와 범죄 집단이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고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 역시 부대 주변이다. 그런 눈으로 보면 소냐가 살고 있는 집 역시 삼능의 줄사택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이 영화 속에서 죽고 죽이는 개울가 또한 굴포천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증명할 길은 마땅치 않다.¹⁶

영화는 군부대 내부의 공연장이나 댄스홀도 보여주고 있다. 미군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찍기 어려운 장면들도 많다. 60년도 훨씬 더 지난 옛날 미군 부대의 풍경과 애스컴 주변의 모습이 영화에는 담겨있다.¹⁷

이 영화는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초창기 흑백 영화이고 편집 기술이나 장면 처리, 이야기의 세밀한 전개 등의 면에서 어설픈 점이 매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틸감 넘치는 총격전과 차량 추격신, 동식을 유혹하는 최은희의 고풍적인 연기 등은 지금 보아도 이 영화의 감수성이 최첨단이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대중 상업 오락영화인 「지옥화」에 등장하는 양공주와 미군 부대의 풍경은 되새겨 볼 대목이 있다. 영화에서 미군 부대는 범죄의 대상인 동시에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그곳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역시 세속적 욕망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16 어릴 때 동수동 근처에서 살던 나는 또래들과 어울려 논에서 개구리를 잡아 뒷다리를 연탄불에 구워먹곤 했다. 물이 풍성하게 흐르던 개울이 있었는데 근처에 타일 공장이 생기면서 물이 탁해졌다는 어른들 말씀을 듣고 했다.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와(煉瓦) 공장이 일제시대 말기 동수동 지역에 들어섰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돌이켜 보면 현재 부평 동수동 근처에는 그 시절 풍경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자주 뛰놀던 뒷동산도 깎여 주택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보기 어려우나 기억하는 어른들도 있지 않을까 싶다.

17 당시 풍경을 기억하는 분들에 의해 영화의 공간에 대한 고증 작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 「지옥화」 영화 포스터(출처: 『경향신문』, 1958년 3월 27일자)



❖ 「지옥화」의 스틸컷(출처: 필자 캡처) 배경으로 애스컴 간판이 보인다.

온갖 물자가 풍족한 미군 부대와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욕망의 대상이다. 소냐가 뚜껑을 따 동식에게 내미는 캔맥주도 당시 일반인들로서는 구경도 하기 힘든 물건이었다. 그런 공간에서 소냐는 애욕 어린 눈으로 동식을 유혹한다. 이 역시 욕망의 대상이다. 부평의 미군 부대, 애스컴은 전쟁 이후 궁핍했던 시절의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풍요로운, 그렇지만 우리와는 동떨어진 별세상이었다. 그런 공간이 부평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지옥화」는 세속적 욕망에 어두워진 인간의 눈앞에 그런 별세상의 별스러운 이야기를 펼쳐내 보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하인즈 인수 펜클(Heinz Insu Fenkl, 1960~)의 『고스트 브라더』 역시 문제작이다.¹⁸ 이 소설은 미국에서 1996년 발표된 미국 소설로, 헤밍웨이 문학상 후보작에 올라갔다고 번역된 책 표지에 인쇄되어 있다. 이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작가가 한국계이다. 그는 부평에서 성장하였고 이 소설 자체가 작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자연스럽게 부평이 주 무대로 등장한다. 주인공 인수의 아버지가 하인즈라는 미군 부대 장교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양공주의 이야기나 미군 부대 주변의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와 어머니, 그리고 그 시절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

18 하인즈 인수 펜클, 문상화 역, 『고스트 브라더』, 문학과이식, 2005.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영어로 발표된 소설이고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되었으므로 과연 이 소설이 한국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핵심 문제는 아니다. 『고스트 브라더』는 분명 자리를 따로 해서 살펴보아야 할 작품이다.

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부평의 모습은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는 자전적 소설이 으레 그렇듯 그리움과 추억의 공간이다. 간난이 누나의 죽음, 미군의 횡포나 궁핍 등 1950~1960년대 부평 미군 부대 주변의 삶에 배어있는 고난한 풍경도 담겨있지만 어린 소년의 시선은 삶의 실체를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평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해 중요한 참고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¹⁹

이에 비해 부평 미군 부대가 실제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이원규의 일련의 소설들이다. 이원규는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한 작가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서곶에서 살아왔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평 미군 부대 폐품 하치장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였던 곳이라 회고하고 있다.²⁰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군들이 쓰다가 버린 물건을 모아놓은 미군 폐품 하치장이었다. 요컨대 미군 쓰레기가 우리에게서 보물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소설가의 눈에는 미군의 실체가 그렇게만 보일 리 없다. 그가 형상화한 부평 미군 부대의 모습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 삶의 핵심적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깊고 긴 골짜기』(고려원, 1991)에는 이원규가 형상화한 부평 미군 부대와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존재들의 모습이 여러 편 등장한다. 「겨울의 끝」과 「겨울새」는 모두 부평 미군 부대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양공주들의 이



❖ 『깊고 긴 골짜기』 표지

19 『고스트 브라더』가 부평을 추억의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이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나중에 따로 기회를 갖고자 한다.

20 이원규와의 인터뷰는 2020년 6월 23일 선생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야기를 다룬다. 왜 그들이 양공주가 되었는지, 그들이 양공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겨울새」), 혹은 두 남자의 누이로(「겨울의 끝」) 살아간 삶을 보여줌으로써 양공주는 혐오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상처임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겨울새」는 일제시대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여자가 전쟁 중에 양공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간다. 혼혈아인 까닭에 외모부터 낯선 그녀의 아들 요섭을 주변에서는 괴롭히고 따돌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착한 심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읽는 이로 하여금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특히 양공주로서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여인의 적나라한 모습과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요섭, 또 아들에게 그런 장면이 노출된 어머니의 표정을 묘사하는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또한 비극적이다. 미군 부대 주변의 기지촌에서 젊음을 바치고 육신의 병이 들었으면서도 아들만 생각하는 모성애는 절절한 바가 있다. 작가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요섭 어머니의 비극을 그려냄으로써 이것이 개인의 비극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겪은 공동의 비극임을 역설하고 있다.

부평 미군 부대의 군수품을 훔쳐내기 위해 땅굴을 파고 들어가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는 상이용사의 이야기인 「달무리」는 양공주는 아니지만 전쟁의 비극과 전쟁이 불러온 궁핍함의 실체를 미군의 풍족함과 대비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원규는 이런 내용을 부평의 공간에 담아 현실감을 높여내고 있다. 그의 소설이 지닌 장점은 세밀하고도 서정적인 풍경 묘사인데 여기에서도 특유의 공간 묘사가 빛을 발하고 있다.

미국말로 쓴 가지가지 간판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함석집들의 유리창에 불이 켜지고, 게 딱지처럼 엷드린 판자집들의 어깨너머 미군 부대 철조망의 망루에도 허공에 뜬 듯이 불이 켜져 있었다. 멀리 침침하게 윤곽을 드러낸 채 버티고 앉아 기지촌과 미군 부대를 굽어보고 있는 철마산의 마루, 미군들의 통신소에도 별빛처럼 조그맣게 불이 켜져 있었다.²¹

21 이원규, 『깊고 긴 골짜기』, 고려원, 1991, 212쪽.

부평 에스컴 주변의 기지촌을 묘사한 대목이다. 실제 현실에서도 에스컴 부대의 서북쪽으로 솟은 봉우리가 철마산이다. 이원규 소설의 미덕은 이렇게 지명을 통해 소설의 공간에 어떻게든 구체성을 부여하려 한다는 점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소설의 진실성이 살아난다는 점이다. 실제 현실의 구체적 삶의 공간을 소설 속에 구현함으로써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소설가의 노력은 분명 상찬받을 일이다. 이 세상에 없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있는 공간을 선택하여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그것의 진실성을 살려내는 것이다.

특히 이 소설은 미군의 정체를 상이군인의 입을 통해 고발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를 도와주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서 살려낸 고마운 은인 같은 존재가 미국, 혹은 미군이라는 인식이 한편에 있고 다른 극단에는 우리를 식민지나 다름없이 지배하고 착취하는 제국주의자로서의 미국, 미군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면 「달무리」에 등장하는 미군에 대한 인식은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상이군인인 삼촌과 나이 어린 조카와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미국에 대한 통념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군 부대의 물건은 마구 훔쳐두 되는 건가요?”

삼촌은 망치를 놓고 찬찬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내 어깨에 얹었다.

“그렇지 않아.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런 꼴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절반은 책임져야 하는 나라란다. 누나가 죽고 명섭이가 병에 걸린 것도, 삼촌이 다친 것도 그렇단다. 나는 다만 도둑질을 한다는 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한테 부끄러울 뿐이다. 네가 나만큼 나이가 든 뒤엔 이해할지 모르지만 난 그걸 바라진 않는다. 나쁜 짓은 어떻게든 심판을 받게 마련이니까.”²²

22 이원규, 『깊고 긴 골짜기』, 고려원, 1991, 222쪽.

전쟁과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도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삼촌의 인식은 미국에 대한 통념적 생각과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저변에 깔려있던 민중들의 미국에 대한 시각의 일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바가 있다. 게다가 통념이 언제나 진실인 것은 아니다. 병에 걸린 조카 명섭을 구할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미군의 군수품을 훔쳐내려는 삼촌이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렇게 조카에게 설명하는 것은 당시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는 것이다.

미군 군수품 창고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물건을 빼내려는 계획은 절반만 성공한다. 삼촌이 흙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는 대신 땅굴을 통해 미군 창고에 이르는 데는 성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궁핍함과 그에 비해 너무나 풍족한 미군의 사정은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 궁핍과 박탈감, 상이군인인 삼촌의 입을 통해 언급된 미군의 실체 등은 부평 미군 부대의 존재가 당시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비단 과거의 추억만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전쟁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에스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오늘날에도 부평의 미군 부대는 그 시절의 ‘미군 부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신현수의 일련의 시는 이런 현실을 솔직 담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에스컴 구 정문 앞

30여 년도 더 지난 지금

옛날의 양공주 이모들 흔적은 하나 없고

길가의 ‘에스컴 사진관’으로만 남은 이름 에스컴

아, 에스컴이 에스 캠프라는 뜻이라지.

옮겨간 에스컴 신 정문 쪽으로 난

좌회전 신호 때문에

에스컴으로 드나드는 차 하나 없는데

멍청히 서 있어야 하는 에스컴 신 정문

16만평 넓은 곳에 미군은 9명밖에 안 산다는 에스컴

그러나 2008년까지는 더 기다려줘야 하는

에스컴 신 정문 쪽으로 난 좌회전 신호등²³

드나드는 차가 거의 없는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미군은 9명밖에 안 사는데 16만 평의 부지가 미군들의 땅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미군 부대로서의 역할은 끝났는데도 쉽게 우리의 소유로는 잘 넘어오지 않는다. 이 시는 오늘날 미군 부대가 처한 현실을 매우 직설적이고 간결하게 지적하고 있다.

부평은 미군 병참 부대 에스컴 시티가 있던 곳으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이 집적된 곳이었다. 신비스런 물건과 상품들로 가득찬 미군 부대, 초콜릿과 치클껌, 드로프스(drops, 사탕)와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풍요로운 미제 물건이 그득히 쌓여있는 곳이 바로 부평 에스컴이었다. 거기에서 양공주들이 자신의 젊음을 돈으로 바꾸며 생명을 값어치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음을 부평이라는 공간으로 소설과 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 제5절 | 마이너리티 부평, 마이너리티 한하운

「보리피리」와 「파랑새」로 유명한 한하운(韓何雲, 1921~1975)은 함경도에서 태어났으나 해방과 분단의 와중에 월남하여 부평에 정착하여 살다 간 시인이다.²⁴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병(癩病), 다른 말로 한센병이 발병하여 1959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1975년 타계할 때까지 평생 동안

²³ 「에스컴 신정문 쪽으로 난 좌회전 신호등」, 네이버 카페 신현수의 시와 삶(<https://cafe.naver.com/shinhyunshoo>)에서 가져왔다. 이 카페에는 이 시 말고도 부평 미군 부대에 대한 더욱 절절한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게재되어 있다. 분량 관계로 인용된 시로 가름한다.

²⁴ 한하운 온라인 문학관(<http://www.hanhaun.kr>)은 부평역사박물관이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으로 한하운 관련 자료와 작품 등이 디지털 파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글의 한하운 관련 내용은 온라인 문학관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이른바 ‘문둥이 시인’으로 유명세 아닌 유명세 속에서 살아갔다.²⁵

그를 유명하게 만든 시들 대부분은 천형이라 할 나병 때문에 근본적이고도 실존적인 고통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둥병을 앓고 있는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고통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와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한하운의 시는 대중성을 얻는 데 성공한다. 「보리피리」나 「파랑새」는 그런 처지에 바탕을 둔 정서와 언어로 창작되었는데 모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들이다. 두 시 모두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교과서에 실려있기도 하다. 예컨대 1949년에 발표된 「소록도로 가는 길에」라는 부제가 붙은 「전라도 길」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역시 한하운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
낮선 친구 만나면 /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 쭈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찢름거리며 / 가는 길... //
신을 벗으면 /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
발가락이 또 하나 없다. /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이 시에도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 이른바 ‘문둥이’의 처지와 그들의 고통스런 현실이 쉬우면서도 인상적인 시어로 표현되어 있다. ‘신발을 벗으면 발가락이 잘려 나온 다’라는 적나라한 묘사는 한편으로는 나병환자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절박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기도 하다. 물론 스스로 문둥이의 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것이 시 창작의 전략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느 편이라 하더라도 한

²⁵ 나병, 혹은 한센병은 누구나 기피하는 병이지만 그만큼 역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일부 엽기에 가까운 잘못된 소문 덕분에 부정적인 편견이 더욱 확산되기도 하였다. 1949년 『동아일보』 기사 「흡혈귀 나환자」 같이 나환자들이 어린아이들의 피를 먹는다는 소문에 가까운 기사나 서정주의 「문둥이」 같은 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였다.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배척받는 존재와 그들의 처지를 대중적인 시의 언어로 드러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당시 한하운의 대중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건은 그의 이런 처지가 『나의 슬픈 반세기』라는 자서전에 근거하여 드라마로 각색한 「황토길」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까지 만들어 개봉되었다는 데에 있다. 미국 공보원에서 만든 문화영화여서 상업적으로 개봉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개봉되었다는 신문 기사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당시 그의 유명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²⁶ 이 영화는 미국이 이른바 후진국 국가에게 얼마나 자비로운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홍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에는 하나 아무튼 한센병을 지닌 시인이 미국의 도움으로 완치가 된다는 이야기에 한하운이 등장하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 볼 바가 많다.

그런데 이런 한하운이 사실은 부평의 시인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한하운이 부평과 인연을 맺은 것은 나병환자촌으로 조성된 만월산 계곡에 자리를 잡으면서 부터이다. 그는 자작시 해설집 『황토길』 중에서 다음처럼 언급하고 있다.

우선 부평은 이 지방민의 반대가 없을 것이라 믿고 불모의 산협(山峽)이지만 우리가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우리들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택하기로 하였다. 나는 그들을 설득시키고 수원시의 알선으로 서력 1949년 12월 30일 밤 8시에 70명 환자를 인솔하고 부평으로 갔다.²⁷

불모의 산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탓에 깊은 산골이라고 보기는 힘든 지역이다. 현재는 인천가족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명절 등에는 인파가 몰린다. 그러나 인천과 부평을 가로지르는 산자락이므로 당시로서는 인가가 뜬 산

26 「敎藏」의 시인 한하운 씨, '황토길' 영화화에 산보람, 『조선일보』, 1962년 7월 2일자.

27 한하운, 『황토길-자작시 해설 총서』, 신흥출판사, 1960, 143~144쪽.

골이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곳은 이른바 문둥이촌으로 불렸던 것도 사실이다.²⁸ 한하운은 월남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부평에서 보냈다. 1975년 부평구 십정동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한하운은 부평에서 나환자들을 위한 성계원(成蹊園)의 자치 위원장, 부평 신명보육원 원장 등을 지내며 나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들의 치료를 위해 앞장섰다.



❖ 신명보육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한하운(출처: 「나병환자 시인 한하운 '발 갱이 파문」, 『아시아경제』, 2016년 1월 1일자)

그의 시가 부평이라는 지명을 뚜렷하게 드러낸 경우는 많지 않다. 「부평지역 청년단체연합회에 부친다」라는 이름의 시가 제목에 '부평'이 들어간 유일한 경우로 보인다. 이외에 작고한 뒤 발굴된 유고 시들 중에 「여가(驪歌)」라는 시의 본문에 '부평'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사실이 눈에 띈다.

님 오시면 피어라 진달래꽃 / 한식에 소복(素服)이 통곡할 때에 //
 부평 성계원에 진달래 피면 / 이 세상 울고 온 문둥이는 목쉬어 //
 진달래 핏빛 봉오리는 / 그리움에 영긴 앵혈(鶯血) //……
 앞날이 없는 문둥이는 / 돌아서 돌아서면서 무너지는 가슴에 //

28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이곳에 살던 아이가 있었다. 주로 닭을 키우고 달걀을 생산하던 농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들에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난다. 조금 흥분해서 얼굴이 붉어진 상태였는데 아마 그 친구가 사는 동네를 '문둥이촌'으로 불려서 그랬던 것 같다. 항상 조용하고 성실했던 친구였다.

다시는 뵈울 수 없는 것은 / 다신 뵈울 수 없는 것은 /
님 오시면 피어라 진달래꽃 //

이렇게 한하운 시 중에 부평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예가 많지는 않다.²⁹ 그러나 분명 한하운은 부평에 거주하며 시를 쓰기도 했고 한센인을 위한 일들을 했다. 적어도 부평에 정착한 이후 창작된 한하운의 시나 활동들은 부평과 완전히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하운의 시를 부평의 문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듯이 부평의 문학에 대한 범주를 나눌 때 비록 부평이라는 지명이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평과의 연관성 속에서 창작된 것이라면 이 또한 ‘부평의 문학’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 문인이 작품을 쓸 때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이나 도시, 혹은 공동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건 매우 상식적인 추론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하운의 문학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계원의 위치가 바로 부평이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조병창이나 미군 부대가 부평에 위치했듯이 성계원이라는 한센인들의 공동체가 부평에 위치했다는 점은 부평의 지역성과 연관시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한센인들, 확실한 소수자이고 차별받는 마이너리티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부평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혹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평이라는 마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쫓겨난 곳,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땅, 그러면서도 서울로부터는 거리를 둔 외딴 마을, 중심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부평의 산골이었던 것이다. 이는 나중에 광주대단지 폭동 사건을 일으킨 빈민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이들도 서울에서 쫓겨나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광주라는 주변부로 정착을 강요당한 존재들이었다. 광주의 빈민들이 마이너리티

29 미발표 유고 시 「양갈보」 중에 “부평. 백마장./신부(新附)지 못할 미국 제50주 다음 가는 여기밖에는 없는가”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이 시는 미발표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당시 기지촌 여성에 대한 심각한 혐오 내용과 젠더 차별 등의 인식도 포함되어 있어 상세히 거론하지는 않는다. 시인 스스로도 굳이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존중하기로 한다(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한하운 전집』, 문학과지성사, 2010, 194~196쪽).

들이었듯이 부평 성계원의 한센인들은 마이너리티 가운데에서도 마이너리티들이었다. 1970년에 발표된 「춘일지지(春日遲遲)」는 이런 한센인들의 처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 마이너리티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뚜렷하게 드러내는 바가 있다.

꽃샘바람은 / 꽃이 시새워서 분다지만 //
초근목피에 주린 배를 채우면 / 메스메스 생목만 올라 //
부황증에 한속(寒粟)이 춥다 / 노고지리는 / 포만증을 새기느라 / 진종일 울어야 하지만 //
아예 배고픔을 내색않는 문둥이는 / 얼마나 울어야 하는 이야기인가 //
굶주림은 /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 //³⁰

결국 마이너리티의 실체는 굶주림이자 빈곤이다. 굶주림이 차라리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인식은 소외되고 빈곤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더구나 그런 굶주림에 겨운 배고픔을 내색할 수 없는 처지, 문둥이라는 존재는 더 슬프다.

이렇게 한하운의 시에는 당시 부평에서 살아가던 한센인들의 문제가 투영되어 있다. 따지고 보면 미군 부대 기지촌보다 이런 한센인 마을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훨씬 부족했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질병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데 애꿎은 한센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과거만의 일은 아니다.³¹ 질병의 관리와 통제, 치료 또한 공공이나 국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한센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존재로 살아왔다. 한하운은 부평 한센인 마을에 살면서 이들의 처지를 드러내는 시를 계속 발표했고 한센인 구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에서 부평 문학의 자산, 더 나아가 한국문학이 제기해야 할 문제를 일찌감치 제기한 문학사적 인물로 기록

30 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한하운 전집』, 문학과지성사, 2010, 134쪽.

31 한센병은 유전적 요인이 적고 전염력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한다. 즉, 실제보다 위험이 과대하게 부풀려졌고 그것도 매우 엽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혐오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여러 층위의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되어야 한다. 마이너리티는 존재 자체로 인해 한 사회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질병과 혐오의 문제들이 그의 시에는 매우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부평이라는 곳이 조병창이나 미군 부대 기지촌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었듯이 한센인 마을을 통해 가장 예민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었다는 점은 다시 기억되고 조명되어야 한다.

| 제6절 | 부평, 노동문학의 산실이 되다

일제시대 말기에 부평평야에 조병창이 들어서면서 각종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기지 역할을 하였던 것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부평은 인천이라는 수출입항과 서울이라는 수도 사이에 놓여있는 평야 지대였으므로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이용 가치가 높은 곳이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런 땅을 그냥 농업용으로 방치해 놓기 보다는 뭔가 생산성이 훨씬 높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였을까, 이곳은 1960년대부터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개발되어 서울 구로와 함께 한국의 근대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공업단지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갖추게 된다.

그러나 효율성에 기초해 경제적 풍요로움을 얻겠다는 산업화 전략은 근대적 공공선이나 공동체의 평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또 다른 가치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풍요나 효율 만능의 가치는 종종 공공의 이익이나 정의의 가치와 대립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빈곤에 시달리다 보면 풍요로움에 대한 지향이 초기에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공공선이나 공동체 모두의 평등과 풍요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의문은 그 크기나 정도에 따라 사회적 저항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물적 욕망보다 성찰적 이성 토대를 둔 민주화 운동이 산업화 이후에 더욱 큰 역사적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일 수도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한때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일상과 정치 영역 모두에서 확산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노동운동이 정치적 민주화 운동과 쌍두마차로 한국 사회의 민주적 진전에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은 다양한 시민 사회 운동으로 분화되었으나 이 역시 정치적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구로나 부평, 주안 등 공단은 노동자들의 도시였고 이곳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싹이 자라 꽃피워졌고 열매를 맺었다. 그 노동운동의 연장선 위에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2017년 촛불혁명도 존재한다.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함께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과연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고 마찬가지로 그런 성과가 있었기에 시민들이 2016년 겨울에서 2017년 봄에 이르는 그 기간에 광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평은 한국 근대사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 한 곳이다. 노동운동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부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동체의 자랑스럽고도 살아있는 역사로 과거의 사실과 유산들이 적극적으로 해석·보존되고 알려져야 한다.³²

부평에서 싹을 틔운 노동문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운동에 기반을 둔 노동문학은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한국 현대문학사를 훑어 정리한다면 1980년대 민중문학, 그 가운데에서도 노동문학을 빼놓고 이 시기의 문학을 설명하기 어렵다. 1980년대 한국 사회가 거둔 민주적 진전 가운데 문화사적 측면에서 민중문학의 역할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학은 문화를 구성하는 기초 장르로서 한 시대의 사회적 정서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노동문학이나 민중문학의 역할이 있었기에 광범위한 대중 운동으로 1980년대 민중·민주 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 즉, 노동문학은 1980년대 민중 운동의 정서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매우 중요한 주춧돌이었다.

부평에서 꽃을 피운 노동문학의 역할은 그런 점에서 다시 조명되고 평가될 필요가

³²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과거 미군 부대의 역사나 조병창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은 적극적으로 현재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이에 비해 훨씬 더 비중이 큰 부평 노동운동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있다. 예컨대 초기 노동자들의 운동을 수기 형태로 기록한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의 예를 보자. 이 작품은 일종의 르포 문학으로 시골에서 너무나 가난해 먹고살 길을 찾아 서울로 온 한 청년이 부평공단에 취업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1973년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 삼원섬유에 취직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시 해직되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초기 노동운동이 부평에서 발아하는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다. 본격적인 노동문학이 출현하기 전 노동자들의 수기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 부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넓은 차원에서 봤을 때 부평이 한국 노동문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노동문학의 발상지로서 부평의 역할을 『어느 돌맹이의 외침』이 온전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작품은 당시 노동운동에 대한 충실한 기록물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 모임(부평지역선교회-인용자)이 처음으로 움트기 시작한 것은 작년, 그러니까 삼원섬유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후인 1973년 12월 19일, 부평공단 및 부평 지역의 노동자들이 모여 직접 대본을 쓰고 연극을 연습해서 “작은 이들의 숨결”이라는 노동자의 밤을 가졌을 때다.³³

이런 식의 기록은 이 책의 곳곳에 나온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여러 사실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게다가 초기 노동운동의 가능성이나 초기여서 겪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부평의 여러 곳, 그러니까 대한극장이나 보리수다방, 부평시장, 부평경찰서 등 현재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사라져버린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진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초기 기록문학 이외에도 노동문학이 가장 빛을 발하던 시기의 작품도 부평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³⁴ 그중에서도 「씻물처럼」의 작가 정화진의 소설은

33 유동우, 『어느 돌맹이의 외침』, 철수와 영화, 2020, 207~208쪽.

34 이와 관련해 부평사 서술과는 별도로 부평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에 대한 현황 조사나 선집 발간 관련 연구도 뒤따라기를 기대한다.

대부분 부평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³⁵ 「씻물처럼」도 소설의 내용에는 인천공단이라고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곳은 부평공단이라고 작가가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의 진위 여부가 이 작품의 성패를 가를 것은 아니다. 즉, 그곳이 부평이나 인천이냐를 굳이 따질 계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의 다른 작품인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이나 「규찰을 서며」 같은 곳에서는 명백하게 소설의 배경이 부평임을 알 수 있는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온다.

아직 몇 번 만나본 것에 지나지 않지만 만나서 저녁을 먹을 때는 항상 레스토랑을 이용했다. '미네르바', '아론', '찬스'……. 만난 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벌써 부평역 앞의 레스토랑을 몇 번이나 다녔는지 얼핏 기억하기에도 힘들 정도가 되었다.³⁶

인용문은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에서 가져온 것인데 여주인공인 노동자 순임이 자신이 근무하는 영보실업이라는 회사의 계장과 데이트를 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부평역 주변은 유흥가가 모여있는 곳으로 그려져 있다. 실제로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레스토랑 이름도 그럴 듯하다. 부평역과 그 주변의 유흥가는 이렇게 공단과는 대비되는 공간으로 자주 등장하다. 정화진 소설도 그렇지만 앞에 언급된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은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노동자들의 풋풋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고향 오빠이자 같은 공장의 노동자인 명철은 순임을 남몰래 사랑하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순임은 회사 관리직인 박 계장과 데이트를 한다. 그러다가 순임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목격하고 박 계장이 자기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명철과 순임은 노조의 단합 야유회 대절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부평역 광장에서 손을 잡고 함께 차에 오른다.

지금 보면 너무 정해진 과정에 뻘한 결말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자와 관리직

35 「씻물처럼」은 무크지 『문학예술운동1-전환기의 민족문학』(풀빛, 1987)에 처음 발표되었다. 목차에는 ‘노동자 투고 작품’으로 나와 있다.

36 노동자 작가 편, 『새벽출정-80년대 대표노동소설선』, 도서출판 녹두, 1990, 77쪽.

의 대립을 통해 계급의 문제를 드러낸다거나 노동자들의 연대가 남녀 간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도식이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1980년대 노동 소설 대부분은 노동자들의 건강한 생활력과 투쟁 의식, 순수한 애정관 등을 의식적으로 그려내려 하였다. 그게 ‘역사의 주인’으로 떠오르는 노동자를 정당하게 그리는 방법이라 여겨지기도 했다.

정화진의 다른 작품 「규찰을 서며」는 조금 더 뚜렷한 투쟁 의식과 노동자들의 연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부평공단 내 공장들의 연쇄 파업 과정에서 구사대와 경찰들이 파업 현장의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를 편성해 일종의 보초를 서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보초를 서는 인물들의 관점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파업 투쟁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시 가다듬는다는 내용이다. 파업 현장의 긴장감이 넘치는 만큼 노동과 자본의 대립은 앞의 작품들보다 훨씬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부평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앞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유흥가를 놔두고 - 사실 부평역 주변은 인천의 명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 시커먼 공단 옆에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착상부터가 꼴통짓거리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자신만만한 단정은 쇠나 깎는 공돌이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견에 지나지 않았음을 곧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다.

부평의 유일한 호텔이 친절하게도 자본가의 안방 옆으로 터를 잡아준 것이었다. 사장의 자가용을 애써 서울이나 혹은 송도비치로 뺄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고, 바이어 접대를 위해 애써 택시비에 비싼 화대까지 지불하며 고급스러운 잠자리와 여자를 구하러 방황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었다.³⁷

내용이 내용인지라 부평에 대한 묘사 역시 시각이 뚜렷하다. 주인공인 장원이나 종덕의 눈에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자본가의 욕망이 투영되는 공간은 서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호텔의 필요성과 로비를 위한 자본가의 비열한 행태를 연관시키는 것

도 매우 의도적이다.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작가는 훨씬 더 목적의식적이다.

그런데 지금도 부평구 갈산동에 그 호텔이 영업 중이다. 실제로 호텔이 생긴 것도 소설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다. 소설 속의 호텔은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연결되는 곳에 있는 부평관광호텔을 지칭한다. 이 인용문의 바로 앞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갈산동 입구에 난데없는 호텔이 들어설 때만 해도……”라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봐도 소설 속 호텔은 현실의 호텔을 닮아있다. 그만큼 이 소설은 부평의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본가, 혹은 구사대나 파업을 막으려는 경찰과 격렬하게 싸우는 현장을 이 작품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본과 맞서 싸우면서 이들은 그들과 한편인 경찰의 폭력을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에 대한 신념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학생운동과는 달리 생활의 문제가 달린 이들의 투쟁력은 훨씬 절실하고 강력하다. 정화진의 「규찰을 서며」는 실제 파업 현장의 문제를 그려낸 당시 노동문학의 성취를 보여준다.

소설가 이외에도 이 시기의 부평 지역을 근거로 활동한 노동자 출신 시인으로 박영근(1958~2006)이 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인천의 노동운동, 노동문화운동에 관여하였고 나중에는 아예 부평에 터를 잡고 살면서 시도 쓰고 여러 운동에 관계했다. 그는 1984년에 첫 시집 『취업공고판 앞에서』를 통해 노동자 시인으로 자기 위치를 분명히 했다. 박영근 역시 한하운과 마찬가지로 부평에 생활의 터전을 두고 활동했던 시인이다. 따라서 그의 시에 부평이 등장하는가 아닌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가 창작한 시에는 여러모로 부평이라는 공간이 알게 모르게 투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터 잡고 살아갔던 곳이 부평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박영근의 시에 부평을 굳이 찾아서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시 가운데 부평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므로 이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980년대 노동운동의 현장을 다룬 시들은 앞에서 살펴본 노동 소설과 비슷한 정서와 이념의 연장선 위에 있다.

37 노동자 작가 편, 『새벽출정-80년대 대표노동소설선』, 도서출판 녹두, 1990, 88쪽.

투쟁 노래도 까뭇 잠든 / 한밤중 / 부평공단 새나라금속 공장
 이층 무조건 올려 생산 라인에 / 백 명쯤 되는 농성 조합원들이 / 어느새 열사를 썰
 싸움으로 지친 몸들을 / 새 세상 단꿈으로 눕히고 있는데 / 이게 무슨 소리 / 쿵!
 딱따다다다 와장창! / 캄캄한 판에 / 문짝이 떨어지고 유리창 파편이 튀어오르고
 각목에 쇠파이프가 날아드는데 / 어찌할거나 / 그저 맞고 터지고 깨지고
 개좨같은 쌍소리에 밟히고 / 피 흘리며 쓰러질밖에 ……

「파업」부분³⁸

이 작품은 모두 15쪽으로 된, 파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탄압의 전 장면을 시로
 구성한 것이다. 인용 부분은 시의 첫 도입부이다. 서사시 형태의 이 시는 노동자들의 투
 쟁 의지를 고취하는 한편으로 자본가나 구사대를 신랄하게 조롱하고 비판한다. 마치 판
 소리처럼 운율과 리듬감을 갖고 있어서 시를 소리 내어 낭송하는 것만으로도 판소리 한
 대목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한다. 아마 시인은 이 시가 실제 파업 현장이나 노동자
 들의 집회에서 낭송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창작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80년대 노동문
 학의 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면서 이 시의 배경이 부평공단임을 확인하게 해
 주는 작품이다. 구사대, 자본가와 같은 권력 집단과 맞서는 노동자들의 힘찬 모습이 그
 려져 있다. 이 시에는 1980년대 한창 노동운동의 열기가 타올랐을 때의 정서가 앞에서
 살펴본 노동 소설들과 비슷하게 깊게 배어있다.

그러나 박영근의 시 가운데 부평을 노래한 시는 후일 그의 말년에 쓴 작품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예컨대 「낮은 집」 같은 시는 부평에 살던 박영근의 정서가 실제 살던 집을
 바탕으로 짚게 드리워져 있다. 그의 시들 대다수가 부평에서 창작된 것일 테지만 특히
 이 시는 공간으로서 부평이 전면화되어 있는 동시에 당시 시인의 실존적 고민이나 생활
 의 처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의미 깊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낮은 집에서
 지나간 시절을 돌이켜 보고 현재의 자신을 성찰한다. 그건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 자신
 의 삶이 텅 비어 버린 허무함에 대한 자각이다.

38 박영근 전집 간행위원회, 『박영근 전집1 시』, 실천문화사, 2016, 743쪽. 이 시의 원 출처는 『녹두꽃』1(녹두, 1988)이다. 모두 15쪽으로 된 파업 현장에서의 투쟁과 탄압의 전 장면을 시로 구성한 작품이다.

기왓장을 울리는 빗소리 속으로 낮은 집 한 채 흘러간다

깨어져 빗물이 새는 기왓장들 사이를
 천막 쪼가리들이 안간힘으로 잡고 있는,
 손바닥짜리 마당이 남향으로 나 있는
 그 집

공단 마을의 단칸방들과 골목을 떠돌다
 처음으로 대문 밖을 향하여 이름을 내걸며 웃던,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10의 22번지

빗소리가 울린다
 온통 빗소리에 갇혀 집이 울린다
 장미철 꽃들이 일제히 목을 떨어뜨리고,
 그래, 십여 년의 시간이 가파르게 흘러갔다

「낮은 집」 1 전체³⁹

이 시는 전체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정시치고는 분량이 6쪽에 달해
 비교적 긴 분량이다. 하나의 장을 독립된 시로 읽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낮은 집」
 이라는 제목에 몇 편의 시가 연달아 붙은 연작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시를 읽다 보
 면 시 한 편이 하나의 세계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삶에 대해 텅 빈 허무함, 절
 망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생에 대한 방기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살아
 온 집과 그곳에서의 과거와 현재가 환기되면서 밀도 있는 정서를 통해 전달되므로 독자
 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가 살다 간 부평의 작고 낮은 집이 새삼 귀하게 느껴지는 까

39 박영근 전집 간행위원회, 『박영근 전집1 시』, 실천문화사, 2016, 629쪽. 타계하기 2년 전인 2004년에 발표된 시
 이다. 이 시를 읽으면 그가 어쩌면 이 무렵부터 자기의 생명에 대해 방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답이다.⁴⁰

엄밀히 말해 박영근은 그냥 시인으로 평가받아야지 노동자 시인으로만 보면 그의 시 세계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냥 한 사람의 뛰어난 시인이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그리고 2000년을 넘어서까지 충실하게 시를 쓰면서 살아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다는 자각에 스스로의 생명을 살뜰하게 챙기지 않았던 것일지 모른다.

박영근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시인으로 정세훈이 있다. 그는 「부평 4공단」과 「부평 4공단 여공」으로 부평공단의 역사와 그곳에서 노동자들의 사랑과 인간 사이의 깊은 연대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시인이다. 특히 「부평 4공단」은 2연 27행의 짧은 시 안에 부평 4공단의 과거와 현재를 노동자의 시각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수십 년의 역사가 한 편의 시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시간의 흐름을 마치 공간의 조감도처럼 표현해내고 있어서 독특한 시공간의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

반듯반듯 경계의 선이 그어진 / 부평4공단 드넓은 벌판에
삶이 죽음보다 가까운, 순풍인 듯 / 산업화 바람이 불었지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 사각형의 공장들이 차곡차곡 점유했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 아직은 더 자라야 할
나이 어린 소년 소녀들 / 사각형의 공장 안에서 소멸되어갔지
.....
사각형의 공장들이 하나둘 떠난 자리 / 원격조정 중앙시스템 장비가 갖추어진
화려한 빌딩들이 어지럽게 들어서고 / 떠난 공장에 버림받은 소년 소녀들
속절없이 불던 산업화 바람처럼 / 어느 사이 훌쩍 나이만 들어
기웃거리네 배회하네 / 죽음이 삶보다 가까운
부평 4공단 드넓은 벌판을⁴¹

40 「넓은 집」은 이후 그가 타계하던 해에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이사」와 함께 읽어야 한다. 여기에도 그 집이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한다.

41 정세훈, 『몸의 중심』, 살창, 2016, 64~65쪽.

정세훈의 시는 투박하지만 솔직하고 직설적이다. 여러 차례 다듬고 수정해서 잘 정련된 시어(詩語)가 아니라 그냥 보이고 느끼는 대로 툭툭 내뱉듯이 쓴 시여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진다.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절제된 언어로 부평 4공단의 변화상이 확연히 표현되어 있다. 이 시에서는 공장이 떠나가고 있는 공단의 현실과 나이 들어버린 옛 노동자들의 표정이 쓸쓸하게 다가온다.

다른 한편 「부평 4공단 여공」에는 이 공단에서 살아가는 피가 흐르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시에서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서로 간의 생활과 처지에 대한 공감과 연대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부평 4공단 여공’이라는 제목을 앞세워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적 화자가 노동과 곤궁함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감정을 치장하고 서로 계산하면서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배어난 생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사랑이 시작된다는 고백을 이렇게 시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펜팔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그녀는
부평 4공단에서 여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렵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연장작업, 휴일 특근 작업, 36시간 교대 작업,
공장생활의 고단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아프지만 병원 갈 돈이 없다는 소식이 오고 갔다
“아프지만”이란 소식에
그녀가 보고 싶어졌다
“병원 갈 돈이 없다”는 소식에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부평 4공단 여공」 부분⁴²

42 정세훈, 『부평 4공단 여공』, 푸른사상, 2012, 26쪽.

정세훈의 시에는 이렇게 부평공단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의 역사가 담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시가 지닌 가장 큰 미덕이기도 하다. 수십 년이 흘러도 그의 시는 산업화 시대의 부평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간 노동자들의 정서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 제7절 | 부평, 새로운 스토리 콘텐츠로 탄생하기 위하여

부평구는 2015년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평 음악·융합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더 탄력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문화재단에서는 1960년대 부평 미군 부대 주변의 음악 밴드 이야기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기획·발굴하여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사업을 해왔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뮤지컬은 2014년에 처음 무대에서 공연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2018년에는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공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공연 장면(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다른 한편으로 2019년부터는 1970년대 부평에서 태어난 재즈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헛스윙밴드 - 재즈는 울지 않는다」를 기획하여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후속편 격으로 보이는데, 부평이 음악 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창작 뮤지컬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부평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부평의 시민들에게 부평의 지역적 정체성을 현재에 되살린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물론 대상이 부평 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열려 있는 것이겠지만 부평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 나아가 공연물로 만드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런 시도들은 모두 부평의 역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토리 콘텐츠로 재창조하려는 매우 신선한 기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창작 뮤지컬은 공연 횟수를 늘려가면서 점차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그 작품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부평의 이야기, 부평의 역사를 이렇게 대중적인 공연물로 창작하여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 지역이나 장소가 주는 쾌적성)를 높이려는 기획은 지금까지 살펴본 부평의 문화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 「헛스윙」 공연 장면(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 「언노운」 공연 장면(출처 : 극단 아톰)

더구나 부평문화재단의 이런 기획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마침 일제시대 조병창의 역사를 뮤지컬로 만든 「언노운」이라는 또 다른 공연물이 2019년 부평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언노운」은 일제시대 조병창을 둘러싸고 일제의 탄압과 이에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

세력의 투쟁을 필남이라는 여성 주인공의 인생에 녹여 만든 뮤지컬이다. 순수 민간 극단에서 기획하고 창작하여 만든 뮤지컬이고 이를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함으로써 공연물 제작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내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에서 주목할 것은 부평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장르로 적극 창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되는 것은 애항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성찰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특히 이런 일에 부평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더욱 반가운 일이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서 부평은 전통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으로 변해 왔다. 부평을 기록한 다양한 문학작품은 부평의 이런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런 문학작품을 통해 부평은 사람들의 사랑이나 고통, 노동의 영광과 좌절이 담긴 공간, 결국 사람이 살고 있는 고장임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문학작품에 부평이 등장해서 진정 사람들의 드라마가 이곳에서 진지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뮤지컬 창작 공연 같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획이 늘어나고 더 감동적인 스토리 콘텐츠가 창작되기 위해서도 부평의 역사가 더욱 다양하게 해석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평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의 정리와 연구, 그 기초가 되는 자료 발굴 등이 보다 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노동자 작가 편, 『새벽출정-80년대 대표노동소설선』, 도서출판 녹두, 1990.
문화재청, 『서울-경기-인천 문화유산 이야기여행』, 문화재청, 2013.
박영근 전집 간행위원회, 『박영근 전집1 시』, 실천문화사, 2016.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의 역사』, 부평문화원, 2007.
유동우, 『어느 돌맹이의 외침』, 철수와 영화, 2020.
이영태, 『옛 지도와 함께하는 한시 여행-인천으로 가는 길』, 채륜, 2017.
이원규, 『깊고 긴 골짜기』, 고려원, 1991.
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한하운 전집』, 문학과지성사, 2010.
작가들 편집위원회, 『작가들』, 67, 도서출판다인아트, 2018.
정세훈, 『몸의 중심』, 삶창, 2016.
정세훈, 『부평 4공단 여공』, 푸른사상, 2012.
하인즈 인수 펜클, 문상화역, 『고스트 브라더』, 문학과지성사, 2005.
황석영, 『문학예술운동1-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웹사이트

- ‘고제완의 여행을 떠나요’ 블로그(<https://blog.naver.com/jawkoh/22165863319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신현수의 시와 삶(<https://cafe.naver.com/shinhyunshoo>)
한하운 온라인 문학관(<http://www.hanhaun.kr>)





제 7 장

부평의 노동문화
: 노동미술, 노동가요, 노동시

- 제1절 _ 노동운동의 중심지 부평
- 제2절 _ 부평의 노동을 그리다(노동미술)
- 제3절 _ 노동운동 노래의 산실 부평(노동가요)
- 제4절 _ 부평의 노동자와 노동시(노동시인)

제7장 부평의 노동문화 : 노동미술, 노동가요, 노동시



송 용 한(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문화란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포함해 삶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부평의 노동문화란 좁은 의미로 임금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문화를 의미한다. 특히 부평에 산업공단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노동자와 부평의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미술, 노동가요, 노동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부평은 근대화 이전 농업사회였으나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겪으며 군사도시의 성격을 갖고 성장했다. 일제강점기 부평에는 일본군 조병창 부대가 주둔했고, 광복 이후 일본군 부대가 주둔했던 자리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했다. 이 시기 군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일부 군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군인이었다.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부평에는 부평산업공단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평에는 공단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평은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었다.

현재 부평의 미군부대는 대부분 이전했고, 그 터의 일부는 2020년 현재 공원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토지 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평에는 아직 한국군 부대는 남아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부평은 군사도시와 산업도시라는 복합적 특성과 함

께 두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산업도시로서 부평의 노동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평의 노동문화는 부평산업공단의 공장 안과 공장 밖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공장 밖은 일제강점기부터 일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된 노동자 주거지역인 삼릉을 비롯해 미군부대 주변 지역인 산곡동, 청천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평산업공단 주변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가 자연스럽게 노동자 주거지역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1970~80년대 부평 지역은 구로공단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집결지로 대학생들이 위장취업을 하고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 문화의 산실 역할을 했다. 이는 부평의 노동문화가 한국의 노동운동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맥을 같이 하며, 한국 사회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1절에서는 먼저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부평의 노동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특히 산업화 이전 군사도시로서 부평이 갖는 지역적 특성이 산업화 이후 노동자 증가와 함께 산업도시로 전환되며, 부평이 어떻게 노동운동에 영향을 주며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는지, 부평이 한국의 노동운동 나아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제2절부터 4절까지는 부평의 다양한 노동문화 중 노동미술, 노동가요, 노동시를 중심으로 부평의 노동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또한 노동문화를 통해 노동자의 삶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외 부평의 노동문화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 제1절 | 노동운동의 중심지 부평

1. 산업화 이전 군사도시로서 부평

산업화 이전 부평은 군사도시의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조병창이 위치했고, 해방 후에는 일제 조병창 자리에 미군기지인 군수지원사령부가 들어섰다. 미군의 군수지원사령부는 애스컴 시티(ASCOM City, Army Service Command City)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다.



◆ 애스컴 시티의 전경(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미군부대에는 미군이 채용한 군 소속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미군 부대에서 잡무를 처리하거나 각종 용역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당시 미군부대 측은 미군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군속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부대에서 수시로 인원감축을 통해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등 횡포가 심했다.

이러한 미군 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기 위해 1960~70년대부터 노동자들이 '전국

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약칭 외기노조)¹ 등을 결성하고 미군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는 활동을 했다. 1964년에는 미군부대 노무자 감원반대 데모를 하기 위해 노조사무실 앞으로 외국기관노조 부평지부 노조원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거리행렬을 하기도 했다.²

당시 부평에서 미군부대에 근무하던 군속 노동자들은 미군부대 주변에 거주지를 형성하며 마을을 이루고 살아왔다. 이 지역 중 한 곳이 삼릉이고 또 다른 곳이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지 주변에 형성된 공간이기도 하다.

2. 산업화 시기 부평산업공단과 노동자의 삶

부평산업공단은 박정희 군사정권시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부평산업공단은 1965년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원을 제4단지로 지정하고 1969년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다.

박정희 정권 시기, 부평은 수출입이 원활하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1차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부평은 신발공장, 가발공장, 봉제공장과 같은 경공업 위주의 노동집약적인 공장들이 들어서게 됐다.

1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고용으로 인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마찰이 생기게 되고, 단체교섭창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미군 주둔지역에 지역별노조의 설립이 확산되었다. 이에 전국단위의 단일 고용주로서 지역별로는 노사 간의 문제처리가 어렵게 되자 1959년 11월 8일 서울, 파주, 동두천, 부평, 인천, 부산지구 등 6개 미군노조 산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전국미군종업원노조연맹'을 결성하였다. 그 후 미군 종업원의 권익수호와 생활수준 향상을 모색하던 중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해산되었다가, 같은 해 8월 3일 공포된 법률 제672호에 의하여 전국미군종업원노조연맹이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어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재건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해당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감원반대 데모 좌절 : 부평서 미군부대 종원원 2천여 명」, 『경향신문』, 1964년 12월 14일자.



❖ 부평 수출공단 전경(1972, 부평역사박물관)

인천의 초기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출산업단지 4, 5, 6단지를 말한다. 원래 이 번호는 1, 2, 3이었고, 그 앞의 이름도 인천수출산업단지였으나, 1971년 11월 인천수출산업공단이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된 이후 그렇게 변했다. 그리고 각각 부평 1공단, 주안 2공단이라는 인천의 정겨운 이름으로 불려졌고, 마지막 공단은 ‘주안 3공단’이라고 불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독재 정부는 산업 정책을 중앙 집권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천수출산업공단을 서울 중심의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통합시켰던 것이다. 인천의 상공인들은 중앙 정부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인천에 독자적인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가 부평 1공단, 주안 2공단, 주안 3공단이다. 각각은 서울에 조성된 국가주도의 공단들과 달리 인천의 기존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수출지향적인 성격을 띠었다. 인천의 초기 국가산업단지는 서울의 초기 국가산업단지가 갖고 있었던, 유희적 테일러리즘의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산업적 특성 면에서 인천 고유의 지역성을 갖고 있었다.³

3 서민철, 「인천의 초기 국가산업단지의 형성 과정과 산업집적지의 특성」, 『기전문화연구』 37, 2016.

부평산업공단은 미군부대 일부를 산업단지로 전환시키는 한편, 조병창과 미군부대 군속노동자들이 살던 주거공간을 노동자들의 주요 주거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부평산업공단 조성 후에는 노동자의 주거공간이 부평역 주변의 삼릉 지역보다 부평산업공단과 인접한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현재 산곡동 주변을 걷다보면 근대 부평의 모습인 일본육군조병창과 영단주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청천동 주변은 산업화 시대 부평의 모습인 부평산업공단과 노동자들의 마을을 찾아볼 수 있다.

부평산업공단 인접 지역인 청천동과 효성동을 중심으로 산곡동, 갈산동, 작전동 일대로 주거공간이 확대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부평산업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생활해야 했고, 청천동과 효성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동네 일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우선 청천동과 효성동을 비롯해 주변 동네 일대는 부평산업공단과 인접해 있어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다. 일터와 가까운 거리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이 지역은 부평산업공단에서 밤늦게 일이 끝나거나 밤샘 철야 작업을 하고 새벽에 일이 끝나 교통편이 없어도 걸어서 집에 가 설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은 노동자들이 청천동, 효성동, 산곡동, 갈산동, 작전동 등 인근에 거주하며 잦은 야근이나 밤샘 철야 작업을 견디고 낮은 임금을 보전하며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 지역에는 산곡시장과 청천시장 등이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식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시장 주변에는 음식점이나 상가 등이 있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런 조건으로 이 지역은 시장과 상가 등이 섞여 있고, 이 곳에서 노동자들의 놀이와 소비를 비롯한 생활이 이루어진 일상생활기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지역 일대에 형성된 노동자 주거공간의 생활조건은 열악했다. 예컨대 산곡동 영단주택가의 집은 벽돌로 쌓은 방 한 칸 남짓한 공간의 집이 좁은 골목에 판자촌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좁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을

‘닭장집’이라 부르기도 했다.



◆ 산곡동 영단주택

산업화 시기 노동집약적인 부평산업공단 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닭장집’이라 불릴 정도로 열악한 주거공간조차 부족했다. 다음 기사는 1980년대 당시 부평산업공단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조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입사원이 하루에 50명씩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 다음 날 평균 30명이 관렸죠. 그리고 다음 날 10명, 또 그다음 날 5명이 관뒤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양재덕 실업극복인천 본부장(62)은 1984년 당시 부평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고려대 화학과 졸업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한 그였지만 인천 부평의 노동 현실은 언제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양 본부장은 한 달에 월급 8만 원 받으면 집 사글세를 4만 원 내야 했다.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겨울에 동상까지 걸리면서 항상 적자에 시달렸다. 인천은 특히 전

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노동자들로 넘쳐났지만,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가 불붙은 시기도 이 무렵이다.⁴

이런 조건은 부평산업공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노동자들은 관리사무직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차별에 대한 반발과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인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친다.⁵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주체가 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노동단체 사무실, 노동상담소, 성당 노동사목, 노동자 문화공간 등이 있어 의식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은 노동운동과 노동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을 제공했다.

3. 부평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부평에는 농민운동(부평수리조합농민운동)부터 외기노조 등 일련의 노동운동 흐름이 있었다. 부평수리조합농민운동(富平水利組合農民運動)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까지 일제가 수리시설 확충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 수리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각지에서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부평수리조합 납부반대운동이 한 예다. 이 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농업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전개 과정에 있어 운동 주체가 초기의 중농·소농층에서 곧 소작농 등 빈농으로 전환하는 등 식민지 아래 농민운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⁶

4 『경향신문』, 2009년 6월 3일자.

5 김귀옥, 「1960,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과정- 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1, 2004.

6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부평수리조합농민운동」 자료를 참고하였다.

부평수리조합농민운동은 농민운동이기는 하나 소작농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임금 노동의 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부평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조병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존재했고, 해방 이후에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인 노동자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이 시행되던 당시 노동운동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광복 후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외기노조를 결성해 노동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군무원으로서 노동운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외기노조가 부르던 노동가요나 그림 등은 수집 자료가 희박해 당시 노동문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산업화 이전 시기 군사도시로서 부평이 갖는 부평의 노동문화 형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평의 노동문화는 부평산업공단 형성과 함께 지역에서 노동운동에 기반한 민중문화운동과 학생운동이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인천에서는 ‘전통문화연구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1970년대 중반 서울로 통학하던 학생들 중심의 모임으로 동호회 수준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모임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청년문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청년문화운동은 종교단체나 야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자생적 문화운동의 성격을 갖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조직적으로 내려왔다. 이들이 인천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문화운동과 만나면서 진보적 문화운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기존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변혁운동 또는 혁명운동으로까지 고양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이 과정에서 급진적 학생운동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리고 학생운동권은 투신 공간으로 인천을 주목했다.⁷ 인천은 산업공단이 있고 공장파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7 군부 통치 시절 운동권 대학생들이 위장취업을 많이 했던 곳이 서울 구로공단과 인천 부평산업공단.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새누리당),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20대 총선 당선자(이상 정의당) 등도 부평지역 공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다. 그 이전 ‘아침 이슬’ ‘늪은 군인의 노래’로 유명한 가수 김민기는 1977년 부평산업공단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동료 근로자들의 합동결혼식 축가인 ‘상록수’를 작곡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16년 4월 20일자).

진보적 문화운동도 급진적 학생운동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진보적 문화운동은 두 가지 노선이 존재했다. 첫 번째 노선은 노동운동과의 관계에서 ‘연대’를 주장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전문적인 문화운동이 노동운동과 ‘연대’해야 한다는 노선이다. 예술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 노선은 문화운동이 변혁의 주체인 노동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사회변혁 주체로서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문화운동이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운동의 흐름은 서로 다른 두 입장의 노선에 따라 논쟁하고 발전하며 지역의 문화운동 흐름을 형성했다. 먼저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예술적 전문성을 강화하며 노동운동과는 또 다른 영역으로 문화운동 영역을 자리매김하는 흐름을 형성했다. 이러한 흐름은 서울의 ‘민중문화운동연합’(민문연) 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술적 전문성을 강화한 ‘민문연’의 활동은 대중적으로 많이 수용되며 노동현장과는 점차 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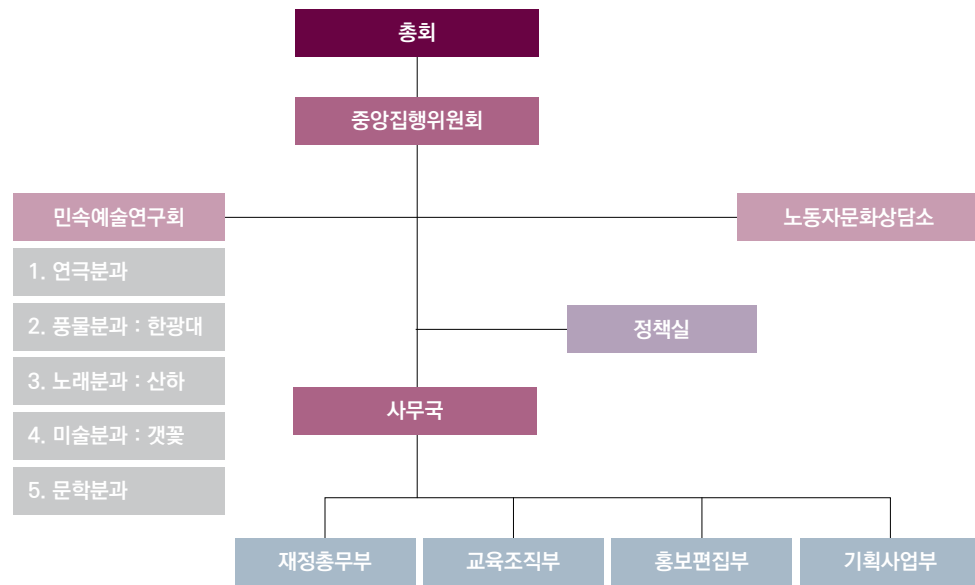
이에 반해 ‘복무’를 중시하는 입장은 적극적으로 생산 현장에 들어가 활동하며 ‘현장문화운동’ 그룹을 형성했다. 현장문화운동 그룹은 공장 밖에 활동공간을 만들어 공장 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문화운동 그룹은 공단지역으로 활동의 근거지를 옮기기 시작했다.⁸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운동 단체는 1988년 10월에 출범한 ‘인천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을 들 수 있다. 이 단체의 전신은 1988년 4월에 조직된 ‘우리문화사랑회’다. ‘우리문화사랑회’는 당시 인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운동 활동을 하던 풍물패, 노래패, 미술패 등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전해 온 문화활동가들과 만나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당시 활동한 대표적인 단체로 노래패는 ‘산하’, 풍물패는 ‘한광대’, 미술패는 ‘갯꽃’, 노동문화단체 ‘일손나눔’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활동 초기는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8 이재성, 「인천 민중문화운동의 역사」,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 435쪽.

‘인천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인문연)은 지역의 노동운동이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극받아 문화운동에서도 낮은 수준의 협의회 수준인 ‘우리문화사랑회’가 발전한 형태다. 인문연은 첫째, 제국주의 문화와 파쇼 문화의 척결 둘째, 노동대중의 자주적 문화역량의 강화 셋째, 민중적 민족문화의 건설 넷째, 진보적 세계문화와의 교류연대라는 네 개의 강령을 천명하였다. 총회 당일에는 인천지역 노동자와 사회운동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임원진을 확정하였다.⁹

- ❖ 공동대표 : 호인수 신부, 최원식 교수
- ❖ 지도위원 : 오순부, 김영규, 황선진, 김봉준, 박제홍, 임명구, 라원식, 이원희, 김상목
- ❖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 정성렬
- ❖ 사무국장 : 송동수



❖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출범 당시 조직표 (출처 : 이재성, 2009)

이 조직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되었다. 우선 노동자문화상담소는 일상적으로 노동운동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노동자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며, 진보적 예술작품들을 보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전에 ‘일손나눔’이 지향하던 활동의 내용을

9 이재성, 「인천 민중문화운동의 역사」,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 436-439쪽.

그대로 인문연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에는 ‘민중예술연구회’라는 조직을 두었다. 이 조직은 학술적인 연구조직이 아니라 다섯 개 분과로 구분된 전문적인 예술인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각 분야별로 예술작품의 생산과 각종 행사에서 수행해야 할 공연예술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채우는 조직이었다. 이 조직 안에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풍물패 ‘한광대’, 노래패 ‘산하’, 그림패 ‘갯꽃’ 등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활동을 해 나가게 되었다.¹⁰

이러한 흐름은 부평지역 노동미술과 노동가요, 노동문학을 형성하는 배경이자 노동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5년 부평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규모 남성 사업장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준다.¹¹ 이러한 대규모 노동자 투쟁과정은 노동가요나 노동미술 등의 문화운동이 결합되며 투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 부평 공장에서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부평에 있는 공장들에서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운동도 활성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운동은 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문화패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풍물패, 노래패 등의 역할이 컸다. 또한 1988년부터는 노동조합의 문화패를 중심으로 인천노동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인천노동문화제는 당시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부평의 노동조합과 현장 문화운동 그룹에 기반한 문화제로 현재까지

10 이재성, 「인천 민중문화운동의 역사」,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 436-439쪽.

11 「1987년 민주화 세력, 인천 노동현장에 대거 투신」, 『인천투데이』, 2015년 10월 21일자.

지속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인천노동문화제는 개최 준비 과정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두 번 쉬고 2019년 30회 행사를 진행했으나,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 부평에는 과거와 같이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지역의 노동운동도 쇠퇴하고 관련 활동가들도 많이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 제2절 | 부평의 노동을 그리다(노동미술)

1. 노동미술의 형성과 발전

부평에서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미술은 1980년 들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부평산업공단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 등 많은 노동쟁의를 진행했다. 당시 파업 주체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요구를 알리는 수단은 구호와 팻말(피케팅), 현수막 등이고, 대형 걸개 그림 등을 제작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 1980년 초에 서울로 통학하던 학생들의 모임 형태를 통한 문화운동의 맹아는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노동운동과 결합한 문화운동 활동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1984년 대학에서는 문화운동 활동을 하던 노래패, 탈춤패, 미술패 등이 모여 '민중문화운동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때 결성된 문화 활동가들은 이미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활동가들과 만나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의 결합을 모색했다. 이후 서울에서 탈반, 노래패, 미술패 활동가들이 대거 인천으로 집결해 활동하게 된다.

미술패 활동가들 중 대표적인 조직이 1982년 서울에서 결성된 '두렁'이다. '두렁'은 1985년 활동의 전망에 따라 '논두렁'과 '밭두렁'으로 나뉘고, '밭두렁' 회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지원하는 문화패들과 인천으로 이전한다. 이 중 '밭두렁' 회원인 성효숙 등

은 산곡동 명신여고 앞 주거지역에 작업실을 만들고 동료들과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 하면서 활동을 했다.

두렁 회원을 포함해 당시 인천으로 이전한 탈반, 노래패 회원 등을 일러 '까치파'라 불렀다. 당시는 신군부에 의한 군사독재 시기로 노동운동을 비롯해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은 억압과 감시의 대상이었다. 노동운동과 결합한 문화운동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로 감시와 억압의 대상이었다. 문화운동 활동가들은 정권의 감시와 억압을 피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 활동을 하며 조직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실명 대신 가명을 쓰거나 무명으로 활동했다. '까치파'라는 명칭도 이런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다. 노동현장에 들어 가지 않고 외곽에서 문화운동을 지원하던 두렁 회원들이 당시 유행했던 이현세 만화의 주인공 가치를 모델로 삼아 노동운동의 선전지를 제작하였다. 이를 노동현장에 들어가 활동하던 현장조가 공단에 선전지를 살포하면서 '까치파'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1985년 인천 대우자동차 파업은 수도권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업으로 서울에서 일어난 구로동맹파업과 함께 노동운동의 확산 계기가 된다. '밭두렁' 회원들은 부평 대우자동차 파업을 계기로 활동에 활기를 찾기 시작하고, 1986년을 전후해 모두 공단 현장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에선 두렁 회원들이 인천으로 내려오기 전에 인천에는 인하대, 경인교대 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미술패 '갯꽃'이 있었다. '갯꽃'은 '밭두렁' 회원들과 결합하며 조직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공단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은 '밭두렁' 활동가들과 인천에서 미술패 활동을 이어갔다. 1988년에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회'가 창립되면서 '갯꽃'은 미술분과로 조직되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인천지역 노동미술에 기여한다.

2. 부평 노동미술과 그림쟁이들

부평의 노동미술은 인천지역 노동운동 변화와 맥을 같이 하며 세 시기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87년 민주화 이전 시기인 1980년대 초 중반, 두 번째 시기는 1987년 민주화 시기 이후 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중반 시기,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중 후반부터 현재까지다.

1) 1980년대 초 중반 이전 부평의 노동미술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군사정권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형태의 저항운동을 억압하고 탄압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나마 군사정권의 억압과 탄압이 덜한 공간이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다.

당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시대적 배경에서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는 도시산업선교회, 카톨릭노동청년회 등을 만들어 노동자 권리 교육이나 노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이해를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자들도 도시산업선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활동과 연계해 노동운동을 하며 군사정권의 탄압을 피했다.

문화운동도 마찬가지다. 미술패 ‘발두렁’ 회원인 성효숙 등은 인천으로 이전하기 전인 1984년에 인천산업선교회 일꾼 자료실 활동가들과

만화집 ‘봄을 찾는 사람들’을 냈다. 이 자료집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고 어떻게 노동자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만화로 다룬 자료집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 만화집을 다른 사회과학 도서들과 함께 불온문서로 취급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그림패인 ‘발두렁’ 회원들은 부평 산곡동 작업실에서 정치 사상학습을 하며 그림 작업을 통해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문화패들과 활동하며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디자인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발두렁’ 회원들의 작업은 경찰이나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에 의해 언제라도 체포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었다. 체포의 위험을 피하려고 당시 활동가들은 작업을 비밀리에 했고, 작업실에 갈 때는 경찰이나 공안기관이 뒤를 밟지 않는지 항상 조심하고 작업물은 이불이나 베개, 장관, 아궁이 등에 숨겨냈다.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집집마다 배포하는 작업은 활동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로 피세일 또는 집들이라 부르며 새벽에 몰래 했다. 활동가들이 새벽에 피세일을 할 때



❖ 만화집 『봄을 찾는 사람들』

는 경찰이나 공안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교회나 목욕탕을 가는 것으로 꾸미고 성경책이나 목욕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또한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이나 공안기관에 체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유한 후에는 불태워 없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당시 생산된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 시기 부평 ‘발두렁’ 회원들은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 투쟁을 지원하며 ‘역사는 우리의 것’이라는 5쪽의 연작회화를 그렸다. ‘발두렁’ 회원인 이억배는 노동문화야학에 필요한 그림을 그렸다.

2)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중반 부평의 노동미술

1987년 민주화 시기를 거치며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 노동미술을 하던 활동가들도 노동운동 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예컨대 ‘발두렁’ 회원이던 성효숙은 부평산업공단에 취업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 교육홍보부장 등을 역임하며 대자보, 유인물, 노보 등을 노동자들과 함께 제작하는 활동을 했다.

노동미술 활동을 한 활동가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 현장에서 그림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알리는 작업을 했다. 노동자들이 어깨동무하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파업 일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부끼는 모습, 파업 현장에 난입한 경찰들과 싸우는 모습 등의 그림은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 모습을 알리고, 노동자들의 단결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1988년 한독금속 공장 안 노동조합 사무실 외벽에 그려진 벽화는 공장 안에 그려진 최초의 벽화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벽화는 ‘갯꽃’의 정정엽과 서울의 미술집단 ‘가는패’의 이성강, 한독금속 노동자들이 함께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88년 9월 30일에 착수되어, 10월 26일까지 약 한달 기간이 걸려서 완성된 작품이다. 그러나 현재 한독금속 벽화는 남아있지 않고 기사와 사진으로만 전해진다.¹²

12 현재 ‘갯꽃’의 여러 가지 작품들은 일부 사진으로 남아 있지만 대다수는 사라져 버렸다. 특히 걸개그림과 벽화, 그리고 깃발 그림과 각종 홍보물의 삽화 등은 경찰에 의해 압수, 소실되어 버렸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전해지지 않고 있다(이재성, 『인천 민중문화운동의 역사』,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 446~450쪽).



❖ 한독금속 공장 안 노동조합 사무실 외벽에 그려진 벽화(1988)(출처 : 이재성, 2009)

앞에서 언급했듯이 ‘밭두렁’ 회원과 결합한 ‘갯꽃’은 일손나눔의 미술지원팀으로부터 시작해 1988년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이 창립되어 1994년 해체될 때까지 미술분과 활동을 했다. 즉, ‘갯꽃’은 인천에서 노동현장을 지원한 대표적인 미술패다.

특히 ‘갯꽃’은 한독금속 벽화, 대우자동차 10미터 걸개그림과 같은 전문적 그림 작업 지원뿐 아니라 판화, 포스터, 깃발 그림, 그림스티커 등을 제작하거나 구호와 그림을 넣은 티셔츠와 손수건 등을 주문 판매하며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작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노보 편집자 교육, 만화교육 등도 진행하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창작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노동 그림이나 판화, 노동자 미술교실 등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의 이미지는 노동운동 이외 노동자 일상의 삶이 다뤄지기 시작한다. 성효숙 작품은 『농성장에서』(1992)를 통해 노동운동 파업 현장의 모습을, 『휴식시간』(1992)을 통해서 10분 휴식시간 벨이 울리면 콘베이어 벨트에 엎드려 잠을 자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런 그림은 장시간 노동에 지친 여성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준다.



❖ 농성장에서(1992, 성효숙)



❖ 휴식시간(1992, 성효숙)

3)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부평의 노동미술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을 거쳐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이 무렵 1990년에는 독일 통일과 함께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따라 급진적 변혁을 지향하던 노동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우선 민주화가 되면서 군부독재시기 노동운동을 억압하던 정부가 문민정부로 바뀌고 사회는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또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몰락에 따라 급진적 노동운동이 추구하던 이념적 지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존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학생운동 세력은 공장과 노동운동 현장을 떠나기 시작하고 노동운동 분위기는 꺾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 노동운동 현장을 동력으로 활성화되었던 미술운동은 1990년대 중반 들어 동력을 잃어가며 쇠퇴해갔다. 부평을 비롯해 인천의 노동현장에서 미술운동을 하던 전문 활동가들은 1994년 ‘인천미술인협회’를 창립하고 활동을 한다. 이 협회는 민중적 진보성과 예술가적 전문성의 조화를 지향하는 조직이다. 이후 인천미술인협회는 전국 조직인 민족미술인협회에 2003년부터 조직되어 민족미술인협회 인천지회로도 불린다.

인천미술인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 활동가들은 바뀌는 노동현장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 노력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노동문제의 새로운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또한 2004년부터는 활동 방식도 ‘노동미술굿’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전시와 심포지움,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접근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3. 부평 노동미술의 새로운 변화와 고민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노동미술은 기존의 소식지, 전단, 대자보, 벽보, 만화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노동현장과 소통하며 활성화되었지만, 지금은 시대변화로 노동운동의 쇠퇴와 함께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미술은 노동현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1980년대 중반부터 ‘밭두렁’회원이자 부평에서 노동미술 활동가로 활동했던 성효숙이 2005년 제2회 노동미술굿 총감독이 되어 개인 블로그에 노동미술굿에 부쳐 남긴 글 내용 중 일부이다. 이 글의 내용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노동미술을 비롯해 진보적 예술운동이 부딪힌 상황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앞 부분 생략)

현재 한국 사회 속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취되고 노동운동의 대체 현상으로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계급적 담론들이 해오지 못했던 미시적 문제들, 즉 일상이나 생활들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 근대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할 진보운동의 모순들과 문제 의식들은 복잡하게도 엄연히 존재해 있다.

자본의 이데올로기화는 소비 체제로 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내면화되고 철저한 물질 위주의 사고는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진보적 예술진영은 혼돈에 휘말리고 그 많던 노동미술은 혼돈을 함께 괴로워 할 국면도 없이 되묻기 어려운 과거처럼 대부분 청산되었다.

진보적 예술가들 또한 하강국면을 감당할 성찰의 시기와 힘도 없이 시민사회에 편입되

었거나 불명확한 전망 속에 고독한 예술가의 길을 걷거나 개인적 작업으로만 서 있게 되었다. 자본은 끝없는 자기 증식으로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어 우리 앞에 서 있고 실체로서의 민중도 우리 앞에 존재하는 데 말이다.

노동문화는 노동미술, 예술생산 경로에 이해가 부족하고 미술은 현실에 좀 더 다가서지 않는 가운데 미술과 문화와 현상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은가?

개인의 최대한 개성이 보장되는 자율 속에서도 반자본의 벨트를 구성할 수 있는 관계형성의 구체적인 네트워크는 어떤 것일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여 손을 내밀어 우리 편을 만들어야 했던 절박한 시대, 공동체적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이 ‘당신이나 잘 하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고민의 지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실제 존재하는 미흡한 주체적 조건을 숨기지 않겠다.

하지만 성과와 시행착오에 대한 열린 태도로써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미술, 장르가 통합되는 예술, 자신의 존재조건 속에서 생산해내는 미술. 이 모든 것들이 대중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성으로서 노동예술의 인프라들이 형성, 확대되고 반자본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다.(뒷 부분 생략)¹³

성효숙이 남긴 고민은 물질만능주의적 소비사회에서 노동운동이나 노동미술에 관심 없는 노동자와 노동현장, 노동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변하는 과정과 노동운동 현장을 떠나는 활동가, 노동현장과 멀어지고 고립되는 노동미술 활동가와 공동체적 관계 붕괴 등을 짚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한계를 딛고 새로운 노동미술의 지평을 여는 것은 비단 부평뿐 아니라 노동미술 전반이 2020년 현재 풀어야 할 과제다.

13 성효숙 개인 블로그(<https://blog.naver.com/moonnov1/80020528366>)

1. 70~80년대 노동운동과 노래

노래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노래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노동자들에게 노래는 삶 속에서 힘든 일을 이기게 하고, 때로는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다.

1970년대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기로 모든 것이 억압된 사회였다. 1972년 유신헌법 이후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발표되면서 정부에 저항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해졌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앞장섰던 학생운동가와 지식인에 대한 탄압은 심했다. 이러한 탄압을 피해 학생운동권은 종교단체나 지역 노동단체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은 간접적으로 음악이나 노래와 같이 문화적 저항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에 락 음악이 퍼지기 시작하고, 대학생들은 통기타를 치며 현실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정부는 학생과 젊은층의 문화적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일부 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해 부르지 못하게 했다.

노동현장에도 문화적 변화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종교단체나 학생운동 활동가와 연대해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노동쟁의 과정에서 집회를 열거나 파업을 할 때 노동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일체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도 했다.

1970년대 노동현장에서 부른 노래는 주로 ‘아리랑’과 같은 민요나 일반 대중가요, 또는 대중가요 가사를 바꿔 불렀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노동현장에서는 기존 민요나 대중가요와 구분되는 노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부르던 진보적 내용의 노래나 ‘상록수’와 같이 노동자들의 삶을 빚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특히 ‘아침이슬’과 같이 대중가요로 발표된 김민기의 작품을 운동권이 재해석해 부르며 사회적 의미를 갖는 노래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노래가 더해져 진보적 노래문화는 대중가요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런 유형의 노래를 기존 대중가요와 구분지어 민중가요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주로 노동자, 농민, 빈민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을 할 때 불렀기 때문이다.¹⁴

198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가요는 민중가요의 한 축을 차지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불리게 된다. 당시 노동현장에서 부르던 노동가요의 모습은 다양하다. 집회나 파업 때 부르던 행진곡풍의 노래, 일상의 모임에서 부르던 일상의 노래와 풍자의 노래,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사회를 바꾸는 혁명의 노래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내용의 행진곡풍 노래는 ‘단결투쟁가’, ‘연대투쟁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악법철폐가’, ‘단결 전노대’, ‘노동운동 탄압 분쇄가’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슬로건이나 정치적 내용을 담아 대중에게 그 주장을 알리며 부르던 전술적 행진곡풍의 노래도 있다.

노동자들이 뒷풀이나 모임에서 서로의 삶을 공감하고 흥겹게 결의하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던 대표적인 일상의 노래로는 ‘진짜노동자’, ‘바위처럼’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대중가요풍의 서정적 가요로 ‘꽃다지’, ‘누가 나에게 이 길을’ 등이 있다. 혁명을 노래한 곡으로는 ‘열사가 전사에게’를 들 수 있다.

14 이후 민중가요는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대중적으로 크게 확대된 것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출현이 계기가 되었다. 1984년 서울대 ‘메아리’ 출신들과 명지대 학생이던 김광석 등이 김민기의 주도 하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 1집을 만들었으나 거의 유통되지 않았다. 이들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 이후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여기서 인기를 모았던 곡들을 모아서 「노찾사」 2집을 만들었다. 1987년의 6월항쟁의 국민적 경험과, 그 직후의 「노찾사」 등의 노력에 의해 민중가요는 대중들에게 빠르게 흡수되어 갔다(이재성, 『인천 민주문화운동의 역사』,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

2. 부평의 노동을 노래한 가수들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1984년을 전후해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대거 인천으로 내려와 노동현장에 투신한다. 이 시기 학생운동 그룹에서 문화운동을 하던 풍물패, 노래패, 그림패 등이 함께 내려와 노동현장과 연대해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학생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활동하거나, 공장 주변에서 야학을 하거나 노동상담 등을 하며 현장 활동을 했다.

‘아침이슬’로 유명한 김민기도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장 활동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김민기는 1977년 부평산업공단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합동결혼식을 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축가로 ‘상록수’를 작곡했다. 이 노래는 1979년에 가수 양희은이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을 부르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상록수’는 금지곡이 되어 대중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곡이 되었지만, 민중가요 노래집에서 빠지지 않는 노래 중 하나가 되었다.



❖ 김민기의 노래 '상록수'(출처: 『일꾼의 노래』, 제작년대 미상)

김민기의 노래 ‘상록수’ 사례와 같이 1970년대 후반 부평산업공단에는 이미 진보적인 학생들이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고, 집회나 파업을 할 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시기였고, 노동운동도 활발하지 않던 시기다. 1980년대와 같이 활발한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래도 많지 않던 시기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자료에 따르면 70년대 노동현장에서 부르던 노래는 민요나 일부 대학가에서 부르던 노래들이었다. 일꾼노동문제 자료연구실 자료집 『일꾼의 노래』(제작년도 미상)에 소개된 1970년대 노동현장에서 부르던 노래는 다음과 같이 ‘아리랑’, ‘각설이 타령’, ‘상록수’, ‘아침이슬’ 등을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 노래집 『일꾼의 노래』에 실린 1970년대 노동현장에서 부르던 노래(출처: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노동운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던 시기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지역에서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 등을 하는 활동가들은 종교, 특히 개신교 교회나 가톨릭 단체와 연대해 활동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도시산업선교회가 있어 노동문제, 도시빈민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도시산업선교회에는 노동운동, 학생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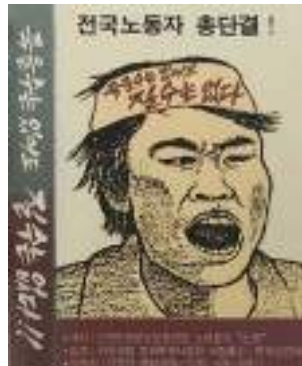
동, 빈민운동 등을 하던 활동가들이 모여 종교인들과 연대해 활동했다.

1980년대 초중반 대부분 공장장에는 노래패가 없었다. 일부 대공장에 노래 관련 밴드나 소모임이 있더라도 이들은 노동운동과 상관없이 노래가 좋아 만든 소모임이었다.¹⁵

1980년대 중 후반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1987년 민주화가 되기 이전,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던 활동가들은 노래운동을 고민하고 노동현장에서는 비밀리에 활동했다. ‘햇살’과 같은 노래운동을 고민하는 전문 노래운동 활동가 그룹은 인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했다.

‘햇살’을 비롯해 인천지역에서 노래운동을 준비하던 그룹과 학생운동권에서 노래운동을 고민하던 그룹은 1987년 초 전문 노래패 ‘산하’를 만들었다. ‘산하’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 결성뿐 아니라 파업과 노동조합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산하’는 각 노조에 노래교실(또는 기타반)을 열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민중가요를 보급하고 소모임 활동을 함께 했다. ‘산하’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원 건설을 위한 상담과 지도를 하는 역할까지 했다.

‘산하’는 1988년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이 결성되어 노래분과에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노래패 운동을 전개했다. ‘산하’는 1988년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노래모임 1집으로 『너를 부르마』라는 노래 테이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테이프에는 노래 ‘너를 부르마’ 외 ‘노동의 새벽’ 등 총 17곡이 수록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 세창물산 파업을 지원하며 두 번째 노래 테이프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를 발표했다. 이 노래 테이프는 ‘총단결가’를 포함해 총 31곡을 수록하고 있다. 테이프 표지에는 제작이 인



◆ 노래패 ‘산하’ 노래모임 2집

15 노래 소모임은 공장뿐 아니라 학생, 지역주민까지 많이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그룹부터 솔로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노래 소모임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5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일상활동과 공연이라는 두 줄기의 큰 흐름으로 운영되었다. 많은 구성인원에 맞게 가창의 형태 또한 독창, 중창, 합창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창 화음을 직접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또 전문단체의 화음을 그대로 따서 부르기도 한다. 이미 정형화된 노래의 화음들은 80년 중반부터 노래패들에게 불러 졌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혹은 다르게 바꾸어 부르면서 그 폭을 조금씩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천민중운동연합 노래분과 ‘산하’로 표기되어 있고 연락처도 표기하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에서 ‘산하’가 전문 노래패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며 지역 노동운동을 지원한 것을 의미한다.

‘산하’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은 유현상, 김한영, 박형호, 차을미, 장혜영, 유태준, 권미강, 이순희 등이었다. 나중에는 최도은, 이희경, 정윤경, 김길성 등도 함께 활동하였다. 그리고 객원으로 활동하는 조현주, 하주용, 박지훈 등 노래패 인원은 상당히 많았다.¹⁶

‘산하’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은 노래교실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노래패 활동가를 양성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부평산업공단에는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공장을 비롯해 한독금속 등에 노래패가 만들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공장 노래패는 이전 기타반과 같은 노래 소모임과 달리 노동조합과 연계해 활동하거나 노동조합 문화부 또는 홍보부 소속으로 활동했다. 또한 이들 노래패는 활동 범위를 공장에서 점차 부평지역과 인천지역으로 넓히며 풍물패 등과도 연대했다.

인천지역에서 문화운동을 하던 단체들은 1988년 11월 6일 인천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문화대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천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노동자 풍물패, 노래패, 연극패 등이 모여 노동법 개정투쟁을 결의했다.

1989년 6월 27일에는 제1회 노동해방 가요제가 인하대에서 열렸다. 이 노동해방 가요제는 각 노조의 문화소모임(기타반, 노래반)을 활성화하고 연합팀 구성을 모색하며,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부르기)’를 수집하고 보급하며 하반기 노조운동의 과제를 선전한다는 목표를 세워 활동했다. 이 과제를 위해 1989년 4월부터 인천지역노동자협의회(인노협) 문화국, 부평 갈산동에 있던 한독금속 노동자들의 그룹사운드 ‘혼수상태’ 그리고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인문연)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했고, 그 결과가 노동해방 가요제가 된 것이다.¹⁷

제1회 노동해방 가요제를 계기로 1992년까지 인천지역에서는 매년 노동자 문화제가 열렸다. 그러나 인천민중운동연합은 1992년 내부 노선 갈등과 활동가들의 구속 등으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1993년에 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래패 ‘산하’도 사라지고,

16 이재성, 「인천 민중문화운동의 역사」,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 453쪽.

17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인천민주화운동사』, 선인, 2019, 430~433쪽.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각 공장의 노래패 활동도 위축되었다.

기존 노래패 활동 쇠퇴에 맞서 노동가수 최도은은 인천에서 1993년 ‘노래선언’을 만들고 대우자동차 노래패와 같은 기존 사업장 노래패와 연대해 노래 교육 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노래선언’은 노동운동의 쇠퇴와 함께 활동이 위축되고, 최도은은 점차 솔로로 활동하며 노래 교육이나 자문 등을 하며 부평지역에서 2020년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1993년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활동하던 노래패 활동가들도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 연합’을 결성하고 노래패 활동을 이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 연합’은 단위 사업장의 폐업, 공장이전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약 3년간의 활동 끝에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이 흐름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에 맞춰서 결성된 ‘인천지역 금속노동자 노래패 연합, 철의 노동자’의 기반이 되었다. 연합 노래패 ‘철의 노동자’에는 대우중공업 노래패 ‘노뎃돌’, 한라중공업 노래패 ‘힘찬 울림’, 그리고 부평 아남정공 노래패 ‘소리샘’ 등이 참여했다. 이후 아남산업 ‘한걸음’과 영창악기 ‘들풀’도 가입하였다.¹⁸

노동현장에서 유명한 노래 ‘철의 노동자’는 ‘인천지역 금속노동자 노래패 연합, 철의 노동자’ 사례와 같이 금속노동자를 대표하는 곡이기도 하다. 이 곡은 안치환이 영화 「파업전야」에 넣기 위해 만든 곡이다. 영화 「파업전야」는 장산곶매가 부평 갈산동에 있던 한독금속 노동자들을 모델로 삼아 1990년 만든 영화다. 이 영화에 나왔던 노래 ‘철의 노동자’는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꿈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투쟁을 통해 그 꿈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고 있다.

민주노조 깃발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
빼앗긴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
강철 같은 해방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투쟁 속에 살아 있음을 온 몸으로 느껴보세
단결만이 살길이요 노동자가 살길이요

18 이재성, 「인천 민주문화운동의 역사」,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 453쪽.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철의 노동자.

-「철의 노동자」중

당시 정부는 「파업전야」를 민주노조 건설과 파업 투쟁 선동이라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나왔던 노래 ‘철의 노동자’는 노동자들의 꿈과 의지를 대표하며 전국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애창하는 곡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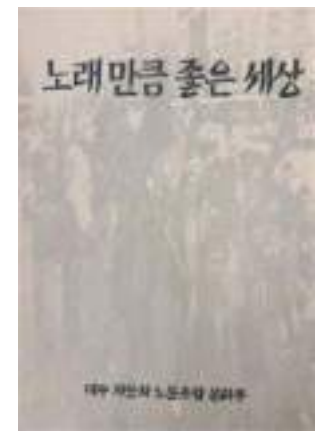
이외에도 1989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발표한 2집 앨범에 수록된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도 유명한 노래다. 이 노래는 안치환 작사·작곡으로 알려졌지만, 부평의 노동시인 고 박영근 시인의 시에서 유래한 곡이기도 하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부평에 있는 공장과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래패 활동과 그 구성원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부평산업공단에는 수많은 노래패 모임이 활동했고, 김민기나 안치환을 비롯해 현재 노동현장에서 전문 노동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최도은까지 부평은 노동가요의 산실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문화부에서 제작한 노래집에는 노래 외에 배움마당으로 ‘이제는 나도 선동가’, ‘신바람 회의’, ‘왜 산별노조인가’, ‘노동운동역사기행’, ‘초급간부역할’과 같은 노동조합 활동가 교육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노래패나 풍물패 활동은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래패 활동가들은 노래패 활동을 하며 정치 학습을 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홍보부나 문화부에 속해 집회나 파업 시 맨 앞에서 조합원이나 대중을 선동하는 역할도 하며 성장했다. 즉, 노래패 활동은 부평지역에서 노동조합 지도자와 활동가를 길러내는 토대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 초반부터 다시 시작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부평산업공단의 쇠퇴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문화부 노래집 (출처: 대우자동차노동조합)

등은 노동운동의 급속한 위축을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노동현장에 기반한 노래패와 노동 가수들의 활동도 위축되었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노래패는 대기업 노동조합 산하에서 활동하는 노래패 정도다.

3. 부평 술아 술아 음악제

1950~60년대 부평은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30개 가량의 음악클럽이 있었다. 이 음악클럽에서 활동한 밴드나 가수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의 산과 역할을 한 것이다. 1970~80년대 부평은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 과정에서 부평은 노동가요의 또 다른 산실 역할을 했다.

음악도시로서 부평이 갖는 특성을 살려 2016년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 경인방송 공동 주최로 ‘부평 술아 술아 음악제’를 개최해 2019년 4회까지 진행했다. 이 음악제는 부평지역 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시인으로 활동했던 고 박영근 시인의 시대정신을 기리고 음악도시의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된 음악제다.¹⁹

또한 “1980~2000년대 대학가와 노동현장에서 불린 민중음악, 노동 음악 전통을 바탕으로 지나간 시대의 노동현장에서만 존재하는 노래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재해석 되는 민중음악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음악제”로 기획된 음악제다.²⁰

19 「노동운동 메카’ 시절 기리는 음악제 열린다」, 『동아일보』, 2016년 4월 20일자.

20 「2019 부평 술아술아 음악제」, 『미디어인천신문』, 2019년 5월 23일자.

| 제4절 | 부평의 노동자와 노동시(노동시인)

1. 시에 새겨진 부평 노동자의 삶

산업화 시기 부평산업공단 노동자들의 삶은 감옥 같았다. 노동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공장에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퇴근 후에는 닭장집에서 쪽잠을 자야 했다.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일을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을 해도 낮은 임금 탓에 월급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을 사람들은 공돌이, 공순이라 부르며 무시했고, 노동자들은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지내야 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주변에 공장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어쩌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공장 다니는 처지로 스스로 위축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했다. 노동자들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시간도 돈도 없었다. 그나마 펜팔 업체로부터 소개받아 펜팔을 하지만 서로 공장 얘기만 하곤 했다.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다. 동료들이 모두 철야 근무를 하며 바쁘게 일을 하는데 나만 아프다고 쉴 수 없었다. 동료들 눈치가 보였고, 동료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공장 관리자나 반장에게 말할 수 없었다. 관리자에게 쉬고 싶다고 얘기해봐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나마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어쩌다 쉬더라도 병원 갈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만 했다.

이런 부평산업공단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은 많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어 시와 소설로 남았다. 특히 정세훈의 시 ‘부평 4공단 여공’은 당시 부평산업공단에서 살아가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늘 그녀들로부터 위축되어 있었다

맘에 드는 상대가 나타나도

내 처지만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했다

가까이 접근을 하면
공돌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면박을 줄 것만 같아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궁여지책으로 펜팔을 했다
펜팔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그녀는
부평 4공단에서 여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립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연장 작업, 휴일 특근작업, 36시간 교대작업,
공장생활의 고단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아프지만 병원 갈 돈이 없다는 소식이 오고 갔다
“아프지만”이란 소식에
그녀가 보고 싶어졌다
“병원 갈 돈이 없다”는 소식에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부평 4공단 여공」부분²¹

공장에서도 하루하루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 야근과 철야 작업은 다반사고,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었다. 공장 안 작업장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안전장비도 없이 정리되지 않은 공장 작업환경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었다. 더구나 매일 반복되는 연장작업, 휴일 특근 등으로 노동자들은 항상 잠이 부족했고, 피곤한 상태로 잠깐 졸기라도 하면 사고가 나곤 했다. 대부분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니면 노동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했다. 오히려 일을 하다 프레스기에 다쳐 손가락이라도 잘리면 이직할 때 잘린 손가락이 이력서가 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 들어 노동현장에 만연한 산재위험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권을 비롯해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연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했다. 이 과정을 거쳐 조금씩 노동현장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거부했다.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 위장 폐업을 했다. 또한 회사는 노동현장에 들어온 활동가들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막기 위해 지역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회사들끼리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회사들이 공유한 블랙리스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력서에 가명을 쓰고 지난 경력을 지우고 취업을 하곤 했다.

박영근의 시 ‘이력서’에는 잘린 손가락이 이력서가 되는 노동자들의 삶과 회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막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은 온통 검문투성이
삼 년 근무성실자 소개 심사를 거치면
블랙리스트에 걸어 또 한 번
마지막엔 소신 검사에 매달아
사상의 밑바닥까지 뒤지고
신입을 뽑는 저 자동차회사
밤낮으로 워키토키 돌아가는 경비초소를 돌아
취업이력서 한 장
투쟁사업장 경력을 지우고
허름한 회사에 걸어봐도
절대불가

21 정세훈, 『부평 4공단 여공』, 푸른사상, 2012, 26쪽.

거 보란 듯이
컴퓨터 적색통신이 찍어 물어보는 내 이름

손가락 하나쯤 찢린건
프레스 귀한 경력이 되고
철일 삼년도
기술자 대우로 빠지는데
민주노조 피투성이로 지킨 세월은
무엇이 되어 이토록 맨주먹으로
바람 끝에서 몸부림인가

-「이력서」부분²²

퇴근하고 공장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공장이나 시장 주변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힘든 생활을 얘기했다. 그렇게 부평산업공단 노동자들은 힘든 생활을 하면서 하루 하루 희망을 갖고 버텼다. 노동자들은 그냥 참고 버티기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투쟁하면서 조금씩 노동조건을 개선해냈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노동자들은 연대와 단결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며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다시 시작되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멀리하며 노동운동은 쇠퇴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박영근의 시 ‘눈사태’는 1990년대 초반 캄캄한 노동운동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22 박영근, 『김미순전』, 실천문학사, 1993.

털 빠진 제 인형처럼 추레하게
말라가는 아이를 보듬고
잠 못 이루는 밤 문밖에선 소리도 없이
몰래몰래 눈은 내리고

견디고 기다리는 일도 길이 되리라 다짐하던
운동도 벗들의 눈빛도
문득 아득해서

허공에 힘없는 주먹을 젖는다
아아, 아침이 오기 전에
한 생애를 굴러온 모진 노동과
피비린내 엉킨 부릅뜬 눈의
전망이 캄캄한 눈보라 속에
사태가 되어 쏟아지리라

-「눈사태」부분²³

1970~80년대에 비해 현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아직도 열악하고, 임금은 최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노동조건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특히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불법적인 법적 지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인권은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1970~80년대 공단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

23 박영근, 『김미순전』, 실천문학사, 1993.

던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하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조영관의 시 ‘하따, 공장 앞’은 최근 공단에 취업해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인권 현실, 한국 노동자들의 무시와 차별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별건 대낮에 어떻게 수갑을 채울 수 있느냐, 도망을 가는데 우리는 어떡허느냐
당신들은 누구냐, 거시기거시기 교회고, 뭘시기뭘시기 인권단체다,
우리가 같이 갈 테니 수갑을 풀어라, 안 된다 법이다, 우째라
공무집행방해다, 뭘시기다, 한참 그러코롬 서로 닭쌈을 하고 있는데,

어따메,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갔던 놈들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나왔는지
꺼먼 놈, 희건 놈, 까무대대헌 놈, 짤달막헌 놈, 코큰 놈들이
공장 길 양옆에 우허게 몰려서서 엮으면서 금방 달려들 듯 노려보는데
아이쿠메 옆에 서 있는 나도 간이 벌렁벌렁허드랑께요.

그러자, 서술이 퍼렇던 신사양반들이 꼬랑지를 천천히 내림시러
“이 사람들아, 몸이나 좀 닦고 다니셔.”하며 수갑을 핵 풀어주더니
손을 탈탈 털고 가더랑께요.

좀 싱겁다 허면서 미나리나 다듬어야지, 허고 가려는데
식당 와서도 말 한마디 없이 공치며 밥만 잘 먹던 최씨가,
침을 튀 뱉으며 한마디 좃어섬기는데,
“확 집어 처넣어야지, 왜 풀어준대. 월급 올려달라고 말할 만하면
핵 몰려들어와 가지고 산통을 다 깨 놓는 저놈들, 쫓쫓,

그라고, 재들만 인권이 있을 것이여? 배때기 땃땃한 저것들,
씨부랄, 우리들 밥그릇도 인권도 제발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하따 공장앞」부분²⁴

2. 부평을 새긴 노동시인

노동문학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시로 남긴 시인들은 많다. 수 많은 노동시인들 중 부평 노동자들의 삶을 소재로 시를 남긴 대표적인 시인으로 고 박영근, 고 조영관 시인과 정세훈 시인을 들 수 있다. 고 박영근 시인과 정세훈 시인은 이미 부평 문학 부문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 명의 주요 작품과 약력을 남긴다.

1) 고 박영근 시인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 박영근 시인은 1994년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고, 2003년에는 백석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노동시인이다. 동시에 고 박영근 시인은 노동자이면서 문화운동 활동가이자 비평가이기도 했다.

박영근 시인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시인은 동일방직 노동조합 탄압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군 제대 후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했다. 초기에는 구로공단 제본공장에서 일을 했고, 1985년 인천 부평으로 오면서 시인이자 노동자, 노동자 문화운동 활동가로 활동하다,²⁵ 2006년 5월 11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²⁴ 조영관, 『조영관 전집 1 : 시』, 살창, 2017.

²⁵ 고 박영근은 인천민예총(1995)과 민족문학작가회의 인천지회(1998), 인천문화를 열어가는 시민모임(1999)의 창립에 관여하고, ‘내일을 여는 작가’편집위원으로 활동(1997)하는 등 지역운동이나 문화예술운동에 깊은 관여를 했다(김명인, 2016)

박영근 시인은 1981년 ‘수유리에서’ 등을 ‘반시(反詩)’ 6집에 발표하며 등단했고, 생전에 다섯 권의 시집을 발표했다. 첫 시집으로 『취업 공고판 앞에서』(1984)를 발표했다. 이후 『대열』(1987), 『김미순전』(1993), 『저 꽃이 불편하다』(2002)를 발표했다. 유고시집으로는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2007)가 있다. 박영근 시인은 시뿐 아니라 산문과 비평 글도 남겼다. 이런 시인의 작품은 2017년 『박영근 전집 1』로 시집과 『박영근 전집 2』로 산문집이 발간되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안치환의 노래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는 박영근 시인의 시 중 일부를 가져온 곡이다. 시인의 시에는 노동자의 삶이 어렵더라도 셋바람에 떨지 않고 나가는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르네 물억새 마다 영키던
 아우의 피들 무심히 씻겨간
 빈 나루터, 물이 풀려도
 찢어진 무명베 곁에서 봄은 멀고
 기다림은 철없이 꽃으로나 피는지
 주저앉아 우는 누이들
 웃고름 풀고 이름을 부르네.

술아 술아 푸른 술아
 셋바람에 떨지 마라
 어널널 상사뒤
 어여뒤여 상사뒤

-「술아 푸른 술아」부분²⁶

26 박영근전집 간행위원회, 『박영근 전집 1 : 시』, 실천문학사, 2016.

부평 신트리공원에는 2012년 고 박영근 시인을 기리며 시비가 세워졌고, 이 시비에 ‘술아 푸른 술아’를 새겼다.

2) 고 조영관 시인

조영관 시인은 1957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다. 1976년 서울시립대에 입학하여 교내 문학동아리 ‘청문회’에서 활동했다. 1984년 사회과학 출판사인 일월서각에 입사해 고 박영근 시인 등과 교류하면서, 1986년 그와 함께 인천지역 노동운동에 투신하였다. 조영관 시인은 용접 기술을 배워 부평에서 용접공으로 생활하며 노동운동을 했다.

1988년에는 부평 동미산업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 해고당하고, 1989년부터 인천건설일용노동조합에 앞장서 활동했다. 시인은 2007년 2월 10일 간암 판정을 받고 영면하기 전까지 인천, 수원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용접공, 제관공 생활을 하며 시를 썼다.

시인은 2002년 『실천문학』 가을호에 ‘1998년 겨울, 영종도’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시인의 시집은 유고시집으로 『먼지가 부르는 차돌맹이의 노래』(2008)가 있다.

시인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산재를 당한 동료의 모습, 파업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등 노동자들의 노동현장 삶의 모습을 시에 담고 있다.



❖ 조영관 유고시집

3) 정세훈 시인

정세훈 시인은 1955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1989년 『노동해방문학』에 작품을 발표하고 1990년 『창작과 비평』을 통해 문단에 데뷔했다. 시인은 공장생활을 하던 중 얻은 직업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시집을 냈다. 시인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이사장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공동위원장, 박영근시인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시인은 첫 시집으로 『손 하나로 아름다운 당신』(1989)을 시작으로 『맑은 하늘을 보며』, 『저별을 버리지 말아야지』(1992), 『끝내 술잔을 비우지 못하였습니다』(1994), 『그 옛날 별들이 생각났다』(1998), 『부평 4공단 여공』(2012), 『몸의 중심』(2016)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시인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은 시집 외에도 공단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동시집으로 『공단 마을 아이들』(2019)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은 공단 마을 아이들의 어려운 생활을 담아내고, 아이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 정세훈 시집

3. 부평에 살아있는 노동자와 시

지금은 노동운동의 쇠퇴와 함께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문학 활동도 쇠퇴하고 있다. 하지만 부평에는 부평산업공단이 남아 있고, 공장 안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비록 시대가 바뀌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세훈 시인은 '2012년 노동판'을 통해 바뀌지 않은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1972년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가
1992년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노동판
투별생활을 하며 지켜본
노동판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갔다
노동법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노동판과는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최저임금제가 생겨났지만

노동판을 죽이고 자본만을 살찌우고 있었다
비정규직을 만들어
노동판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노동의 피와 땀을 착취해 부를 누린 자본
정리해고라는 칼을 들이대었다
일방적으로 공장 문을 닫어버렸다
후진국으로 더 싼 피땀 값을 착취하려 갔다
이 땅의 피땀 값이 너무 비싸다며 갔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든든한 비호세력 정권과 함께
종북세력 발갱이로 매도하며 갔다

-「2012년 노동판」부분²⁷

그래도 노동자들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 왔다. 이런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은 시가 되고 소설이 되어 시대를 증언하며 남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평의 노동문화는 한국의 노동운동과 맥을 같이 하며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침체로 인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노동운동 활성화의 과제를 안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노력하고 있다.

부평의 노동문화가 부평의 노동운동에 기반해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부평의 노동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문화의 내용적 폭을 넓혀야 한다. 물론 80년대 민주화 시기를 겪으며 발전한 부평의 노동문화가 투쟁만을 다룬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노동자

27 정세훈, 『부평 4공단 여공』, 푸른사상, 2012.

의 일하는 모습 등을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소재는 공장이라는 일터의 틀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다루는 것이 주가 되었다. 즉, 일터 밖에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삶을 보여주고 공감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부평의 노동문화가 안고 있는 과제는 노동문화의 소재를 공장이나 일터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넓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노동문화가 공감과 소통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부평의 노동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세대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기존 노동문화는 노동운동에 기반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었다. 향후 부평의 노동문화는 기존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문화를 생산하는 세대를 포함해 노동자 일상의 삶을 다루는 새로운 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기존 노동운동에 기반한 활동가들의 노동문화와 새로운 세대에 따라 만들어지는 노동문화가 융합해 유지·전승되며 발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부평의 노동문화를 유지 보존하며 전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보관·연구 과정이 필요하다. 부평의 노동문화는 인천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문화에도 기여한 바가 크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보관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유실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기에는 활동가들이 감시의 망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을 했고,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하면 관련 활동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료를 소각하거나 숨겨서 보관해왔다. 그러다 경찰이나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에 체포되면 그나마 보관하던 관련 활동 자료를 압수당하고 폐기되었다. 이는 현재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에 기반한 부평의 노동문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원인 중 하나다.

공개적으로 출판 또는 전시했던 자료의 일부는 남아 있다. 공개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같이 노동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 극히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지역에 있는 노동문화 단체는 체계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인천지역의 노동문화 관련 단체가 힘든 여건에서 그나마 수집했던 자료들도 장마철 수해를 겪으며 유실되어 현재는 극히 일부만 남아 있다.

부평의 노동문화와 관련한 자료의 흔적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활동

가들이었다. 과거 노동문화 관련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은 구술 면접을 통해 과거 어떤 작품과 자료들이 있었는지 증언했고, 일부는 관련 자료를 사진이나 유인물, 카세트 테이프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활동가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도 시간이 지나며 여러 사정에 따라 유실되거나 폐기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수집 가능한 자료와 구술자료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소개한 부평의 노동문화는 노동운동의 중심지로서 부평산업공단이 형성되며 노동운동에 바탕을 둔 노동미술, 노동가요, 노동시에 중점을 둔 좁은 의미의 노동문화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분야 외에도 부평의 노동문화는 노동자의 여가생활이나 소비생활과 같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넓은 의미의 노동문화 전체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 문헌



단행본

- 대우자동차노동조합문화부, 『노래만큼 좋은 세상(노래집)』, 1991.
 박영근, 『김미순전』, 실천문학사, 1993.
 박영근전집 간행위원회, 『박영근 전집 1 : 시』, 실천문학사, 2016.
 백무산·김선우, 『술아 푸른 술아-박영근 시선집』, 강, 2009.
 인천광역시 민속조사보고서, 『인천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8.
 일꾼노동문제 자료연구실, 『일꾼의 노래』 노래집, 제작년대 미상.
 정세훈, 『부평 4공단 여공』, 푸른사상, 201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인천민주화운동사』, 선인, 2019.

논문

- 김귀옥, 「1960, 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과정-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1, 2004.
 김명인, 「어느 시인-피평가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며」, 『황해문화』 2016 가을호, 2016.
 서민철, 「인천의 초기 국가산업단지의 형성 과정과 산업집적지의 특성」, 『기전문화연구』 37, 2016.
 이재성, 「인천 민중문화운동의 역사」,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



신문 및 잡지

- 『가톨릭신문』
 『경인일보』
 『경향신문』
 『뉴스페이퍼』
 『동아일보』
 『부평일보』
 『인천미디어』
 『인천투데이』

웹사이트

- 부평구문화재단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bupyeong_art/)
 부평구청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withbupyeong/>)
 (사)민족미술인협회(<https://minartgallery.tistory.com/>)
 인천영상위원회(<https://www.ifc.or.kr/>)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http://encykorea.aks.ac.kr/>)
 성효숙 개인 블로그(<https://blog.naver.com/moonnov1/80020528366>)
 조영관추모사업회(<http://www.koani.kr/>)





제 8 장 — 부평의 설화

제8장 부평의 설화



이 원 규(소설가·(사)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부평의 설화는 태반이 계양산과 철마산, 원적산 등 한남정맥 주변에서 생성되었다. 타 도시나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매우 풍성한데 이훈익 향토사가가 1960년대부터 채록했기 때문이다. 그 성과를 『향토사료 제2집 : 인천지지(郷土史料 第二輯 : 仁川地誌)』(사)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연합회, 1987)와 『향토사료 제3집 : 인천지방향토사담(郷土史料 第三輯 : 仁川地方郷土史談)』(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0)에 수록하였고, 『인천지지』에는 구술자들을 밝혔다. 필자 이원규는 아버지가 채록한 서곳의 설화들을 『천마와 아기장수 외』로 운문하여 출간했다(서구문화원, 2003). 그 내용의 대부분이 부평 설화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위의 설화집들을 저본으로 하여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뽑아 정리해 신는다. 민담보다는 장소성이 선명한 전설들이 많아 전설과 민담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되 구술자와 참고문헌은 위의 저본들에 있으므로 붙이지 않는다.

1. 수십 번 쓰러진 중심성 사적비

계양산 경명현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길게 이어진 성벽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중심성(衆心城)이다.

이 성은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이 백성들을 부역으로 동원해 쌓았다. 조선조 말기, 이양선이 자주 출현하자 고종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여 교시를 내렸고 박희방은 1883년(고종 20년) 9월에 쌓기 시작하여 한 달 만에 완공했다.

경명현은 한반도 남북을 가로지르던 옛 중심 교통로의 한 요충이었고 이곳을 통과해 70리를 가면 한양에 이를 수 있었다. 서해안을 지키는 수비군이 무너지면 2~3km 떨어진 이곳에서 적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종은 이 고개에 성을 쌓게 했다.

축성을 끝내고 박희방은 성문 옆에 축성의 경위를 기록한 ‘중심성 사적비’를 세웠다. 그는 고을의 원로들에게 말했다.

“이 사적비는 자기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 오랑캐를 막아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을 길이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는 비석을 세우고는 중심성을 감회어린 눈으로 돌아보았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백성들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는 악전고투해서 이 성을 쌓았던 것이다.

“신식 총을 가졌다는 서양 오랑캐들이 바다에서 상륙해 서울로 가려면 여기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건곤일척의 전투를 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고을 원로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 사적비는 엉뚱한 속설 때문에 수십 번을 쓰러지고 다시 세워졌다. 이곳에서 가까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것이 서 있으면 자기 집안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부정한 행실을 한다고 믿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산 아래 박첨지네 며느리가 옆 마을 홀아비와 정분이 나서 내쫓겼다고 않은가. 중심성 비석이 여자들로 하여금 외간 남자의 품속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네.”

그의 벗이 말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네. 최근 수년간 우리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젊은 여자가 탈선하는 일이 몇 차례나 생기지 않았나. 그게 모두 그 비석 때문이라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우리들 모르게 마누라가 바람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속설이 퍼져 나가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 사적비를 쓰러뜨렸다. 부평부사 박희방은 비석을 다시 세우며 어이가 없어서 탄식을 했다.

“어리석은 백성들 같으니라구. 길썩하면 이양선이 나타나 통상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때가 아닌가. 그걸 막기 위해 성곽을 쌓고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자고 한 비석에 웬 부정한 여자들을 거기 끌어다 붙이는가.”

그리고 그는 명령했다.

“널리 알려라.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만든 자는 투옥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자는 장형(杖刑) 서른 대, 구경하고 들은 자도 열 대에 처하겠노라.”

그러나 이상하게 돌아가는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경험 많고 판별력이 높은 관장이었으나 귓속말로 퍼지는 유언비어를 차단할 수 없었다. 게다가 사적비를 누군가가 또 쓰러뜨렸다.

박 부사는 명령했다.

“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거기 경비병을 세우라.”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다. 언제 경비병의 눈을 속였는지 사적비는 또 쓰러졌다. 그렇게 쓰러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하자 박 부사는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포기하였고 다음 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갔다.

박 부사가 전출되어 갔지만 중심성 사적비는 쓰러지고 일어서는 일을 반복했다. 박 부사 대신에 누군가가 열심히 다시 세웠는데 그것은 마을의 여인들이 정절을 잃기를 바라는 짓곳은 한량들이었다.

그들은 밤에 키득거리며 성으로 갔다.

“허무맹랑한 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그리되지 않았는가. 지난 삼 년 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정분이 났는가 말일세.”

“그러게 말일세. 비석이 다시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여자들은 외간 남자의 거시

기가 세워진 것으로 여겨 스스로 눕혀지고 싶은가 보이.”

“우리 같은 한량들에게 여자들이 눕혀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말이야.”

그들은 사적비를 세우고 산을 내려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쓰러뜨렸다. 그들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쓰러지고 세워짐을 끝없이 반복한 중심성 사적비는 광복 후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성문인 공해루(控海樓)도 무너져 자취가 사라지고 중심성도 거의 다 무너진 채 그 비석만 덩그러니 누워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인천상륙작전 때 폭격으로 박물관이 파괴되면서 사적비는 없어졌다.

2. 나그네를 희롱한 계양산 불여우

옛날에 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올라온 선비가 서쪽 해안에 내린 뒤 부평읍을 거쳐 한양으로 가려고 계양산 경명현을 넘고 있었다. 도둑이 많은 고개라 일행 50명이 같이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는 배탈이 나서 산속에서 일을 보았다. 커다란 떡갈나무 앞으로 밑을 닦고 고의춤을 울려 매며 바라보니 일행은 가버리고 없었다.

“경기 지방은 인심들도 나쁘군. 나 혼자만 남기고 먼저 가 버리다니. 어서 가야지. 도둑이 나올지도 몰라.”

그는 발에 불이 나도록 고갯길을 달려 올라갔다. 그러나 경사가 급해 이내 숨이 턱턱 막혔다.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는데 갑자기 캐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몸집 작은 여우들이었다.

그놈들은 그가 일행에서 떨어졌으며 몹시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대어섯 마리가 깡충거리며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재주를 넘고 까불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우를 몇 번 보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수를 본 적도 없었다.

“비켜라, 이놈들아!”

그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한 마리가 허공으로 날아올라 지팡이를 물어 가로채더니 캥캥거리며 풀숲으로 던져버렸다. 그것을 신호로 여우들은 한꺼번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물어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발뒤꿈치를 물어 짚신 짚을 벗기고, 머리 위로 날아올라 갓을 벗겼다. 그리고 등 뒤로 뛰어올라 괴나리봇짐의 어깨 멜빵을 이빨로 끊으려 했다.

백 년 묵은 여우가 둔갑한다더니 그런 놈들이 몰려온 듯싶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는 단단히 다짐하였지만 여우들이 난리를 치는 통에 옆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마음이 불안하여 마구 달리다 보니 길이 좁아지고 바위들이 앞을 막았다. 아, 길을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고 거꾸로 달려 나왔으나 큰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해가 꼬박 넘어 갔다.

다행히도 여우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그때 그는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거기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립문 앞에서 목을 뽑고 들여다보았다. 거기 묘령의 처녀가 나뭇을 다듬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여우한테 홀려 있는 거야.”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였으나 의지와는 달리, 여우가 나오는 혼한 옛날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사립문을 열고 들어갔다.

“고갯길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소이다. 처마 밑에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세요.”

처녀가 얇전하게 말했다.

“여기는 산도독들이 있는 데다가 불여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천 명이 모여서 넘으라고 천명고개라 하는데 왜 혼자 길을 떠났습니까?”

그는 배탈이 나서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 그냥 우물거렸다.

“혹시 여우를 보셨나요?”

선비는 머리를 끄덕였다.

“사실은 여우 몇 마리가 나타나 어찌나 까부는지 경황 중에 길을 잃었소이다.”

처녀는 놀라는 얼굴을 했다.

“큰일 날 뻔했군요.”

처녀는 조용조용 움직여 밥상을 차려서는 툇마루 위에 올려주었다. 몸매와 행동이 매우 부드럽고 고왔다.

선비가 물었다.

“왜 처녀는 혼자 산속에 살지요?”

처녀는 머뭇머뭇하다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소녀는 경명현의 산 도둑 부두목의 딸입니다. 두목과 아버지와 부하들은 먼 고장으로 부잣집을 털러 갔지요.”

선비는 처녀의 솔직하고 소박한 말에 호감이 갔다.

처녀가 다시 말했다.

“부끄럽지만 선비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는 손갈을 든 채 처녀를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는 비록 도둑이지만 저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양반 댁을 털 때는 책도 갖고 오십니다. 덕분에 소녀는 글을 깨쳤사옵니다. 지금은 『소학』을 읽는데 어렵습니다.”

선비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산중에서 혼자 책을 읽다니요?”

“겨우 시늉만 할 뿐이옵니다. 아버지나 아버지 동료들은 모두 까막눈이고 아무에게도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소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풀어 주실 수 있는지요?”

선비는 선선히 승낙했다. 공부하기 싫어서 부모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고, 끝내 과거 시험도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사서와 삼경은 읽은 터였다. 『소학』 따위는 식은 죽 먹기처럼 자신 있었다.

저녁을 먹은 뒤, 선비는 처녀에게 『소학』의 어려운 부분을 가르쳐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처녀는 방안에 눕고 선비는 툇마루에 누웠다. 밤 뼈꾸기가 울고 부엉이도 울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그는 처녀가 손을 잡는 바람에 눈을 떴다.

“산중이라 밤공기가 차갑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가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가자 처녀가 그의 품에 안겼다.

“평생에 선비님 같은 분을 모시는 게 소원이었사옵니다.”

선비는 처녀와 하룻밤 사랑을 나누었다. 그는 감회가 컸다. 그리고 산속에서 보내는 밤이 행복했다. 전라도에서 보름 동안 머나먼 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웬 행운이나 싶기도 했다.

그러나 아침에 그는 자신이 붉은여우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다가 잠에서 깨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 그는 마른 나무 삭정이를 안고 숲속에 발가벗고 누워 있었다.

허무하고 아쉽고 얼떨떨한 느낌으로 일어나 옷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이거 큰 일 났구나 생각하면서도 그는 어젯밤 일이 아쉬워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처녀가 있던 초막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별거벗은 채로 큰길을 찾아 걸어가는데 여우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저놈들한테 흘렸었군.”

그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한참 만에 그는 고갯길을 오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사람 살려요!”

그는 한 손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 소리쳤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말 잔등에 엮은 낡은 누비형겜으로 그의 몸을 덮어주었다.

“쫓쫓, 도둑을 만나 옷을 빼앗겼구려.”

“아니오. 여우에게 흘렸었지요.”

그는 울상을 하고 말했다.

3. 계양산의 장사굴

계양산 남쪽에 장사굴이라고 불리는 작은 굴이 있었다. 입구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다가 앞에 소나무와 관목들이 무성해서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웠다. 입구가 좁아서 허

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지만 안에 들어서면 바람이 없이 아늑하고 빛도 적당히 들어오고 예닐곱 명이 앉을 수 있었다.

옛날에 사냥꾼 세 사람이 계양산에 올랐다가 비를 만나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이 굴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비바람이 전혀 들이지 않고 그리 킁킁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방안에 들어온 듯 편안했다.

한 포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주인이 있네. 여기 포대기와 물그릇과 도기로 만든 잔이 있어.”

그때였다. 빗소리에 섞여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꾼들은 여차하면 당길 생각으로 활에 화살을 재었다. 한 사람이 굴 앞에 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세요?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목소리는 옛되게 느껴졌으나 워낙 커서 사냥꾼들은 그가 소년 거인이거나 소년 장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우리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냥꾼들이네. 우리는 비를 그으려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있는 굴인지는 몰랐네.”

굴의 주인은 콩 소리를 내며 배를 깔고 안으로 들어왔다. 열두 살쯤으로 짐작되나 키가 육척이 넘게 컸으며 온몸이 무쇠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도 사냥을 하며 사는지 몸에는 가죽옷을 걸치고 있었고 막 잡아 온 듯 노루 한 마리를 피 묻은 창과 함께 구석에 던졌다.

“행색을 보니 아저씨들은 사냥꾼들이네 모양인데 배고파 보이는구려.”

“그렇네. 사흘 동안 거의 먹지 못했네.”

소년장사는 부싷돌로 불을 일으킨 뒤 잡아 온 노루를 쪽쪽 찢어 꼬챙이에 꿰어 구워 권했다.

배고픔을 면한 사냥꾼들이 물었다.

“너는 어떤 연유로 혼자 이 굴속에 살게 되었느냐?”

소년 장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어요. ‘너는 철룡 장군의 아들이다, 그분은 모함을 받아 돌

아가셨다'라고 말하셨어요.”

이 날 사냥꾼들이 소년 장사와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 몇 달 뒤에 그들이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는 소년 장사가 머문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 장사가 계양산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근방 사람들은 간혹 소년 장사의 모습을 멀리서 보았던 것이다. 절구만 한 바위를 ping ping 집어던지며 노루를 잡는 모습도 보았고 지름이 한 뼘은 될 나무를 똑똑 분지르는 모습도 보았다. 아마도 근처의 다른 굴 속에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소년 장사는 어른이 되었을 때 거인처럼 컸으며 바위를 밟았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바위 위에 패인 발자국이 남았다. 그는 어디론가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 땅이 쿵쿵 울리고 놀란 짐승들이 사방에서 뛰었다. 그를 본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었다.

4. 굴포천과 원티고개

옛날에는 남부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서울로 운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사업이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서울까지 가면 매우 편리하지만 강화도와 김포반도 사이에 흐르는 해협에 있는 손돌목이라는 곳에 소용돌이 급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조선 중종대왕은 낙심하여 크게 탄식했다.

“또 거기서 세곡선이 침몰했다는 말이요? 버린 곡식이 삼천 석이라니 이를 어쩐단 말이요?”

중신들이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국가 재정이 거의 그 세곡에 달렸는데 나라 살림에 큰 주름이 잡히게 되었사옵니다.”

중종대왕은 한숨을 쉬었다.

“나라 살림도 살림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배를 주리며 납부한 세곡을 그렇게 버리니 면목이 없는 일이요. 경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

그때 권신 김안로가 아뢰었다.

김안로는 아들 희(禧)가 중종의 부마가 됨으로써 왕실과 인척이 되어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이었지만 두뇌가 비상하다고 알려진 터였다.

그는 이미 경인운하를 계획하고 있었다.

“전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사옵니다.”

“그게 무엇이요?”

“그 손돌목을 피해 운하를 파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고려 때 실패한 것이옵니다.”

“자세히 말해 보오.”

대왕이 말했다.

“고려 시대 최충헌의 아들 최이는 김포 굴포천을 한강과 연락하는 수로를 개척하여 한강 물을 서해로 돌리려다가 계양 산맥의 큰 고개 암벽을 뚫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사옵니다.”

신하들은 며칠 동안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중종 대왕은 깊이 생각한 끝에 김안로에게 운하를 파라는 왕명을 내렸다.

김안로는 고려시대에 실패한 곳을 그대로 뚫고 나가려 했다. 그는 한강 입구인 연사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부평의 굴포천을 깊이 파서 부평평야를 횡단하여 원통현까지 나아가고, 또 한편 번지기 마을(현재의 가좌동)의 갯골 포구에서 시작하여 동암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김안로는 감독관에게 호통을 쳤다.

“나라의 경제가 여기 달렸는데 왜 못 판단 말이나!”

감독관은 무릎을 꿇었다.

“산 전체가 단단한 돌이옵니다.”

김안로는 다시 호통을 쳤다.

“그래도 파라. 돌산을 부수란 말이다.”

그러나 워낙 단단한 돌이라 곡괭이 끝이 번쩍번쩍 불꽃을 내며 튀었다. 횃불을 켜고 수백 명이 한 달이 넘도록 돌산에 달라붙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결국 암벽을 관통하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김안로는 다른 방향을 찾으려 했다. 현재의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소래산맥 옆 수월현으로 방향을 돌려 인천 장수천을 깊이 파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수월현의 암벽을 뚫지 못하여 실패했다.

“그래도 어딘가 길이 있을 거야.”

그는 세 번째 시도에 나섰다. 이번에는 수로를 깊이 파고 안아지고개를 우회하면서 가정천으로부터 서해로 운하를 뚫으려 하였으나 암벽을 뚫지 못하여 실패했다.

김안로는 암벽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저희의 정성을 외면하십니까.”

세 번의 노력이 실패하자 종종 임금은 단념한 듯 고개를 저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오. 이제는 다른 수송의 방법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오.”

그래서 경인운하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에는 몇 개 지명이 생겼다. 결국 운하를 파지 못해 원통하다고 하여 원통이고개, 또는 원티고개라 한 것이 원통현(圓通峴)으로 변하였고, 물을 넘기려 했다고 해서 무넘이고개라 했는데 그것이 한자 뜻 그대로 수월현(水越峴)이란 지명이 되었다.

5. 사또와 경명현의 도둑 두목

옛날 부평 고을에 신관 사또가 부임해왔다. 첫날부터 고을의 방범 업무를 맡은 병방(兵房)이 혈레벌떡 달려 들어와 보고했다.

“나리, 털렸습니다요.”

“이놈아, 뭐가 털렸다는 것이냐. 똑바로 말해라.”

사또는 손가락을 놓으며 낫을 찡그렸다.

“징맹이고개에서 도둑 떼가 행인의 짐을 털었습니다요.”

“뭣이라구? 그 도둑놈들이 내가 부임한 첫날부터 털었던 말이나?”

사또는 발을 구르며 벌떡 일어나 칼을 집어 들었다. 그는 기가 막혔다. 부평부사로 제수되던 날, 그는 조정으로부터 다짐을 받은 터였다. 계양산 경명현의 도둑 떼를 말끔히 토벌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흘쯤 단단히 준비를 해서 토벌대를 이끌고 나서려던 참이었다.

“내 이놈들을 요절내고야 말겠노라.”

그는 아침 먹는 일도 거르고 여남은 명의 수행원과 함께 계양산으로 갔다.

이 산은 군도(群盜)가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인천과 부평 일대에서 가장 높고 깊은 산인데다, 수목이 무성하여 몸을 숨기기 쉬웠다. 그리고 산 아래로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부자들이 많고 빼앗을 것이 많았다.

게다가 산의 허리에 걸쳐진 경명현은 서울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충청과 호남에서 배를 타고 올라와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나 짐은 이 고개를 지나야 했다. 원창동의 환자곶 해안에 있는 정부 세곡창고에서 세곡을 서울로 싣고 가려 해도 마찬가지였다. 고개의 길이는 20리가 넘었다. 그러므로 도둑 떼가 자리 잡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이 고개는 도적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 일행이 천 명이 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고 하여 ‘천명고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경명현의 도둑 두목은 키가 작고 날렵한 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전임사또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토벌에 나섰다지만 두목의 그림자 한 번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사또도 그렇지만 조정에서 걱정하는 것은 계양산 도둑 떼의 두목이 마치 의적(義賊)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었다. 고개에서 재물을 빼앗아서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조용히 가난한 집 담장 안에 던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도둑이 민심을 얻고 조정에서 민심을 이반하게 하는 것, 그것은 통치의 기반을 흔드는 요소였다.

사또는 경명현을 샅샅이 순찰했으나 도둑은 흔적도 없었다.

사또는 도둑에게 주는 경고장을 붙였다.

나는 조정의 명을 받아 너를 토벌하러 왔다.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으며 감히 의적인 양 하다니, 참수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수한다면 목숨만은 살려 줄 것이니 자수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산 아래 나졸들을 배치하고 행인을 서른 명 또는 쉰 명으로 묶어 고개에 오르게 했다. 마을에는 청년들을 시켜 야경을 돌게 했다. 재물을 가난한 집에 던져 놓는 자를 무조건 붙잡으라는 명령도 내렸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다음 날 아침 다시 기막힌 소식을 들었다. 그가 순찰을 끝내고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둑이 행인들의 짐을 털었고 그것을 즉시 산 아래 마을의 가난한 집에 던져 넣었다는 것이었다.

관아로 붙잡혀 온 나졸들이 말했다.

“갑자기 주먹 만한 돌이 날아와 정신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행인들의 짐이 다 털린 뒤였습니다.”

나졸들은 이마에 돌맹이를 맞아 상처가 나고 통통 부어 있었다.

“이 미련하고 둔한 놈들아, 그래도 너희가 아전이라고 나랏밥을 먹는단 말이냐.”

사또는 화가 나서 나졸들에게 불기를 스무 대씩 맞는 장형(杖刑)을 내렸다.

마을에서 야경을 한 청년들도 끌려와서 말했다.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요. 정말 바람 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요.”

그 청년들도 장형 10대씩을 맞고 돌아갔다.

그 사흘 뒤, 사또는 60명의 나졸과 포졸을 이끌고 징맹이고개로 갔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키가 작고 땅딸하게 생긴 자가 훌쩍훌쩍 재주를 넘으며 사또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더니 큰소리로 호통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사또.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말하는 투가 방자하기 짝이 없었다.

부사를 수행한 포교가 꾸짖었다.

“이 무엄한 놈, 어느 어른 앞인데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포교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생포하려 했다. 그러나 땅딸보 도둑은 쩍싸게 몸을 날려 큰 바위 위로 사뿐 올라앉았다. 그러고는 하하하하 배꼽을 잡으며 호기롭게 웃었다.

“어리석은 것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잡아? 어서 너희들 패랭이나 살펴보아라.”

포졸들이 패랭이를 벗어보니 패랭이 꼭지가 모두 잘려 땅에 떨어져 있었다. 포졸들

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또는 큰소리로 외쳤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포졸과 나졸들이 마지못해 칼을 뽑아 들고 나섰으나 당할 수가 없었다. 도둑은 포졸과 나졸들의 절반 정도 인원이었으나 이리저리 휘휘 날아다니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포졸과 나졸들은 뒤통수와 어깨를 얻어맞고 쓰러졌다. 사또 혼자만 얻어맞지 않고 온전했다.

사또는 체면이 잔뜩 구겼으나 칼을 뽑아 들었다.

“땅딸보 두목놈아, 어서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땅딸보 두목은 아까처럼 훌쩍훌쩍 재주를 넘으며 나타났다. 그러더니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외쳤다.

“사또, 혼자 남았는데 어찌시려구요. 정말 망신당하기 전에 돌아가시오.”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표검을 뽑아 휘휘 던졌다. 표검들은 사또 곁에 있는 키 큰 소나무 등치에 탁탁탁 소리를 내며 연속적으로 꽂혔다. 부하들은 다 쓰러졌고, 도둑은 한 놈도 잡지 못했고, 표검은 무섭게 날아와 꽂히니 어찌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사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관아로 내려왔다.

6. 계양산 부식들

임진왜란에서 참패한 조선 조정이 화승총을 만들고 화약과 함께 신속히 불을 일으켜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부식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거기 열심히 매달린 사람으로 정두원(鄭斗源)이라는 무관이 있었다.

정두원은 광주 정씨(光州鄭氏)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병서와 경서를 읽고 무예를 닦은 뒤 무과에 급제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므로 그는 하급 지휘관으로서 혹독하게 전쟁을 치렀다.

전란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부하 정효길(鄭孝吉), 박무길(朴武吉)과 더불어 지나간

전쟁에 대하여 말했다.

그가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정신적인 무장이 덜 되어 왜놈들한테 짓밟혔지만 그보다 큰 건 무기가 왜놈들한테 뒤지기 때문이네. 백성들의 정신적인 무장은 나라님이나 정승님들이 고심할 내용이네. 우리는 무관으로서 무기개발을 힘써야 하네. 왜놈들 조총보다 훨씬 좋은 총과 화약을 만들어야 하네.”

정효길이 말했다.

“총이야 군기도감에서 단단히 베틀며 만들려고 애쓰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총을 발사시키는 심지나 점화장치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정두원은 그게 좋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전국의 부식돌 생산지를 수소문하여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부평 땅 계양산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여름에 부평 저자에 온 정효길은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피할 겸 빈 속도 채울 겸 주막으로 들어갔다. 술손님이 없어 하품을 하고 있던 주모가 반색을 하며 일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정효길은 마루에 앉았다.

“배도 출출하고 하니 알아서 주시게.”

“계양산에서 잡은 꿩고기 안주와 계양산 약수로 만든 약주가 있습니다.”

“그걸 주시게.”

비에 젖은 갓을 털던 그는 주모가 부식돌을 툭툭 쳐서 손쉽게 불을 일으키는 것을 보는 순간 벌떡 일어섰다.

충충하게 어두운 구석에서 부식돌은 번쩍번쩍 섬광을 일으키며 단 두 번 만에 부식깃에 불이 붙었다. 부식깃은 보통의 마른 약쑥이었다.

“주모, 그 부식돌 나 좀 보여주게.”

정효길은 부식돌을 받아 들었다. 주방에서 쓰는 것이라 손때가 묻어 있지만 그는 그것이 티 하나 없는 순백의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부딪쳐 보았다. 번쩍번쩍 불이 일어나는데 몇 번 반복하자 허공에서 잠깐 불길기 일어나 일렁거리다가 꺼졌다. 전국 각지를 다녀 보았지만 이렇게 좋은 부식돌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이걸 어디서 났는가?”

그의 물음에 주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주정뱅이 박판돌이가 줬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다고 들었는가?”

“안남산에서 주웠다고 들은 걸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가?”

“안남산 아래 살지요.”

“날 좀 만나게 해주게. 아주 중요한 일이네.”

주모는 술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박판돌을 데려왔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자네 석 달 마실 술값을 대겠네. 주모가 가진 부식돌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게나.”

“알았습니다. 당장 모시고 갈 수 있지요.”

“내가 마음이 바쁘지만 비가 그친 뒤 가세.”

정효길은 다음날 박판돌을 데리고 계양산으로 갔다. 그리고 두 군데에서 매우 큰 석영 원석을 발견했다. 부식돌로서는 최고라 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돌이었다.

정효길의 보고에 따라 정두원은 현장에 와 보고, 군사들이 휴대할 수 있는 부식돌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술주정뱅이에게 발견되었던 원석을 확보함으로써 이때부터 계양산 부식돌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 후 원석은 계양산과 주변에서 또 다시 발견되었고 군사용뿐만 아니라 총을 쏘는 포수들에게 애용되었다. 그리고 대궐이나 사대부 집은 물론 백성들도 사용하게 되었다.

전국의 저자에서

“단 한 번에 일어나는 부식돌, 부평 안남산 부식돌이오.”

하는 한 마디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전국으로 행상을 나갔다. 그들은 근방의 바로피고 개(현 서구 검암동 소재)의 특산물인 솥돌과 함께 부식돌을 지고 나가 팔았다.

“부평 안남산의 부식돌, 부평 바로피의 솥돌을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더구나 몇십 년 지난 뒤 담배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부싷들의 인기는 더 커졌다.

계양산 부싷들은 개항과 동시에 인천에 진출한 외국 회사 세창양행이 성냥을 수입하고, 뒷날 성냥공장을 인천에 세우면서 인기를 잃었다.

7. 원적산의 호랑이굴

원적산은 깊고 숲이 우거져서 호랑이가 살았다. 그리고 맛 좋은 산나물이 지천으로 많아서 음력 삼월부터 석 달 동안 여인네들이 쭉부쟁이와 두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루 하루 날이 지남에 따라 원추리, 취나물, 고비, 홀잎나물 등을 뜯었다. 산 중턱 이상으로 올라가면 참나물, 모시대, 잔대, 참취, 곰취, 단풍취 따위를 뜯을 수 있었다.

“나는 왜 봄이 되면 몸이 나른하고 괜히 가슴이 울렁거리는지 몰라.”

젊은 강화덕이 말했다.

그러자 나이가 엇비슷한 아낙이 대답했다.

“나도 그래. 괜히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거든.”

그러자 몇 살 더 많은 인천덕이 대꾸했다.

“이 여편네들이 봄을 타는군. 그래서 봄바람을 맞고 싶어서 나물 핑계 대고 나온 거군. 하긴 옛날부터 봄은 여인네들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정네들의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정네들은 가을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걸까요?”

강화덕의 말에 나이 많은 여인이 다시 대답했다.

“그렇지.”

“그랬구나. 그래서 남편이 주막거리 얼굴 반반한 기생년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을 한 거로구나.”

여자들은 고살이나 우물가에서 나누지 못 하는 말들을 실컷 하며 나물을 실컷 뜯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

일행에서 조금 떨어졌던 안산덕이 장벽처럼 막아선 집채만 한 바위 앞에서 소리쳤다.

“이리들 와 봐요. 여기 원추리가 지천으로 많아요.”

여인네들은 모두 그 쪽으로 가서 원추리를 잔뜩 뜯었다.

“우리 낭군이 좋아하는 나물이 이렇게나 많네. 아이 좋아라.”

“원추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괜히 금슬 좋다고 사랑하고 싶은 거지.”

여인네들은 머리에 이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나물을 많이 뜯은 터라 대부분이 이제 산을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여기 낮은 굴이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런 굴이 있네. 아, 그런데 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려요. 귀여운 새끼들이예요.”

나물을 이고 가기 쉽게 큰 무명보자기에 싸서 묶고 있던 여인네들은 그 쪽으로 가서 목을 뽑고 들여다보았다. 얼룩덜룩한 털을 가진 작은 새끼들이 서로 뒤엉켜 자고 있었다.

“저건 호랑이 새끼야! 여긴 호랑이굴이라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뭐라구요?”

여인네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른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어흥’ 하고 산 전체가 울리도록 호랑이가 울었다. 수풀 사이로 황소만 한 호랑이 모습이 언뜻 보였다.

“아이구머니나! 사람 살려랴!”

여인네들은 간이 콩알 만해져서 나물 보따리고 뒹고 치마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 내려갔다.

호랑이는 몇 번 더 위협하듯이 크게 포효하였으나 다행히도 여인네들을 잡아먹을 생각은 없는지 뒤를 쫓지 않았다.

마을 어귀로 내려와서 여인네들은 길바닥에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십 년 감수했네.”

“아이고, 나는 저승 문고리까지 잡아보고 온 기분이에요.”

그렇게들 말하며 살아 나온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강화택이 가우똥했다.

“이상한 일이에요. 새끼를 가진 호랑이가 왜 우리를 물어다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지 않았을까요?”

아까 어미 호랑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안산택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중송아지 한 마리를 물고 있었어요. 중송아지를 물어오지 못했다면 나를 물어다 새끼들에게 줬을 거예요.”

이때부터 호랑이가 무서워서 근방 마을 사람들은 산나물을 뜯지 못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들이 있었던 원적산의 바위를 범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8. 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

원적산에 원적사(元積寺)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다. 풍광이 좋은 숲속에 들어앉은 데다가 도랑에 있는 샘물이 맛이 좋았다. 스님들도 불심이 깊고 신자들에게 친절했다.

어느 해부터인가 빈대가 생기더니 점점 늘어났다. 수천수만 마리가 법당의 마루 틈과 기둥 틈에 들끓었다. 그러다가 스님이나 신도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진군하는 병사들처럼 쏟아져 나와 몸으로 기어올라 마구 물었다.

절을 찾아왔던 신도들이 몸을 긁으며 울상을 했다.

“주지 스님, 빈대에 수십 군데를 물렸어요. 빈대를 끝까지 안 잡을 건가요?”

주지 스님은 미안한 표정을 했다.

“빈대도 생명인 것을 어떻게 살생을 합니까?”

신도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신도가 줄어드니 절 살림이 어려워지고 스님들은 예불을 해도 신바람이 나지 않았다. 민가로 탁발을 하러 가면 개구쟁이들이 놀려댔다.

“빈대절에서 온 스님, 빈대처럼 생겼네!”

절을 싫어하는 어른들은 쏘아붙였다.

“빈대나 잡아먹으면 배부를 텐데 무슨 탁발을 해왔!”

탁발 스님들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지친 몸을 눕히면 빈대가 어디 갔다가 왜 이제 왔느냐 하는 듯이 덤벼들었다.

참지 못한 젊은 스님들은 불멘소리를 했다.

“주지 스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주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게 모두 우리의 불심을 확인하려고 부처님이 주는 시련이네. 참고 이기면 빨리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이네. 사명당 유정대사님은 임진왜란 직후 왜국에 갔을 때 왜의 왕이 쇠로 만든 방에 가두고 펄펄 끓게 불을 댔으나 참으셨네.”

주지 스님은 절에 빈대가 많아진 것이 부처님이 자신과 젊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불심을 확인하려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불심이 깊던 주지스님도 두 손을 들었다.

“나도 못 참겠네. 어서 빈대를 잡으세.”

주지스님은 젊은 스님들과 함께 빈대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데다가 빈대란 놈들이 사람이 잡는다고 없어질 놈들이 아니었다. 잡을수록 더 늘어나니 어쩔 수가 없었다.

주지 스님은 불상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빈대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곳이 불도의 도랑으로 적당치 않다는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 모시고자 하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빈대가 없어지지 않고, 하루에 한 말(斗)씩 잡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절을 옮기라는 부처님의 계시라고.

절 살림이 어려워졌지만 말 한 마리는 남아 있었다. 스님들은 말 등에 길마를 엮고 불상과 중요한 기물을 실었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아 움막이라도 짓고 시작하세.”

주지 스님은 젊은 스님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주지스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짐을 가득 실은 말은 산비탈을 내려오다가 실족해 골짜기로 굴러 죽어버렸다.

주지 스님은 거꾸로 처박힌 불상을 내려 반듯이 모셔놓고 올떡였다.

“부처님, 도대체 저한테 어찌라는 겁니까?”

스님들은 불상과 기물들을 죽은 말과 함께 산기슭에 묻었다. 사람의 무덤처럼 봉긋하게 봉분을 만들었다.

그 뒤 주지스님과 젊은 스님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백 년이나 2백 년이 흐른 뒤에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원적사의 말무덤’ 또는 ‘원적사의 부처무덤’이라고 불렀다.

더 많이 세월이 흐른 뒤에 다른 스님들이 불상을 찾아 새 절을 세우려고 그 봉분을 파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9. 새신랑이 호랑이에게 잡혀먹다

대여섯 살에 부모를 잃은 고아 형제가 원적산 아래에서 외숙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형이 16세 되던 해 결혼했는데, 외숙은 오막살이 초가집을 하나 지어 조카들이 살 수 있게 해주었다. 형은 아름답고 착한 아내와 아우를 부양하기 위해 남의 집 암소를 맡아 키웠다. 그 소로 절반은 주인집 농사일을 거들고 절반은 남의 집 소품팔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첫 한 마리는 주인이 갖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소머슴이라고 했다.

초가을 어느 날이었다. 계양산 너머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소를 물고 간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별별 떨며 해진 뒤에 밤길에 나서지 않고 외진 산길을 가지 않으려 했다.

새신랑은 소에게 풀을 먹이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호랑이에게 빼앗길까 봐 소를 끌고 풀이 있는 산기슭에 가지 못해 암소가 어제 하루를 굶은 터였다. 소가 자기 소유인 사람들은 소를 끌고 산에 갔다. 소와 사람이 함께 있으면 호랑이가 나타나도 소를 물고 가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새신랑은 그럴 사정이 아니었다.

“안 되겠어. 내가 쇠풀을 베어 와야지.”

그가 낮과 지계를 챙기고 나서자 새색시가 걱정스런 얼굴을 했다.

“여보, 간밤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앞 논둑에서 아무 풀이나 베어다 먹이면 안 돼요?”

새신랑은 어제저녁에 소 주인이 와서 소가 야위었다고 걱정하던 얼굴을 떠올렸다.

“걱정 말아요. 깊은 산에는 안 갈 테니.”

그는 아내를 그렇게 안심시켰다.

그는 쇠풀이 좋은 원적산으로 올라갔다. 한참 좋은 풀을 베어 지계에 올리고 칠히로 만들 밧줄로 단단히 묶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어흥’하는 소리와 함께 산 전체가 울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바라보니 큰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새신랑은 지계작대기와 낮을 꼬나들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산중호걸 호랑이님, 나 죽는 건 서럽지 않으나 어린 아내와 아우가 있소이다. 나를 못 본 척하고 갈 수는 없지요?”

호랑이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발을 멈췄으나 도저히 배가 고파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날려 덤벼들었다. 새신랑이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 내뿜기 시작했으나 소용없었다. 겨우 세 걸음을 달리고 그는 호랑이에게 물려 숨이 끊어졌다.

해가 저도 새신랑이 돌아오지 않자 새색시는 시외숙에게 알렸다.

“외삼촌님, 그 사람이 풀 베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외숙은 놀란 얼굴을 했다.

“호랑이가 출몰한다는데 왜 산에 갔단 말이냐?”

“소를 굶길 수 없어서요.”

새색시가 울면서 대답했다.

외숙은 날이 밝자 관아에 고변한 뒤 마을 남자들과 함께 조카를 찾아 나섰다. 한나절을 찾은 끝에 낮과 지계를 찾고 다시 한나절을 찾은 끝에 새신랑의 피 묻은 옷 조각을 발견했다.

“새아기야, 어쩌면 좋으나. 네 남편이 호환을 당했구나.”

외숙은 옷자락을 보여주며 말했다.

새색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10. 십정동 대장바위

십정동 왼편 산 중턱에 큰 무덤이 있고 그 앞에 검은 바위가 하나 박혀 있는데 옛날부터 대장바위라고 불렀다. 그 앞애다 무덤을 쓰면 후손 중에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대장이 태어난다는 말이 떠돌았다.

사람들이 말했다.

“저기 내 무덤을 쓰고 내 자손이 장군이 되어 나라를 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말일세. 그런데 아직 묘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건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야. 괜히 두렵고 외경스러운 마음을 먹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전설을 알면서도 망설였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그 전설을 철석같이 믿어 자식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대장바위 곁애다 무덤을 쓰라고 유언을 했다. 자식들은 그대로 했다. 그리고 그 뒤 그 집안에서 대장이 나왔으나 군대의 장군이 아니라 대장간의 대장장이였다.

“대장장이도 대장은 대장이지. 전설이 들어맞았어. 하지만 아무나 대장이 되는 건 아냐. 대장이 될 만한 아들을 가진 사람이 거기 묻혀야 그 아들이 대장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이에 관한 또 다른 전설도 있는데 군대의 대장이 아니라 군도(群盜)를 이끄는 도둑대장이 나왔다고도 한다.

11. 코박굴 코바위

부평 마분리(현 부개동)에 코박굴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 뒷산에 마치 사람의 코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 대정리 사람 하나가 비에 젖은 명석을 말리려고 코바위를 덮었는데 그때 마을에 남자들이 죽어 젊은 과부들이 생기고 여자들이 바람이 나는 현상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무당이 말했다.

“코바위는 남자들의 생식기를 뜻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걸 덮으니까 음양의 조화가 어그러져 여자들이 바람이 난 것이야.”

사람들은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꺼림칙하여 명석말린 사람에게 얼른 그것을 치우게 했다.

“불행한 일 더 일어나기 전에 어서 그걸 치우게.”

“알았어요. 나는 멋모르고 한 일이지만 정말 그 때문에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명석말린 사람은 당장 그것을 걷었다.

그런데 이 미신에 빠진 근거 없는 말은 뜻밖의 사태를 불러왔다. 어느 날 밤중에 누군가가 이영으로 다시 코바위를 덮었던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걸 덮었던 말인가.”

대정리 마을 남자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얼른 그것을 걷었다. 그런데 사흘 뒤 밤중에 누군가가 또 이영으로 코바위를 덮은 것이었다.

대정리 마을 남자들은 화가 났다.

“우리 마을에 불행이 덮치기를 바라는 나쁜 놈들이 한 짓이 분명해.”

그들은 밤중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세상을 비추는데 지계에 이영을 얹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대정리 남자들은 살금살금 그들 뒤를 따라갔다. 이영을 지고 온 사람들은 킬킬거리며 자기들끼리 말했다.

“코바위에 이영을 덮으면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니 우리 마분리 남자들한테는 얼마나 좋은가 말이야. 어서 가서 덮으세. 그리고 이 마을 여자들이 바람나기를 기다리세.”

대정리 사람들은 그들을 덮쳤다.

“이놈들, 우리는 마분리가 이웃이라 친목과 우애를 지켜 왔는데 코바우를 뒀다니. 우리 마을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이 과부가 되고 바람나는 게 그렇게 좋단 말이냐!”

“아이쿠, 장난삼아 한 것이외다.”

마분리 사람들은 두 손을 짹짹 비비며 사과했지만 속절없이 대정리 남성들에게 매를 맞는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사이좋게 살아 온 두 마을 사이에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했다. 마분리 사람들은 대정리 사람들이 마을을 관통하는 한길을 걸으면 통행세를 내라고 트집을 잡았고, 대정리 사람들은 논의 물꼬를 보면서 물이 마분리로 흘러가지 않게 수로를 막았다.

두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 가서도 눈을 흘겼고 연날리기 하는 소년들도 마주치면 서로 붙잡고 싸움을 했다.

“너희 마을은 남의 불행에 좋아서 춤추는 나쁜 마을이야. 네놈들도 속셈이 그럴 거야.”

“물꼬를 막아 버리는 마을은 더 나쁜 마을이야. 네놈들도 그런 욕심쟁이일거야.”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오랜 세월 우정을 지켜온 두 마을의 원로들이 만났다. 자기 마을에서 현명하고 선량하다는 평판을 듣는 노인들이었다.

마분리 노인이 말했다.

“여보게, 우리 마을은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대정리 노인이 말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을 안고 살아.”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 먼저 사단을 일으킨 마분리 사람들이 음식을 마련해 두 마을이 모두 모이는 잔치를 마련했던 것이다.

“아무리 장난이었지만 우리가 잘못했네.”

“아닐세. 그랬다고 심하게 때린 우리가 더 잘못이네. 사실은 근거 없는 미신 이야기였는데 말일세.”

두 마을 사람들은 음식과 술을 서로 권하며 마음을 풀었다. 아이들도 어깨동무를 하고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우정을 되찾았다.

그 뒤 두 마을은 어느 곳보다도 더 우애 있게 지내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부평 지방이 도시화되면서 그 코바위도 불도저에 밀려 사라져 버렸다.

12. 우물을 파지 못한 항굴 마을

일신동 항동 마을은 형세가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항동’ 또는 ‘항굴’로 불리었다. 50호 이상이 살면서 우물이 없는 마을. 그 이유는 마을 형세가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밑을 뚫으면 침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구 밖에 우물을 파놓고 그 물을 길어다 먹었다.

마을에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곳이 남향이라 따뜻하고 아늑하여 살기 좋다고 여겨 찾아온 사람들은 우물을 팔 수 없다는 말에 눈을 둥그렇게 떴다.

“एं터리 핑계를 대고 외지 사람들을 거부하는 마을이군.”

그들은 투덜거리며 떠나갔다.

참지 못하는 것은 마을 젊은이들이었다.

“근거도 없는 미신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는 격이지요. 나는 불편을 참고 살 수 없어요.”

마을 원로들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닐세. 예로부터 전해오는 금기는 모두 이유가 있는 것일세. 우물을 파서는 안 되네. 불편하더라도 참아야지.”

그러나 청년들이 점점 더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몰래 자기 집에 우물을 팠다.

“참으로 물맛이 좋군. 이렇게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는데 공연히 어리석게 살았지.”

그것이 조용히 입소문으로 퍼지고 또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팠다. 그리고 마침 일제에 의해 나라가 강제 합병이 되고 미신타파라 하여 전통 신앙을 억압하게 되었다. 그런 바람을 타고 사람들은 앞 다투어 우물을 팠다.

“아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을이 침몰하는 배처럼 무너지고 말 텐데.”

원로들이 탄식했으나 소용없었다.

몇 년 뒤 뜻밖의 일이 들이닥쳤다.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일본인 직원이 와서 말했다.

“이 마을은 모두 이사 가시오. 총독부 명령이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라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인데 왜 떠나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일본인 면서기는 들고 온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서부터 무덤이고개 너머까지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됐소. 명령을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할 거요.”

“농사짓던 땅은 어찌구요?”

“총독부 명령이니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항동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모여 앉았다.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모두 이사 가라니 어쩍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살던 땅에 군대가 온다니 이를 어찌합니까.”

사람들의 탄식을 듣고 원로들은 한숨을 쉬었다.

“힘없는 백성들이 어찌하는가. 왜놈들 감옥에 끌려가면 죽도록 맞아 살아나오지 못한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눈물로 이삿짐을 쌌다. 나라는 망했고 침략자 일본 군대가 주둔한다는데 저항할 사람은 없었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그리고 적당히 이사 비용을 주고 어디든 가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달구지와 손수레에 이삿짐을 싣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은 정든 마을을 떠났다.

“정든 고향아, 잘 있어라.”

그들은 고향집과 텃밭을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혹시 그 때문일까요? 우물을 파선 안 된다고 했는데 앞 다투어 팠기 때문일까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네. 옛날의 전설에서 금하는 것처럼 우물을 팠고, 몇 년 만에 마을이 침몰하는 배처럼 사라지게 됐으니 말일세.”

13. 계양산에 온 총렬왕과 제국공주

고려 때에는 매사냥이 성행했고 26대 총렬왕도 태자 시절부터 그것을 즐겼다. 그의 매사냥은 부평과 인연이 깊었다. 태자 시절에 그는 원나라에서 파견된 집정관인 다루가치(達魯花赤)와 함께 부평에 와서 매사냥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수행해 온 이집(李擢)은 다루가치와 태자에게 아부하려고 고니와 따오기들을 날개털을 뽑은 뒤 언덕에서 날리게 하여 매사냥을 쉽게 만들었다.

그 뒤 태자는 원나라에 볼모로 보내졌으며 거기서 매사냥을 즐겼다. 그는 원나라 세조(世祖)의 딸 홀도로계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공주와 결혼했고 부왕이 죽자 공주와 함께 귀국해 왕위에 올랐다. 고려에서는 몽고 공주 출신의 왕비를 원성(元成)공주라고 불렀으며 죽은 뒤에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라고 불렀다.

원나라와의 왕실 혼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고려는 역사의 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양국의 우호관계를 튼튼히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권신들의 세력에 억눌려 오던 왕실의 지위도 회복,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주성을 잃은 종속국으로 전락하여 이후 원나라의 많은 간섭을 받게 되었다.

공주가 몽고 양식의 생활을 하고 사사로이 부리는 사람도 원나라에서 데려오으로써 고려 왕실에는 몽고의 풍속·언어 등이 퍼지게 되었다. 총렬왕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총렬왕은 매사냥을 하고 싶어 못 견뎌 했다. 국영 매방이 서울인 개경에 있었다. 그런데 사육하는 매가 민가의 닭이나 오리를 공격하여 피해가 커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백성들 피해가 없는 한적한 곳에 매사냥 터를 만들어라.”

총렬왕은 명령했다.

임무를 받은 신하들은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부평에 와서 계양산을 보고 만족했다. 사냥감인 꿩과 비둘기와 토끼가 많고, 멀리 서해가 바라보이는 훌륭한 경치가 왕을 즐겁게 할 것으로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왕이 태자 시절에 다녀간 곳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몇 달 만에 계양산에 국영 매방이 생겼다.

왕은 다섯 차례에 걸쳐 이곳에 왔다.

“참 좋은 곳에 사냥터를 만들었군. 내 마음에 꼭 드네.”

왕은 몹시 기뻐했다.

어느 해 가을, 왕은 왕비인 원성공주를 동반하였는데 왕비는 사냥을 싫어했다. 그런데도 따라나선 것은 왕이 후궁 무비를 사랑하는 것이 싫어서였다.

임진강을 건너고 김포 통진에 도착해 하루를 묵었는데 공주는 먹고 자는 것이 불편하다며 노여움을 터뜨렸다.

“전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임무인데 어찌 사냥만을 즐기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이 불편한 곳까지 데려와 고생시킵니까?”

왕은 말 한 마디도 못하고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계양산 큰 고개에 도착하고서도 왕비는 매방 책임자를 꾸짖었다.

“이곳에는 꿩은커녕 거위 한 마리 없는데 왜 전하에게 사냥을 권하여 나까지 험한 길을 오게 한 것이냐?”

그리고 총렬왕에게 또다시 쏘아붙였다.

“전하가 사냥꾼 두목입니까? 왜 제왕이 왕도를 놓아두고 이런데 나온단 말입니까?”

총렬왕은 분하여 서리가 하얗게 깔린 풀밭에 그냥 주저앉았다.

“그래도 내가 고려 땅에서는 제왕인데 공주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왕비가 왕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합니다.”

걸핏하면 제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하는 공주 앞에서 총렬왕은 힘이 없었다. 공주가 돌아가면 원나라 황제는 책임을 물어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거나, 군대를 보내 제압할 것이었다.

왕은 묵묵히 앉아서 풀밭을 들여다보았다.

총렬왕은 왕비인 공주와 다투면서도 그 뒤에도 기어이 계양산에 왔다.

“나는 매사냥을 안 하면 좀이 쑤서 견딜 수가 없어. 왕비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어.”

그는 수행해 온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몽고에서 지내 말을 잘 났는데 그래서 때로는 말을 몰고 달리며 활을 쏘아 노루와 멧돼지도 잡았다. 그리고 이곳을 자랑스러워해서 원나라 사신을 데리고 온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지명 계양을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시켰다.

그 뒤 매방이 있던 곳의 고갯길이 경명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계양산 주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한자 지명보다는 ‘징맹이고개’라는 지명을 사용했다. 총렬왕이 매를 징발했다 하여 징매[徵鷹]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4. 온천을 메워 버리다

조선 왕조의 세종대왕은 학문에 열중한 탓에 눈병을 앓아 온천물로 목욕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한양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는 온천이 없는지라 궁궐을 떠나 먼 여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어느 신하가 아뢰었다.

“전하, 부평 땅에 온천이 있었다는 옛 기록이 있습니다. 부평 땅에도 그런 전설이 있다 하옵니다.”

대왕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걸 찾았으면 좋겠소. 짐의 눈병도 문제지만 온천을 찾으면 많은 백성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본격적으로 부평의 온천을 찾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 왕명은 부평부사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내가 다스리는 곳에서 온천을 찾는다면 역대 최고의 성군이라는 대왕 전하의 병도 고치고 내 공이 크게 빛날 것 아닌가?’

그는 옛 기록을 정리했다. 기록은 그 곳이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없었다. 막연하게 온천이 있었다는 기록뿐이었다.

‘그러면 전설을 더듬는 거지.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는 부평의 노인들을 모아 놓고 전설을 들었다.

한 노인이 말했다.

고려 중엽 부평의 옛 지명 수주에서 우연히 노천 온천이 발견되었다. 피부병에 특효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니 소문이 퍼져 나갔다. 그래서 당시 수도인 개경에서 많은 벼슬아치들이 찾아와 온천욕을 했다. 수주의 사또는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 각 고을의 대표들을 불렀다.

“고관들에게 잡자리와 좋은 음식을 헤드려야 한다. 그러니 고을마다 돈을 거둬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고을 대표들은 그렇게 대답하고 개경에서 온 고관들을 정성으로 대접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도 그들이 찾아와 크게 방해가 되었다.

“온천 때문에 못 살겠네. 온천이 있는 것이 우리 백성들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짐만 될 뿐이야.”

백성들은 중얼거렸다.

그러던 중 몽고 군대가 쳐들어와 모두들 피난을 가게 되었다. 늦게 피난을 떠난 농부 하나가 그 온천을 메워 버렸다.

“에잇, 근심거리니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전란이 끝나 다시 돌아온 수주 사또는 온천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당황하여 명을 내렸다.

“모두 나서라. 어서 온천을 다시 찾아라.”

그러나 온천은 수맥이 영영 묻혀 버려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조선 세종 때의 부평부사는 백성들을 동원해 전설이 남아있는 마을 이곳저곳을 파헤쳤다. 조짐이 있는 곳은 열 길 스무 길 파 들어갔다. 그러나 역시 온천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평부사는 실망하여 고개를 흔들었다.

“온천을 찾아 전하의 병을 고쳐드리고 나도 덕분에 더 크게 입신출세를 하려 했더니 다 틀렸군.”

그는 자신이 온천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기록한 일지를 조정에 올렸다.

조정에서는 더 이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2백 년이 지나 인조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 부평 땅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평지가 갑자기 열 길이나 꺼져 버렸다. 사람들은 이것이 큰 재앙이라 여겨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토지신이여, 노여움을 풀고 우리 마을에 불행한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제사 덕인지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구덩이에 흙을 메워 다시 평지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2백 년 전에 묻혀버린 온천이 대해 말했다.

“온천 때문일지도 몰라. 바로 이 자리가 온천일지도 모르는 일이야.”

“이백 년 전에 온천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땅을 파헤쳤기 때문에 이번에 꺼져 내린 것일 게야.”

이때에도 사람들은 전설 속의 옛사람들처럼 온천이 발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쉬쉬하며 온천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다.

15. 향교의 위패를 감추다

부평 유림에 송윤(宋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양 태생으로 관직에서 은퇴한 뒤 낙향하여 부평 향교에서 유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성격이 강직하고 확신에 찬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가족과 이웃이 모두 피난 짐을 꾸리는데 그는 초연하게 선언했다.

“모두들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나는 향교를 지킬 것이야.”

자식들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했다.

“청나라 군대는 유교를 숭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교에 불을 지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 향교를 어떻게 지킵니까? 아버지 목숨이나 가족 목숨보다 향교가 중요합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말했으나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렇다. 나는 향교가 목숨처럼 중요하다.”

가족이 떠나고 그는 의관을 정제하고 향교를 지켰다.

설마 했는데 청나라 군대는 부평부 관아와 향교에 불을 질렀다. 청나라 군대는 강화를 침공하려다가 포기하고 선조가 피신해 있는 남한산성으로 진공하다가 부평 땅을 거쳐 갔다. 그리고 방화를 한 것이었다.

“아, 공자님의 위패가 불타면 안 돼!”

송윤은 불타는 향교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가 공자를 비롯한 명현들의 위패를 안고 나와 계양산 경명현으로 올라갔다. 거기 있는 바위틈에 그것들을 숨겼다.

전란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유림들은 불타 버린 향교를 보며 대성통곡했다.

“건물이 탄 것도 큰일이지만 성현님들의 위패를 태웠으니 이런 황공할 일이 또 어디 있어!”

송윤은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계양산으로 올라가 위패들을 모시고 내려왔다.

그리고 불탄 향교 재건운동을 벌여 향교를 복원했고, 거기 위패들을 모셨다. 그리하여 그는 부평 유림의 대표 인물이 되었다.

그 후 그의 이름은 부평 유림 명부에 제1호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조정이 내리는 중추부사라는 벼슬을 받았으며 90세까지 장수했다.

그가 명현들의 위패를 숨긴 계양산의 바위틈을 부평 사람들은 ‘공자지원(孔子之原; 공자의 언덕)’이라고 불렀다.

16. 천마와 아기장수

계양산에서 큰 활기가 서쪽으로 뻗쳐와 형성된 천마산의 원래 이름은 천마산(天馬山)이었다. 이곳에 천마가 살았다는 전설, 그리고 이 산의 남쪽 아래에 아기장수가 태어났었다는 전설이 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 산속에는 양어깨에 날개가 달린 천마가 살았다. 그러나 그 모

습을 사람들에게 가깝게 보인 적은 없었다. 이따금 말 울음소리가 들리고, 동이 터 오는 새벽하늘에 날개를 힘차게 저으며 날아가는 말을 멀리서 본 사람은 더러 있었다. 사람들은 구태여 찾아 올라가 천마를 보려 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고 극성스런 청년들이 온 산을 헤매었으나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근처에 영웅이 태어나고, 그 말을 타고 출정할 것이라는 신령스러운 전설 때문이었다.

조선 중기, 남쪽 아랫마을에 사람들이 몇 가구를 이루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천마산에서 버섯이나 나물을 캐며 살았다. 그들 가운데 젊은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건강하고 착했으며 아내도 부지런하고 암전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부부였으나 결혼 십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호랑이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꿈 꾸는데다 몽롱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듯한 알 수 없는 기운이 몸에 느껴졌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자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새벽에 길몽을 꿴어요. 아기를 가지려나 봐요.”

꿈 내용을 들은 남편은 희색이 만면했다.

“태몽이면 얼마나 좋겠소?”

부부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여쭙었다. 모두들 아들을 얻을 좋은 태몽이라고 했다.

아내는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지냈고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남편은 아내와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고 아내도 길쌈을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천마산 깊은 골짜기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그것은 조용히 새벽 공기를 흔들며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압하는 소리가 아니라 천상에서 울리는 음악처럼 아름답고 품격이 높게 느껴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상서스러운 소리였다.

그날 낮, 젊은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

산파역을 맡은 할머니가 말했다.

“고추예요. 튼실한 고추를 달고 나왔다고요.”

아기 엄마와 아버지는 삼신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삼신할머니, 이렇게 튼튼한 아들을 점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기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총명해 보였으며 어깨도 넓었다. 아기의 큰아버지 큰어머니 등 일가친척들도 달려와 늦게 아들을 얻은 부부를 축하했다.

아기의 몸을 씻고 배내옷을 입히던 산과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를 좀 봐요. 아기 등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징조로만 여기고 미소를 교환했다.

아기는 범상하지 않았다. 열흘 만에 걸었으며 한 달 만에 뛰어다녔다. 그리고 백일이 되자 땃돌을 번쩍번쩍 들어 올렸다. 몸도 민첩해서 방바닥에서 벽을 타고 달려 올라가 천장을 타고 뛰다가 반대편 벽을 타고 뛰어 내려왔다. 초가지붕 위로 휘휘 날아올랐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천마산 꼭대기로 달려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경탄했다.

“아아, 우리 마을에 아기장수가 태어났구나!”

아기장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관아에까지 전해졌다. 고을 사또는 몸소 가마를 타고 마을로 와서 아기를 보고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다. 아기장수가 나오면 역적이 되어 나라를 해친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그는 아기장수가 콩을 한 줌 뿌리면 그것이 병사가 되고 팔을 한 줌 뿌리면 그것이 모두 군마가 되어 막강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있었다.

그는 아기의 친척 중 가장 나이가 든 어른에게 말했다.

“아기를 광에 가두어라. 내가 조정에 보고를 하면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만약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일가가 능지처참당할 것이다.”

사또가 돌아간 뒤 아기장수의 부모는 아기를 광에 가두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아기장수를 죽이기 위해 서울에서 관군이 달려온다는 것이었다. 아기장수와 함께 일가를 모두 죽일 것이라는 말도 들렸다.

아기장수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기야, 나를 용서해라. 내가 관군에게 잡혀 죽고 일가가 몰살당하느니 너의 목숨을 내가 끊는 게 낫다.”

아기장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저를 묻을 때 콩 다섯 섬과 팔 다섯 섬을 같이 묻어 주세요.”

아버지는 아기장수를 다듬잇돌로 눌러 죽이고 땅에 묻으며 콩과 팔을 함께 묻었다.

이튿날 관군이 도착했다.

“어서 아기를 내놓아라.”

아기장수의 집안 어른들은 관군 장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죽였습니다요. 나라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하여 아버가 돌로 눌러 죽이고 묻었습니다요.”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의 후환을 없애고 우리 관군의 수고를 덜어주었으니 잘한 일이도다. 무덤으로 나를 안내하라.”

관군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기장수가 살아 있고, 아기와 함께 묻은 콩은 군사가 되고 팔은 군마가 되어 막 아기장수를 호위하여 일어나려는 것이었다.

관군 장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서 진압하라. 어서 저 역적들을 죽여라!”

아기장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나를 역적이라 하십니까. 머지않아 조국에 쳐들어올 적군을 맞아 싸우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관군은 칼을 내리쳐 아기장수를 죽였다.

그때였다. 천마산 골짜기에서 천마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흔들며 들려왔다. 관군과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다. 천마가 힘차게 날개를 휘저으며 달려와 아기장수의 무덤 위를 선회하는 것을. 천마는 한나절 동안 그렇게 하늘을 날며 슬피 울다가 땅으로 떨어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장수의 무덤 옆에 천마를 묻어 주었다.

몇 해 뒤, 왜군이 쳐들어왔다. 조선의 군대는 왜군을 당하지 못해 수많은 목숨과 조선의 강토가 그들의 발굽에 유린되었다. 사람들은 탄식했다. 아기장수가 살아 있었으면 천마를 타고 날아다니며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을 것이라고.

17. 안아지고개의 도둑

조선 고종 때에는 원적산의 안아지고개에 도둑이 끊었다. 20리나 되는 한들 마을(현 서구 백석동)까지 진출해 민가를 털자, 마침 고향집에 와 있던 조정의 감역(監役) 벼슬을 하고 있는 심 씨가 호통을 쳤다.

“이놈들, 불쌍한 민초들의 재물을 털다니 너희가 사람이냐?”

그러자 도둑 두목은 그 자리에서 심 감역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달아났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조정은 대책을 논의했다.

“누가 그 도둑들을 토벌할 것인가?”

임금이 근심하자 조병하가 나섰다.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꼭 도둑을 토벌해 전하의 근심을 덜겠습니다.”

조정은 부평부사를 면직시키고 그를 후임자로 제수했다.

조병하 부사는 부평부사로 취임하자마자 안아지고개의 도둑 두목을 잡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지혜로운 관장이어서 선부르게 나서지 않고 미리 두목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지난날 안아지고개에서 줄개 노릇을 한 자를 붙잡아 심문했다.

줄개는 이마를 땅바닥에 박고 목숨을 애걸했다.

“사또 나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이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제대로 답한다면 목숨은 살려 주마. 그리고 네 공로로 두목을 잡는다면 죄를 용서하고 상금을 내릴 것이니라.”

부사의 말에 줄개는 머리를 조아렸다.

“물으시는 대로 사죄하겠습니다.”

“두목의 용모에 대해 말해 보아라.”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몸이 호리호리하고 눈빛이 날카롭습니다요. 저희 수하들이 판 생각하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차립니다요.”

“그 놈이 축지법을 쓴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요. 바람처럼 빠르게 달립니다요. 자기 말로는 하루에 오백 리 길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요.”

“자, 모든 것을 말하여라. 그놈이 걷는 버릇, 밥 먹을 때의 행동, 잠자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말하여라.”

조병하 부사는 줄개로부터 들은 것을 살살이 기록해 두었다. 그는 수하에 많은 나졸을 거느리고 있었고, 서해안에 배치된 군사기지에 병력을 요청할 권리도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치밀했다.

그가 부임한 뒤에도 안아지고개 산적의 민가 털이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두목은 하나의 산맥으로 이어진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을 무대로 신출귀몰하게 움직였다. 그자가 이 마을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포위망을 치면 산 너머 엉뚱한 곳에 나타났다.

조병하 부사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목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면서 생포 당해 오는 도둑들을 치밀하게 심문했다.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그는 이상한 이야기를 생포한 줄개로부터 들었다. 두목의 이상한 버릇이었다.

줄개가 말했다.

“두목은 도둑질 나가는 걸 출행이라고 합니다요.”

“그건 나도 들어서 안다. 출행 나갈 때 하는 버릇이라도 있느냐?”

“작은 호리병에서 기름을 손바닥에 부어 손 전체를 문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조병하 부사는 그냥 웃어 넘겼다.

“하하하, 참기름을 손에 바르면 민첩해진다고? 참으로 엉뚱한 놈이로구나.”

부사는 다시 한 달 이상을 도둑 두목과 머리싸움을 벌였다. 그는 예감이 있는 곳에 미리 나졸을 배치하고 어떤 때는 예감이 전혀 없는 곳에 배치하여 두목을 혼란시켰다.

결국 안아지고개 두목은 눈이 내린 날 붙잡혔다. 부사의 명으로 나졸들이 일부러 눈 위에 계략적으로 거짓처럼 찍어놓은 발자국을 보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여 그 곳을 통과하다가 붙잡힌 것이었다.

조병하 부사는 도둑 두목을 대면하는 순간 혀를 찼다.

“과연 민첩하고 총명하게 생겼구나. 너 같은 자가 병사가 되어 복무한다면 나라 일이 오늘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깝구나.”

도둑 두목은 형틀에 목힌 채 고개를 들었다.

“사또 나리, 아까울 것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초들이란 벌레만도 못합니다요. 부모가 굶어 죽고, 아내는 양반에게 겁탈당해 자결했는데 이 한목숨이 어찌 아깝습니까?”

“네놈이 죽음을 앞에 두고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죽을 몸이니 마지막 소원이나 말하여라.”

조병하 부사가 말했다.

“고아가 되어 외가에 맡겨져 있는 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와 있다. 만나 보아라.”

아들을 만나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도둑 두목에게 부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었다.

“네놈이 출행할 때 손에 기름을 발랐다는 게 사실이더냐?”

“그렇습니다.”

“무슨 기름이냐?”

“쥐 기름입니다요.”

“왜 쥐 기름이냐.”

“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니까요. 저는 제가 늘 쥐라고 생각하며 뛰었습니다.”

“그랬겠구나. 너는 정말 쥐처럼 민첩하고 영리했지.”

조병하 부사가 두목을 잡아 처단하자 안아지고개의 도둑 떼는 사라졌다.

18. 구렁이를 쏘다

부평의 계양산 가까운 곳에 심일(深逸)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옛날에 이 마을의 류(柳)씨 집안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늙름한 장사가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대범하여 장차 큰 군대를 이끌 장군이 될 듯하여 사람들은 그를 ‘류 장사’ 또는 ‘류장군’이라고 불렀다.

“이다음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우리 마을을 빛내고 부평 고을을 빛내고 나라를 빛낼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무관을 뽑는 과거시험에 나가려고 열심히 병서를 읽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무예를 다듬었다. 청년이 되어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무과 시험에 응시하려고 큰 활을 메고 한양으로 떠났다.

“아버님 어머니, 과거에 급제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다.

“오냐. 어서 가거라.”

부모는 여비를 넉넉히 주어 보냈다.

그는 집을 떠나 드넓은 부평평야를 가로질러 걸었다.

그가 무지개 모양의 한 다리를 막 건너는데 구렁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았다.

“나는 청운의 뜻을 품고 과거 보러 가는데 네가 길을 막느냐.”

류 장사는 활을 쏘아 명중시켰다.

구렁이는 허리를 비틀다가 화살을 몸에 박은 채 간신히 기어갔다. 혀를 날름거리며 이따금 그를 돌아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왔다.

“나를 원망하는 듯하구나. 내가 큰일을 앞두고 부정 탈 일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류 장사는 그런 생각에 다시 활을 재어 쏘지 못했다. 문득 오래된 구렁이는 영물이며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옛날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 까치를 잡아먹는 구렁이를 죽인 사람이 밤중에 깨어보니 자신이 죽인 구렁이의 아내 구렁이에 친친 감겨 있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까치가 은혜를 갚아 절의 종을 울림으로써 살아났다는 전설이었다.

류 장사는 한양에 도착해 무과 시험에 응했다. 그러나 검을 갖고 하는 시험도, 활을 쏘는 시험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가 휘두르는 검은 엉뚱하게 목표를 빗나갔으며 쏘는 화살은 과녁까지 가지도 못하고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아아, 경솔한 내 행동이여.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그는 탄식하며 터덜터덜 실망한 채로 귀향길에 올랐다.

집에 돌아온 그는 계속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불면증이 심했다. 그는 몸이 점점 야위어 갔다.

류 장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에 실패해 실망해 몸이 야위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들을 불러 앉혔다.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느냐. 썩썩하고 대범하던 네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느냐. 왜 깜짝깜짝 놀라고 식은땀을 흘리느냐. 어서 말을 해 보아라.”

류 장사는 뺨을 쓴 사실을 말했다.

“저런, 네가 큰 잘못을 했구나. 어서 그 구렁이를 찾아가 보아라.”

어머니는 아들을 재촉했다.

류 장사는 지난번 과갓길에 구렁이를 쏜 자리에 가 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 구렁이를 보았다. 구렁이는 몸에 화살을 박은 채로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그의 주변을 빙빙 돌았다.

“구렁이야,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류 장사는 구렁이의 몸에 박힌 화살을 빼주며 말했다.

조금 안심한 채로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방이며 헛간이며 마당이며 장독대며 온통 화살 박힌 구렁이가 가득했다.

“저기 저 구렁이들, 무서워요.”

류 장사는 소리치며 눈을 감았다.

이상한 것은 그 구렁이 무리들이 다른 가족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몇 달이 그렇게 지나가고, 용감했던 류 장사는 실성하여 집을 떠났고 어딘가에 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 사람들은 구렁이를 외경스러운 동물로 보고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도 나이 많은 이 마을 어른들에게도 남아 있다.

19. 신비한 절터

부평에서 인천 쪽으로 원티고개를 넘어가기 직전 지역, 열우물[十井洞]에 큰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이곳에는 빈대 때문에 망했다는 개국사(開國寺) 절터가 있다. 그 옆에는 사람의 마음을 외경스럽고 경건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가진 빈 터가 있다.

옛날에 이 개국사에 가서 백일기도를 올리면 소원성취를 하거나 도(道)를 터득하게 된다 하여 전국에서 신도들이 밀려왔다.

“나는 병든 아버지를 낫게 하려고 기도하러 왔어요.”

“나는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신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절에 묵게 해 달라고 스님들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괴이하게도 백일기도를 끝까지 수행한 사람은 없었다. 백 일째가 되어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면 호랑이에게 잡혀먹거나 벼락을 맞고 죽었다.

“중생의 기원은 간곡한 것인데 왜 마지막 날 횡액을 당합니까. 이것도 부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량은 어떻게 신도들을 맞으며 어떻게 탁발을 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주지스님이 탄식했다.

그러나 횡액은 계속되고 마침내 신도들의 발길은 끊어졌다.

그런 불길한 전설이 있는데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하나가 여기 와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70일 만에 미치광이가 되어 버렸다.

그 뒤 이 사찰은 빈대가 끊어 문을 닫고 폐사가 되었다고 전하는데 과연 빈대 때문인지, 그런 불길한 일들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절터와 옆의 빈터가 외경스러움을 안겨주는 곳이라서인지 한동안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찾아와 기도를 하고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찾아보기

APO 901	286	공수부대	144
CGV 부평	362	공해루	473
가는패	439	구사택	137
갯꽃	437	구창모	15, 310
검정사택	14, 123	국민주택	155
겨울새	398	국산자동차주식회사	128
겨울의 끝	398	골포천	41
경명현	471	규찰을 서며	411, 412
경원대로	148	금마총	180
경인고속도로	101	금성극장	350
경인운하	479	기세배	23
계양	381	김국환	160
계양산	471	김면지	15, 317
고스트 브라더	397	김미순전	460
고양이를 부탁해	365	김민기	446
곤 와지로	136	김삼순	15, 288
골목	190	김안로	479
공단 마을 아이들	462	김영식 신부	165

김윤옥	289	다다구미	14, 123, 127
김정희 목사	171	단오놀이	75
깊고 긴 골짜기	398	달동네	157
까치파	437	달무리	399
나의 슬픈 반생기	404	달집태우기	72
낮은 집	414	닭장집	430
내추럴 푸드	304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418
네오씨네플렉스	362	대열	460
노동가요	424, 445	대우자동차	440
노동문학	409	대장바위	492
노동미술	424, 436	대한극장	357
노동미술굿	442	대한염업주식회사	93
노동시	424, 453	대한주택공사	136
노동운동	409	대한주택영단	135
노동해방 가요제	449	도개비시장	124
노뚝들	450	도쿄제강	124
노래를 찾는 사람들	451	동 풍물연합회	57
노래선언	450	동 풍물패	50
노래패	452	두레 파접	98
논두렁	436	두레짜기	22
농기	26	두레패	28
농기고두마리놀이	40	두벌매기	38
농성장에서	440	드뇌 신부	164

들풀	450	박영근 전집 1	460
디젤자동차공업	128	박영근 전집 2	460
락캠프	304	박응삼	173
레이디버즈	290	박희방	473
롯데시네마	362	발두령	436
막걸리	112	백마극장	353
만월당	180	버텨라인	313
망루의 결사대	337	법운 스님	173
먼지가 부르는 차돌맹이의 노래	461	별빛당	180
멀티플렉스	361	병참기지화	286
몸돌소리	39	보리수다방	410
몸의 중심	462	보리피리	403
묘지공원	179	부일초등학교	168
무념이고개	480	부평 4공단	416
무속인	175	부평 4공단 여공	416, 462
무형문화재 제26호	60	부평 공소	164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418	부평 술아 술아 음악제	452
미8군 부대	292	부평 향교	501
민영환	286	부평감리교회	166
민중문화운동연합	433	부평경찰서	410
민중문화운동협의회	436	부평공단	411
박문여자중학교	165	부평구립풍물단	57
박영근	413, 451	부평구문화재단	13

부평극장	343, 348	산곡시장	429
부평두레놀이	21, 26, 317	산동동향회관	182
부평두레놀이보존회	61	산하	448
부평문화원	13, 57, 108	삼릉사택	125
부평문화재단	57, 419	삼산두레	29
부평밴드페스티벌	66	상록수	446
부평 본당	165	상이용사	160
부평산업공단	427	설화	470
부평삼능교회	170	성계원	405
부평술아술아음악제	65	성광학원	182
부평수리조합	40, 95	성습지	92
부평수리조합농민운동	432	성호숙	438
부평시장	410	세벌매기	38
부평역사박물관	75	세시풍속	72
부평영화극장	16, 339	세월호추모관	180
부평지하호	109	세종대왕	499
부평청소년페스티벌	62, 69	소래포구어시장	111
부평토굴	109	소리샘	450
부평평생학습축제	77	소성주	14, 112
부평평야	48, 408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451
부평풍물대축제	13, 48	술아술아음악제	62
뷰티 인사이드	368	송골매	312
블랙테트라	311	송병준	86

송윤	501	염부장	93
씻물처럼	411	염전제	90
수주	381	엽기적인 그녀	364
승화원	180	영단주택	14, 123
시네마 천국	328	영화진흥공사	348
신사택	137	예술숲	317
신상옥	395	우리문화사랑회	433
신천성결교회	168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	411
심일	508	원적사	490
써레질	36	원적산	470, 486
아기장수	504	원통현	479
아침이슬	446	원티고개	478
아카닥	287	윗열우물	157
악의 연대기	368	유니버설 클럽	313
안아지고개	506	은광동	368
안치환	451	은밀하게 위대하게	366
애벌매기	38	이규보	387
애스컴 시티	15, 66, 286	이규원	392
어느 돌맹이의 외침	410	이득찬	346
언노운	419	이력서	455
여가	405	이만신 목사	169
연백성모원	165	이원규	398
연안부두어시장	111	인부좌	334

인천가족공원	179	정월대보름	72
인천미술인협의회	441	정유천	15, 300
인천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	434	정학진	167
인천산업선교회	438	정화진	410
인천성모병원	165	제염소	94
인천육군조병창	48, 109	조선영화령	337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연합	450	조선주택영단	129
인천탁주합동회사	112	조영관	461
인천탁주협회	118	주부토	381
일꾼의 노래	447	주안염전	13, 84
일본인 공동묘지	183	중심성	473
임양성	343	쥐불놀이	72
임종국 신부	165	지옥화	395
장리쌀	107	차차차 오남매	15
장사굴	476	천마산	504
장산꽃매	364	천일염	84
장제	381	철도관사	14, 123
저 꽃이 불편하다	460	철마산	470
전통문화연구모임	432	철의 노동자	450
전학준	164	청소년한마당축제	70
정두원	483	청천시장	429
정세훈	416, 454, 461	초록누리축제	64
정양원	161	최도은	451

최은희	395	한국GM	49
최이	479	한국수출산업공단	410, 428
최충현	479	한남정맥	470
추모의 집	180	한다 전시로	95
축제위원회	54	한독금속	439
춘일지지	407	한하운	402
총렬왕	499	한고방(하코방)	148
취업 공고판 앞에서	413, 460	해방공장	391
캠프마켓	66	햇살	448
키넥스	362	허정선	15, 313
터치	365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330
통감부	87	헛스윙밴드-재즈는 울지 않는다	419
통진두레놀이	43	호미씻이	24, 25
파랑새	403	호명사	173
파업전야	363	홍은파	167
평온당	180	홍은파 담임목사	173
포 핸디	296	홍중사택	125
품앗이	34	홍창준	167
하인즈 인수 펜클	397	화랑교회	160
한강농지개량조합	105	화랑농장	108, 160
한걸음	450	황토길	404
한광오	15, 296	휴식시간	440
한광오와 한마음	298	힘찬 울림	450



집필위원(가나다순)

송용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문학평론가
이원규 소설가 (사)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장유정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한재연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강사

부평사 2권

부평의 문화와 예술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
전화 032-505-9001

디자인·편집·인쇄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퍼스텍 빌딩
전화 02-786-2999

ISBN 979-11-5698-334-7 94300
979-11-5698-332-3 94300(세트)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